

군선교 신학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6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군선교 신학

6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 교회 군선교 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 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 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 사역 중보기도 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방혜세력 결박)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 복음화를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 건설)
3. 매년 20만 명 진중세례(침례) 목표 인원 결실을
4. 매년 20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
리기 5대 프로그램 실천을
5.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
도 등 10대 프로그램 실천을
6.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7. 28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 사역 헌신을
8.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량한 생활 등 기독문화 창달을
9. 모범 국민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10.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 청년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
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은 1951년 군종목사 제도가 창설된 후 군대라는 특수 사회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고취함으로써 장병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고예방과 건전한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군종활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은 결코 밝은 전망을 예견할 수 없는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간부 중심의 인적구조 개편과 군 복무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전은 공·해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육군 중심의 군선교 전략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군선교 현장에서의 종파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단 사이버의 침투는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집요함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은 이 때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은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 군선교신학 정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함과 군선교신학 논문을 공모하여 군선교신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군선교 사역의 확고한 기반 조성,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및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을 위하여」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군선교신학 논문집 제6권에는 군종 제도 57년을 맞으며 병역 제도, 군종 제도, 연합을 통한 군선교 사역에 대한 주옥같은 논문들이 실렸습니다. 논문은 21세기 군선교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과 국가 공인 엘리트 청년들을 모범국민으로 육성하여 건강한 국가와 밝은 사회로 환원시킨다는 구체적이며 분명한 사역의 방향과 방안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 군선교신학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군선교신학회 회장 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쿤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 목사님들과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5월 8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 선 희** 목사

발간사

한국군선교신학회가 올해에도 군선교신학 정립을 위해 논문집을 출판케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병역 제도와 연합을 통한 군선교 그리고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 제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연구위원들의 옥고를 실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한국 군선교신학 책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의 연구는 원인의 연구(The study of history is a study of causes)라 했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끊임없이 왜(why)라는 질문을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의 규명은 과거 사실에 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설명된다.

먼 훗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려면 아마도 《군선교신학》을 들쳐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오늘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왜 그런 해답이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그것은 우리의 이상이고 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계시이며 비전이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이 미완의 사명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쉬임없이 기도하듯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귀한 논문을 써주신 분들께 독자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후방에 흠어져서 복음 증거에 혼신의 정열을 쏟고 있는 군종목사님들과 군종하사관님 그리고 군종 사역에 힘을 합친 민간인 사역자 여러분의 군종 사역에 이 작은 책자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감사할 뿐이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빈다.

2008년 4월 10일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이 중 윤 목사

Contents

- 2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4 | 인사말
- 6 | 발간사

- 9 |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 (이종윤 목사)
- 28 |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김성봉 목사)
- 49 |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논찬) (강사문 목사)
- 54 |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최희범 목사)
- 71 |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 75 |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 제도
- 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 (이종윤 목사)
- 93 |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 제도(논찬) (정성구 목사)
- 98 |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박(反駁) (이규철 목사)
- 124 | 국내외의 군소 이교(異敎)와 이단(異端) 집단들
고찰(考察)(2) (박영관 목사)
- 157 |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강사문 목사)

175 |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전호진 목사)

198 | 군교회와 노년기 (유기식 군종목사)

227 |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 (최석환 군종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이종윤 목사



I. 누가 오늘날의 바알인가?

우리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칠천 인”에 대한 성경의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BC. 870-851)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이후, 바알의

■ 이종윤 목사

- 영국 성 앤드류스 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 대학교 수학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칼로 쳐 죽였다’(왕상 18:40, 19:1)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신에게 엘리야에게 가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왕상 19:2)고 전하도록 합니다. 이 소리를 전해 듣고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합니다(왕상 19:3-8). 엘리야가 호렙 산 골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9, 병행 13절)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답변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왕상 19:10, 병행 14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잘 왔다, 여기서 쉬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왕상 19:15)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시대적 정황을 연관시켜 볼 때,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였으며,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서는 ‘누가(Who)’ 혹은 ‘무엇(What)’이 ‘바알’과 같은 존재인가? 그리고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며, 또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과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발제자는 아래에서 우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원인을 살펴보고, 그 다음 그들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국 근대사와 비교해봄으로써,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동시에 남북 통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룰 수 있을지, 그 신앙의 준거(準據)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야웨의 대적자인 이방신 바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야웨’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섬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5)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렘 7:23, 이 밖의 여러 곳)이라는 것이 명백한 신앙적 관계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초의 신앙고백인 신명기 26장 5-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 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신 26:5-9).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고백에 의하면, ‘여호와’는, 두 말할 여지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성실히 인도하고, 보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창 17:5-8)¹⁾. 한 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반면에 ‘바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알’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BC. 870-851)의 아내이자, 시돈(페니키아) 사람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여온 이방의 신입니다(왕상 16:31).²⁾ 그녀는 사마리아에 제단을 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1) 창 17:5-8,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숭배하도록 적극 장려하였습니다(왕상 16:31-32, 참조 왕하 10:25-28)³⁾.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왕상 18:4). 그렇지만 ‘바알 숭배’는 ‘이세벨’로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일찍부터 섬겨오던 ‘신’입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바알 숭배’를 본받아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삿 6:25-27).

그런데 ‘바알’이란 히브리어의 의미는, ‘주인’ 더 자세히 말하면, ‘소유주’(Besitzer)를 의미합니다. 즉 ‘집의 소유주’(출 22:7), ‘가축의 소유주’(출 21:28), ‘우물의 소유주’(출 21:34), ‘재물의 소유주’(출 21:34) ‘성읍의 소유주’(수 24:11), 심지어는 ‘여자의 소유주’(창 20:3; 출 21:3, 22; 신 22:22, 24:4 이밖에도)라는 뜻도 있습니다.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알’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를 내리어, 농사의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업의 신 ‘바알’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가을 추수 때 풍성한 결실과 자손의 번성을 고대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각종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점을 사사기 10장 6절 이하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

2) 시돈은 페니키아 해안가 북쪽으로 두로에서 36Km 떨어진 곳이다.

3) 왕상 16:31-3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4) De Moor, ‘בָּאָל’, ThWAT, Sp.706-718.

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삿 10:6-7, 10).

그러나 시시 때때로 ‘비’를 내리시고, 다산의 축복과 농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백히 증명해 보여 준 것이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인 ‘갈멜 산’의 대결입니다(왕상 18:19)⁵⁾. 갈멜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 어주시어,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활음’(왕상 18:38)으로써 ‘여호와’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 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웨 하나님과 바알의 이러한 대립관계는 사실상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대립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Ⅲ. 신앙의 분열로 인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강력한 통일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는 이방의 여러 잡신들이 솔로몬의 처첩(妻妾)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방 잡신들의 수용은 곧바로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⁶⁾ 솔로몬 왕이 죽자 곧 잇따라 일어난 남북 분열 사건들에 대한 기술은 열왕기상 11장 26-28절, 40절에 있는 여

5) A. Alt, *Das Gottesurteil auf der Karmel*, 1935, KI Schr. II, pp. 135-249; R. Kittel, *Gestalten und Gedanken in Israel. Geschichte eines Volkes in Charakterbildern*, 1925, 159-182(Siegfried Hermann,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방석종 역, 『구약시대 의 이스라엘 역사』, (나단출판사 1989), p. 257, 각주 12에서 재인용).

6)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사에 관하여: 김창락,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사 - 통일의 노력과 그 실패의 역사’, 〈신학사상〉 71집(1990), pp. 899-925.

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와 선지자 ‘아히야’의 옷을 찢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계시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
만 들에 있었다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
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왕상
11:29-32).

여기서 여호와와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이 찢겨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⁷⁾ 왜냐하면 끝이
어 이어지는 문장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 북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
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
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왕상 11:33). 다시 말해서 ‘아
히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
리고 이방 잡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에서 스스로 찢겨져 나갔
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하게 선지자 사무엘도
자신의 겹옷자락이 찢어진 것을 사울의 왕권이 다른 사람(다윗)에게 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삼상 15:27b-28).⁸⁾

7) Martin Noth, *Königsl Könige* 1-16], BK IX,1, 2.Aufl., Neukirchener Verlag, 1983, p. 259.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이 다름 아닌 신앙의 분열이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이 ‘벧엘’ 과 ‘단’ 에 성소를 세우고, ‘금송아지’ 를 만들어 그곳에 두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왕상 12:29). 이 점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
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
는 단에 둔지라”(왕상 12:27-29)⁹⁾.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와 선지자 ‘아히야’ 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던 것처럼, 결국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잡신, 특히 ‘바알’ 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10지파(찢어진 옷 열 조각)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2지파(찢어진 옷 두 조각)로 분열되었습니다.¹⁰⁾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 926년 왕국이 분열된 데서부터 시작하여 722년 사마

8) 삼상 15:27-28,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길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은 G. Hölscher, *FRL 36 I*, 1923, p. 180(Matin Noth, *op. cit.*, p. 259에서 재인용).

9) 여로보암은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출애굽의 역사’ 를 금송아지에게 돌린 것처럼(출 32:4), 출애굽의 하나님을 ‘금송아지’ 에게 돌리고 있다.

10) 열왕기상 11장 32절을 근거로 없어진 한 조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혹자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파에서 제외되었다는 견해, 혹자는 아직 솔로몬이 살아 있어서 그 지파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M. Noth, *Könige*[BK 9], pp. 258-264; J. Debus, *Die Sünde Jerobeams*, *FRLANT* 93, 1967, 12f.; S. Herrmann, *Geschichte Israels-Möglichkeiten und Grenzen ihrer Darstellung*, in: *ThLZ* 94, 1969, p. 649.

리아가 멸망하기까지 20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정치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바알 신에 대한 숭배로 인하여 서서히 쇠퇴하여 결국 앗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¹¹⁾ 특히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라” (왕하 17:16-18)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은 신앙의 분열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잡신을 섬기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에서 신앙의 분열은 곧 바로 정치적 분열로 이어졌으며, 신앙의 부패는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공산주의를 앞세워 신앙 자유를 말살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기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허상을 바알 신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하나님 신앙이 점차 세속화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속화 물결을 우리는 또 다른 바알로 보고 이 같은 세속주의 망상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시대의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여호와와 이름으로 단죄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고 확산시킴으로 복음화된 통일

11)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열왕기하 17장에 기술되어 있다. Antonius H. J. Gunneweg,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fängen bis Bar Kochba*, 문회석 역 《이스라엘 역사 : 고대로부터 바 코르바까지》(한국신학연구소), 1996, pp. 192-203.

조국 실현을 위하여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IV. 신앙 통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모색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아히야’가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로 남북 분열을 상징적으로 계시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일에 대한 계시 역시 상징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환상 속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겔 37:16-22).

이러한 예언 속에 나타난 두 ‘막대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7)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본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짝’으로서 동일한 ‘막대기’, 곧 ‘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의하면, 통일의 주체는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일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겔 37:19). 여호와 하나님이 통일의 주체라는 것을 곧 이어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겔 37:20-22).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나라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하는 ‘통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여기서 일체의 모든 인간적 노력은 배제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는 통일국가 형성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상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서 고국으로 돌아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한 임금의 통치 아래서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은 포로후기

주전 400여 년경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쓴 역대기 사가에 의해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역대기 사가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사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¹²⁾

우선 포로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골라’)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스 1:3)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 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합니다(참고 스 1:5, 7:13).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스 2:70, 3:1, 6:16, 7:13, 8:35, 9:1; 느 1:6, 7:7, 13).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해방이후 성전 건축과 성전 재건축 사업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참을 거부한 것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인 혼합 민족이었기 때문에(왕하 17:24), 유일신론자들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참고 왕하 17:29-34a, 41). 솔로몬 이후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로 나라가 멸망한 경험을 가진 ‘여호와와의 백성’ 들로서는 민족적으로 혼합되고,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

12) ‘온 이스라엘 사상’에 관하여: 임태수, ‘이스라엘의 통일신학’, <신학사상> 71집(1990), pp. 877-898.

마리아 사람들의 청을 수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북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의 반열에 속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15년 예루살렘 성전 봉헌을 하는 날, 남쪽 두 지파만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숫염소 열두 마리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스 6:17b).

특히 에스라 6장 19절 이하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골라’)은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골라’ 이외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스 6:21, 참고 느 10:28)라고 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통일된 조국의 꿈을 이루어갈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뭉쳐서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며, 한 분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임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한 분 다윗 왕조의 백성들로, 하나의 율법을 강조하며 민족의 신앙적 통일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V. 한(韓)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제 끝으로 대한민국 근대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역사, 그리

고 남북의 분열과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왜 반드시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나서 9년째 되던 해, 1919년 3월 1일 자주 독립운동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일 독립운동은 ‘천도교’, ‘불교’ 그리고 여러 종교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거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민족 운동의 핵심과 경로는 ‘기독교’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장로교 ‘의산(義山) 노회’의 보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¹³⁾ 그러나 교회가 삼일운동뿐만 아니라, 조선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는 것은, 단지 독립선언서에 16명의 교회 인사가 서명하였다는 것 외에 삼일운동 이후 전개된 일본 제국의 한국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명백히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는 독립 운동의 영감과 동력을 부여하는 배후 세력을 교회로 보고, “경찰과 헌병과 병력으로 교회를 때려 부수고 종답과 성경책들을 산산조각 냈으며, 검거 선포 역시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¹⁴⁾ 그 전형적인 탄압사건이 바로 수원(水原) 부근에 있는 제암리(提岩里) 교회당의 소실과 대학살 사건입니다. 일제의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잔악무도했는지, 친일파 미국 목사 굴릭(S. L. Gulick)마저도 “훈족과 터키족이 이 이상 비도(非道)하였으랴……”고 탄식하였습니다.¹⁵⁾ 더욱이 일제는, 해방이후에야 비로소 마펫(S. H. Moffett) 선교사의 증언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지만, 1945년 8월 18일을 기해

13) 장로교 ‘의산(義山) 노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三月 一日 一時에 全朝鮮의으로 人心이 一轉하여 ~ ~ 을 宣言하고, 萬歲를 並唱하다. 大抵 此事는 全朝鮮民族의 同一한 思想과 同一한 氣分으로 協力 共振한 것인데, 특히 敎會가 運動의 중심으로 …”(義山老會 報告,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下, 韓國敎會史學會 [1930년 교회사기 편집위원회], 1968, p. 36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년 신개정판, p. 333에서 재인용)

14) Anonymous by Request, General Survey, *The Christian Movement*, 1920, p. 201(민경배, 같은 책, 343에서 재인용).

15) 《The Korean Situation (三一運動秘史)》,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 1919년 4월 〈기독교사상〉 1966, 5월호, p. 98(민경배, 같은 책, p. 344에서 재인용).

서 기독교 여러 교파의 지도자(부역자 포함)들을 범주적으로 살해할 음모를 꾸며 놓고 있었습니다.¹⁶⁾ 그러나 블레어(W. N. Blair)의 증언에 의하면, “전 기독교인을 모살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¹⁷⁾

그런데 이러한 일제의 음모로부터 조선인과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독교를 국가의 기반으로 하는 미국을 통하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학살되기 3일 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온 한민족’이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준은 “8·15해방에 대한 정치사적 해석은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전했기 때문이라는 한 마디로 족하다”고 말합니다.¹⁸⁾ 심지어는 함석헌까지도, “이 해방을 미리 안 사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싸운 사람도 이 해방이 올 것을 믿었던 사람도 없었다”¹⁹⁾고 말하면서, 8·15해방은 “하늘이 준 떡”, 곧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²⁰⁾ 이러한 점에서 김정준은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 긍지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²¹⁾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시 82:8).

16) S. H. Moffett,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p. 36.

17) W. N. Blair, *Gold in Kore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57, p. 111. 文定昌, 《軍國日本 朝鮮 強占 三十六年史》, 서울: 栢文堂, 1966, 중권 p. 550. 이 정보의 출처는 종로 경찰서 형사주임이었던 崔雲霞였다. (민경배, 같은 책, p. 511에서 재인용).

18) 김정준, 《舊約神學의 理解》,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3), p. 493.

19) 함석헌, 《뚝으로 본 韓國歷史》, (송의사, 1963), p. 137.

20) 함석헌, *op. cit.*, p. 138.

21) 김정준, *op. cit.*, p. 494.

VI. 풍요와 다산(多産)의 신(神), ‘바알’을 숭배하는 ‘공산주의’와 세속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8·15 해방이후 이 한반도의 북쪽에는 ‘지상낙원(地上樂園)’을 이루어 보겠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북쪽 러시아로부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산의 축복’과 ‘풍요’의 신 ‘바알’과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모든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일제 36년간의 탄압으로 인한 한국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유혹한 것이 바로 북한의 공산당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민족해방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금송아지’에게 돌린 것처럼(출 32:31),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바꾼 것처럼(왕상 12:28-29), 한반도의 북쪽은 ‘구원자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곧바로 ‘바알’과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공산주의’에 대한 신봉으로 바꾸었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하나님 신앙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으나 자본주의의 허점인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가 팽배해짐으로 타락한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계속 곤두박질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의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서로 숭배하는 신, 곧 신앙 차이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듯이, 해방이후 한반도는 소유의 풍요와 다산의 신(神)인 ‘바알’을 섬기는 ‘공산주의’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8·15 해방이후 서민들의 ‘풍요의 상징’인 ‘고깃국에 이밥(쌀밥)’ 먹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 농사의 풍년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갈멜 산’의 대결에서 계시된 것처럼, ‘바

알' 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이십니다. 따라서 8·15 해방이 후 정작 국가가 번영하여 잘 살게 된 곳은, '바알' 을 섬기는 북한 공산당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분석한 이스라엘의 분열과 한반도 남북한의 분열 역사를 고려해 볼 때,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인' 과 같은 남북한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VII.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어야 합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복음화된 통일조국' 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면,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다른 이념으로 조국을 통일한다고 해도, 그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듯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주체 또한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 통일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관념의 유희일 뿐입니다.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전술이 없이 남북 통일의 당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최우선적인 실천 방안은 '민족의 복음화' 곧 '신앙의 하나 됨' 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알 종교적 공산주의와 세속주의' 에 대한 배척입니다.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적어도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의 욕심이나 충족시키는 '풍요와 다산의 신' 을 섬긴 나라는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기독교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祈福信仰)' 이나 강조한다면, 기독교도 얼마든지 '바알 종교' 로 전락될 수 있고, 소위

기독교 국가로 자칭하는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란, 단지 한국민족을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만들지는 또 다른 ‘제국주의적 기독교 국가’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시 33:12)를 말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백성들이 부른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를 말합니다(렘 4:1-2).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 때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행일치’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참고 롬 12:1). 더 자세히 말하면, 남북한 모든 백성이 ‘공산주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상대주의’와 ‘물질주의’를 버리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자는 것입니다.²²⁾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스스로 성경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를 건설할 때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실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라는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복한 땅에서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22) 이종윤, 《제자의 길》(The Path of Discipleship in a Mindless Age), (필그림출판사, 2005), pp. 11-26.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 전도 계획을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²³⁾

이러한 점에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 자신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산 제사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먼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겸손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사회를 복음화하고, 그 여파로 북한에도 신앙 자유의 물결이 일어나 조국이 통일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굳은 마음을 버리고 연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사모하고’(참고 겔 36:26), 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는 회개운동’(참고 행 2:38), 그리고 ‘오염된 세상 문화를 기독교문화로 변혁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스스로 먼저 ‘공산주의의 허상과 세속주의의 망상’을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바로 이러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23) 이종윤, 《사도행전》, (필그림출판사 2001), p. 16. 그리스도의 대명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예언이다.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김성봉 목사



지난 1996년도에 시작된 비전2020운동은 이제 13년차에 이르고 있다. 비전2020운동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마다 생겨나는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로 연결하여 사랑의 양육을 하여 다가오는 2020년까지 전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약 3700만 명 정도

■ 김성봉 목사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B. A.)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 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 M.)
- 독일 뮌스터 대학교 신학부(Th. D.)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역임, 현)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의 나라를 만들어 군, 민족, 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하지는 프로그램으로, 국가적으로는 모범 국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랑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 운동이요, 교회적으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21세기 한국 기독교 운동이다.

그런데 이 같은 야심적인 비전2020운동이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 2020으로 말미암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비전2020운동이 처음 제시될 때에는 “정확한 분석과 전략에 의한 계산된 수치”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그럼에도 비전2020운동의 이상과 큰 틀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을 염두에 두면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라는 큰 주제 아래 금년도의 주제인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을 위하여’라는 제목하에서 내게 맡겨진 ‘병역제도와 국가 안보’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를 원론적으로 개괄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행 병역 제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면서 어느 정도 강제적인 징병제 자체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 부재 그리고 약자와 여성들의 참여를 막는 제도적 제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병역 제도의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현행 병역 제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완 수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의 전환, 여성들과 약자들에 대한 개방과 배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배려한 대체복무제도의 신설 등에

대하여 거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변경이 예상되는 병역 제도 하에서 어떤 복음화 전략이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1.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관계

1) 병역 제도

김병조 교수는 근대국가에서의 병역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¹⁾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병역 제도에는 크게 나누어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에 입각한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의무가 국민 중 남성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지원에 의해서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병사 중에서 해군과 공군의 경우 대부분과 육군의 경우 특수기술이 필요한 군병력은 지원병에 의해 충원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를 엄격히 말하자면,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기술이 필요한 군병력은 모병에 의하여 충원하고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하는 자에게는 직업 군인제를 적용하는 징병제 위주 혼합형 제도이다.²⁾

2) 국가 안보

군사력은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로 구성되며 군사력의 핵심은 양적 요소인데, 여기서의 양적 요소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을

1) 김병조, “한국 병역 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 분석”, 『국방대학원 교수논단』 Vol. 24, (2002년), p. 310.

2) 김병조, *Ibid* p. 301.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군사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양질의 인적 물적 수단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인적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장병이며, 물적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체계인데,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현역 장병이다. 창검과 활을 쓰던 시대에는 소수의 우수한 지휘관과 다수의 힘 좋은 병사들만 있으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준 높은 병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병역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병역 제도가 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하는가로 귀결된다.

미래전은 더 이상 대량 생산, 대규모 군대, 대량 파괴, 대량 살육의 전쟁이 아니고, 컴퓨터 혁명, 디지털 혁명, 네트워크 혁명을 통한 지식, 정보화 전쟁이다. 우리는 이미 1991년의 걸프전과 1999년의 코소보전,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전 등에서 미래전의 양상을 똑똑히 목도하였다. 이러한 전쟁에서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공유를 실현함으로써 디지털 네트워크 전장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³⁾ 이 같은 미래전에서는 대규모의 군대보다는 고도의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한 정예자원을 전투원으로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이 병력 위주의 양적 채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 기술집약형의 첨단 구조로 전환하며, 저비용·고효율의 국방 관리체제로 혁신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구축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인 데서도 알 수 있다.

3) 도표는 최영래, “통일 한국의 병역 제도 개편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공공정책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3), p. 84에서 인용.

〈표 1〉 전쟁 방식 및 양상의 발전 추세

구 분	산업문명 시대의 전쟁	정보문명 시대의 전쟁
핵심 특징	철강, 기계의 힘에 기초	지식, 정보의 힘에 기초
	대량살상 및 파괴	탈대량화 및 비살상
	탱크, 항공기, 함정 등 중시	정보체계, 정밀유도 무기 중시
전장 공간	지/해 2차원 지/해/공 3차원	지/해/공 우주, 사이버 공간
전투 수단	탱크, 항공기 같은 유인 기동수단	무인 자동화 기동수단 등장
	화력 위주의 전력	정보지시 중심의 전력 발전
전력 운용	선형/비선형 전력 운용	비선형/입체형 전력 운용
	기동 화력전 수행	정보마비전(사이버전) 수행
전투 요원	기계운용 전투요원	정보활용 디지털 전투요원
전투 조직	계층적 수직 명령 구조	비계층적 수평 협력 구조
군수 지원	대량 비축 지원	소량 적시 지원

3)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편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좀 특별한 형편임에 틀림없다. 준전시 체제인 휴전 체제로서 여타의 나라들처럼 평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시 상황도 아니다. 한 번 서로 간에 생사를 건 전쟁이 있었고, 휴전 상태로 55년을 지냈다. 위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북 간에 주고받는 평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강행한 핵 개발로 인하여 긴장과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하여 염려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⁴⁾ 지난 정권 말기에 우리는 종전 선언의 가능성까지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친북 좌파 정권의 희망사항이었지 전국민의 현실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역

4) 김성만, “한국안보가 불안하다,” 2008.02.25자 KONAS(Korean National Security) Net, 홍관회, “북의 군사적 위협 여전,” 2008.02.25자 KONAS Net, 권재찬, “북한군 심상찮다, 철저한 대비태세 갖춰야,” 2008.03.07자 KONAS Net.

부족인 정략적 애드벌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준전시 체제임에도 우리나라의 유사 이래 보기 드문 긴 평화기를 누리는 데는 한미동맹을 통한 미군의 주둔이 그 중요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김성만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 평온한 것은 연합사와 주한 미군 덕분”⁵⁾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연합사가 한미 공동으로 작성한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은 미군 전력 69만 명(한국군 전력의 9배 이상)과 전투 장비를 즉각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비전2020실천운동이 설정한 시기까지는 국내외의 안보여건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그 사이에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통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논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변 열강들의 세력 판도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꼭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변화,⁶⁾ 민주 시민으로서 시민 의식의 확대, 개인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분위기의 성숙, 첨단화를 요구하는 미래전의 양상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역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 김성만, “한국안보가 불안하다,” 2008.02.25자 KONAS Net.

6) 최근(2008.3.12)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한미 동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국방부는 이날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과 같은 미국의 대테러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미 파견된 부대의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일단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대로 2012년 4월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되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정할 필요가 생기면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미 증원(増援) 전력을 보장 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조선일보 2008.03.13자 A6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 현행 병역 제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현행 병역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면들은 어느 정도 강제적인 징병제 자체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 부재 그리고 약자와 여성들의 참여를 막는 제도적 제한 등이다.

1) 징병제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종래 당연시되던 의무병제로서의 징병제가 이제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고 있다. 김병조 교수도 “전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당연시되었던 군대의 존재, 병역의무의 당위성 등에 대한 의문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⁷⁾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한 징표로 김 교수는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논쟁,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특정 종교에 결부되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⁸⁾

지난 10년 동안 친북 좌파 정권 집권 이래 평화무드를 타면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흔들리게 됨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준전시에 해당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에 임하지 않게 되었다.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앞으로 2020년까지 상비 병력은 68만여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적으로 감소되는 전력을 간부 비율을 늘려 정예화하고,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무기

7) 김병조, *op. cit.*, p. 292.

8) 김병조, *Ibid* p. 292.

체계를 확보하며, 전체적인 부대 수는 줄이되 전투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며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한다.⁹⁾ 이처럼 상비 병력이 감소될 경우에 현재의 어느 정도 강제적인 징병제에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도 군 복무가 여성에게까지 기회가 확대된다면 현재의 징병 제도는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약자와 여성들의 참여를 막는 제도적 제한

지금껏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남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막혀 있었다. 지금껏 사람의 신체에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가·불가를 판단할 때, 그러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병역이 과연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면, 어떻게든 예외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에 전쟁이 주로 육체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질 동안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의를 말할 형편이 못 되었지만, 이제 전쟁이 첨단 정보전·전자전이 된 마당에서는 얼마든지 재고할 여지가 있게 되었다. 김병조 교수는 현행의 제도는 본인이 원해도 다양한 이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형식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기회도 박탈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군대도 가지 못한 비정상적인 인간’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한다.¹⁰⁾

또한 사회 각 방면에 여성들이 진출하는데, 군대 또한 더 이상 남성들의 성역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여성들도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은 때가 되면 여성이라도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전에

9) “국방개혁 2020 순조롭게 진행 중”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8-1-17자).

10) 김병조, *op. cit.* p. 309.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권을 인정받아도 학력이 낮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 나이가 고아나 혼혈아의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

는 “어떻게 여성이……”라고 하던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해서도 안 되게 되었다.

3)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 부재

또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감에 따라 종교상 또는 개인의 신념상 제기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본 군선교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는 사안에 대하여¹¹⁾ 다시금 거론하는 데 부담이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여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92년 “종교교리와 양심을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2004년 8월 25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리적인 해석이 종결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난 번 이규철 군복의 “‘양심적 병역 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¹²⁾이란 논문 발제에 대한 논찬에서 논찬자 유경동 목사가 그 말미에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에 우리 모두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역에 대하여 국가 또는 개인의 양심 중 어떤 것이 최종 판결자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안보다도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이들에 대한 유연한 국가의 공공정책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¹³⁾이라고 하며, 이는 “양심의 재가를 통해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의 도덕

11) 지난 2007년 9월 20일과 10월 24일에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12) 이규철, “‘양심적 병역 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 윤리적 양심의 비판” 《군선교신학 3》, pp. 66-128.

13) 유경동, “‘양심적 병역 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 윤리적 양심의 비판”에 대한 논찬 《군선교신학 3》, pp. 134-135.

성이 이들로 하여금 공적 책임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결국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한층 성숙한 도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할 때, “국가는 개인과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는 개인들이 사회의 의무사항을 처리하는 절차와 사회적 책무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타당한 이유로 21세기는 더 이상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가 아니라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에 따른 안보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각도에서 대체복무 인력을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데 투입한다면, 한국사회의 내적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병역 제도의 변경 가능성

현행 병역 제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 수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의 전환, 여성들과 약자들에 대한 개방과 배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배려한 대체복무제도의 신설과 확대 등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1) 현행 징병제의 보완 및 지원병제 혹은 모병제로의 전환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병역 제도는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¹⁴⁾

14) 김종구, “한국 병역 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iv.

김병조 교수는 “시민의 자유의사를 보다 존중하게 되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 일부에서 사병의 충원도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지원병 제도를 채택하게 된다”¹⁵⁾고 말하면서도 물론 이 같은 경우는 “극히 최근의 역사”라고 덧붙이고 있다.¹⁶⁾ 그에 의하면 “한국은 대중군을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소수 정예군으로서 기술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일견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며, “향후 병역 제도는 국민이 병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기술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사관 제도의 강화, 지원병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제안은 이미 국방개혁 2020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선행조건이 있다. 이처럼 병역 제도를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모집되는 군인의 수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복무에 따르는 피해보다는 유익이 많도록 전반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배려를 위하여 요구되는 예산 조달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인수위 외교안보 담당위원을 맡았던 홍두승 교수도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하나 병력을 감축하며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학화·첨단화인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냐는 것”¹⁸⁾이라고 하였다. 이런 고려에서 고급 인력의 유급모집병 제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유급모집병 유인책으로 무엇보다도 추가복무기간

15) 김병조, *op. cit.*, p. 294.

16) 김병조, *Ibid.* p. 296.

17) 김병조, *Ibid.* p. 291.

18) 김영림, “국방개혁 2020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2008.02.28자 KONAS Net.)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 군 현대화를 위한 계획은 연평균 7% 경제 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이를 이뤄야 군도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며, “국방 분야에서도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2008년 3월 13일자 A면).

중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 또는 복무 후의 혜택이 될 것이므로 국가 재정과 밀접한 연관이 된다.¹⁹⁾

박주선은 그의 “한국의 징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²⁰⁾ 모병제의 편익을 경제력 우세에 의한 계속적인 대북 군사력 압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인력시장의 왜곡과 경제적인 비효율성의 감소,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에 대한 능동적 대처, 주권, 인권 국가의 완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²¹⁾

특히 마지막에 언급한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종래에 당연시되어 온 견해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살펴볼 소지가 있다.²²⁾

19) 김상현, “병역 자원의 변화에 따른 병역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행정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년, p. 74.

20) 박주선,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안보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p. 63. 그는 “현재의 모든 현역병사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면, 군의 특성상 숙식의 해결과 피복비 등이 지급되므로 실제 1인당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대략 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국방연구원에서 2003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규모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약 8조 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직업군인의 전문성에서 오는 숙련효과로 병력을 23-29만 명으로 줄일 경우 1.2조 원에서 2.1조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모병제로 인한 국방비의 증가는 재정상의 추가비용임에는 틀림없지만, 국가역량의 효율적 사용에서 오는 편익은 단순히 임금계산에 의한 편익만 따져보아도 남는 장사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21) 박주선, *Ibid.* pp. 65-78.

22) 박주선, *Ibid.* p. 78. 박주선은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국민을 훈육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불가피하게 징집 등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가 비록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긴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만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징병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고 말하며, “강제징집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2년 이상의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현실을 인권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모병제는 국가 구성원, 특히 젊은이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사회 전반에 역동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며, 인권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78).

2) 여성들과 약자들의 군역 참여 확대

병역이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라면, 남녀 성별에 따라, 혹은 신체의 건강 여부에 따라 원천적으로 복무 가능성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창군 이래 많은 기회가 개방적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더 열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여군이 창설된 이래 지난 50년간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 왔다. 사관학교도 여성에게 개방됐고, 모든 병과와 보직이 여성에게 개방되었다. 그럼에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된다.²³⁾

그 실례로, 보직 배정 때 여군을 보임한 전례가 없다거나, ‘야근이나 야외훈련이 많은데 과연 여군이 할 수 있는가’ 등의 의구심 때문에 보직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핵심 보직 수행은 곧 경력과 연관되고, 이는 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군이 진급에 뒤지게 된다고 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여성 후보가 나올 정도로 여권이 신장되어 있다. 그 말은 여성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더 이상 군을 남성의 전유지로 여기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만은 없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상현은 “남성 병역 자원이 감소하여 향후 군 인력 수요 미달 시에 여성의 군 참여 확대가 필연적”²⁴⁾이라고 비교적 소극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데 비해, 우리로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 여성까지도 징집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역 제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²⁵⁾ 현대화의 정도와 GNP는 양(positive)의 상

23) 파운진, “저는 여군이 아니라 군인이고 싶은 것입니다.” (2006.12.16자 CHOSUN, Com)

24) 김상현, *op. cit.* p. 77. 김상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병역 자원이 절대 부족할 경우에는 여군도 병으로 모집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 (79)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여전히 남성우위적이며 여성비하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관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여군 비중은 특히 부국에서 높다고 한다.²⁶⁾ 최근 유럽 제국의 여군 비중의 뚜렷한 증가 추세로 해공군의 경우 징집병의 대체인력으로 여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여군 비중의 증가는 병역 제도 전환의 한 지표가 된다고 한다.²⁷⁾

신체 허약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병역에 해당하는 어떤 임무라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병역이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며, 현대전은 더 이상 신체적인 힘만에 의한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병역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장애자도 원할 경우 후방지역의 비전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별도의 특례제도나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고 있다”²⁸⁾고 한다. 김종구는 심지어 “신체저급자, 저학력자, 고아, 혼혈아, 전과자 등의 병역 소외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역을 개방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²⁹⁾

3)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신설

선진 각 나라들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많은 실례를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³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³¹⁾

25) 김상현, “병역 자원의 변화에 따른 병역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행정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년, p. 77.

26) 김상현, *Ibid.* p. 78.

27) 김상현, *Ibid.* p. 78. 여성부는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발전 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2008년 3월 22일 연합뉴스).

28) 김종구, *op. cit.*, iv.

29) 김종구, *Ibid.* v.

30)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고찰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중심으로”, p. 23, 도표 인용. (<http://www.reporworld.co.kr/report/data/view.html?no=420274>)

31)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고찰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중심으로”, p. 33.

〈표 2〉 대체복무 도입 국가들의 몇 가지 통계 수치

나 라	인 구	여호와의 증인(03/00/95년)			대체복무자
노르웨이	4,565,000	10,057/	9,940/	10,181	6,000
대만	22,541,000	4,922/	4,018/	2,810	94
덴마크	5,383,507	14,648/	14,885/	16,082	714
독일	82,536,680	165,935/	165,924/	170,346	160,000
슬로바키아	5,378,159	12,288/	12,596/	12,272	230
스페인	41,837,894	107,636/	101,158/	100,928	1,850
오스트리아	8,065,166	20,331/	20,458/	20,944	374
핀란드	5,206,295	19,339/	20,120/	19,419	368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부하고 굳이 외면하려고 하면, 선진 민주주의로의 걸음은 더디어질 것이며, 그러한 역할의 선두에서 있는 기독교회는 의식이 앞서가는 국민 다수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김병조 교수는 “대체복무제도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³²⁾이라고 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병역의무 이행과 같은 수준에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제도를 없애기보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³³⁾

〈표 3〉 독일에서의 민간봉사자 활동 실태

활동 유형	1985년	1993년	1999년
계	69,060	165,696	187,226
간호보조 업무	40,356	80,329	107,374
수공업	8,426	22,454	23,343
농업	1,381	4,579	4,111
상업, 관리업	2,317	1,156	2,180

32) 김병조, “한국 병역 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 분석” in: 국방대학원 교수논단 Vol. 24, (2002년), p. 309.

33) 김병조, *Ibid.* p. 309. 아래 도표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고찰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중심으로”, p. 24에서 인용.

활동 유형	1985년	1993년	1999년
생활보호 업무	3,219	8,149	9,239
환경보호	931	5,050	6,116
운송	2,212	3,363	2,625
환자수송, 구조활동	7,547	11,407	9,978
이동사회활동	0	20,061	13,337
장애인보호	2,677	8,301	7,166
장애아동보호	0	889	1,531
스포츠 영역	0	58	223

백운집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요구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살핀 뒤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기존 대체복무제도와 별개의 사안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³⁴⁾고 결론짓고 있다.

4. 변경이 예상되는 병역 제도하에서의 복음화 전략

이제 이 같은 변경이 예상되는 병역 제도하에서 어떤 복음화 전략이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비전 2020의 수치적 성과 목표를 재조정하고 선교대상도 사병뿐 아니라 부사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고난 받는 소수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 다수가 된 기독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좋은 본을 잘 따르며,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선교 현장인 군에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4) 백운집,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확보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07), p. 79.

1) 비전 2020의 수치적 성과 목표의 재조정과 선교대상의 확대³⁵⁾
국방개혁안³⁶⁾을 통해 미래의 군구조가 개편된다면 장병들의 인력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또한 선교대상이 일반적으로 사병들에게 맞추어져 있던 것을 부사관들에게로 확대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대군주의의 바탕이 되었던 병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간부와 병의 비율이 지금의 25:75에서 2020년에는 40:60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병은 지금의 81.4%에서 60%로 조정되는데, 대략 지금의 45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하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⁷⁾

〈표 4〉 병의 인력구조 단계별 인력 조정 추정안

연도	2006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20년
사병 숫자	45만 명	40만 명	34만 명	27만 명	22만 명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에서 세운 전략은 미래에도 군이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진 것이므로, 국방개혁안과 미래의 군구조 개편에 따른 선교대상의 비율에 변화가 온다면, 선교전략도 그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윤병국 목사는 강조한다.³⁸⁾

35) 이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군목으로 봉사하고 있는 윤병국 목사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잘 밝혀 주고 있다. 윤병국,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개선 방안,” (충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목회신학과 선교학 전공 신학박사 학위논문, 2006), pp. 71-74.

36) 최근(2008.3.12)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국방개혁 2020의 수정 및 보완이 언급되었다. “2020년까지 병력을 69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이고, 621조 원을 들여 첨단무기를 늘리는 ‘국방개혁 2020’은 전 정부의 역점사업이다. 국방부는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병력 감축 속도와 예산, 군구조 개편안 등을 수정·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성봉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은 ‘지난 2년간 예산이 모자라 당초 계획보다 1-2년 정도 전력화가 늦어졌고, 부대 개편 시기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오늘은 선(先)전력화 후(後)부대 개편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력 감축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국방비 중액 비율도 2011년까지 9.9%에서 8%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조선일보 2008.03.13 A6면)

37) 아래 도표는 윤병국의 논문 p. 73에서 인용.

38) 그가 보기에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에서 조정안을 낸 것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보다는 세례자 숫자를 몇 만 명 하향조정한 선에서 마무리된 것”에 불과하다(73).

실제로 국방부는 2020년까지 현재 75%에 이르는 사병을 60%로 줄이고 25%의 간부를 4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런 실정에서 선교대상 차원에서 부사관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이다.³⁹⁾

2)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좋은 본을 따르며

선진 민주국가들이 앞서 추구하고 걸어온 걸음들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좋은 본을 따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된다. 자유, 평등, 박애, 인권 등의 문제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요, 정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당연히 실행하려고 애써야 할 과제이다. 병역과 관계해서도 강제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려면 남녀를 불문하고 스스로 지원할 호감을 가질 만한 매력에 군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의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권리이기도 한 병역의 의무와 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일지라도 그런 분위기를 감당하는 인식 문제는 교회와 교인들의 몫으로 생각된다.

3)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앞서 언급한 인권의 문제는 소수자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맞물려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나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바이다. 이면에 있어서도 기독교회가 더 이상 반대하는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걸어간 길을 잘 살펴서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지금 소수자 보호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배려를 더욱 확대해 가는 중에 있다. 이 일에 있어서

39) 국민일보 2008년 3월 26일자, 31면. “민간인 군선교 박원제 목사”에서.

도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비록 종교가 다를지라도 저들의 권익을 기독교회가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자세를 가질 때,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유는 복음화는 군대 안에서만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 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에서 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에서도 그 첫째 항목에 “이 문제는 남북한 평화통일이 완성된 후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하여 이런 주장이 절대적이지 아니라 상대적이며, 항구적이지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하다면 기독교회는 보다 대의적인 입장에서 이 면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성명서 셋째 항목에서 “군대는 매년 33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와 전역을 반복하는 순환 조직사회로 이중 750명(33만 명 기준 시 약 0.23%)이라는 소수 인원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하는 것은……이므로 추진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기독교당지 못한 진솔로 여겨진다. 이러한 진솔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수로 밀어붙이려는 다수 기득권자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로는 불충분하며, 사회, 경제, 문화적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억압받거나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이러한 억압받는 소수자 집단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문제를 더 이상 국가 안보 저해 요인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양심에 따른 그들의 절박한 입장과 권리를 인정하고 비전투적인 역무 또는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⁴⁰⁾

40)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고찰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중심으로”, p. 33.

바라기는 교회가 이 일을 반대하는 편에 서기보다 오히려 적극 지지하며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 전해진 기독교는 바로 이런 기독교였다고 생각한다.⁴¹⁾

4) 또 다른 선교 현장인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군이 하나의 직장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일정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보다 자발적으로 군생활을 선택할 여지가 주어지게 될 경우에 기독교인들로서는 군선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병 뿐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로 군에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군에서의 업무를 지원하여 군선교의 기반을 넓혀가야 하겠다.

맺는 말

국방개혁 2020을 염두에 두면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라는 큰 주제 아래 금년도의 주제인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을 위하여’라는 제목하에서 내게 맡겨진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았다.

먼저,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관계를 다루면서는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개괄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병역 제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41) 이경선, “약자 위한 ‘섬김의 역사’ 사회도 감동,” 국민일보 2008.03.11자 29면. 거기 한 가운데에 “교회는 소수자의 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논하면서 어느 정도 강제적인 징병제 자체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 부재 그리고 약자와 여성들의 참여를 막는 제도적 제한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병역 제도의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현행 병역 제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완 수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의 전환, 여성들과 약자들에 대한 개방과 배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배려한 대체복무제도의 신설과 확대 등에 대하여 거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변경이 예상되는 병역 제도하에서 어떤 복음화 전략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하였다.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고난 받는 소수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 다수가 된 기독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뒤를 잘 따르며,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선교 현장인 군에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직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서로 입장을 달리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도를 찾아 함께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로 대통령을 내었고 전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3700만 기독교인을 꿈꾸는 기독교회로서 온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종교가 되고 그에 속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논찬)

강사문 목사



이 글은 김성봉 목사님의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란 발표에 대한 논찬이다.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라는 논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2008년도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논제이다. 이 논제는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현행 병역 제도의 문제점과 그 변경 가능성, 그리고 변경된 병역 제도 아래서의 복음화 전략 등 4단락으로 논제가 전개된다.

■ 강사문 목사

- 히브리대학교 졸업(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구약학)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우선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문제, 현행 병역 제도의 문제성과 변화에 대한 제고 등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논찬자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논찬이니 만큼 몇 가지 지적하고 끝내려고 한다.

1.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요소가 병역 제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병역이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설명 없이도 자명해진다. 헌법 39조에 의한 국방의 의무에 따라 이 제도가 현재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자는 현행 제도 속에서 남자는 강제 징집, 여성과 특수 기술분과는 지원, 장교 및 부사관은 직업군인제 등 오늘의 병역 제도는 징집 원칙에 지원을 병행하는 혼합형 병역 제도라고 지적한다.

한편 발표자는 현행 병역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병역제는 강제성을 띤 징집제이므로 여기서 파생되는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보완의 방법으로 지원병제 혹은 모병제를 제안한다.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이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특수분과나 부사관은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지원병제를 얼마나 더 확대실시할 수 있느냐이다. 지원제의 경우 더 많은 경제적 혜택, 전역 후에도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에 걸맞는 재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상비 병력이 68만 명 수준에서 앞으로 50만 명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면 지원병제에서도 그 수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예산과 나머지 여건 충족이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건과 예산이 가능한 것이냐는 것이다. 여건이란 현재는 준전시 체제이기는 하나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원제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황이 악화되면 징집제도로의 복귀가 불가피할 것이다. 아무리 첨단 무기라고 할지

라도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무기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육군 보병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으나 나라의 여건과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제한된 인구와 나라의 사정이 사정이니 만큼 남녀 모두 징집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인의 국방 의무는 절대 의무로 실행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징집을 하되 복무기간 중에 대체복무처럼 복무할 활동 반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국가 안보는 군사력의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데 양적 요소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을 말한다.

인적 수단은 현역 장병이고, 물적 수단은 무기체계를 말한다. 디지털 과학 시대에 우수한 성능의 무기와 군병들이 전쟁을 좌우한다. 그래서 미래의 전쟁은 디지털 네트워크 전장 구현으로 대규모의 군대보다는 고도의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한 정예자원을 전투요원으로 요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2쪽). 산업시대의 전쟁 양상과 정보문명 시대의 전쟁 양상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 군도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국방계획 2020대로 기술집약형 첨단 구조로 전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발표자의 위와 같은 내용은 군사적 물리적 관점에서 가시적으로 볼 때는 별 하자가 없다고 본다. 보기 드문 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을 통한 미군의 주둔이 그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3쪽). 하지만 신학적 조명에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한 국가의 안보와 안녕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진술한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삼상 17:47).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적장의 생명을 살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적군이 존재하는 것이지 적장의 생명을 앗아 가면 새 변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보의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설정하고 안보 교육에 정진해야 될 것으로 본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양 강대국 즉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수 천년 전부터 지배와 침략으로 인한 적대 및 선린관계를 갖고 살아왔다. 이런 양 강대국과의 관계는 숙명적이고 피할 수 없는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중국과 일본은 잠재적 또는 필연적 적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시간적 임시적 적일 뿐이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세대 한 세기 내에 해결될 적대관계일 뿐이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보다 깊은 차원의 적대관계 개념을 교육하고 철저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웃 나라들에 의해 선량하고 죄 없는 수십 만의 백성이 희생당하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일 것이다.

성경에서 나라의 안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교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사 7:9).

3. 발표자는 약자와 여성들의 참여를 막는 병역의 제도적 제한에 대하여 지적하며 좀더 문호를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좋은 의견이라고 본다. 장애인이나 여성들에게 육체적 환경적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편적 원칙에 따라 기회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모두가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견이다. 역사를 보면 고대는 모계사회였다.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주전 2천년대의 전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남성에게로 이전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남성 우위 및 가부장적 제도가 정착한 것이다. 그러나 남녀는 기능별로 피차 기여할 점이 있다고 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역시 기능별로 기여할 점이 있다고 본다.

4.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신설

발표자는 소수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허락을 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기에 병역 거부자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징집제도가 존속하는 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란 전제보다는 징집자의 균형과 형평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본다.

5. 변경이 예상되는 병역 제도하에서의 복음화 전략

민족 복음화의 과제는 제도의 변경 유무에 관계 없이 추구해야 될 기독교인의 지상과제이다. 발표자는 제도의 개혁으로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1:3의 비율에서 2020년에는 2:3으로 변경되어 병의 숫자가 45만에서 22만으로 하향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즉 25%의 간부가 40%가 되므로 부사관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간부 수가 적다 할지라도 왜 간부에게는 무관심했고, 국방에 책임의식이 약한 사병에게만 전심전력을 기울여왔는지 궁금하다. 다루기 쉽고, 수가 많은 사병에만 전념한 것은 양적 팽창에만 전심한 것이 아닌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간부 장교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귀한 발제를 해 주신 김성봉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최희범 목사



1. 서 론 : 주제 결정의 이유와 연구방법

1-1. 주제 결정의 이유

제8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MEAK으로 기록한다)는 그 운동과 사업의 정당성 담보와 정책결정의 근거를 위하여 군선교신학회를 두고 다양

■ 최희범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역임
- 기독교대한성경교회 총무 역임
- 현) 한기총 총무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한 연구와 그 결실물을 내어 놓고 있다. 금년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의 대주제 아래 2008년도 주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을 위하여」로 정하고 세 개의 발제 중 하나가 본 주제가 된 것이다. 시대의 상황과 변화된 여건에서 군선교는 연합된 동인에 의하여 그 사명 수행에 효율적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논술될 것이다.

1-2. 연구방법과 내용

연합운동의 당위성과 연합운동의 활성화만이 군선교의 효율을 높이며 MEAK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제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MEAK가 이 분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가와 한국교회(특히 군중목사 파견교단)가 이 분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MEAK의 자료집들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군중목사 파견교단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발제문은 학술논문이 아니며 현실 진단과 미래 전망에 대하여 제언하는 D/P형식이 될 것임을 밝혀 둔다.

2. 연합운동의 당위성과 효과

2-1. 연합운동의 당위성

교회 연합운동의 당위는 크게 시대적인 요청과 성경적인 요청에서 찾을 수 있다. 시대적으로 한국사회는 이념, 지역, 계층 등으로 나뉘고 또 그 안에서 4분 5열 분열하는 현상이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조류는 개개의 자국 중심의 정책과 국가 운영에서 세계를 향한 글로벌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과 기조가 주류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EU와 같은 다국

적 국가연합이 생겨나고 아시아 정상들도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문화권으로 이끌기 위한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는 개개 나라 중심의 무역과 문화를 뛰어넘어 대륙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글로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보인 한국사회와 정치계의 구태는 아직도 분열주의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모여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과 기본 원칙’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활절연합예배와 평양부흥100주년기념대성회, 서해안살리기운동 등을 통해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며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회연합의 당위는 무엇보다 더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찾아야 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엡 1:23) 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실체임을 의미한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모임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몸이며 그 몸 안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세계의 회복을 통한 재창조의 선취모델인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될 교회를 통해 온 우주의 회복을 주도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분열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속사적 사역의 수종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연합의 당위를 촉구하고 있

는 것이다.

2-2. 연합운동의 효과

한국교회는 최근 일치와 연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먼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을 이루려 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2-1-1 분열과 역기능의 극복

기독교는 단일체제의 가톨릭이나 불교와는 달리 개교회를 중심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자생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는 한국교회 부흥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도 있으나 이러한 자생력은 개교회 중심주의나 무분별한 팽창주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질서와 통제를 넘어서는 역효과를 창출했다.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비판 세력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연합운동은 분열과 개교회주의를 지양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됨을 자각하게 하며 모든 비판 세력의 공격에 대하여 공동 대처는 물론 교회다움의 회복을 통하여 안티 세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하고 분열과 역기능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2-1-2 교회정치 제도의 극복과 섬김의 효과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세계교회의 정치형태는 크게 장로제(presbyterian)와 감독제(episcopal), 회중제(congregation)로 나눌 수 있다. 성경은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교회의 부흥과 활성화의 촉매가 되며 다만 연합의 당위가 요청될 뿐이다. 따

라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모든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들을 인정하면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로 해서 교회의 사회적 사명과 봉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맞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1-3 신학적 보편성의 확보와 공동 신앙고백

연합운동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과거 강조되어 온 ‘성경적-역사적’ 지향성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성경적-상황적’ 지향성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세기 신학적 해석의 차이를 덮어 두고 복음에 근거한 기본적인 공통점을 함께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파 지향적인 차이에 집착하는 종래 신학교육에서 탈피하여 교단주의가 아닌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따라서 각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견지하더라도 공동의 신앙고백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연합운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연합의 당위성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며 교회의 사명인 섬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세상을 선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 통일의 과업을 수행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지나친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적을 정하고 연합하여 수행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연합을 통한 군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

3-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의 현황

3-1-1 MEAK의 목적 및 사업

3-1-1-1 MEAK의 목적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1972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로 국방부 공인 기독교 군종활동 지원 대표기관이다. 국내외에 지회가 있으며 군종 목사 파송 11개 교단과 연합하여 '아주 특별한 선교' 곧 생명력 있는 선교를 실천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MEAK는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의 결실을 맺고 나아가 인류복음화에 기여하고 21세기 기독교운동인 비전 2020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을 목적으로 하며 군인교회 ·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와 함께 이 소중한 사역을 실천하려 한다.

3-1-1-2 MEAK의 중요 사업내용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1천여 군인교회를 섬기며 민족복음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크게는 일반사업 · 건축사업 · 지회운영 · 특별 사업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①비전2020사업 ②교육사업 ③복지사업 ④정책사업 ⑤출판사업 ⑥영상사업 ⑦군인교회 건축사업 ⑧지회운영 ⑨세계군선교사업 ⑩장병 사랑실천사업 등이다.

MEAK의 목적과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대에 있어서 특히 한국교회의 특성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아주 특별한 선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나 한 교회 혹은 개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없으며 한국교회 전체의 합해진 힘으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3-1-2 MEAK의 2007년도 사업 내용 분석

3-1-2-1 MEAK의 2007년도 사업실적 분석

MEAK의 2007년도 군선교 사역 결실 현황은 ①비전2020실천운동사업 내실화 ②한국교회 군선교 사역 55주년기념사업 추진 ③군선교 및 군

종정책 업무강화(군종목사 파송교단 협력) ④군인교회 사역 활성화 ⑤군 선교 교역자 전문화 ⑥군선교신학 발전지속 ⑦외부의 거센 도전 및 기독교 군종활동 권익보호 ⑧MEAK 기능 홍보강화 및 재원확보 극대화 ⑨국내외 지회운영 정착 및 활성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의 군종정책 6대 실책 사항과 병역대체법 대처 등에 대하여 안으로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밖으로는 강력한 대응을 취한 것은 적절한 것 같다. 이런 일을 위하여 군종목사 파송교단과 협력을 강화하며 군선교 회원교회의 책임·헌신·공조를 이끌어 내려 한 것 등은 적절한 것 같다.

3-1-2-2 MEAK의 2008년도 사업계획 검토

MEAK 2007년도 사업과 골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핵심 사업에서 ①대한민국 군종 제도의 발전적 변화에 대처 및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과 ②한국 장병 상담심리학회 및 상담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 등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사업계획 방향에서 ①대대급 군인교회 사역 활성화 ②타종교 선교 및 포교활동, 이단 사이비 암약 활동대처 ③한국교회 군선교 연합사역 실질적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군선교 연합사역의 내용으로 군종목사 파송교단 및 군선교 회원교회 네트워크시스템화, MEAK 전국지회 및 군선교 연합기관 협력사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군선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의 두 가지 기초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2008년도 사업 방향의 한 축으로 삼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제목만 있을 뿐 군선교 연합사업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요청되며 2008년도 예산에 이를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군선교는 한

국교회, 그중에도 군종목사 파송 11개 교단과 군선교단체의 연합이 절실하며 MEAK는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2. 군종목사 파송교단의 인식

3-2-1 설문 분석

군종목사 파송 11개 교단을 상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대부분의 교단이 군선교위원회 또는 후원회(기감·기성·기하성·기침·예성·고신·통합·합동)가 있으며 군목부(기성·기침·예성·합동·합정)를 둔 교단도 있고 총회기구로 군목부가 있으며 별도로 군선교위원회 또는 후원회를 둔 교단도 몇 있다. 질의에 기장을 제외한 10개 교단이 응답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1. 2008년 현재 파송하고 있는 군종목사의 수와 적정성은?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고신	대신	통합	합동	합정	예성
군목수	47	30	12	12	11	35	42	51	3	18
사역자	78	6	17		37		130		39	
적정성	적당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적당	부족	부족	부족

이 항은 군종목사 수와 군인교회 사역자의 현황을 알기 위함이었으며 대부분 교단 군종목사 수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연대급 교회마저 군목이 없는 곳이 있으며 현재보다 앞으로 그 수가 더 줄어들 것임을 염려하고 있다.

질문2. 국방부의 군종장교(군종목사) 선발기준의 적정성은?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고신	대신	통합	합동	합정	예성
내용	적절	부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부적절	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이 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군종목사의 수준이 저하되므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작용은 선교에 역효과일 것이라는 생각이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의 중심은 영성이 결여된 학문적 실력이 우선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으며 각 교단의 군선교정책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질문3. 한국교회의 효과적 군선교를 위한 교단 간 연합의 필요성은?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고신	대신	통합	합동	합정	예성
내용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이 항에 대하여는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이유는 ①정책의 일관성 ②증복을 조율함으로 효율의 극대화 ③연합선교 모델구축 ④점차 어려워져 가는 군선교에 대한 공동대처 ⑤국가시책 · 이단침투에 대한 강력한 대처 ⑥한국교회의 하나 된 모습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4. 각 종단(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파송 군종장교 중 기독교 군종목사의 수는 증가되어야 하는지?

이 항에 대하여 응답자 전원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원래의 활동범위가 군종목사 수의 감소로 위축된 것을 복구해야 하며 군선교 활동은 전투력 증진과 민족복음화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5. 최근 정부가 종교 간 기회균등을 이유로 펼친 군종장교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고신	대신	통합	합동	합정	예성
내용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이 항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가 강력한 부정적 의사를 표명하였다.

①소수종파의 군 내부진출의 빌미를 제공한다 ②군장병 중 원불교 신자가 극소수이므로 불필요하다 ③이단 침투의 빌미가 된다 ④원래 군종 제도의 의도와 많이 떨어진 정책이다 등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원리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염려의 차원을 넘어 강력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2-2 설문에서 나타난 현실 인식

군종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11개 교단 가운데 설문에서 응답한 10개 교단의 현실 인식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①군종목사의 수가 줄어들며 어울리지 않는 여러 종파가 군종장교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 ②이단사이비 집단의 군 내부 침투에 대한 우려 ③정부시책(대체복무·군기간 단축·군인원 감축)과 군종 제도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우려 ④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연합의 필요성 강조 등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안일하게 각 교단별로 경쟁이나 하듯이 군선교에 임하던 자세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의 변화가 외부로부터 압력이 되어 오는 오늘의 현실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교회의 단합된 힘이며 그것이 안으로는 효과적인 군선교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군선교의 연합을 회구하고 있으며 MEAK는 이 소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연합을 통한 효율적 군선교를 위한 제언

4-1. MEAK의 중요사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는 2008년도 경상회계 130

여역 원의 재정규모와 20만 전도 수세가 말해주듯이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독보적인 전문기관으로 한국교회에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MEAK는 그 이름이 설명하듯이 각 교단과 교회가 군선교라는 공동의 선교목표를 위해 연합하고 있는 단체인 것이다. MEAK는 정관 제4조에서 10가지 주요사업 중 9번째 사업으로 ‘군종목사 파송교단 및 군선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업’으로 명기하고 있고, 2008년 군선교사업계획의 사업계획 방향에서 ‘한국교회 군선교 연합사역 실질적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합사역의 내역으로 ‘파송교단과 후원교회의 네트워크시스템화’와 ‘MEAK지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MEAK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연합사업이다. 그 연합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하여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교회 그 중에도 군종목사 파송 11개 교단과 군선교단체의 연합은 매우 절실한 것이며 MEAK는 이를 사업계획의 항목으로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실천의지를 다져야 한다. 설문내용의 〈질문3〉의 응답이 보여주듯이 응답한 10개 교단 모두가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하여 ‘연합’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의 군선교 현실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교회의 단합된 힘이며 그것이 효율적인 군선교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2008년 사업에 미미하게 명시하고 있는 단순한 전산용 네트워크시스템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과 프로젝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연합모임을 강화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합사역’이 MEAK의 핵심 중요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실천적인 부분을 적극 반영코자 하는 의지가 요청되는 것이다.

4-2.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MEAK는 군선교 연합사역의 내용으로 ‘군종목사 파송교단 및 군선교 회원교회 네트워크시스템화, MEAK전국지회 및 군선교 연합기관 협력사업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네트워크 시스템화는 단순한 행정전산 처리시스템으로 인식된다. 효율적인 연합사역을 위한 네트워크 전산시스템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단순히 전산 네트워크만으로 연합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연합사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행정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일 뿐 좀더 중요한 것은 11개 교단과 군선교 기관들을 전산상이 아닌 실제로 하나의 목소리와 지향점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MEAK의 전국지회 및 군선교 연합기관의 협력사업 강화’ 부분도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1년에 한두 번 진행되는 전체모임 형식의 수련회 내지 세미나만으로 연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전국지회와 협력기관을 연합시키고 응집시키는 일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4-3.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MEAK가 연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구체화되거나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이유는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MEAK의 2007년도 사업과 결산 실태현황을 분석하면 총계는 14,571,800,000원이다. 이를 MEAK계획사업과 후원자 직접사업으로 나누며 계획사업 중 직접사업비 1,454,900,000원(10%)이고 경유사업비 1,956,000,000원(13.4%)뿐이다.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대체 사업비가 11,160,800,000원(76.6%)으로 큰 몫을 차지한다.

MEAK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대체로 이와 같은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경유사업(목적 후원금이 군선교연합회를 경유하여 전달되는 사업)과 대체사업(후원자가 후원금을 직접 해당부대를 방문하여 전달한 후에 결과 보고서 제출)에 해당되며 직접사업비(MEAK 계획 사업으로 직접 모금사업)는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한다. 이러할진대 MEAK는 자금의 압박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실질적인 연합사역을 위한 예산이 대단히 미미한 가운데 연합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합사역의 예산을 확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있는 가능성은 군종목사 파견 11개 교단의 MEAK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11개 교단의 MEAK 안에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11개 교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기총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희망연대 등의 연합단체 사업에서 보이듯이 적극적인 참여교단의 역할 확대는 자연스럽게 예산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 교단의 결속도 자연스럽게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교단이나 군선교 단체들도 MEAK 예산의 76.6%에 해당되는 대체 사업비를 MEAK에 투입해줌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군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MEAK는 효율적인 연합사역을 위한 예산확보가 담보되지 않고는 연합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4. 한국교회의 인식 변화와 구체적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작금의 변화된 상황에서 군선교의 지향점은 명확한 것이다. 첫째, 비전2020의 결실을 이루어야 한다.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부대 내에서 이루어진 선교의 대상을 제대 후 기존 교회에 연결시켜 지속적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군선교는 군종목사와 군선교 담당자와 군선교 전문기관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군종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간 국가의 군 정책에 따라 군종업무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일, 군종목사의 선발과 교육, 군선교 사역자의 자질과 능력향상,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 등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인식이 요청된다.

셋째, 타종단과 이단의 침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군목 제도 본래의 의도가 희석되고 정체불명의 종단이 군종사역에 참여하도록 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한 혼선과 타격이 있는 것이다. 근자에 야기된 이단집단과의 소송문제와 신천지의 집요한 침투에 대한 견제 등은 한국교회 전체의 사명임을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큰 힘으로만 가능하며 따라서 연합을 통한 효율적 군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의 연합사역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구체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연합의 당위에서 언급했듯이 ‘연합사역’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또한 성경적인 필요임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안티 기독교세력의 무력화를 위해서라도 이

제 개교회 중심과 개교단 중심주의를 뛰어넘고 ‘하나 됨’의 교회, 화해자·중재자로서의 교회, 사회를 이끌어 가는 바람직한 중심 세력으로 교회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개인주의·물량주의에 끌려 다녔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분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기독교적 인프라를 ‘하나 됨’의 교회를 통해 형성해 나가고 직접적으로는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하여 개교회, 개교단 중심의 실적이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67만 군복음화를 위한 연합 선교전략을 구축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해 교단 내 군선교 담당부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과를 위한 직접적인 전달 방식에서 MEAK의 연합사역에 연계해 나가는 구체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MEAK의 여러가지 사업과 계획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이며, 군(軍)복음화로 민족복음화를 이루자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연합된 힘이 절실히 요청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5. 결 론

분명한 것은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도 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선교는 멈출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선교’인 것이다. MEAK는 그동안 군종목사 파견교단 대표가 공동서명한 비전2020실천운동 결의문 채택(1998. 11. 13), 종교적 사유 병역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2007. 10. 24), 대한민국 군종 제도 발전 정책건의서(2008. 1. 25) 제출 등 연합된 힘을 보였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MEAK는 군선교에 있어

서 어느 기관보다 연합사역에 적극적이었다. 그러함에도 다시 한 번 한국교회 전체의 힘을 모으는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36년간 이룩한 MEAK의 혁혁한 업적과 앞으로의 원대한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연합된 힘·정책·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금 인식하고 다짐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군선교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

1. 귀 교단이 파송한 군목·군선교사의 수는 몇 명입니까?(2008년 현재)

2. 귀 교단 규모를 감안할 때 파송 군목·군선교사의 숫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부족하다. ③ 많다. ④ 의견 없음

3.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국방부가 군종장교(군목·군선교사)에게 요구하는 자격기준이 적절하다고 여기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적절하지 않다.

5.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한국교회의 군선교 정책의 효과적 방향설정을 위해 교단 간 연합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7. 필요하다면 혹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현재 종단(기독교·천주교·불교·기타) 파송 군종장교 중 기독교의 파송 숫자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9. 위 8번 항목과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최근 국방부가 종교 간 기회균등을 이유로 원불교 등 소수 종교의 군종장교 파송을 보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적절하지 않다.

11. 적절하다면 혹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논찬)

우기식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직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점 크게 찬사를 보낸다.

1. 긍정적인 면

군선교가 연합된 동인을 통해 원활한 사명수행이 가능하다는 전제 속

■ 우기식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Th. M.)
- Fuller Theological Seminary(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에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한 것은 군선교 현장을 깊이 이해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세기 동안 각 교단간의 신학적 해석의 차이와 정치 제도 등의 차이 등을 덮어 두고 복음에 근거한 기본적인 공통점을 함께 발견하는 과정을 통한 연합운동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명쾌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이러한 시도는 이미 서구의 군중 제도에서도 분명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기독교, 천주교, 동방정교, 이슬람교 등의 다양한 종단에 소속된 군중장교들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의 공통분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첫째는, 이들 종교 모두가 아담의 후예이기에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적인 접근이고 둘째는, 군 안에서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활동적인 접근이다.

이는 한국군이 요구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군 안에서 종교의 활동이 순기능화 하기 위해서 타종교와는 다른 면을 부각시켜 경쟁관계를 만들기보다 공통분모를 발견하여 활동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필연적인 시대적 요청을 무시하고 기독교 자체 내에서 경쟁적인 교단 간 선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는 군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미래 군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연합된 응집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구심점에 있고 ‘아주 특별한 선교’를 최전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MEAK로 부른다)의 사업 내용을 잘 분석해 놓았다. 그러면서 MEAK에서 설정한 바른 정책방향 위에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보완과 각 교단의 군선교를 위한 연합운동에 관한 실질적인 인식 변화에 대한 지적과 요청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발전되어야 할 부분

본 연구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군선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이다

민간에서의 교회연합 사업은 교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의사를 반영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군의 경우, 교계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와 국가정책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연구하여 적합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대처를 해 나가는 방법에도 역시 적절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선교 현장에서 정책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계의 체계적인 접근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바 향후 본 현상에 대한 교계의 사전이해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 적용하는 자세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교단의 연합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변화와 강력한 실천이다

현재 MEAK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교단의 연합된 지원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인 연합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연간 사업비 중 직접사업비가 10%밖에 되지 않고, 직접 사업에 해당되는 대체 사업비가 76.6%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다. 강력하고도 단합된 힘을 가지고 군선교에 임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을 분명히 자각하면서 과연 현재의 체제가 효율적인지, 아니면 더 나은 체제가 있는 것인지 MEAK와 각 교단이 협력하여 연구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목소리와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MEAK가 주관하는 활동이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

3. 종합 의견

연구자가 논술한 것처럼 군선교와 연관된 연합운동의 분명한 목표는 ‘비전2020운동의 성공적인 사명완수’에 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바뀌어도 군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선교’인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연합된 힘이 절실하다는 전반적인 흐름 전개는 타당한 것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MEAK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역시 바른 결론이다. 향후 본 제안들이 발전적으로 연구되고 정착되어서 보다 더 활발한 군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 제도

- 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

이현식 군종목사



오늘 우리는 학교 교육이 붕괴했다는 말이 전혀 놀랍지 않은 사회 속에 살고 있다. 학교 교육이 이미 인간화 교육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인간화 교육이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 바로 교회 혹은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종

■ 이현식 군종목사

- 감리교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 M.)
- 웨슬리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과정 중
- 육군 28사단 태풍교회 담임목사

교 교육이 각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에서 추구하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지식인층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는 심지어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 기독교의 과제 중 하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하면서도 건강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본인이 경험한 이미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왜곡된 이미지라는 것이다. 인터넷을 떠도는 근거 없는 비방들, 일방적인 언론의 횡포에 의한 왜곡된 이미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젊은 남성들이 약 2년의 시간을 군대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하나의 통과 의례이다. 이 통과 의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요 그들이 장차 살아갈 조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 복무제라는 제도는 단순히 국가를 위해 2년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인간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모범국민을 양성하여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하고 책임있는 국민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삶을 뿌리내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범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군중활동’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모범국민을 양성하는 일이 군대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며 군대에서는 군중이 가장 적합한 병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일은 그저 한 명의 모범적인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양성하는 일이기도 하며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직접 선교의 길도 더 크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2. 연구의 성격과 한계

이제까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발간한 《군선교 신학》 1권부터 5권까지 이미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정책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들이 몇 편 게재된 바 있다. 필자는 먼저 이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연구들을 발전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먼저 경동교회의 박종화 목사는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군복음화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더불어 ‘생활신앙’을 지향하는 군선교 패러다임의 건설적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군선교가 기독교 신앙을 군복무자들에게 접목시켜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전도형 선교 못지않게 기독교 신앙적 가치관으로 실제 생활을 이끌어가는 생활신앙적 훈련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¹⁾

이어서 박종화 목사는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군복무자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군선교가 군복무기간이라는 특수한 기간과 환경에 제한되지 말고 군 경험 이후의 사회생활 곧 국민 도덕 함양의 한 훈련장으로 질적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

1) 박종화,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한국기독교군선교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1》, (서울: 쿤란출판사, 2004), p. 162.

2) 위의 글, pp. 162-164.

결국 박종화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21세기 군선교의 비전은 전도를 통한 개종운동뿐 아니라, 장병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기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정우 목사는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이라는 논문에서 먼저 20세기 군선교를 회고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군선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외형적이고 물량적이며 공격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타종교와 심각한 경쟁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고 보면서 21세기 새로운 군선교의 모델로 ‘모범국민 육성안’을 제시했다.³⁾

그는 이런 방향 전환의 의의로 먼저 영적인 관심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것, 전인격적 관심과 함께 공동체적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국가적 관심과 함께 세계평화 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

또한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기독교 신앙 고유의 사역에 중점을 두지만, 물량주의, 배타주의, 독선주의를 극복하여 타종교 사역자들과 군 고유의 목적을 이루도록 협력하는 데 힘쓰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각자 자신의 고유한 가르침과 실천에 힘써야 하고, 마지막으로 군종과 지역 교회와 군선교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⁵⁾

김정우 교수 역시 21세기 군종활동은 기독교 고유의 사역과 함께 범사회적이며 범국가적인 가치를 실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석우 군종목사는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개념에 입각한 군선교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군선교를 기독교의 차원을 넘은 인간화를 지향

3) 김정우,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위의 책, pp. 184-186.

4) 위의 글, p. 188.

5) 위의 글, p. 189.

하는 것으로 교회를 더 세우고 더 많은 신자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자원과 노력을 기울였던 과거의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더 폭넓은 방향으로 안내한다.⁶⁾

이석우 목사 역시 군복음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인간화를 지향하는 군 선교를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군선교가 모범국민을 육성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와 같이 앞선 연구들은 한결같이 21세기 군선교의 방향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개종 지향적이며 교회 중심적인 군선교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으로써 참 인간화에 기여하는 군선교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군선교가 이제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 참 인간화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행 연구들은 21세기 새로운 군선교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선행연구 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과 일치한 가운데 구체적인 한 분야, 즉 인격지도의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물론 인격지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중활동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군중활동이 다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의 기회를 통해서도, 성경공부를 통해서도, 그리고 교육활동이나 상담이나 비전캠프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인격지도를 통한 모범국민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인격

6) 이석우,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한국기독교군선교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2》, (서울: 쿤란출판사, 2004), p. 234.

지도 교육 가운데서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도 모두 소중한 것들일 것이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중활동의 근거를 먼저 다루고, 그 근거에 의거하여 인격지도를 통한 군중활동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한 후에 구체적인 주제로 ‘정직’을 다룰 것이다.

3.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중활동의 근거

가. 신학적 근거

1) 선교의 정의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장성배 교수는 mission이라는 단어를 그 어원의 변천과정을 살펴면서 “그 용법상 ‘사명’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다”⁷⁾고 말한다. 이렇게 mission을 사명으로 이해할 때, 이 사명은 결국은 상황(context)과 관련되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어서 어디론가 보낸다면 그 보내진 장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⁸⁾

7) 그의 논의를 조금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틴어 어원으로부터 변천은 “보내기”, “보내지기”의 뜻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절: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사명: 사절에게 부과된 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세 번째 뜻으로는 mission accomplished(임무 완료), go on a mission(사명을 띠고 가다) 등의 표현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도 친숙한 용어이다. 회사나 기관에는 어디에나 그들의 mission statement(사명진술문)이 있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mission이라는 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 Hindu Mission Hospital). 정부기관에서도 political mission, trade missions, peace missions라는 말을 사용하며, 심지어 우리가 쉽게 보는 영화들(Mission impossible, Mission to Mars)에서도 mission이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장성배, “선교와 전도”, 한국선교신학회 편,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p. 190.

8) 위의 책, p. 191.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정한 장소로 보내실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필이면 이곳으로 보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보내진 장소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mission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mission)은 그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떤 시대에 존재하는가, 어떤 정치적, 사회적 상황인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해된다. 오늘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와야 하는 군대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통제된 사회, 엄격한 계급 구조 속에서 군인교회와 군종병과의 사명(mission)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군선교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mission을 선교가 아닌 사명이라고 이해할 때 군종목사로서 군종활동을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종교 활동이나 직접적인 전도만이 선교가 아니라 교육활동, 상담활동, 방문활동 등 모든 형태의 군종활동이 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모범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군종활동도 분명히 선교(mission)라고 할 수 있다.

2) 선교 신학적 근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전주대학교의 김은수 교수는 세계선교의 흐름을 먼저 선교회의 선교에서 교회의 선교로(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부터 1938년 탐바람 국제선교협의회까지), 이어서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1947년 휘트비 국제선교협의회부터 1961년 뉴델리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선교협의회 통합까지) 다음으로는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1963년 멕시코 세계선교와 복음화위원회부터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대회까지), 마지막으로 세계를 위한 선교와 협력의 길(1980년 멜버른 세계선교

와 복음화위원회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하였다.⁹⁾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선교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김은수 교수는 1952년 빌링엔 국제선교협의회 총회를 평가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952년 7월 5-17일까지 독일의 작은 마을 빌링엔(Willingen/Waldeck)에서 개최된 IMC의 총회는 선교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신학적 각성이 일어난 대회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에 의한 서구 선교사에 대한 추방 및 입국 제한,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전통적 종교로의 회귀, 그리고 신생 교회들의 지도력 신장으로 지금까지의 서구 교회 중심적인 선교에 강한 도전이 일어났다. 이러한 도전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어났으며 선교신학적 사고에 엄청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¹⁰⁾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정복적인 태도와 승리주의를 가지고 진행했던 교회 중심적 선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기 시작했는데, “십자가 아래에서의 선교” (Missions under the Cross)라는 빌링엔 대회의 공식 보고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의 섬김과 봉사가 그것이었다. 칼 하르텐슈타인은 이런 신학적 각성을 독일어 보고서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적 용어로 집약하여 표현하게 되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¹⁾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라는 신학적 용어를 통해 표현되는 선교

9)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0) 위의 책, p. 101.

11) 위의 책, p. 103.

신학의 가장 큰 공헌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교회나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고, 선교회나 교회는 선교의 중요한 수행자, 도구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는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 개념을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앞에서 설명한 mission의 어원적 설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통해 군선교를 정의한다면, 군선교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인 군대에서 군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선교는 단지 종교활동이나 복음 전도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교육활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병과적 근거 : 인격지도 교육의 임무

군종장교는 군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임무가 있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할 때 군이라는 조직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현재 군종장교들에게는 종교 활동을 비롯하여 교육활동, 상담 및 선도활동, 방문활동, 그리고 조언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에 군종장교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 가운데 어느 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군종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는 군 조직을 위해 기여하는 병과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군 조직을 분열하게 하는 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종장교들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병과가 군을 위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따라 요구되는 제 기능들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군종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최근에는 군종장교들에게 점점 더 많은 교육과 상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지원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며 이해할 만한 일이다.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요구하는 모든 교육을 다 실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교육의 종류도 다양하다. 훈련병 인성교육, 전입신병 교육, 분대장 교육, 정기 인격지도, 자살사고 예방교육, 간부교육, 상담기법 교육 등. 그러나 사실 교육의 기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병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이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공식적으로 모든 병사들을 만나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활동을 통해 선교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인격지도를 통한 모범장병 육성

위에서 말한 대로 교육활동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의 대상과 주제에 따라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겠으나, 먼저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주제는 육군 5대 가치, 즉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것은 지속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 역시 모범국민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병폐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 주제에 따른 인격지도 교안을 개발하고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장병들의 인성을 새롭게 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군 복음화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2020년에 75%의 기독교인을 만든다는 비전과 목표는 세례 운동을 통한 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군목을 통해 교육받아 건강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기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한 건강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일은 우리의 선교 신학과 태도를 수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동교회 담임목사인 박종화 박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전 2020이 결실되어 75%의 국민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경우 이 땅의 도덕과 윤리, 국가 경영과 국민성, 세계를 지도할 정신적, 역사적 지도력, 삶의 질, 공동선과 사회 정의……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7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가? 수량적 크기와 질적 가치가 융화되어 결실화되지 못하면 명목상의 기독교 신자화가 실질적 생활신앙과 괴리되어 기독교 이름으로 세속주의를 방치 내지 조장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고 본다.”¹²⁾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자신이 서 있는 입장에 따라 다른 가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나, 필자는 ‘정직’ 이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12) 박종화,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군선교 신학1》, (서울: 쿰란출판사, 2004), p. 164.

5. 정직 교육을 통한 모범국민 육성

그렇다면 많고 많은 가치관과 좋은 주제들 가운데서 왜 ‘정직’이 모범국민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인가?

가. 시대적 요청

먼저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라도 성공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 양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인터넷판 2007년 6월 21일자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 80.4%가 한국사회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대학생 포털 캠퍼스몬(www.campusmon.com)이 국내 대학 재학생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3.6%를 차지했고,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에 불과했다.¹³⁾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서도 그다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통계 자료도 나왔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1982년 36%에서 2001년 27%로, 10% 포인트 가까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⁴⁾ 또한 세계 투명성 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1점을 기록해 163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OECD국가의 평균 점수인 7.18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이다.¹⁵⁾

이와 같이 한국은 비교적 정직한 사회가 아님이 드러났다. 앞으로 세

13)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706/h2007062110193921580.htm>
(2008년 4월 15일 검색)

14) 세계가치관조사는 6개 대륙 80여 개 국가가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해 1980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미시건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정치학)가 조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화여대 어수영 명예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1990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7년 9월 6일자 참조

15) <http://imnews.imbc.com/replay/nwdest/article/1459975-1548.html>(2008년 4월 15일 검색)

계를 이끌어갈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디에서도 정직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정직한 삶은 손해 본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시험을 잘 보고 성공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정직’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최근 사회 구성원들이 정직이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직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하고 제도화하는 정직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윤실은 정직희망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며 국민 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넘어 2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선진화 시대 즉,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나눔의식 부족, 이념적 갈등, 국민의식 및 제도적 미비는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쾌락 추구, 불로소득을 통한 재산 증식, 인간성이 없는 지식과 과학 발전, 부도덕한 사업 성장, 원칙없는 정치, 희생이 없는 종교 등 선진 한국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는 핵심 가치는 ‘정직’의 회복입니다.”¹⁶⁾

정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16) http://www.cemk.org/movement/movement_LifeProject.htm(2008년 4월 15일 검색)

요청하는 가치관이다.

그런데 이 정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정직은 바르게 말하는 것, 마음에 거짓이 없고 바르고 끝음을 의미한다. 정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honesty는 타인에 대해서 공정한 것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속인다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개인적 차원의 도덕이나 윤리를 의미한다면, honor는 명성, 명예, 자기의 지위나 계급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도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honor box' (무인 신문판매대), 'honor system' (무감독 시험제도, 자주관리제도), 'honor camp' (자율관리 모범 수용소) 등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사회적 도덕 즉, 질서에 이르는 정직을 의미한다.¹⁷⁾

기윤실에서는 거짓말 안 하기, 기초 질서 지키기,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정직하게 세금 내기, 직업별 윤리강령 제작, 직업별 정직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운동은 우리 군중장교들을 통해 군대 안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은 또한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 요청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나. 정직은 가장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

구약성경에서 '정직' 이란 단어는 117회가 나온다.¹⁹⁾

17) 위의 홈페이지 자료(2008년 4월 15일 검색).

18) http://www.cemk.org/movement/movement_LifeAction.htm(2008년 4월 15일 검색)

19) 이 숫자는 개역개정판의 경우이다. 개역은 125회, 새번역은 80회, 표준새번역은 78회가 나온다. 또한 비슷한 단어인 '진실' 은 개역개정이 203회, 개역이 192회, 새번역이 129회, 그리고 표준새번역이 126회이다.

그런데 우리말로 ‘정직’ 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는 다양하다. יָשָׁר(yah-shar’), יָשָׁרָה(yah-shahr’), מִישׁוֹר(mee-shohr’), מִשְׁחָרֵם(me-shah-reem), מִשְׁפָּחַת(mish-paht), כּוֹן(koon), תְּצֶה־דֶּק(tzeh-dek), תְּצִדַּח(tz’ dah-kah). 이런 단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바른, 옳은, 공의, 공평, 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정직’ 이라는 단어는 117회가 나오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을 다 조회하면 600여 회가 넘는다. 이와 같이 정직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시편에서는 이 단어들이 주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이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면 당연히 정직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²⁰⁾ 이르도록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정직은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단어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주로 왕을 평가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을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의 기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정직’ 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정직한’ 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 ἡλικος가 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두 번 사용되었는데,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순진한’ 으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20) 에베소서 4장 13절

‘악이 없고’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정직’과 반대 의미를 가진 ‘거짓’, ‘거짓말’ 등의 단어가 70회 사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ψευδς*(거짓, 거짓말), *ψεύσσομαι*(거짓말하다)가 사용되며 이 단어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더욱 많은 유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며(잠 6:16-19, 12:19, 22) 거짓에 대한 결과로 심판이 오게 된다(시 5:6; 잠 19:5). 구약에서 거짓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나아가서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²¹⁾

앤디 스탠리 목사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성품이란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라고 정의내리고 있다.²²⁾

이는 정직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혹은 거짓을 말할 때는 우리 일신상의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신상에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눈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품이며 가치관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확대될 것이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면화시켜야 할 성품이다. 정직이야말로 가장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 그러므로 정직을 교육하는 것은 다만 시대적인 요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참 인간화의 길이며, 이 땅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는

21) 도서출판 청지기 편, 《청지기 성경사전》, (서울: 도서출판 청지기, 1995), p. 63.

22) Andy Stanly, *Louder than Word*, 윤종석 역,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p. 27.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6. 요약, 기대와 제안

이상에서 필자는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중활동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인격지도라는 군중병과의 한 기능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소개했다. 더 나아가 오늘 한국사회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직'을 인격지도의 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정직 교육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직한 삶은 실추된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 선진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면 이 사회는 건강해지고 신뢰할 만하며 결국은 우리 조국이 이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을 바라보면서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선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 교육을 단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먼저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문화 속에서 거하면서 거짓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기에 이르렀다. 적당한 거짓말은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가끔은 일신상의 편리함과 작은 이익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먼저 정직함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은 무의미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아나갈 것이다. 마치

막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인격지도와 같은 교육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중활동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군중장교의 정원이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원으로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 선도활동, 방문활동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많은 군중장교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범국민 육성을 통해 국가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을 수행하는 군중병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한다.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 제도(논찬)

정성구 목사



먼저 야전에서 젊은 장병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28사단 군종참모 이현식 목사님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평자도 40여 년 전에 군복을 하면서 전군 신자화 운동에 앞장섰던 일을 내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바쁘신 중에도 귀한 논문을 쓰셔서 새로운 군종활동의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 정성구 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Th. M.) / 화이트필드 신학교(Ph. D.)
- 전)총신대학교 대학원장, 신대원장, 목회대학원장
- 전)대신대학교 총장,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현)대신대학교 대학원장 및 신대원장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평자는 이현식 군목님의 논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에 있어서 아주 적절합니다. 한국사회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학교 교육은 붕괴되고 도덕적 가치 기준이 없어진데다 사람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대안 제시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안한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중활동’은 매우 유익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으로 박종화 박사의 ‘3!도형 선교’ 못지 않게 ‘기독교 신앙적 가치관’을 말했고 군생활이 ‘도덕적 함양의 한 훈련장’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을 인용했습니다. 또 김정우 교수의 ‘모범국민 육성안’을 채용했습니다. 또 이석우 군목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에 입각해서 군선교를 기독교화의 차원에서 ‘인간화’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거를 중심으로 이 목사님은 mission을 선교로 보기보다는 사명으로 이해하고 결국은 복음전도만이 선교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의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므로 선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중병과의 사명인 인격지도 역시 선교라는 것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논지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인격지도에 있어서 ‘정직 교육을 통한 모범국민 육성’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사님은 정직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군중업무의 사명을 잘 설명했습니다. 정직이 가장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라면 정직 교육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참 인간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공통의 관심이므로 군중업무 중에 인격교육을 통한 모범적 국민을 육성한다는 제안은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읽고 더 큰 군중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비판

과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논문을 쓰신 이 목사님은 ‘모범국민을 위한 군중활동 연구 - 인격지도 교육’을 위한 근거로서 Missio Dei의 개념과 ‘인간화’를 들었습니다. Missio Dei란 말 그대로는 하나님의 선교란 뜻이지만 이 말 속에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쓰여지기보다는 혼합주의(Syncretism)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Missio Dei는 고전 가톨릭의 개념에서 나와서 현대 에큐메니칼 선교의 지배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헨드릭 크레머(H. Kraemer)는 ‘교회는 선교이다’라고 하여 교회는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가 더욱 강조하여 교회 중심의 선교사상은 모두 반대하고, 선교의 배경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른바 종교의 신학(Theological Religionum)으로 가버리기 쉽습니다. 종교의 신학에서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신앙 사이에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동화적 혼합주의(同化的 混合主義, Assimilative Syncretism)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자는 이 목사님이 가지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의심하지 않지만 Missio Dei와 인간화 이론에 너무 집착한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인간화(humanization)가 선교의 제일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거듭나게 함으로 생기는 부산물이요, 복음 전도자가 만들어내는 간접적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인간화’를 군중업무 전면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둘째로, 정직 교육을 통해서 모범국민 육성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

선한 발상입니다. 또 그것을 군대 안에서 인격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타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소 낙관적인 견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병들은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인데 2년 동안 몇 번의 인격훈화를 통한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육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고 부패했으며, 사회의 구조 자체가 정직해봐야 손해 본다는 의식이 팽배한 세상에서 군목들의 정직 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휘관에게는 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군종목사로서 얼마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염려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국민을 양성하려면 그것은 군대밖에 없으며, 그것은 우선 정직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지름길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평지는 차라리 인격지도 시간에 정직 교육 못지않게 기독교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이 신·불신 간에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물주의 세계관, 허무주의 세계관 등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면서 인격훈련과 정직훈련을 함께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타종교의 장병이나 무종교의 장병이나 기독교 장병 모두를 아우르는 교양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반 장병들의 반발이 예상되면 그냥 '세계관 강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직과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을 깨닫고 결국 복음으로 눈을 돌리도록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물론 제가 드리는 제안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분야에 새롭고 실용적인 것이 화두가 되는 때입니다. 군대도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군인은 국

방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장병들이 애국 교육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사도를 교육받아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망가지고 사회 교육이 쓰러진 이 마당에 군목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정직 교육, 신사도 교육, 영적 교육을 맡아서 실행한다면 이는 새 정부 아래서 군종업무의 위대한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군 당국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군목의 정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듭 이 목사님의 논문을 읽고, 주님을 사랑하고 장병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에 감사와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박(反駁)

이규철 목사



어거스틴의 눈에 비친 마니교는 한 마디로 '찬란한 환상의 공허한 찌꺼기' ¹⁾에 불과한 두드러진 이단(par excellence)이었다.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에 대해 회오(悔悟)하였고 쟁투(爭鬪)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

■ 이규철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 대학원(Ph. D.)
- 극동방송설교가, 전)육군 3사관학교 충성대교회 담임목사
- 현)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때가 마니교 청문자(聽聞者)²⁾로 머물렀던 9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감추지 않음으로 회오를 드러낸다.³⁾

그리고 어거스틴은 5세기경 고대 아프리카 교회의 감독으로서 기독교 공인 이후의 로마 제국이 부여한 감독의 법적 재판권을 행사하면서 마니교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반박⁴⁾을 함으로 마니교에 대한 쟁투를 가속화한다.⁵⁾

- 1)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마니주의자들의 언설이 한낱 ‘찬란한 환상’에 불과하며, 이 마니교들의 환상에 비하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하늘 혹은 땅위의 실제적인 물체가 훨씬 더 확실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Augustine, *Confessions*, III, 6, 10, 선한용 역,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이하 *Confessions*를 Conf.라고 표기한다.
- 2) 곤잘레스(Justo L. Gonzalez)에 의하면, 마니교는 철저한 극기의 윤리를 수행하는 정도의 차이를 둔 차원에서 ‘청문자’(hearer)와 ‘완전자’(the perfect)를 구분했다. 청문자는 절대적인 극기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며 평상인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해도 된다. 단지 청문자는 마니교의 예배와 교리 공부에 참석해야 하며 ‘빛의 교회’(Church of Light)의 사역을 위해서 공헌해야 한다. 이 청문자의 소망은 죽음 이후 즉각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고 다음 단계의 삶에서 완전한 신자로 환생(reincarnate)하는 데 있다. 반면 완전자는 절대적인 극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만 몇 가지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는데, 이 음식 속에는 빛의 입자들이 들어 있어서 음식을 먹을수록 점점 빛과 동화되어 간다고 믿었다. 훗날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버렸을 때, 먹는 것에 관한 마니교의 입장을 ‘배로 얻은 구원’이라고 조롱 격의 평가를 했다.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pp. 18-19.
- 3) Conf. III, 11, 20. “나는 거의 9년 동안이나 저 마니주의의 깊은 흠탕물과 그 위선의 암흑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때로는 그 흠탕물에서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럴수록 나는 또다시 더 무겁게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 4) 스탠리 로메인 호퍼(Stanley Romaine Hopper)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이원론에 근거한 마니교의 주장에 대해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와 하나님의 본성, 세계의 본성, 선과 악의 문제들’과 같은 신학 난제들에 대한 해제와 논증으로 반박한다. 이를 위해 어거스틴이 동원한 방법은 그의 반대자들에게 화해 불가능한 선택지(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제기하고서 신플라톤철학적 논제들을 원용하여 정립한 그의 신학이론을 정립하는 방법이다. Stanley Romaine Hopper, “마니교 반박 저술들”, 《아우구스티누스 연구핸드북》, 현재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p. 197.
- 5) 마니교를 반박한 어거스틴의 대표적 저작은 다음과 같다.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et de moribus Manichaeorum*(정통교회의 습속과 마니교의 습속, 388년), *De Genesi contra Manichaeos*(마니교도를 논박하는 창세기들, 388-390년), *Acta seu Disputatio contra Fortunatum Manichaeum*(마니교도인 포르투나투스를 논박함, 392년), *Contra Adimantum Manichaei discipulum*(마니교도 아디만투스 반박, 393-396년), *Contra Faustum Manichaeum*(마니교도 파우스트 논박, 400년), *De natura boni contra Manichaeos*(마니교도를 논박하는 선의 본질론, 405년), *Contra Secundinum Manichaeum*(마니교도 세쿤티누스 논박, 405-406년).

논자는 마니교에 대해 어거스틴이 취한 회오와 쟁투의 국면에 집중하여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왜 어거스틴은 마니교 청문자가 되었는가? 둘째, 그런 그가 왜 마니교를 떠났는가? 셋째, 사제(司祭)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대해 펼친 쟁투로서의 반박 내용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명을 통해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뇌와 신학적 반박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마니교 청문자(聽聞者)

A. 마니교

마니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마니는 페르시아 치하의 바벨론에서 216년 4월 14일 태어났다. ‘리우’ (Samuel N. Lieu)에 따르면, 마니는 ‘쿠르카비오스’ (Kurkabios)라고도 불려졌고, 그의 아버지는 ‘파티크’ (Patik)였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마니를 ‘악의 화병’ (Vase of Evil)이라는 별명을 붙였다.⁶⁾ 유세비우스는 마니교가 역사 속에서 빠르게 된 경로를 이렇게 전한다.

이 시기에 저 미친 사람(*μᾶνεις τὰς φρενῶν*) 마네스(Manes)가 나타났다. 그는 그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자기의 악마적 이단을 위해 왜곡된 이성으로 무장했으며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평생 동안 그의 말과 행동은 야만적이었고 그의 본성은 마귀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고자 했고 또 자신이 성령과 보혜사라고 선언했으며, 이런 것들로 더불어 미친 듯이 크게 자만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6) Samuel N. Lieu, *Manichaeism* (Oxfor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5), p. 29.

자기의 새로운 종교의 동역자로서 12제자를 뽑았다. 그리고 아울러 오래 전에 소멸된 수많은 이단자들로부터 수집한 거짓되고 불경한 교리들을 맞춘 뒤, 마치 치명적인 독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페르시아로부터 이 지방까지 휩쓸어 버렸다. 마니교(Manichee)라는 불경한 이름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다.⁷⁾

‘칼 바우스’(Karl Baus)의 조사에 의하면, 마니의 가족은 유대계 기독교 계통의 ‘엘케사이파’(Elkesaism)에 속했다⁸⁾. 마니의 가족이 엘케사이파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마니가 영지주의적 체계와 친숙했음을 시사한다.

‘잔 다니엘루’(Jean Danielou)의 분석에 의하면, 엘케사이파는 옷을 입은 채 세례를 받으며, 세례는 죄를 사하여 준다고 믿었다. 또한 이들은 질병에서의 치유를 희망하며 자주 목욕을 하였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다. 그러나 엘케사이파는 구약의 제사와 구약성경의 일부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 종말을 가져다 줄 대전쟁이 임박하였다는 종말론적 예언을 주창하였다. 아울러 엘케사이파는 바울 사상을 배격하였고 그리스도를 순수한 인간과 예언자로 보았다.⁹⁾

7) Eusebius Pamphilus,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1), p. 419.

8) 칼 바우스(Karl Baus)에 따르면, 엘케사이파는 본래 2세기 초 시리아와 파르티아(Parthia) 국경 지방에서 활동했던 ‘엘케사이’가 창시자이다. 이 종파는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지역에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특히 엘케사이파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팔복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엘케사이는 책을 통하여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여기에 엘케사이 사상이 서술되어 있다. 이 사상에 의하면, 천상 세계에 있는 두 요소, 즉 성령이라고 불리는 이원론적 교리를 내세우고 있다. Karl Baus, *From the Apostolic Community to Constantine: Handbook of Church History*, vol. 1., Hubert Jedin and John Dolan, ed. (London, 1965), p. 156.

9) Jean Danielou,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octrine up to the Council of Nicea I: The Theology of Jewish Christianity* (Chicago, 1964), pp. 64-67.

이런 점에서 엘케사이파는 에비온파(Ebionism)¹⁰⁾와 비슷하다. 따라서 엘케사이파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동시에 유대교 이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유대계 기독교적 이단 사상을 주장하였다.

호퍼의 지적에 의하면, 마니는 12세 때 신적 계시를 받았고 24세 때 다른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석가, 조로아스터(Zoroaster), 그리고 예수 등과 같이 자기보다 앞선 종교 창시자들과 구별된다고 차별성을 두었다.¹¹⁾

‘코일리’ (J. Kevin Coyle)에 의하면, 석가나 조로아스터(Zoroaster) 그리고 예수 등과 같은 이들이 비록 믿을 만한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존재라고 평가한 마니는 소위 ‘빛의 종교’ (Religion of Light)라는 것을 통하여 온 세계에 계시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는 사명을 지녔다고 확신했다.¹²⁾

‘얼 카이른즈’ (Earle E. Cairns)의 지적에 의하면, 마니는 ‘두 개의 상반된 영원한 원리’ (Two opposing and eternal principles)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최초의 인간은 ‘빛의 왕국’의 통치자에게서 발산(emanation)된 보다 고등한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빛의 왕을 대적하는 존재는 어둠의 왕이다. 마니는 최초의 인간을 속여 빛과 어둠으로 뒤섞인 존재를 만들려 했다. 영혼은 인간을 빛의 나라와 연결했지만 몸은 그를 어둠

10) 에비온파는 유대계 그리스도교 그룹 가운데 가장 큰 이단이다. 에비온 사상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거부.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구원론적 의미의 거부. 셋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존중과 엄수. 넷째, 바울 사상에 대한 배척. 다섯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부정. 특히 교회 신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던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거부하였다.

11) “지혜와 행위는 언제나 때때로 신의 사자들에게 의해서 인류에게 전달되어 왔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지혜와 행위는 부처라는 이름의 사자에 의해 인도에 전달되었으며, 또 다른 시대에 조로아스터에 의해 페르시아에 전달되었으며, 또 다른 시대에 예수에 의해서 서방에 전달되었다. 바벨론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신의 사자인 나 마니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계시가 나왔으며 이 예언이 전달되었다.” Stanley Romaine Hoppe, *op. cit.*, p. 186에서 재인용.

12) J. Kevin Coyle, “Mani, Manicheism”, Allan D.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9), pp. 520-521.

의 나라에 예속되게 만들었다. 구원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빛을 몸이라는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이 해방은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드러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¹³⁾

‘모리온 버튼’(Morion L. R. Burton)에 따르면, 마니교는 태초 이전부터 실체로서 존재하는 빛(Ormazd)과 어둠(Ahriman)이라는 두 축을 기초로 한 이원론이다.¹⁴⁾ 그 중 빛¹⁵⁾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신(神) 자신을 뜻하며, 빛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어둠도 암흑의 세력으로 함께 존재한다고 믿는 교리 체계이다. 빛과 어둠을 축으로 한 마니교의 체계는 그들의 시간관 속에 엄정히 자리한다. 리우에 의하면, 마니교는 ‘이전 시간’(the former time), ‘현재 시간’(the present time), 그리고 ‘미래 시간’(the future time)이라는 3단계 시간관¹⁶⁾에 기초한 체계이다.

13)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Michighn: Zondervan Pub. Co., 1981), p. 100. 엘리트 혹은 완전자들은 이 집단에서 제사장이다.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마니교에서는 성욕을 악한 것으로 강조하였고 독신 생활의 탁월함을 강조했다. 그들은 금욕 생활을 했고, 빛의 해방에 필요한 몇 가지 의식을 수행했다. 청문자들은 이 엘리트 집단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거룩함에 동참했고, 그리하여 구원에도 동참했다.

14) Morion Le Roy Burton, *The Problem of Evil* (Chicago: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1909), p. 12.

15) 빛에 관한 마니의 사상을 조사한 ‘앨버트 뉴먼’(Albert H. Newman)에 따르면, 마니는 빛이 은유, 지식, 이해, 신비, 그리고 통찰 등 다섯 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빛은 사랑, 믿음, 진리, 순교, 그리고 지혜라는 5개의 영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암흑 세력 또한 구름, 화염, 폭염의 바람, 독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5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Albert H. Newman, “Introduction Essay on the Manichaeism Heresy”, Phili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V (Buffalo: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86), p. 11.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F*라고 한다.

16) ‘이전 시간’은 하늘도 땅도 없는 시기로서 거기에는 오직 빛과 어둠만 존재한다. 이때 그 빛의 본질은 지혜이며, 어둠은 어리석음인데 빛과 어둠의 모든 행동과 안식은 각자가 완전히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간’에서 어둠은 빛을 공격하고 빛을 쫓아내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한다. 빛은 번갈아 어둠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큰 재난을 밀치는 서약과 함께 빛은 위임된다. 이에 그 빛은 그것의 근원적인 몸을 벗어나기를 몹시 싫어한다. 그리고 열렬히 거주하기를 탄원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본질을 구원받기 위해 그 육체적 몸을 지치고 고달프게 해야 한다. ‘미래 시간’에 이르러 마니가 가르치고 설렘한 것들은 끝 부분과 진리에 이르게 되고, 거짓말은 그들의 뿌리로 되돌아간다. 하여 빛은 한 번 더 그 큰 빛에 속하게 되며, 어둠은 궁극적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이 두 법칙들은 그들의 정상적인 상태로 서로가 되돌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포기한다. Samuel N. Lieu, *op. cit.*, p. 8.

호퍼에 따르면, 마니교는 이 같은 세계관 아래 어둠이 사람의 시각과 청각, 미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을 막아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문제시한다. 따라서 마니교는 인간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욕을 억제하고 안에서 나오는 정신의 광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마니교는 철저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¹⁷⁾

이런 점에서 볼 때, 마니교는 빛과 어둠의 두 본질을 축으로 한 이원론의 체계 안에 조로아스터교, 미스라교, 영지주의적 우주론을 혼합한 신비주의적 종교체계를 이룬 환상적인 자연철학의 형태이자 빛과 어둠의 두 본질의 공존을 인정하는 비타협적인 이원론의 신비적 혼합종교이다.

마니교는 왕성한 세 확장을 이루어 갔다. 리우에 따르면, 마니는 인도(India)와 두란(Turan)에서 힌두교의 브라만과 불교 수도승들을 만났고, 로마의 동부지방에서 기독교 주교들과도 접촉하였으며,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의 심장부 격인 페르시아(Persia)에서도 포교 활동을 하였다. 특히 초기 마니교는 로마 제국을 향해 적극 나아갔다. 이는 서양의 기독교적 문화 성향이 마니교의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호응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여 마니교는 메소포타미아의 로마 통치구역으로 급속도로 침투해 들어갔으며, 시리아, 북아프리카 등지에까지 전파되었다. 더욱이 뒤이어 논해질 어거스틴과 마니교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마니교는 4세기 말엽의 카르타고에서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그런 왕성한 세를 과시하여 온 마니교는 5세기 말경 서방교회와 국가로부터 반대와 탄압을 받아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 뿌리가 제거된 것이 아니다. 마니교는 여러 모양과 형태로 수정하면서 계속 존속했다.¹⁸⁾ ‘폴 스티브스’(Paul D. Steeves)의 추적에 의하면, 기독교회사 속에서 이슈가 된 ‘바울파’(Paulicians)¹⁹⁾와 ‘보고밀파’(Bogomil)²⁰⁾가

17) Stanley Romaine Hopper, *op. cit.*, p. 153.

형태를 달리한 영지주의 성격의 마니교 계승자이다.

B. 마니교 입교 동기

어거스틴이 마니교 청문자가 된 동기는 무엇인가? 곤잘레스는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입교한 동기를 세 가지로 집약한다. 첫째, 마니교의 이론들이 어거스틴을 사로잡은 것은 우주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내려준다는 약속 때문이다. 둘째, 마니교도들은 대부분 구약성경을 배격했다. 따라서 어거스틴도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성경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에 어거스틴은 좀 더 개화된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셋째, 어거스틴은 하나님

18) 리우에 따르면, 마니교는 동방을 향해서도 나아갔다. 이란에서는 '사산왕조' (the Sassanian) 기간 중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크게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그저 명맥만 유지하였다. 하지만 7세기 후반에 이르러, 마니교는 '실크 로드' (silk road)를 따라 극동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675년에는 중국에 들어가 도교, 불교, 마니교를 혼합시켜 교리 문답집을 만들어 황제에게 간헐하여 포교의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칼 호수(Lake Baikal) 남쪽지역에서는 군사혁명으로 세력을 잡은 위구르(Uighur) 왕국의 '모유 왕' (the Khaghan Mo-Yo)이 762년에 마니교로 개종하였다. 이로써 마니교가 위구르족의 공인 종교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840년 위구르족이 키르키즈(the Kirghiz) 터키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이 후, 마니교는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곳곳에 산재하며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19) 폴 스티브스(Paul D. Steeves), "바울파와 보고밀파", 라이온社 編, 《교회사 핸드북》(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pp. 245-246. 스티브스에 의하면, 바울파는 650년 이후 비잔틴 제국의 동부에서 나타난 기독교 집단이었다. 그들의 창설자 '콘스탄틴'은 제국의 종교 생활을 지배한 정교회(Orthodox state church)의 형식주의를 배척한 자로서, 콘스탄틴은 자신의 이름을 '실바누스' (Silvanus)로 바꾸었다. 실바누스가 돌에 맞아 죽은 후 실바누스의 후계자는 '디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는 화형을 당하였다. 그 외의 다른 지도자들은 디도테와 두기고 같은 이름을 택하였다. '폴 스티브스'는 부단히 자신들을 사도 바울과 연관시키려는 이들의 시도로 인해 그들이 바울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콘스탄틴은 자신의 가르침이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만이 영감된 것인 반면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구약성경의 저자는 악한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바울파에 따르면, 악한 신이 조물주이며 이 세상의 신(god)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늘의 참 하나님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반대하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물질세계의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 참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고 그 천사는 인간 예수로 나타났다. 바울파의 이원론적 견해는 성경과 교회에 관한 그들의 독특한 주장을 형성케 했다. 바울파에 따르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교회와 국가의 비잔틴적 연합의 신정적 원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 구약성경은 악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정교회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성례전과 사제적과 형상과 예배 의식 그리고 세속적 영향)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기에 이 또한 동일한 악령으로부터 왔다. 더욱이 사도 베드로의 권위에 대한 교회의 의지는 그가 악령의 사자였음을 보여준다고 믿었다. 바울파의 이 같은 사상 경향은 마르키온 일파나 마니교의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하다.

의 선과 사랑이 악의 존재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를 놓고 끊임없이 고심해 왔는데, 이제에는 마니교의 이론에 의해서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영원한 원리가 있지 않고 선과 악의 두 원리가 대등하게 있다는 데서 그 해결점을 찾은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²¹⁾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입문한 것에 관한 ‘하르낙’ (Adolf von Harnack)의 입장에 따르면, 마니교가 자연종교의 토대 위에서 계시, 구원, 도덕적 덕목과 같은 영적인 유익들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과 악이라는 문제에 대한 마니교의 교리가 단순하지만 심오하고도 편리한 해답을 어거스틴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이다.²²⁾

교회사 속에서 볼 때, 바울파는 많은 박해에 직면한다. 8세기의 ‘성상파괴전쟁’ 기간 중에 바울파에 대한 박해는 잠시 주춤해졌다. 일설에 따르면, 콘스탄틴 코프로니무스(Constantine Copronymus) 황제는 바울파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의 황후 테오도라(Theodora)는 9세기 무렵 아르메니아 지역의 주류인 바울파를 수만 명 학살하도록 명하였다. 박해가 가속화되자 바울파는 이 박해에 대한 반응으로 전투에 능한 군대를 조직했다. 그러자 로마 황제들은 많은 바울파들을 그들의 주 본거지인 아르메니아로부터 오늘날의 불가리아인 발칸 반도로 이주시켰다. 로마 황제들은 바울파가 슬라브인과 불가리아인의 위협에 대항하여 제국을 방어해 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바울파가 군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보다 더 불가리아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바울파는 아르메니아에서 19세기에 이르도록 계속 존재하였다.

- 20) 스티브스에 의하면, 불가리아인 가운데 바울파의 사상을 받아들인 자들이 새로운 종교 체계인 ‘보고밀파’ (Bogomilism)를 형성했는데, 보고밀파의 조직자는 보고밀(Bogomil)이라는 사제였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10세기 중엽에 보고밀은 하나님의 만아들이 사타넬(Satanael)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타넬은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당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다. 사타넬과 하와는 가인의 부모가 되었다. 가인은 인간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보고밀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세와 세례 요한은 모두 사타넬의 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타넬의 지배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둘째 아들 로고스를 보냈다. 비록 사타넬이 성욕신한 로고스, 즉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의 영적인 몸은 부활하였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여 사타넬은 패배하였다. 바울파와는 대조적으로 보고밀파는 엄격한 금욕주의적 생활양식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결혼을 멀리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신자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허락되었다. 그들은 고기와 술을 먹는 것을 정죄하였다. 그들은 세례와 성찬이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탄적 의식으로 보고 거절하였다. 보고밀파의 사상은 불가리아가 10세기와 13세기에 독립 국가였을 때 그곳에서 번창하였고, 1393년 터키인들이 불가리아 제국을 멸망시켰을 때, 보고밀파는 사라졌다. *Ibid.*, p. 246.

21) Justo L. Gonzalez, *op. cit.*, p. 19.

22) Adolf von Harnack, *Monasticism: Its Ideals and History and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London: Williams & Norgate, 1913), pp. 150-151.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호감을 느낀 이유에 관해 ‘틸리히’ (Paul Tillich)는 세 가지 이유를 개진한다. 첫째, 진리는 어거스틴의 실존적 관심이었는데 마니교가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실천적 또는 실존적 관심의 문제인 종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마니교는 악의 법칙에 의해 붙잡혀진 선이 그 악으로부터 구원된다고 하는 일종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마니교에서의 진리는 선과 악의 투쟁 사이에 놓여 있는데, 이 선과 악의 투쟁과 갈등이 어거스틴에게 역사를 해석하는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이다.²³⁾

‘보너’ (Gerald Bonner)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세 가지로서, 첫째는 악에 관한 문제이다. 곧 악은 어디에서 오며 왜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성경에 관한 문제이다. 곧 신, 구약 간의 불일치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특별히 구약의 문제에 있어서 의식적인 순결과 율법 준수가 세례를 받은 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세 번째는 전반적인 성경에 대한 문제이다. 곧 인간의 이성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으라고 하는 이성과 권위의 관계성(the relation between authority and reason) 문제이다.²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이 마니교의 덫에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 그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은 후 품게 된 철학에의 열정과 염원 때문이라고 밝힌다. 실제로 키케로는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철학적 개안(開眼)을 갖게 하였다.²⁵⁾ 그러나 어거스틴은 전적으로 《호르텐시

23)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8), p. 106.

24) Gerald Bonner, *St. Augustine of Hippo: Life and Controversies* (Norwich: Canterbury Press, 1986), pp. 193-194.

25) 어거스틴과 키케로 사이의 초기의 관계에 관한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의 견해에 따르면, 만약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기 전에 철학적으로 숙달되었다면 그 숙달은 키케로 안에서 숙달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키케로로부터 철학적 관점 또는 철학적 교의들의 뚜렷한 체계를 배웠다기보다 진리 추구의 불타는 열정이 파생되어 나왔다. Benjamin B. Warfield, *Studies in Tertullian and Augustine* (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p. 136.

우스》를 수궁하지 않았다. 이는 어거스틴이 어릴 적부터 존경해 오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²⁶⁾ 한 마디로 영적 갈급함으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가슴을 찾고 있었던 어거스틴은 예수의 이름을 형상화한 신학인 마니교에 급속히 가까워졌다.²⁷⁾

《고백록》에 언급된 어거스틴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본 ‘페라리’(Leo C. Ferrari)의 분석에 의하면, 당시 마니교는 어거스틴이 그리워하고 있던 이국적인 철학의 형태로서, 열정적인 어거스틴에게 매혹적인 미끼를 제공했다. 따라서 어거스틴이 기괴한 믿음체제로 혼합을 시도한 마니교를 수용한 것은, 그의 시각에 마니교가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예수 이름이 포함된 철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²⁸⁾

페라리의 분석은 《고백록》의 다음 진술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들의 입은 당신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위안자이신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뒤섞인 말들로 달라붙게 하는 끈 끈이었습시다.²⁹⁾

또한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청문자로 서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악의 근원에 대한 그의 강박관념이었다.

26) Conf., III, 4, 8. 《고백록》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지혜에 대한 사랑의 열망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가 찾고 있던 철학은 그가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아 온 예수의 이름이 혼합된 철학이었음을 암시한다. 이와 함께 어거스틴은 당시 까다로운 수사학도였는데, 성경의 소박하고 수수한 문체에 반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27) Conf., III, 5, 9-6, 10. “그러므로 나는 성경으로 마음을 돌려 그것이 어떠한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리한 통찰력은 그 내적인 의미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은 미친 듯이 교만했고 육적인 것을 너무 따랐으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8) Leo C. Ferrari, *The Conversions of Saint Augustine* (Villanova: Villanova University Press, 1984), p. 21.

29) Conf., III, 6, 10.

이 어리석은 마니교도가 나에게 질문하기를 “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은 어떤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 제한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도 머리털이나 발톱이 있는가? 아내를 동시에 여러 명 데리고 사느냐, 사람을 죽인 자, 혹은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 자들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나는 곧잘 그들에게 설득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은 대단히 어지러웠습니다.³⁰⁾

그러면서도 나는 자칭 점성가라고 말하는 사기꾼들(마니교도)과 의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성가들은 이 건전한 말씀(진리)을 파괴하기 위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한 원인은 필연적으로 하늘의 별이 결정할 것이다” 또는 “금성이나 토성이나 화성이 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육신과 피를 지니고 있으며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하늘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³¹⁾

이상의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청문자로 입문하게 된 주요 요인이 드러난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부터 줄곧 그를 괴롭혔던 악의 문제에 관해 선과 악의 두 본질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마니교의 해석원리가 그에게 깊은 호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곧잘레스와 하르낙 그리고 톨리히와 보너, 그리고 페라리의 의견은 어거스틴의 진술에 비춰 볼 때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거스틴이 마니교 청문자가 된 주

30) *Conf.*, III, 7, 12.

31) *Conf.*, IV, 3, 4.

된 동기는 그가 줄곧 고민하여 온 악의 문제에 대한 마니교의 해명이 가진 매력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시나브로 예수와 그의 종교적 교리를 언급하는 마니교의 구원론에 끌린 것이다.

C. 마니교 청문자로서의 사상 행태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마니교 청문자로 머물 당시 그의 사상 행태는 어떠했을까? 《고백록》에서 마니교 청문자 시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악에 관해 가졌던 어거스틴의 생각을 추적해 보면, 마니교 청문자 시절에 가졌던 어거스틴의 사상 행태가 파악 가능하다.

‘버킷’ (F. C. Burkitt)에 따르면, 마니교는 어둠과 빛의 영역을 지배하는 특별한 신들이 존재한다는 믿음 체계이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어둠과 악의 세계를 다스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빛과 선의 세계를 지배한다. 더욱이 악은 하나님과 공존하는 본래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에 맞서 싸우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악의 대결 구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왕국’ 대(對) ‘어둠의 왕국’ 이라는 대결구조 안에서 세계 역사가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³²⁾

악이 지닌 실재적 힘에 의해 하나님이 제한된다는 마니교의 신관은 자연스럽게 마니교 청문자로 머물던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쳤다. 《고백록》은 이렇게 전한다.

나는 이전처럼 열심을 내어 그 마니교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단만
로마에 상당히 잠입해 있었던 그들과의 친분 관계가 다른 길을 찾으려

32) F. C. Burkitt, *The Religion of the Maniche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5), pp. 39-40.

는 내 발걸음을 느리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육체의 형상을 갖고 있고 우리 육체의 지체의 윤곽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명상할 때 어떤 큰 물체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물체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³³⁾

이상의 기록처럼, 마니교 청문자 어거스틴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마니교 신관의 영향 아래 유물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 곧 하나님을 물체로 파악했던 마니교 청문자 어거스틴이었기에 하나님의 무한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을 유물론적 유한성의 존재로 인식한 어거스틴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마니교의 범신론적 입장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무화과 열매를 따는 것과 마니교도의 식사 풍습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나는 점점 알게 모르게 어리석은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무화과를 딸 때 그 무화과가 운다든가, 무화과나무가 어머니처럼 흰 젖의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를 마니교 성인들이 먹으면 그것을 뱃속에서 소화시켜 숨을 내뿜을 때 천사를 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마니교의 성인들의 배로 인해 그 신의 부분이 풀려나지 않으면 그 지고하시고 참되신 신의 부분은 그대로 무화과에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인간보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땅 위의 과일을 더 가엽게 여겨야 된다고 믿었습니다.³⁴⁾

33) Conf., V, 10, 19.

34) Conf., III, 10, 18

마니교 청문자 시절, 악한 물체와 대립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분이 유한하다는 마니교적 신관을 품었던 어거스틴은 '악' (惡) 또한 형체를 지닌 물질이라는 사유에 머물렀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악도 이와 같은 실체로서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물체 덩어리와 같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니교도들에 의하면 그것이 밀착되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땅이 되는 것이요, 회박하고 가볍게 되면 기체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체를 악령이라고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의 경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 결코 악한 실체를 창조하셨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로 상반되는 두 물체를 가정하게 되었으니, 이 둘은 다 무한하되 악은 비교적 더 좁고 선은 더 광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병적인 전제로부터 나의 여러 가지 신성모독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³⁵⁾

마니교 청문자 시절, 유물론적 입장에서 유한성의 물체로 하나님을 이해한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니교적 신관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이라는 실체의 덩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로 이해했다.

나는 어리석게도 악을 어떤 막연한 실체로 여길 뿐 아니라 형체를 지닌 물체로 보았습니다. 나는 인간 정신도 회박한 물질로만 생각하였으므로 정신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빛나는 당신의 실체의 덩어리로부터

35) *Conf.*, V, 10, 20.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떨어져 나오신 분으로 나는 생각하였습니다.³⁶⁾

이상의 사실들을 기초로 할 때, 어거스틴은 빛과 어둠, 그리고 선과 악의 무한한 대립각이 견지된 마니교의 세계관에 몰들어 있었다고 평가된다.

III. 마니교 탈퇴(脫退)

마니교 청문자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탈퇴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록》의 진술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탈퇴한 주요인은 자연계의 천체 현상 가운데 일식(日蝕) 현상³⁷⁾과 관련이 있다. 일식은 거의 매년 두 차례 정도 발생하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지만, 고대인에게는 두려움의 현상이었다.

‘에스무센’(Jes P. Asmussen)에 따르면, 마니교는 일식을 신성 모독적 현상으로 여겼다.³⁸⁾ 따라서 마니교도에게 일식과 같은 신성 모독적 현상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최고의 죄악된 행동이었다.³⁹⁾ 그런데 《고백록》에 의하면, 천문학에 관해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어거스틴은 383

36) 마니교 청문자 당시, 어거스틴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그 자신이 믿기 두려웠던 것은 그 성육신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고 믿어야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onf.*, V, 10, 20.

37) *Conf.*, V, 3, 3. 페라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거스틴 또한 일식 현상을 여러 번 보았다. 어거스틴이 5세였던 359년 3월 15일 타가스테 200마일에 걸쳐 일식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372년 또는 373년부터 파우스투스를 만나는 383년 사이에 두 번째 일식이 일어났다. 그 중 하나는 378년 9월 8일에 일어났는데, 중심거리가 카르타고 남쪽 1100마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381년 1월 12일 일어났는데, 그 중심거리는 카르타고 남쪽 1700마일에 걸쳐 있었다. Leo C. Ferrari, “Astronomy and Augustine’s Break with the Manichees”, *Revue des Etudes Augustiniennes* 19 (1973), p. 270.

38) Jes P. Asmussen, *Manichaean Literature: Representative Texts Chiefly from Middle Persian and Parthian Writings* (Delmar, New York: Scholar’s Facsimiles & Reprints, 1975), 73-74.

39) Augustine, *Contra Faustum Manichaeum*, XX, 8., in *NPNF*, vol. IV.

년 카르타고에 온 마니교의 지도자 ‘파우스투스’(Faustus)에게 일식(日蝕) 현상에 대해 질문을 했다. 하지만 파우스트의 설명을 들은 어거스틴은 정밀하지 못한 파우스트의 무지에 대해 실망한다.

“나는 파우스투스가 학식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으나 무식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자, 그는 내가 번민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명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실망했습니다. 물론 그가 마니교도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학예(학문)를 모르면서도 경건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마니교도의 책은 하늘과 별, 해와 달에 대하여 허황된 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절히 요망했던 문제 즉 마니교도의 책에 포함된 설명이 그대로 맞는지, 내가 다른 곳에서 읽어 알게 된 수사학적 설명보다 더 나은지, 혹은 거의 같은지에 대하여 파우스투스는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없으리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문제들은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토론되어야 한다고 그에게 제안하자 그는 정말 겸손하게 그런 문제들을 감히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니다.”⁴⁰⁾

이상에서와 같이 어거스틴은 신화적 천문학에 관한 마니교도의 이해와 그가 공부하였던 수학적인 설명에 근거한 과학적 천문학 사이에서 대비된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 더불어서 어거스틴은 자연현상을 신화적 사건과 의미로 해석하는 마니교에 반(反)해 자연과학적으로 일식을 다루는 학문성에 근거하여 우주 전체에 관한 마니교의 견해가 허구적이고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40) Conf., V, 7, 12.

나는 철학자들의 이론과 마니의 교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니도 그러한 제목의 책을 상당히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서들은 내가 배운 자연 철학자들의 책들처럼 동지, 하지, 춘분, 추분, 그리고 일식과 월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마니가 기록한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였지만 그것은 수학적인 이론이나 내 자신의 관찰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달랐습니다.⁴¹⁾

《고백록》에 따르면, 이로써 마니교의 교리를 깊이 연구하려던 어거스틴의 열심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멈추었다.

이리하여 마니교의 교리를 연구하려던 나의 열심도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그렇듯 나를 번민케 했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지 못할 때, 그 교파에 대한 나의 실망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 때 나는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교수로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투스도 내가 가르치는 학문을 몹시 배우려고 하므로 함께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알게 되자마자 마니교를 더 깊이 탐구하려고 한 나의 노력은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올가미가 되었던 파우스투스는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내게 걸려 있던 그의 올가미를 자기도 모르게 풀기 시작했습니다.⁴²⁾

어거스틴의 눈에 비친 마니교의 장점은 합리적이고 학문적인 데 있었

41) Conf., V. 3. 6.

42) Conf., V. 7. 13.

다. 반면 약점은 그들이 약속한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깊게 깨달은 어거스틴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마니교를 버렸다. 마니교 청문자 어거스틴은 이제 마니교 탈퇴자가 되었다.

IV. 마니교 반박(反駁)

A. 《고백록》에서의 마니교 비판

어거스틴은 그의 필생의 역작인 《고백록》⁴³⁾을 통해, 과거 그가 마니교 청문자로 머물렀던 것에 대한 깊은 회오가 동반된 신랄한 어조의 폭로로써 단호하게 마니교를 반박했다. 먼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마니교를 ‘악마의 덫’ (the snares of devil)을 가진 입이라고 고발했다.

그때 또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빠져들고 말았는데 그들은 미친 듯이 교만했고 육적인 것을 너무 따랐으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당신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위안자이신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뒤섞인 말들로 재잘거리는 악마의 덫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항상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다만 혀의 굴리는 소리일 뿐 그들의 마음은 그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비어 있었습니다.⁴⁴⁾

43) 어거스틴은 391년 히포의 감독 발레리우스에 의해 사제의 안수를 받은 뒤 히포 교구를 돌보던 중 397-400년 경에 《고백록》을 썼다. 이규철에 따르면, 《고백록》에는 박해와 연관된 초대 교회의 고난의 상황과 순교의 정신을 지키려는 당시 교회의 신앙적 요구가 투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고백은 순교적 신앙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자기 신앙의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죄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포함된 자기 심판적 고백을 했다. 이는 어거스틴 한 개인의 회심의 여정에 관한 차원이 아니라 《고백록》이라는 개인적 문헌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기를 폭로하는 철저한 고백적 신앙의 표현이었다. 이규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회심》(서울: 쿰란출판사, 2001), p. 171.

44) Conf., III, 6, 10.

계속해서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대해 진리의 탈을 쓴 허위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들은 계속 진리, 진리라고 부르짖었고 나에게도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 자체는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에 굶주린 나에게 해와 달, 즉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올려놓은 식탁밖에 안 되었습니다.⁴⁵⁾

나아가 진리의 탈을 쓴 허위에 불과한 마니교들은 어거스틴에게 ‘찬란한 환상’을 통해 ‘공허한 찌꺼기’만 먹었기에 자신은 영양실조 상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내가 열망한 것은 변치도 않으시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으신 진리, 당신 자신이었습니다(약 1:17). 그러나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식탁에는 찬란한 환상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때 그것들이 당신인 줄 알았기에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때 이런 공허한 찌꺼기 환상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영양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⁴⁶⁾

특히 어거스틴은 마니교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⁴⁷⁾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한 마디로 어거스틴은 자신에게 있어서 마니교 청문자로

45) *Conf.*, III, 6, 10.

46) Augustine, *De moribus Manichaeorum*, XV, 36., in *NPNF*, vol. IV.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평가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것은 마니교가 입을 통해 먹는 음식의 규정과 아주 깊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마니교의 모든 신자들은 채식만 먹어야 했다. 이유인즉 고기는 그것을 생산해 내는 ‘성교’ (sexual intercourse)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백록》에 따르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동안 마니교 성직자들은 그 음식이 빛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은 음식으로부터 순수한 빛의 요소를 격리시켜야 했다. 특히 마니교 성인들이 무화과를 먹고 기도할 때, 신음하고 한숨 쉬는 동안 호흡을 통해 신의 어떤 부분들을 내뿜어낸다고 주입시켰다. *Conf.*, III, 10, 18.

서의 9년 동안이 “깊은 흙탕물과 그 위선의 암흑 속에서 뒹굴었던” 뼈아픈 기간이었다고 고백하며 회오의 눈물을 흘렸다.⁴⁸⁾

B. 마니교 제(諸) 논박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펼친 마니교 반박 논증은 그의 친구인 네브리우스(Nebridius)에게서 배웠다.⁴⁹⁾ 또한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반박하는 논증의 기본 구조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적이었다.⁵⁰⁾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몇 가지 신학적 논박점을 정리해 본다.

먼저, 마니교의 신관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박을 보자. 《고백록》에 따르면, 마니교 청문자로서 유물론적 범신론인 마니교의 신관을 그대로 수용했던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통해 마니교적 신관을 떨쳐버리

47) Augustine, *Contra Faustum Manichaeum*, XX, 2., in *NPNF*, vol. IV. 어거스틴에 따르면, 파우스투스가 주장한 마니교의 기본신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삼접의 호칭(the threefold appellation) 아래, 한 신(one deity)을 예배한다. 이들은 동일한 분들이다. 또한 그 아버지는, 바울이 말한 접근하기 어려운 빛인, 지고(至高)의 빛, 또는 법칙적 빛 속에 적절히 거하신다. 그리고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은 사도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위엄인 성령을 믿는데, 그는 전체 대기의 범주 안에 성령의 자리와 가정이 있다. 그의 영향과 영적 주입에 의해 땅은 모든 나무에 달린 죽음을 못 면할 예수(Jesus Patibilis)를 낳았다. 이로써 인간의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다.”

48) *Conf.*, III, 11, 20.

49) 네브리우스가 어거스틴에게 일러준 반(反)마니교 논증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그것과 더 붙어 싸우는 일을 싫어하셨다면, 저렇게 논박된 어두움의 나라가 당신께 무엇을 행할 수 있었던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가 당신께 어떤 상해를 가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면, 당신께서 폭력과 타락에 굴복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답이 ‘그 나라는 당신께 어떠한 상해도 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당신께서 그 나라와 싸우도록 부어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께서 타락 불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주장들은 거짓이 되며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타락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거짓일 것이며 처음 이야기되었을 때에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네브리우스가 일러 준 그 논증이 전부 토해 버려야 할 마니주의를 반박하는 데 넉넉했다고 토로했다. *Conf.*, VII, 2, 3.

50) 어거스틴은 《아카데미 학파 논박》에서, 그가 설명하는 초월적 일원론과 영혼에 관한 그의 이론,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는 이론, 자유에 관한 이론 등이 두 신플라톤주의적 원천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면서, 그의 학문 정립을 위한 중요 도구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매개로 삼았다. Augustine, *Contra Academicos*, III, 19, 42, in Johannes Quasten, Walter J. Burghardt, and Thomas C. Lawler, eds.,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12 (Westminster, Maryland: The Newman Press, 1955)

고 성서적 하나님 인식으로 접근했다.

내 영혼은 두 개의 실체를 주장한 이원론으로 떨어져 안식을 찾지 못했고, 어리석은 말만 했습니다. 이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나의 영혼은 무한한 공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분이 당신인 줄 알고 내 마음에 모시었으니 이리하여 내 영혼은 자신이 만든 우상의 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 당신 안에서 눈을 떠 당신을 전과는 달리 무한한 존재자로 알게 되었으니 내 통찰력은 나의 혈육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진리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⁵¹⁾

지고(至高)의 선(善)으로서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한 어거스틴은 마니주의자 ‘포르투나투스’의 신관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빛과 어두움이라는 양 실체를 인정한 포르투나투스가 하나님의 타락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포르투나투스에 따르면, “빛의 실체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 불가능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악이 생겨나는 어두움이라는 반대적 본성이 존재하였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타락할 수(corruptible) 있다.”⁵²⁾ 그러나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이 같은 관점에 대해 네브드리우스 논증법을 원용하여 강력히 논박했다.

51) *Conf.*, VII. 14. 20-15. 21. 유물론적 범신론인 마니교의 신관에서 버둥거리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일자(一者)는 홀로 나가서 모든 것을 촉진하며 수동적인 물질을 형성시키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신관을 힘입어 기독교적 하나님 이해에 다다른다.

52) *Acta seu Disputatio contra Fortunatum Manichaeum*, I. 18-19, in *NPNF*, vol. IV.

당신(포르투나투스)은 영혼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부분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분이 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빛의 부분은 바로 빛일 수 있다. 영혼에 관해서 이런 대답을 하라. 즉,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과 영혼은 별개의 것이라고 대답하라. 왜냐하면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실체라면 하나님의 실체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실체가 타락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실체가 훼손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실체가 기만당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입에 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⁵³⁾

악을 물질적인 실체⁵⁴⁾로 이해하는 마니교의 입장을 반박하는 어거스틴의 논박은 단호하다.

만일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선과 악이란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것이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전체 체계와 일치하도록 질서 지워진다.⁵⁵⁾

어거스틴에 따르면, 악은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것’ 이기에 ‘비존재’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악은 선의 타락이다. 곧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한다. 따라서 악은 타락한 어떤 실체 속에서 존

53)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et de moribus Manichaeorum*, 11, 21, in *NPNE*, vol. IV.

54) *Conf.*, V, 10, 20.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몸담았던 시절에 가졌던 선악관을 이렇게 요약했다. “나는 서로 상반되는 두 물체를 가정하게 되었으니, 이 둘은 다 무한하되 악은 비교적 더 좁고 선은 더 광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5)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et de moribus Manichaeorum*, 7, 10, in *NPNE*, vol. IV.

재한다. 타락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어떤 선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결핍은 그것들이 결핍하고 있는 선을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그것들이 이런 선을 소유했다면, 그것들은 악의 완전성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마니교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고로 악은 '선의 결여' 일 뿐이다.⁵⁶⁾ 이러한 배경에서 어거스틴은 악에 관한 개인적 책임론을 전개한다.

이리하여 “사악이란 무엇인가?”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함은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 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부터 떨어져 잔뜩 부풀어 있음을 말합니다.⁵⁷⁾

나아가 보너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정통 기독교회가 구약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사건들(scandals)을 수용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마니교들에 대해 외면적 정결과 금욕을 강조하는 마니교의 도덕보다 우월한 정통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논박을 했다.⁵⁸⁾ 특히 어거스틴의 《정통교회의 습속과 마니교의 습속》에 따르면, 마니교가 신봉하는 이성적 원리와 외면적 금욕의 삶은 인간의 도덕적 삶의 기초도 아니고 규범도 아니다. 다만 ‘선한 사랑’ (the good love)이 소유되고 행해질 때 도덕적 삶이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매개일 뿐이다.⁵⁹⁾

어거스틴의 이 강조는 진정한 인간 삶의 도덕적 완성이나 행복을 향한

56) *Conf.*, III, 7, 12; VII, 12, 18.

57) *Conf.*, VII, 16, 22.

58) 여기서 문제들이라 말함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 속에서 이방 족속들의 남녀노소, 특히 어린이와 여인과 노약자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모두 죽인 사건을 가리킨다. Gerald Bonner, *op. cit.*, p. 215.

인간 영혼의 움직임은 이성적 사유(reasoning)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love God)으로써 가능함을 역설한다. 이는 이성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난 우호적 권위의 실현(the friendly fulfillment of authority)을 기다리고 예시할 뿐이기 때문이다. 고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미덕의 삶이란 ‘참된 복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거스틴은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도덕이 사유에 근거해 금욕의 행위를 강조하는 마니교의 도덕주의보다 더 영적이고 실제적이며 사회적이고 이성적으로 우월하다고 선언했다.⁶⁰⁾

V. 나가는 말

어거스틴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원론을 축으로 한 신비주의적 종교 체계를 구축했던 마니교에 철학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나 처음 입교할 때 가졌던 어거스틴의 열정은 마니교의 악마의 덫을 가진 입을 통해 나오는 불타는 환상에 의해 도리어 식어갔다. 더욱이 어거스틴은 일식이라는 자연현상을 신화적 사건과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마니교의 합리성에 매료되어 그것을 추구하였으나, 그 일식이 자연과학적으로 해석된다는 그의 학문적 성취를 통해 소위 마니교 지도자의 무지를 발견

59) *De Moribus Ecclesiae et de Moribus Manichaeorum*, 15, 25. 어거스틴은 삶의 근본적인 도덕 원리로 하나님을 향해 자유 의지를 움직이는 사랑을 내세우는데,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묘사했다. 곧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으로서의 ‘절제’(temperance),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건디는 ‘인내’(fortitude), 섬김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다스리는 ‘정의’(justice) 그리고 삼가야 할 것과 도모해야 할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는 분별의 ‘지혜’(prudence)이다.

60) 유지황, 《어거스틴의 사상 이해》(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5), p. 48. 유지황에 따르면, 사랑과 구원의 관계가 오직 정통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에는 정통 기독교회가 전통적 제도를 절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상실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한다. 그리고 마니교의 세계관이 합리성으로 포장된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하다는 허망함을 인지한다. 이로써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탈퇴했다.

훗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선 어거스틴은 마니교 청문자였던 자신의 잃어버린 9년에 대해 깊은 회오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니교에 대한 철저한 논박을 한다.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숙련되고 강력한 신학적 논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한다. 곧 하나님은 마니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고의 존재이자 세계의 유일한 원인이심을 천명했다. 이런 신학적 사유 아래, 어거스틴은 악에 관한 마니교의 관점을 부정하면서 악은 비실체적인 부정(不正)이고, 죄는 단지 인간의 연약함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는 신학적 결론에 도달한다. 덧붙여서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형식적 도덕주의에 비해 정통교회가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신학적 논찬을 펼침으로써, 마니교에 대한 그의 반박은 최고조의 절정에 이른 신학적 예봉을 드러냈다.

한때 마니교 청문자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회심한 후, 그 누구보다도 마니교를 열심히 그리고 냉철하고 철저하게 반박하는 신학적 소명을 다했다. 그리고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박은 단순한 신학적 반박 논증 차원을 넘어 그의 신학 대계를 이루는 중요한 프레임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국내외의 군소 이교(異敎)와 이단(異端) 집단들 고찰(考察)(2)

박영관 목사



현재 한국기독교교회 안에는 약 140종류 이상의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있고, 그들의 추종자(追從者)들은 약 2백만 명이나 된다. 또한 이교 집단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들은 기독교회의 토착화(土着化)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고,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국외(國外)에서 들어온 것도 있다. 《군선교신학 4권》에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이

■ 박영관 목사

- 미국 플러신학대학원 졸업(Ph. D.)
- 대한예수교장로회 화목(중곡중앙)교회 원로목사
- 한국기독교이단종파 연구소장
- 세계선교신학원 교수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단들을(1) 취급하였다.

이번에 계속해서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 가운데, 단군(檀君)의 단군교(檀君敎), 개천교화(開天敎化)의 대종교(大宗教), 안찰요법(按擦療法)의 봉남교(奉南敎), 새로운 의식(意識)의 라즈니슈, 하나님의 지혜의 신지학(神知學), 점(占)지팡이(다우징, Dowsing), 점판(占板), 천존회(天尊會)의 정체, 기독교 극단주의 암만파 공동체(共同體), 법(法)의 꽃의 피해(被害), 여신(女神)의 계약신앙(契約信仰, Covenant Goddes) 등을 취급하였다.

기독교회의 군소 이단종파들은 소리 없이 침입하는 암적(癌的) 존재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암(癌)이라는 병에 한번 걸리면, 치료하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이 소비된다. 그리고 암과 투병하다가 암의 상태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으면 심중팔구는 고치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한번 미혹되면, 자신과 과정이 파탄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인 물의(物議)를 일으키고 끝내는 그 영육(靈肉)이 죽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를 연구하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며, 그들의 미혹에 예방하게 하는 것이다.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세계 곳곳에서 매일 생기고, 매일 소리도 없이 없어지고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어디에서인가 생기고, 일간신문과 교계의 주간 신문에 위장적 광고(廣告)들을 싣고 그리고 교계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한 양들 틈에 함께 들어왔다가,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양(羊)들을 훔쳐가고, 죽이고, 도망가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마귀(魔鬼) 짓인가? 물론 성경은 이미 경고하기를, 세상의 종말(終

未)이 가까워질수록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무리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迷惑)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고찰하려고 한다.

1. 단군(檀君)의 단군교(檀君敎)

최근 단군교(檀君敎)들이 각 지방과 각급 학교에 단군상(檀君像)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회는 신화적(神話的) 존재요, 우상숭배(偶像崇拜)인 단군상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전국적으로 단군상 철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단군의 단군교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우리는 13세기 말(末) 고려(高麗)의 스님 일연(一然, 1202-1289)이 쓴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단군개국신화(檀君開國神話)를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歷史)에서, 단군신화(檀君神話)는 하나의 신화(神話)요, 결코 사실의 역사(歷史)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우매한 백성들이 단군(檀君)을 숭상하는 단군신교(檀君神敎) 혹은 단군교(檀君敎)들을 추종하고, 심지어 단군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 신앙적 입장에서 단군교(檀君敎)들의 배경(背景), 단군교(檀君敎)들의 원리(原理), 그리고 단군교(檀君敎)들의 현황(現況) 등을 고찰하려고 한다. 우리는 단군교의 전 분파의 원리와 현황들을 취급하지 않고, 그들의 공통점만을 취급하려고 한다.

첫째, 단군교(檀君敎)의 배경(背景)

우리가 아는 대로, 소위 단군왕검(檀君王儉)이 고조선(古朝鮮)을 세워, 우리나라의 건국시조(建國始祖)가 되었다고 한다. 단군(檀君)은 삼신

일체(三神一體)로서 곧 환인(桓因), 환웅(桓雄), 그리고 단군(檀君)으로서 한울님 곧 신인(神人) 단군(檀君)의 단군교(檀君敎)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단군은 천신(天神)인 환인, 환웅의 혈통(血統)을 받은 삼신(三神)의 종속관계로서 신(神)이라는 것이다. 단군은 천신(天神)의 상제 환인과 지상(地上)의 수호신(守護神) 환웅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 즉 단군(檀君)은 천(天)·지(地)·인(人)의 삼신일체(三神一體)의 한울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군은 신화적(神話的) 존재일 뿐이며, 단군은 신(神)도 사람[人]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군(檀君)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군교의 삼신일체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상반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三位一體)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위(位)는 삼위(三位)이나 본체(本體)는 하나로서 유일신(唯一神)이다. 단군의 단군교 형성 과정을 보면, 단군(檀君)을 중심으로 수십 종류의 신앙집단으로 단군교가 발생하였다.

그 중 한말(韓末)에 1880년 평안남도 맹산(孟山)의 김염백(金廉白)이 묘향산(妙香山)에서 1,000일 기도를 하여 소위 단군성령(檀君聖靈)을 받고 단군신교를 포교하였다. 그리고 1904년 갑진(甲辰)에 백봉(白峰)과 나철(羅喆) 등이 단군교 혹은 대종교(大倧敎)를 창시했다. 또한 1910년 8월 15일 정훈모(鄭薰謨)가 단군교(檀君敎)를 이룩했다. 그밖에 단군숭상단체와 기관들 약 100개가 생겼다.

둘째, 단군교(檀君敎)의 원리(原理)

우리는 단군교(檀君敎)의 원리(原理) 가운데, 한울님의 숭배(崇拜)와 홍익인간(弘益人間), 천민주의(天民主義) 등을 고찰하려고 한다.

1. 한울님의 숭배(崇拜)

단군교는 단군을 한울님으로 여기며, 그를 숭배(崇拜)하는 것이다. 단군교에서 한울님의 ‘한’은 크다[大], 무궁(無窮)하다는 의미이며, ‘울’은 양적 의미로는 우주(宇宙) 전체를 뜻하고, 질적 의미로는 ‘우리나라’라는 말로 나와 동류(同類)를 뜻한다는 것이다. 단군교의 한울님은 곧 천신(天神)이며, 단군은 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사(國史)에 있어서, 단군왕검은 천제(天帝) 환인의 아들인 환웅천황과 웅녀(熊女)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신화(神話)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단군교의 한울님은 민속신앙의 자연신(自然神), 곧 산신령(山神靈)에 불과한 것이다. 민속신앙의 자연신은 모든 자연의 물체에 정령(精靈)이 있다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군을 천신(天神)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정령 혹은 산신령(山神靈)으로 보는 것이다. 기독교(基督教)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으로 자존자시며(출 3:14), 창조자이시며(창 1:1), 우주와 자연, 역사와 인간을 섭리(攝理)하시며 역사하시는 유일신(唯一神)으로 여기는 것이다.

2. 홍익인간(弘益人間)

우리는 단군의 단군교들이 홍익인간(弘益人間), 곧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단군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교의 신앙집단들도 이구동성으로 홍익인간을 내세우고 있다.

단군교들에서 단군은 한민족(韓民族)의 하나의 열이며, 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하나의 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군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인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단군교들은 전부가 단군을 중심으로 인위적(人爲的)인 신앙집단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神本主義) 신앙이다. 기독교의 신본주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人

間)과 자연(自然) 그리고 역사(歷史)를 주권적(主權的)으로 섭리하신 것을 말한다.

3. 천민주의(天民主義)

단군의 단군교들은 전부가 천민주의(天民主義)를 말하고 있다. 단군교들이 말하는 천민주의는 한민족(韓民族) 곧 우리나라를 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후천세계(後天世界)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민주의는 일종의 민족주의(民族主義) 더 나아가서는 국수주의(國粹主義)이다. 기독교는 하나의 민족(民族)과 종족(種族), 하나의 사회(社會)와 국가(國家)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의 평등과 박애주의(博愛主義)를 표방한다.

셋째, 단군교(檀君敎)의 현황(現況)

1966년 1월경 당국이 1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 남산에 단군성상(檀君聖像)을 건립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단군은 신화적 존재이므로, 단군을 소위 국조(國祖)로 신봉하는 것은 민족정사를 조작하는 것으로 각계의 반대로 자절되었다. 또 단군숭영회(檀君崇寧會)가 강화(江華) 마니산(摩尼山) 참성단(塹城壇)에 단군전(檀君殿)을 세우려고 했으나 대중적 후원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리고 1966년 11월에 단기(檀紀) 4300년 기념사업협회는 약 9억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서울 삼청공원(三淸公園)에 소위 개천궁(開天宮)을 계획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반면에 단군교의 대종교(大倥敎)를 중심으로 각지방에 소규모의 약 30여 개 단군전(檀君殿)을 세웠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단군의 단군교가 약 30개의 분파로 분열되어 있고, 그 밖의 분파 소위 비단군교(非檀君敎)의 분파와 단체들은 약 100여 개나 된다.

넷째, 맺는 말

우리는 단군의 단군교가 비록 우리 민족의 민족종교(民族宗教)로 나타나지만, 하나의 신화(神話)일 뿐이며, 신화적 존재를 숭배하는 것은 미신적(迷信的) 민속신앙(民俗信仰)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단군의 단군교를 하나의 이교(異敎)로 여긴다. 단군의 단군교에 있어서, 단군(檀君)은 신화적(神話的) 존재요, 또한 산신령적(山神靈的) 존재요, 제천주(祭天主)로 여기는 것이다.

2. 개천교화(開天敎化)의 대종교(大宗教)

우리나라의 정신문화(精神文化)에는 미신적(迷信的) 민속신앙과 우상 숭배(偶像崇拜)의 불교, 의식제도(儀式制度)의 유교, 민족애(民族愛)의 천도교 그리고 단군의 단군교 등이 있다. 단군의 단군교에서 파생한 소위 대종교(大宗教)를 기독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입장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첫째, 대종교의 역사적 배경(背景)

우리는 한말(韓末) 구국운동으로 대종교가 생겼다고 여긴다. 대종교의 제1세 교주는 나철(羅喆, 1863-1916), 제2세 교주는 김헌(金獻, 1869-1925), 제3세 교주 윤세복(尹世復, 1881-1960) 그리고 현재는 춘파(春坡) 정관(鄭寬)이 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1. 대종교의 역사적 배경

대종교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말 일제의 탄압으로 백성들과 국가가 난국에 처해 있을 때에 구국운동으로 대종교가 생겼다고 여기는 것이다. 단군교의 추종자였던 나철(羅喆) 등을 중심으로 구국일념으로 대종 개천

교화(開天敎化)의 대종교(大倣敎)교를 세우게 된 것이다. 우리는 대종교가 한말(韓末) 풍운 속에서 구국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소위 애국애족의 신앙집단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다.

2. 나철(羅喆)의 생애(生涯)

대종교의 교주는 나철이다. 성(性)은 나(羅)요, 위는 철(喆)이요, 초위는 인영이요, 도호는 홍암(弘巖)이다. 그는 1863년 12월 2일 전남 낙안군 남성면 금곡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29세에 문과에 등과했고, 45세에 오혁(吳赫), 김연식(金演植) 등과 함께 모의하여 5조약체결대신(5條約締結大臣)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하고 10년간 유형을 받기도 했다.

그 후로 그는 1908년 12월 백두산(白頭山)의 도인(道人) 백봉신사(白峯神師)의 계명(戒名)을 받고, 대종교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1916년 8월 15일에 죽었다.

둘째, 대종교의 원리와 비판

대종교의 원리에는 교주 나철(1863-1916)의 5대 종지(宗旨)가 있다. 경봉천신(敬奉天神), 계수중생(誠修重生), 애합종족(愛合種族), 정구이복(靜求利福), 근무산업(勤務產業) 등이다. 또한 대종교의 원리로서 삼진귀일(三眞歸一)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고찰하려고 한다.

1. 대종교의 한얼님

우리는 대종교의 한얼님, 곧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대종교는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을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일신(一神)이라고 한다. 대종교에 의하면, 한얼님의 한은 환(桓)의 음(音)으로 한이요, 인(因)의 음(音)은 임(任)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한임 곧 한울 아머님과 환웅 곧 한울 스승님과 환검 곧 한울 임금

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임은 조화, 한응은 교화, 한검은 치화를 한다는 것이다. 대종교에서는 그것을 소위 조(造), 교(敎), 치화(治化) 셋이 되지만, 합(合)하면 삼신일체(三神一體)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종교의 한울님은 민속신앙의 자연신(自然神), 곧 산신령(山神靈)에 불과한 것이다. 민속신앙에서 자연신은 모든 자연의 물체에 정령(精靈)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얼님을 신(神)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정령 혹은 산신령(山神靈)으로 보는 것이다. 기독교(基督教)의 하나님은 성경(聖經)에서 기록하기를,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으로 자존자(自存者)시며(출 3:14), 창조자(創造者)이시며(창 1:1), 우주와 자연, 역사와 인간을 섭리(攝理)하시며 역사하시는 유일신(唯一神)으로 믿는다.

2. 대종교의 삼진귀일(三眞歸一)

우리는 대종교의 삼진귀일(三眞歸一)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대종교의 삼진(三眞)은 성(性), 명(命), 정(精)을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천(天)은 시생(始生)의 도(道)를 가졌고, 지(地)는 자육(資育)의 도를 가져서 천지(天地)의 리(理)가 상감(相感)하는 데서 만물의 그 성(性)을 타게 되고, 천지의 기(氣)가 상식(相息)하는 데서 만물이 그 명(命)을 타게 되며 천지의 기(氣)가 상촉(相觸)한다는 것이다.

만물이 그 정(精)을 받게 되니 이것을 성명정(性命精)이요, 삼진(三眞)이라고 했다. 대종교는 삼진귀일이 최대의 교리(敎理)이다. 대종교는 신앙 대상이 삼신일체(三神一體)이다. 삼신일체는 우주의 절대자요, 지존무상(至尊無上)이라는 것이다. 사람과 만물이 천신조화주(天神造化主) 곧 삼신일체로부터 삼진을 받았지만, 사람은 완전하게 받았다고 했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성(性)에 의지한 심(心)과 명(命)에 의지한 기(氣)와 정에 의지

한 신(身)을 받고 출생한다고 했다. 그리고 심기신(心氣身)을 삼망(三妄)이라고 한다. 대종교는 감도(感途)와 식도(息途)와 촉도(觸途)를 삼도(三途)라 한다. 그들은 삼진(三眞)과 삼망(三妄) 그리고 삼도(三途) 등 삼일(三一)의 철리(哲理)를 교리로 삼고 있다. 대종교의 삼진귀일은 삼신일체의 삼진, 삼망, 삼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無)에서 유(有)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創造主)시요, 사람과 만물을 그의 주권적 섭리(攝理)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대종교의 애합종족(愛合種族)

우리는 대종교의 애합종족(愛合種族)을 고찰하려고 한다. 대종교의 애합종족은 우리 민족이 신손(神孫)이요, 천족(天族)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주의 발상이요, 패권주의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는 애국애족(愛國愛族)을 말하나, 어느 특정한 나라와 종족만을 애국 애족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와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종교의 현황과 전망

우리는 대종교의 현황과 전망 등을 고찰하려고 한다. 대종교는 그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국교화교(開國敎化敎)로서 오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미미한 존재로 있을 뿐이다.

1. 대종교의 현황

대종교의 교세를 보면, 초기(初期)에는 수십 만 명이 추종하였으나, 현재 약 2만 명의 추종자들이 있다. 그리고 충남과 경북에 도본사(道本寺)가 있고, 전국에 10여 개의 교당(敎堂)이 있다.

2. 대중교의 전망

대중교의 전망을 기독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교는 백두산(白頭山)의 산신령(山神靈) 신앙 집단이다.

대중교는 소위 백두산에 내려온 소위 천신(天神)이 신인(神人)으로서 환웅(桓雄) 곧 신시천왕(神市天王)의 산신령 신앙 집단이다. 이것은 하나의 민속신앙 집단이다.

둘째, 대중교는 독창적인 신앙이 아니다.

대중교의 교주 나철(羅喆)은 단군의 추종자였고, 1908년에 단군교의 정훈모(鄭薰謨)와 분립하여 새로운 신앙 집단을 이룩했다. 대중교는 단군교의 하나의 분파로 독창적인 신앙 집단이 아니다. 대중교는 불교(佛敎)의 명심견성(明心見性)의 수행법과 선교(仙敎)의 조식법의 양기연성(養氣煙性)과 유교(儒敎)의 금욕법의 수신술성(修身率性) 등 유불선(儒佛仙)의 혼합신앙이다.

셋째, 대중교는 지상천국의 낙원건설주의 신앙 집단이다.

대중교는 지상천국의 낙원건설주의 신앙 집단이다. 대중교는 패권주의(霸權主義)의 하나로 국가주의 신앙 집단이다. 대중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국, 만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유럽과 미주(美洲)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제국(大帝國)을 시도하는 신앙 집단이다.

넷째, 대중교의 기독교회에 대한 영향이다.

대중교는 민족주의, 민족애, 국가주의 신앙 집단으로 기독교회에 애국 애족주의(愛國愛族主義)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중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신앙이며, 민속신앙이다.

3. 안찰요법(按察療法)의 봉남교(奉南敎)

우리는 단군(檀君)의 단군교 계통의 증산교(甞山敎)의 분파인 보천교(普天敎)에서 파생된 소위 찬물교 혹은 봉남교(奉南敎)를 고찰하려고 한다. 현재 봉남교에는 약 16개의 분파들이 있다.

첫째, 봉남교(奉南敎)의 배경(背景)

봉남교의 배경을 보면, 1898년 4월 11일에 제주도 북부 구좌면(舊佐面) 연평리(演坪里)에서 출생한 김봉남(金奉南)에 의하여 창교(創敎)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차경석(車京石)의 보천교를 추종하였다.

그는 38세 때에 부산 기장(機長)의 연화산(蓮華山)에서 소위 득도(得道)하고, 또한 천상(天上)으로부터 물법(水法)을 받고, 23년이나 지병(持病)으로 고생하던 병 고침을 받았다고 했다.

그 후로 김봉남은 안찰(按擦)과 침구(針灸)로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였고, 소위 봉남교가 발생하였다. 김봉남은 1950년 4월 8일, 그의 나이 52세로, 김해(金海) 경락면(驚洛面) 대사리(大沙里)에서 죽었다. 우리나라의 민속신앙들을 보면, 큰 나무와 바위, 강과 바다 등에 신령(神靈)이 있다고 절을 하고, 경배한다. 또한 부적(符籙), 점술(占術), 그리고 점패(占牌) 등등의 여러가지 물건 등을 사용하여 치병을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적 행위를 미신적, 악령적으로 본다.

둘째, 봉남교(奉南敎)의 원리

봉남교의 원리들 가운데 가장 핵심 원리들, 곧 물법(水法), 토설(吐說), 그리고 안찰(按擦) 등을 고찰하려고 한다.

1. 봉남교의 물법[水法]

이것은 봉남교의 치병(治病) 수단이다. 봉남교의 물법은 찬물요법 혹은 찬물치료, 그리고 물법이라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교주 봉남(奉南)이

환자들에게 한 그릇의 찬물을 주고, 그들은 그것을 불타(佛陀), 산신(山神), 칠성(七星) 등에게 바치고, 아미타불, 미륵존불, 무량주(無量呪) 등 여러가지 주문(呪文)들을 외우고, 그 물을 마신다.

그들은 찬물을 마시게 되면 자신들의 질병(疾病)이 고침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이 봉남교 기본 신앙의 원리이다. 그들은 찬물을 생명의 원리라고 하며, 인간 심법(心法)의 표준으로 여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영육(靈肉)의 병자들을 자연의 물[水]로써 치료하는 수술적 주문 요법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權能)으로 영육의 치료를 받는 것이다.

봉남교의 물법은 교주 봉남의 영적 능력이 찬물[水]에 나타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질병을 치료받겠다고 하는 미신적, 주문적인 치료법에 지나지 않는다.

2. 봉남교의 토설(吐說)

우리는 봉남교의 토설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이것은 봉남교의 주송수련(呪頌修鍊)으로 행하는 일종의 방언(方言)이다. 그들에 의하면, 주송수련(呪頌修鍊)으로 소위 도통(道通)과 신통(神通)의 경지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토설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회에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恩賜)로, 영적 충만으로, 각자의 신앙적 은사에 따라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회에서는 방언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다. 단지 개인적인 영적 은사일 뿐이다. 봉남교에서는 모든 방언이 악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봉남교의 안찰(按擦)

봉남교는 시작부터 소위 교주 봉남(奉南)이 자신의 경험으로 의료적

행위를 하였는데, 그는 안찰침술(按察針術)로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였다. 그는 강원도 오태산(五台山)에서 칠성경(七星經) 일명 구령삼정장(九靈三精章)을 외우는 주송수련(呪頌修鍊)을 한 결과 소위 칠성신(七星神)으로부터 신적 계시와 능력을 받고, 안찰침구(按察針灸)를 행하였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이교의 이단종파들은 소위 치병 행위를 포교적 수법으로 행하였고, 그것 때문에 못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소위 부수(符水), 도인(導引), 안찰(按察), 풍수(風水), 기문(寄門), 둔갑(遁甲), 축지(縮地) 등을 행하였다. 이것들은 의학적 치료에 있어서 비과학적 이요, 비의학적이다. 우리는 봉남교의 안찰 행위는 신술(神術)이 아니라, 인위적이요, 악령적 수법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

기독교의 안찰은 정당한 신앙적 교육과 수련을 쌓은 성직자(聖職者)가 일부 자원(自願)하는 성도들의 신체의 일부, 가령 머리와 일부 지체에 손을 얹고 기도(祈禱)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안찰자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행위이다.

셋째, 봉남교(奉南敎)의 현황(現況)

봉남교의 현황을 보면, 1936년 김봉남이 38세에 치병의 목적으로 봉남교를 창교하였다. 우리의 고찰로, 봉남교는 단군교 계통의 증산교(甞山敎)의 분파인 보천교(普天敎)에서 파생된 소위 찬물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봉남교에는 약 16개의 분파들이 있다. 봉남교는 초기에는 김해지방(金海地方)을 비롯하여, 밀양(密陽), 청도(淸道), 거창(居昌), 대구(大邱), 부산(釜山), 동래(東來) 등의 경상도 지역 포교가 성했다. 현재 16개 분파들의 봉남교 추종자들을 보면, 정읍(井邑)의 찬물교[奉南敎]는 500명, 적선도교(積善道敎)는 500명, 성덕교(聖德敎)는 전국 199개 지부에 약 1만 4천 명, 천지대안교(天地大安敎)는 2천 명, 용화삼덕교(龍華三德敎)는 1천5백 명, 봉남사파교(奉南寺派敎)는 400명, 태화교(太和敎)는 1천 명 등

약 2만 7천 명이다.

넷째, 맺는 말

우리는 봉남교를 산신령(山神靈) 혹은 악령적(惡靈的), 접신적(接神的) 민속신앙이라고 여긴다. 봉남교는 김봉남이 신비(神秘), 강신(降神), 개안(開眼), 이보(耳報) 등을 체험한 소위 광적 신비주의의 일환이다.

4. 새로운 의식(意識)의 라즈니슈

우리의 주변에는 우후죽순(雨後竹筍) 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군소 국내의 이교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전통적인 이교(異敎)들에서 파생되었거나 전통적 기독교회에서 이탈하여 발생하였다. 그 중에 인도(印度)에서 발생한 소위 새로운 의식의 라즈니슈교가 있다. 여기에 대해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과 신학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첫째, 라즈니슈교의 역사적 배경(背景)

라즈니슈 찬드라 모한(Rajneesh Chandra Mohan)은 1931년 12월 11일, 인도의 중부 작은 마을에서 7남 5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인도의 카스트 계급에 속하였다. 그리고 라즈니슈는 할아버지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조부(祖父)가 병들어 죽게 되자, 당시 어린 아이로서 사람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였다. 라즈니슈는 1957년 소구로(Saugur) 대학에서 석사 학위(M.A.)를 받았고, 1957-1966년까지 소구로 대학과 자발푸르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그리고 라즈니슈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노상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1969년에 순회여행을 그만두고, 뭄바이

남동쪽 32km 떨어진 푸나(Poona)에서 공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라즈니슈는 이름을 신(神)이라는 뜻의 바그완(Bhagwan)으로 고쳤다. 라즈니슈는 말하기를, 자기는 7세기의 보디사트바(Bodhisattva)의 환생자(還生者)라고 했다.

그는 1974년부터 소위 은둔처(隱遁處)라는 뜻의 아슈람(Ashram)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라즈니슈는 1981년 6월 1일에 미국 뉴욕에 갔다. 그리고 그는 오레곤 주의 앤틸로프(Antelope)에서 아슈람을 형성하였다. 그는 미국 이민국에 종교 교사로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했다.

둘째, 라즈니슈교의 원리(原理)

라즈니슈교의 원리를 보면, 철학적이고, 명상적이다. 그들의 원리는 전통 기독교회와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는 라즈니슈교의 원리들 가운데 몇 가지를 취사선택하여 비판하려고 한다.

1. 라즈니슈교의 신(神)

라즈니슈교는 모든 존재(存在)는 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은 곧 세계(世界)라고 한다. 신은 인격(人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過程)이라고 한다. 고찰한 대로, 라즈니슈교의 신은 기독교회의 하나님이다. 라즈니슈교의 신은 사물의 본질(本質)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신은 사람의 침묵(沈默) 혹은 묵상(默想), 공허(空虛)와 허무(虛無) 그리고 의식(意識) 등이라고 한다. 라즈니슈교는 모든 것은 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의식이 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범신론적 신이요, 관념적 신이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회의 하나님은 유일신(唯一神)이시며(사 45:5), 초월적 창조주(創造主)이시며(창 1:1), 실유적(實有的) 존재자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간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사 44:24, 45:12).

2. 라즈니슈교의 인간(人間)

라즈니슈교는 인간은 자아의 해탈(解脫) 곧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지(無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곧 진리(眞理)요, 신(神)이라고 한다. 인간은 보호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파괴(破壞)되어야 할 존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무지하기 때문에 자아(自我)는 파괴되고 없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라즈니슈교는 인간의 죄(罪)를 부정한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회는 인간은 피조물(被造物)이며, 하나님께 죄를 범한 존재자로 믿는다(롬 3:23).

3. 라즈니슈교의 구원(救援)

라즈니슈교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인간은 죄(罪)가 없고, 아무도 죄인(罪人)이 아니다. 그렇기에 라즈니슈교에는 타인(他人)에 의한 인간의 구원을 부정한다. 그리고 라즈니슈교의 구원(救援)은 인간의 공허와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것은 해탈(解脫)이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회는 인간은 원죄(原罪)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를 짓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믿는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적(代贖的) 희생 곧 죽음으로 구원하신 것이다(딤후 2:5-6; 롬 5:8-10).

셋째, 라즈니슈교의 현황(現況)

라즈니슈교는 인도의 힌두교에서 파생된 신앙 집단이다. 한 젊은 청년 철학도 라즈니슈에 의해서 1969년에 창교(創敎)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

동생활을 하며, 새로운 의식(New Consciousness) 곧 자기 마음의 수련을 가지는 것이다. 그는 1981년 6월 1일에 미국으로 갔고, 오레곤 주 앤텔로프(Antelope)에 정착하여, 그곳을 소위 라즈니슈의 표현 곧 라즈니슈푸람(Rajneeshpuram)이라 하였다. 라즈니슈교 추종자들은 오렌지 혹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며, 의식 변화의 기술 곧 신앙생활을 한다. 그들은 억압된 사회에서 개방 혹은 폭동을 일으키고, 속박의 성(sex)의 개방을 말한다.

넷째, 맺는 말

라즈니슈교의 고찰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의 정신문화 혹은 신앙 세계를 보면, 서구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 틈을 소위 라즈니슈교가 파고든 것을 본다. 우리는 라즈니슈교는 인도의 힌두교에서 파생된 이교의 혼합신앙 집단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들의 소위 이념적 정신수양, 신앙생활은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이다. 역사적 기독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교(異敎)의 이단종파에 지나지 않는다.

5.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神知學)

우리의 주변에는 우후죽순(雨後竹筍) 격으로 나타나는 군소 국내외의 이교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전통적인 이교(異敎)들에서 파생되었거나 전통적 기독교회에서 이탈하여 발생하였다. 그 중에 소위 신지학(神知學, Theosophy)은 불교와 힌두교의 혼합신앙 집단이다.

신지학은 주후 2세기의 그노시즘과 유사한 것이며, 불교와 브라만교 혹은 힌두교의 원리를 혼합한 신앙집단이다. 우리는 그들을 역사적 기독교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첫째,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의 배경(背景)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의 역사적 배경은 17세의 러시아의 한 소녀 헬레나 페트로브나(Helena Petrovna)가 1848년에 헬레나 피 블라바츠키(Helena. P. Blavatsky)와 결혼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25년 동안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러시아, 그리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인도 등을 방황하면서 여행을 했다.

그녀는 소녀 시절부터 광적 신비,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神知學)주의에 빠졌고, 소위 영적 신비를 조절하는 존 킹(John King) 밑에서 10년 동안 수련을 쌓기도 했다. 그녀는 1857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신비주의 집단을 조직하여 활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1875년에 신지학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헬레나 피 블라바츠키(Helena. P. Blavatsky)는 1891년 그녀의 나이 60세에 죽었다. 그녀의 후계자(後繼者)는 영국교회 사제의 딸인 안니 비센트 부인(Mrs. Annie Besant 1847-1933)이었다. 비센트 부인은 1873년에 남편이 죽자 영국교회의 교리에 도전을 하였고, 자유 사상(Free Thought)과 급진적 정치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위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으로 회심하였다. 소위 학자, 연설가, 작가로서 활동하다가, 1933년 9월 20일 86세로 죽었다. 계승자는 조지 에스 애런데일(George S. Arundale)이었다. 그가 떠나자 1945년 신지학 협회 회장 C. 진나라자다사(C. Jinarajadasa)가 맡았다. 현재 그들의 추종자는 미국에 1만 명, 인도에 2천 명, 그밖에 4-5개국에 3천 명 정도이다.

둘째,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의 원리(原理)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을 하나의 종교 집단, 혹은 철학사상,

학문 등으로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은 블라바츠키 부인이 소위 영적, 지적, 육적으로 완전한 존재자, 달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수하는 원리들이다.

1. 성경(聖經)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에서는 기독교의 성경을 신적 권위와 신앙 생활의 규범인 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힌두교의 경전에 자신들을 말기며, 이 경전들과 힌두교를 모든 경전과 종교들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회의 입장에서 그들의 성경에 관한 곡해와 오해는 다른 이교들의 이단종파들과 같다. 이교들의 경전은 인위적이며, 신적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에서 말한 대로, 성경의 기원이 힌두교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2. 하나님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은 기독교회의 인격적(人格的)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주의 신적 원리, 곧 지혜를 믿는 것이다. 그들은 신(神)을 온 우주의 신비적 존재요, 자아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신은 곧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創造主)요, 구속주(救贖主)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자연과 우주, 그리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영적 실유요, 인격자로 유일신으로 믿는다.

3.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에서는 기독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비밀스러운 구세주이시다.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신적 원리(神的原理)라고 한다. 하나님의 지식

의 신지학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여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원리 혹은 지식 또는 지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메시아의 명칭이며, 예수는 자기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이다.

그리스도와 예수는 결코 다른 존재의 신이거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는 택한 백성의 구속주이시며, 장차 재림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며, 인간과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4. 윤회(輪廻)와 내세(來世)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은 윤회사상(輪廻思想)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모든 사람은 이생 혹은 전생(前生)에서 진척(進陟)시킨 힘에 의해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天國)이나 지옥(地獄)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반면에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열반(涅槃, Nirvana)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사후(死後)에도 그의 영혼(靈魂)은 살아 존재한다고 믿는다(요 3:36).

그리고 기독교회는 사람은 윤회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은 기독교회의 부활과 내세의 신앙 교리에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의 현황(現況)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의 추종자는 현재 미국에 약 1만 명, 인도에 2천 명, 그밖에 45개국에 불과 3천 명 정도이다.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은 최근 개발도상 국가에 급속도로 포교되고 있다.

넷째, 맺는 말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은 이교(異敎)의 이단종파 가운데 하나이며, 혼합신앙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은 역사적 기독교와 상반되며,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 교리들과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의 신지학은 그노시즘(Gnosticism)이라고 할 수 있다. 신지학에 대해서 신앙적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6. 점(占) 지팡이(Dowsing)

우리는 1948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지하수(地下水)나 어떤 숨겨진 물체를 찾아내는 소위 점 지팡이파 혹은 다우징(Dowsing)이라는 미신적 집단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사화복(生死禍福)에 몰두하고 있다.

현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속임수로 사람의 길흉(吉凶)을 맞추어 보려는 경향이 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점(占) 지팡이 혹은 다우징 집단이다. 우리 주변에 나뭇잎, 손수건, 점지팡이 등으로 어떤 신비적 행위를 행하는 신앙적 집단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것들 중에 소위 로마 가톨릭의 신부(神父)가 막대기로 지하수를 찾아내고, 불교의 스님이 지팡이로 집터와 묘자리를 정해주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다(출 7:17-19).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能力)을 보여주는 것이요, 오늘의 점지팡이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우리는 점지팡이에 대해 기독교회의 입장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첫째, 점지팡이의 배경(背景)

우리의 주변에 점지팡이로 신비적 술수를 행하는 소위 신비적 신앙 집단이 있다. 그들은 지팡이로 지하수를 찾아내고, 숨은 보물을 찾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것을 신적 능력의 역사라고 한다. 점지팡이의 배경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째, 점지팡이의 원리(原理)

우리는 점지팡이의 원리 가운데, 지하수(地下水)를 찾는 것과 땅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는 것, 그리고 치유(治癒) 등을 고찰하려고 한다. 그들의 도구(道具)는 약 1m의 긴 지팡이, 마른 나뭇가지, 철사 줄 등이다.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은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에 이 도구들에 소위 신내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은 도구를 통한 신적 능력을 빙자하는 것뿐이다.

1. 점지팡이의 수맥(水脈)

우리는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수맥을 지팡이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이 초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흡수성이 있는 하층토(下層土), 식물의 성장, 주변 공기의 기온, 축출한 땅의 냄새, 귀에 들리는 지하수의 흐름, 그리고 지하수로 인해 생기는 지표의 흔들림으로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이 수맥을 지팡이로 찾는 것을 초능력으로 말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자연 현상의 흐름일 뿐이다.

2. 점지팡이의 보물찾기

우리는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지팡이로 땅속에 묻혀

있는 소위 보물(寶物)들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들은 숨겨진 땅 속의 물체 혹은 보물들을 찾는 것은 신비적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이 보물을 찾는 행위는 하나의 마술(魔術)에 지나지 않는다.

3. 점지팡이의 치유(治癒)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환자들의 질병(疾病)을 치유하는 행위들을 본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이 신적 능력을 받아서, 각종 질병들을 치료한다고 한다. 그러나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일종의 악령(惡靈)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점지팡이의 현황(現況)

점지팡이의 현황은 불확실하다. 가령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각양각색으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점지팡이의 점쟁이들 가운데는 소위 수맥(水脈)만 찾는 점쟁이들이 전국에 한두 명씩 있고, 또 치유(治癒)를 하는 점쟁이가 있다. 그리고 집터와 묘지를 찾아주는 점쟁이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점지팡이의 점쟁이들은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넷째, 맺는 말

우리는 점(占) 지팡이를 미신적 민속신앙의 일부로 간주한다. 점(占) 지팡이는 성경적이 아니며, 악령적이고 비과학적이다.

7. 점판(占板)

우리는 주변에서 점판(占板, Ouija Board)들을 이용해서, 영매(靈媒)를 하고,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깨우치는 신앙적 행위를 많이 본다. 우리는 점판 행위를 악령적, 심리적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우리는 점판에 대해 기독교회의 입장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첫째, 점판(占板)의 배경(背景)

점판은 고대 국가에서부터 현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용되고 있다. 점판은 주전 6세기 이집트에서 유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점판은 점판쟁이들의 도구(道具)에 지나지 않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점판에 신적 초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는다.

둘째, 점판(占板)의 원리(原理)

우리는 점판의 원리 가운데 영매, 능력, 심리 등을 고찰하려고 한다. 점판쟁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점판을 통해서 신적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점판을 빙자하여 신적 능력을 말하는 점판의 원리들을 간단하게 보려고 한다.

1. 점판(占板)의 영매(靈媒)

우리는 점판쟁이들이 점판을 통해서 영매(靈媒) 활동과 초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매 활동은 악령들이 영매자를 통해서 하는 귀신의 행위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일부 많은 사람들이 점판을 통해서 귀신에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독교 심령사 교회(Christian Spiritualist Church)의 도널드 페이지(Donald Page) 목사는 말하기를, 점판을 사용하는 것이 귀신(鬼神)에게 사로잡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2. 점판(占板)의 능력(能力)

우리는 점판쟁들이 점판을 통해서 신적 초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들은 점판을 통해서, 과거(過去)의 사실과 미래(未來)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고 한다. 그러나 점판은 하나의 점쟁이들의 도구(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점판의 능력은 악령들의 행위이며, 귀신들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3. 점판(占板)의 심리(心理)

우리는 점판을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마술(魔術)적 행위로 여긴다. 점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아맞히며, 심지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판은 점판 점쟁이들의 도구이며, 신적 초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점판(占板)의 현황(現況)

점판의 현황은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각양각색으로 점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점판을 가지고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길가에 수없이 많다. 우리는 점판 점쟁이들을 전국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다. 그들은 점판을 가지고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점판의 점쟁이들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넷째, 맺는 말

우리는 점판(占板)은 악령적, 미신적 민속신앙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리고 점판(占板)은 성경적이 아니며, 악령적이다. 또한 점판(占板)은 비과학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점판과 점판 점쟁이들을 통찰력 있게 영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궁극적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소위 외형적 우상적 점판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8. 천존회(天尊會)의 정체(政體)

우리는 주변에서 소위 군소 이교(異敎)들과 기독교회의 이단종파(異端宗派)들이 신앙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천존회(天尊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민족종교(民族宗教)라고 한다.

최근에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효남)는 2,000년 2월 25일 시한부 종말론(終末論)을 내세워 추종자들로부터 약 1천억 원을 받아 횡령(橫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존회의 천부(天父) 모행룡 씨와 천모(天母) 박귀달 씨 부부를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하였다.

첫째, 천존회의 배경(背景)

천존회는 30년 전에 소위 천부(天父) 모행룡 씨와 천모(天母) 박귀달 씨에 의하여 병자들을 치유(治癒)하는 수단으로 조직하였다. 그들은 천존의 계시(啓示)를 받아 천존회를 이룩했다고 한다. 천존회는 현재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 116-1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교당(敎堂)은 76개로 국내 71개, 국외 5개로서 교직자는 1,200명이라고 하며, 추종자는 약 127,000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천존회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고, 천존회의 추종자를 약 5-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둘째, 천존회의 원리(原理)

천존회는 우주만물을 주재하는 최고의 신인(神人)을 믿고, 천도선법

의 기(氣) 수련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제령(除靈), 영수(靈修), 천도로서 돌아가신 조상님의 업보(業報)와 고통의 해탈, 정진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본래의 마음으로 원심회귀하여 인간 완성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중요한 원리를 간단하게 서술하려고 한다.

1. 천존(天尊)의 신

천존회는 창조주 천존님 곧 신을 믿으며, 그들은 천존님의 계시 혹은 신탁(神託)을 받는다고 한다. 천존회의 신은 자연신(自然神)이라고 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신계(神界)는 하늘의 천신(天神)과 땅의 지신(地神)이 있다고 하며, 인간 세상의 일을 관장하는 것은 인간의 조상들의 혼영(魂靈)이라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소위 무당(巫堂)들의 신내림 곳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혼영이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 천존회의 천존은 미신적(迷信的) 민속신앙의 신령과 제사주의 유교의 조상들의 혼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천존회의 천존이 조상들의 혼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정한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적 자존자요, 인격적 실유로서 유일신(唯一神)으로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죽은 인간의 조상의 혼령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구속주, 영적 실유이다.

2. 천도선법(天道禪法)

천존회는 소위 기(氣)의 수련(修練)과 기(氣)의 전수(傳受)를 하는 것을 천도선법이라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기의 수련은 자신의 심성을 갈고 닦아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타인(他人)에게 기를 전수하여 타인의 심신안정(心身安定)을 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자아의 고행과 수행으로 얻는 심신의 경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解脫)이라고

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천도선법의 수행은 소위 신이 내려주는 원기(元氣) 곧 생명의 원기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민속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신내림이다.

그러나 기독교회에서는 모든 인간은 원죄(原罪)가 있어, 자신의 노력과 공덕으로 자기의 죄를 속죄(贖罪)할 수가 없고, 또한 스스로 의롭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스스로 죄를 사죄(赦罪)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독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대속적(代贖的) 행위로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독생성자(聖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救援)을 받으며, 의롭게 되는 것이다.

3. 천존회의 시한부 종말론(終末論)

우리의 관심은 천존회 모행룡 씨의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는 2,000년 2월 19일(음력 1월 15일)이 지구(地球)의 종말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모임에 가입한 제자들은 살아남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종말 날짜인 음력 1월 15일은 연례행사로 지키고 있는 소위 천존님의 날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창하고 많은 백성을 미혹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천존회가 세상 종말을 말하면서 추종자들을 유혹하여 거금의 대출 사기 사건을 일으켜 세간을 더욱 놀라게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 국민이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의 부조화로 혹세무민(惑世誣民)에 잘 빠지는 까닭이다.

또한 경제적 분배의 불균형으로 삶에 지친 국민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심취하면 거기서 빠져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종말사건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의 다

미선교회의 휴거사건, 그 밖의 크고 작은 종말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종말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정서적 불안정 때문이며, 물질주의의 가치관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기독교회는 이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철저한 기독교교육으로 인격적인 신앙을 연마해야 하며, 안일주의, 세속주의에서 탈피하고, 경건과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천존회의 현황(現況)

천존회(天尊會)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 116-1에 본부가 있으며, 교당은 76개로 국내 71개, 국외 5개로서 교직자는 1,200명이라고 하며, 추종자는 약 127,000명이라고 한다. 이번에 천존회 교주들의 비리로 당국에 검거되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므로 천존회의 존재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넷째, 맺는 말

천존회는 미신적인 민속신앙과 우상숭배의 불교, 제사주의 유교 그리고 동양철학의 음양 사상이 섞인 혼합신앙 집단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이교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종교적 과대망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천존회 역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9. 기독교 극단주의 암만파 공동체(共同體)

최근(2006년 10월 2일)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카운티 니켈 마인스 근처의 아미쉬(Amish) 마을 학교에서 총격사건이 있었다. 우유 배

달을 하는 운전수 찰스 칼 로버츠(기독교 극단주의 암만파의 공동체, 32세)가 마을 학교에 침입하여 여학생 5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自殺)한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암만파 공동체는 기독교회의 극단주의(極端主義) 보수주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18세기 유럽에서 18만 명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移住)한 기독교인으로 현재 미국의 50곳에 농촌 공동체를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주의(文字主義), 금욕주의(禁慾主義)를 따르며 현대문명과 문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전등, 전화, TV, 자동차 등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세례교인 70여 명으로 자치교구 단위를 형성하고, 자체 학교교육을 한다. 그들은 1-8학년(6-13세)까지 철저한 성경적 교리교육을 하고, 상급학교에는 보내지 않는다. 암만파는 성경의 원리대로 생활을 하고, 물질문명을 거부하고, 엄격한 금욕주의 신앙 생활을 한다.

우리는 암만파의 극단주의 신앙을 배격(排擊)한다. 우리는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의 자연은총(自然恩寵)의 산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암만파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주장하고, 세속문화를 거부하고 성경 원리를 주창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10. 법(法)의 꽃의 피해(被害)

최근 일본의 문화청(文化廳)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22만 개의 종교단체(宗教團體)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손금 혹은 발금을 보는 소위 법의 꽃이라는 집단이 있다.

그들은 일본 사회가 불황(不況)과 고령화(高齡化)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사람들이 건강과 돈 그리고 삶의 보람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을 악용하여, 소위 신앙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소위 법의 꽃이라는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보는 신앙 집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치부(致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발바닥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법의 꽃의 관상자 혹은 교주(敎主)는 소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초능력자(超能力者)로 자처하고, 사람들의 발금을 보는 것이다. 현재 그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1천1백 명이나 되고 있다. 그들은 당국에 고소 고발을 당하였다.

법의 꽃이라는 집단(集團)의 치부 행각을 보면, 발바닥 진단은 10-30만 엔, 4박 5일의 연수(研修)는 1백20만 엔, 행복의 병풍(屏風)은 2-3백만 엔, 부처의 사리(舍利)는 2천만 엔이다. 우리는 법의 꽃을 하나의 통계학적인 관상주의로 본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이와 같은 관상주의 신앙적 행위들, 손금, 관상, 사주팔자(四柱八字) 등을 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1. 여신(女神)의 계약신앙(契約信仰, Covenant Goddess)

최근 우리의 주변에는 이름도 생소한 여신(女神)의 계약(Covenant Goddess)이라는 여신숭배(女神崇拜) 신앙집단이 있다. 특별히 여신숭배의 일부 추종자들이 미국의 군(軍)에까지 포교(布敎)를 일삼고, 군당국은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신앙 시설까지도 제공하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에는 여신숭배 추종자들이 약 4백만 명이나 되고 있다. 그들은 고대신화(古代神話)의 가이아, 아테네 같은 여신(女神)들을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신 숭배자들은 여신(女神)들의 힘과 능력, 미

와 사랑을 받는 데 있다. 그리고 여신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여신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회의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贖罪) 등은 믿지 않는다. 기독교회의 교리 일부를 도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신 숭배자들의 근본 원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성 중심의 새로운 신앙적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성적(男性的)이거나 여성적(女性的)이 아니고, 오직 신적(神的) 존재일 뿐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에게서 여성(女性)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녀의 성적 차별이나 신앙적 구별을 하지 않고, 남녀의 인격적 동등과 평등을 신앙적 원리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신의 계약을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로 여긴다. 여신숭배 사상은 이교(異敎)적이며, 신화적(神話的)이며, 이방(異邦)적이라고 평가한다.(계속)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강사문 목사



I. 성경이 탄생한 곳 가나안, 약속의 땅

1. 약속의 땅의 지형(地形) 구조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은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 사이, 지중해 해안에 접해 있는 비옥한 반달형 지역(The Fertile Cres-

■ 강사문 목사

- 히브리대학교 졸업(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구약학)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cent)의 일부이다. 가나안 땅의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로 접해 있고,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강대국들을 맞대고 있어 남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기능을 한다(민 34:1-12). 고래로 가나안 땅은 산과 계곡, 광야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지형 구조를 성경은 이렇게 구분한다.

구분	신 1:7	수 10:40	수 11:16	수 12:8	삿 1:9	비고
1	산지	산지	산지	산지	산지	약 1만 km ²
2	평지	평지	평지	평지	평지	약 3600km ²
3	남방	남방	남방	남방	남방	약 1.2만 km ²
4	아라바		아라바	아라바		약 350km의 계곡
5	해변	경사지		경사지		약 2,000 km ²
6				광야		

위 지역 구분이 보여주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주로 산지로 구성된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남쪽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거의가 나무조차 없는 산지로 형성된다. 중앙 산간 지역만도 약 10,000km² 되는 크기의 땅이 산지다.¹⁾ 그래서 전쟁에 패한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신(山神, 왕상 20:28)으로 불렀고 골짜기 신이 아니라고 했다.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산지와 유대 산지가 여기에 속한다. 북쪽으로부터 사마리아, 세겜, 벰엘, 예루살렘, 헤브론으로 연결되는 족장들의 도로가 이곳을 통과한다. 또한 성경의 주요 계시 사건들은 다 산에서 이루어진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갈멜 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신봉자들과 아세라 신봉자들을 여호와와 능력으로 격퇴시켰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의 계시를 받았고, 시온 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의 주요 역사가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초기의 이

1) E. Omi and E. Efrat, *Geography of Israel* (Jerusalem: Keter Press, 1976), p. 54.

스라엘 땅은 거의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지역은 평지다. 지중해 해안과 중앙 산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해발 50m의 구릉지대이다. 세펠라로 지칭되는 평지는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장소이다(대하 26:10). 지금은 농토로 개간하여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제한된 지역이다(3,600km²). 또한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된 지역(땅 구분 당시 이스라엘 소유의 영토가 아님)이지만 지중해 해안 연안 평야 지역이 있다. 즉 남쪽으로부터 블레셋 평야, 유대 해안 평야, 샤론 평야 등이 평야 지역에 속하나 제한된 지역이다. 지금 이 지역에는 오렌지, 바나나 등 아열대식물이 자란다.

그 외 지역은 여호수아 12장 8절에 언급된 대로 즉 산지(הר), 평지(שפלה), 아라바(ערבה), 경사지(תל), 광야(מדבר)와 남방(נגב) 가운데 산지와 평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지역은 광야에 준하는 지역들이다. 남방은 다윗 -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한계선인 브엘세바 남쪽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약 12,000km²에 해당하는 광야 지역이다.²⁾

아라바 지역은 광야 - 사막에 가까운 지역으로,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다. 네게브의 서쪽 지역은 곡식이 자라는 평야도 있으나 남쪽 대부분은 역시 광야이고 광야에 준하는 지역이다. 경사지와 광야는 목축 정도가 가능한 광야지대이다. 이런 황량한 지역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유목민들은 추수기에 도시나 농촌 주거지로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이런 약탈이 이스라엘 시대의 아말렉이나 미디안 족속의 침입이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도심과 농촌 지역은 항상 광야의 종족들과 긴장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생활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아말렉 같은 적(敵)의 위협, 배고픔, 목마름, 무서운 짐승들의 위협(신

2) 위의 책, p. 15.

1:19, 8:15; 민 20:45)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면 과제였다.

이러한 지형 구조와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아담이다. 물론 여지도 아담(창 1:27)이다.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는 말을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다가 다시 아다마(אָדָם ↔ אֲדָמָה)로 간다고 기술한다(창 3:19a; 시 104:29; 전 3:20; 욥 34:14-15). 사람은 흙의 먼지로 된 존재이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지 같은 자(גֶּחֱלִי)라고 말한다(창 18:27; 시 103:14). 질그릇 같은 인생이란 표현보다 더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의 정체성을 표현한 말이라고 본다.

척박한 토양에서 생존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토양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탄생했을까?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의 비옥한 토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인들이 탄생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여러 요인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은 인간의 본향인 흙이 어떤 흙이냐에 따라 그 인간 형성이 좌우된다. 사람의 풍습과 사유는 토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토양이 광야 - 사막처럼 척박한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존을 믿고 의탁하는 신앙인들이 나타나고, 비옥한 토양으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신을 의지하여 생존을 보장받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과 추상적 이론으로 인생을 추구하는 철인과 철학이 등장한다. 이는 토양적 조건이 신앙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광야 - 사막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존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יָחַד)해야 생존이 가능한 곳이므로 신앙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생존이 가능했음을 의지 신앙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2. 약속의 땅의 역사적 기능

구약성경의 공간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거다. 사람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존재(창 3:19)이기 때문에 성경시대의 사람이 살았던 땅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뿌리에 대한 이해요, 터전에 대한 이해이다. 월터 부르그만(W. Brueggemann)은 《성서로 본 땅》에서 땅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³⁾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레 25:23)라는 뜻은 땅이 인간의 것이 아니므로 판매나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점유하고 사용할 뿐이다. 점유권 내지 사용권만 있을 뿐이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기업으로 받은 땅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판매와 양도도 안 된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이를 반증한다. 여호수아 21장 43-45절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수 21:43-45).

3) W. Brueggemann, *The Land: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p. 1ff.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위반하면 차지했던 땅을 다시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땅 점유권의 원리이다. 언약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증언이 사사기 2장 6절의 기록이라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땅을 잃게 되었다는 증언은 열왕기하 24장 14-15절에 나타난다 :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점유와 상실, 그리고 다시 점유함(겔 11:16-21; 렘 31:2-5, 31-33; 사 49:8-12)은 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자격을 가졌느냐를 결정하는 성경의 기준이요 원리이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 형성되었음을 아래 도표로 알 수 있다.

땅 없는 자에게 땅 약속		땅 있는 자가 땅 상실	땅 없는 자 땅 다시 얻음
약속	성취/점유	상실	재점유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상실된 땅	새로운 땅
창 12:1-2	수 21:43-45; 사 2:6	왕하 24:14-15	겔 11:16-21

땅 상실의 원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언약의 내용들은 ① 희년과 안식년 불이행(레 26:34-35), ② 우상숭배(출 34:11-15), ③ 이방들과의 결혼(출 34:16-17), ④ 사회정의 무(렘 7:5-15), ⑤ 안식일 불이행(렘 17:2) 등으로 열거된다.

따라서 구약성경은 약속의 땅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즉 땅 얻는 이야기, 땅 지키는 이야기, 땅을 잃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땅을 얻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 창세기-신명기, ②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사무엘상-열왕기하, ③ 땅 상실로 인한 포로기의 이야기와 북남왕국의 멸망 이야기: 에스겔, 예레미야, 열왕기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④ 하나님의 의가 절정으로서 새로운 약속의 이야기: 애가, 이사야 40-66장 등, ⑤ 성경 중에 특히 토라는 땅 관리 지침이다.

3. 약속의 땅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의미(意味)

1. 약속의 땅으로서의 성지(聖地)

1)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다(출 3:5; 속 2:10-13). 성막(출 26ff)-예루살렘 성전(사 4:3, 56:7)-제사장-제외가 30대 이상 지속된다.

2)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곳이 성지다. 언약에 의해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을 30대 이상 유지한다(렘 31:33ff).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발자취, 모세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와 사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과정을 성지순례(聖地巡禮)라고 한다(신 16:16ff; 예 7:9ff; 시 48:12-14).

2. 성지 이스라엘 땅의 기능

1) 아담과 아다마 (אָדָם אֲדָמָה) :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다 간다(창 3:19).

2) 아다마의 종류-

이스라엘 땅 - 사막: 아브라함, 모세, 예수, 바울 등 종교인들이 탄생.

그리스 땅 - 평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인들이 탄생.

3) 토양과 종교 - 사막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יָצַח)하는 종교가 나타나고, 평야에서는 사람들이 추상하는 철학이 나타난다.

3. 성지 이스라엘의 지리적 구조와 지정학적 기능

1) 동은 사막, 서는 지중해를 접해 있고, 남과 북은 강대국과 맞대고 있는 정검다리 기능을 한다(민 34:1-12).

2) 북쪽을 의지(יָצַח)하는 친앗수르파: 친바벨론파(사 7:1-25) 아하스 왕 앗수르를 의존.

3) 남쪽을 의지(תָּמַךְ)하는 친이집트파(사 31:1-3; 왕하 24:20): 시드기야 왕 애굽 믿고 바벨론 왕 배반.

4. 한국의 지리적 구조와 지정학적 기능

- 1) 동, 서, 남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다.
- 2) 북쪽 대륙을 의지하려는 친중/친소 사상
- 3) 남쪽 일본을 의지하려는 친일(親日) 사상
- 4) 최근에 큰 힘을 의지하려는 친미(親美) 사상

5. 우리의 갈 길?

1) 우리의 갈 길

Either-or(의존과 한쪽의 배타), Neither-nor(자주적 독립이나 양쪽의 배타와 고립): 민족의 자주 독립이나 아니면 종속?

2) 여호와 하나님의 길 - 사막의 대로(사 40:3ff):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자주적 신앙

3) 하나님 의지 신앙(תָּמַךְ): 시편 115편 8-11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의 신앙(사 7:9-תָּמַךְ לֹא תִמְצָאוּ, 30:15-17) - 구원의 길

II. 의지 신앙 속에 고난과 거룩한 길

1. 의지 신앙(תָּמַךְ)의 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외적 힘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했던 의지 신앙은 이스라엘 신앙 내용의 진수이다. 예언자들이 이방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줄기차게 외치던

신앙 내용도 곧 바타흐 의지 신앙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북쪽의 앗수르 같은 강한 힘을 의지(꺄꺄)했던 아하스 왕 같은 친앗수르파(사 7:1-25)도 있었고, 후에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그달라 총독 같은 친바벨론파(왕하 25:22-24; 렘 40:7-16)가 존재했으나 나라의 운명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남쪽의 애굽을 의지(꺄꺄)했던 시드기야 왕 같은 친이집트(사 31:1-3; 왕하 24:20) 정책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처사로 결국 배신감을 느낀 바벨론의 반격으로 유다 왕국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구조와 지정학적 기능은 이스라엘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동, 서, 남쪽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이므로 북쪽은 북쪽 대륙을 의지하려는 친중, 친소 사상으로 일관하고, 남쪽은 일본을 의지했던 친일(親日)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최근에 큰 힘을 의지하려는 친미(親美) 사상이 농후해지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라의 생존과 운명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열강에 의해 나라가 위협받고 있었을 때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갈 길은 선택의 폭이 좁다. ① 우리 민족이 갈 길은 이것이나, 아니면 저것이나는 택일의 방법이다(Either-or). 이 방법은 어느 한쪽을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것이므로 다른 한쪽의 공격을 받게 된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면 일본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② 아니면 우리가 양쪽 모두를 의존하지 않는 경우이다(Neither-nor). 이러한 경우 우리 민족은 자주적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양쪽의 배타적 공격으로 고립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 민족의 자주 독립이나 아니면 파멸이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③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사막에 대로(사 40:3ff)를 만드는 일로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찾던 자주적 신앙의 길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40여 명

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특징은 외국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나라의 자주적 독립을 추구했던 왕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개혁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지 신앙(אמונה)이 민족 생존에 기초가 됨을 보여준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לֹא תִסְתָּמֵךְ אִם לֹא תִאֱמִין; 30:15-17)는 말씀은 절대 의존의 신앙을 이야기한다. 시편 115편 8-11절은 의지 신앙이 곧 구원의 길임을 언급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2. 고난을 통한 역사 창조 의 길

1. 성경 본문

시 3-7편, 12-13편, 22편, 25-28편, 35편, 38-40편, 42-43편, 51편, 54-57편, 59편, 61편, 63-64편, 69-71편, 86, 88편, 102편, 109편, 119:62-72; 120편, 130편, 140-143편; 욥 1-42:16; 마 8:1-27; 히 11:32-40.

2. 고난의 현상과 요인

(1) 육체적 정신적 고(苦)-생고, 노고, 병고, 사고(死苦) 등 사고팔고(四苦八苦)

(2) 민족적인 고(苦)-반셈족주의로 인한 고: 구약시대의 하만, 근세사

의 히틀러 등

(3) 종교적인 고(苦)-유대교로 인한 다른 종교로부터의 고난: 기독교와 무슬림

3. 고난의 원인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고통이란 창세기 3장 16-20절에 언급된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고통과 수고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필연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통이란 죄의 값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4. 고(苦)에 대한 다른 종교의 이해

1) 불교: 고(苦)에 대한 불교의 이해는 소극적이고 수평적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그 근본 원인이 인간의 욕심과 무지에서 발원한다고 한다. 사 고팔고, 생로병사의 고통은 물론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불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 등이다. 그래서 고에 대한 해결방법은 고의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즉 해탈(解脫)이다. 동시에 고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욕심은 업(業)으로 축적되어 이생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 저생에서도 연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생의 고통은 전생의 탓으로 윤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로 탈출하거나 체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① 현재 자기 자신의 책임성이 약하다. ② 동시에 의로운 자의 대속적 고난이나 ③ 미래의 신천신지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유교: 유교에서 고통이란 어떤 실재(實在)도 아니고 세력을 가진 어떤 존재(存在)도 아니다. 단지 천도(天道)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음양의 조화가 도덕적 수양이 부족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제가(修身齊家)하여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따라

서 민생(民生)의 고는 귀신의 탓이 아니라 왕과 같은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부족한 지도자의 통치무능 때문에 혼란과 고통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신라 유리왕 28년에 왕은 시내 시찰 중에 늙은 거지를 발견하고는 ‘이는 내 죄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세상에 소인(小人)은 많으나 죄인(罪人)은 없다는 것이다.

5. 고(苦)에 대한 성서적 이해

- 고난주간
- 주일 종려주일 -요 12:13; 계 7:9
- 월·화 성전 청결 및 예수님의 유대인들과의 대화
- 재의 회개의 날(Ash Wednesday)-마 26:6-13
- 세족 목요일(Maundy Thursday)-눅 22:24-27; 마 26:26-29(성찬식)
- 성 금요일(Good Friday)-마 26-27장
- 부활주일(Easter Sunday)-마 28장

1)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고(苦)란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 6-9장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당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2) 고(苦)란 타인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의인들의 대속적인 희생이다 (욥의 고난, 이사야 53장의 수난의 종의 고난)

3) 고(苦)란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서 오는 하나님의 필연성이다. 하나님의 역사(歷史)는 고의 역사이다(출애굽기 1-40장의 출애굽 여정). 그래서 고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한쪽 수레바퀴이다.

4) 고(苦)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단련의 교육과정이다(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수난-민수기 1-36장, 20세기 한민족의 고난). 고는 인생을 심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든다.

5) 고(苦)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다. 마태복음 26-28장의 내용은 십자가의 길이다(via dolorosa). 십자가의 고난의 길 없이는 부활도 없다.

6) 고(苦)란 깊고 높은 삶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의 불가피한 요소인 고난의 문으로 통과해야 새로운 소망의 세계를 맞볼 수 있다(계시록의 신천신지의 삶).

7) 고(苦)를 대하는 우리로서는 고(苦)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수락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고(苦)를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苦)를 해결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3. 거룩한 삶[聖化]의 길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וַיֹּאמֶר יְהוָה אֱלֹהֵינוּ וְאַתֶּם תִּהְיוּ קְדוֹתִי)” 고 하신다. 거룩이란 말은

1) 죄와 불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 각종 오염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겔 20:9-12)이고, 그래서 몸을 구별할 동안 거룩하다(민 6:8)는 말이다.

2)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다. “너희는 내(야웨)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출 19:5-6)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성도인 것과 같다(고전 1:2).

3) 거룩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한다(Taboo).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다. 악한의 행위는 범죄다(레 27:28; 수 7:25).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나 세례 요한 등이 성인(聖人)이다(민 6:1-21).

4) 거룩함이란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거룩함의 4범주를 다루는 본문은 아래와 같다.

① 성시(聖時), 성일(聖日): 레 16, 23장; 민 28-29장

② 성소(聖所), 성전(聖殿): 출 25-27장, 30-31장, 35-37장, 40장; 민 1-4장

③ 성인(聖人), 성자(聖者): 출 28-29장, 39장; 레 8-10장; 민 3-6장

④ 성례(聖禮) 등이라.: 레 1-7장, 11-15장; 민 7-10장; 19장

위 제사장 본문이 제시하는 기록함의 정도는 5단계로 나누어 구분한다.⁴⁾ 중간 정도가 깨끗함에 속한다.

단계	1	2	3	4	5
정도	매우 거룩	거룩	깨끗함	더러움	매우 더러움
	קֹדֶשׁ קֹדֶשׁ	קֹדֶשׁ	טָהוֹר	טָמֵא	טָמֵא טָמֵא
공간	지성소	성소	성소 뜰	캠프	캠프 밖
시간	속죄일	안식일, 축제일	보통 날	x	x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적게 부정한 자	많이 부정한 자
					시체
제사	희생동물들	희생동물들	정한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	시체들
	희생동물들	희생동물들	희생동물들	1일간 정결	7일간 정결
	안 먹는 제사	제사장들만	비제사장들도	예식 요함	예식 요함
		먹음	먹음		
비교	+2	+1	0	-1	-2

위 구조를 웬함의 3단계 구분과 비교한다: 정상-생명; 비정상-질병; 전적 무질서-죽음⁵⁾

	정상		비정상		전적 무질서	
공간	지성소	계단	성막 뜰	캠프	캠프 밖	스울
거룩한 자	하나님	제사장	비형식적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	부정한 자들	죽은 자
제사		완전한 희생제사	흠 있는 희생제사	먹을 수 있는 희생제사	먹을 수 없는 희생제사	제물의 시체

4) P. P. Jenson,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Sheffield: JSOT press, 1992), p.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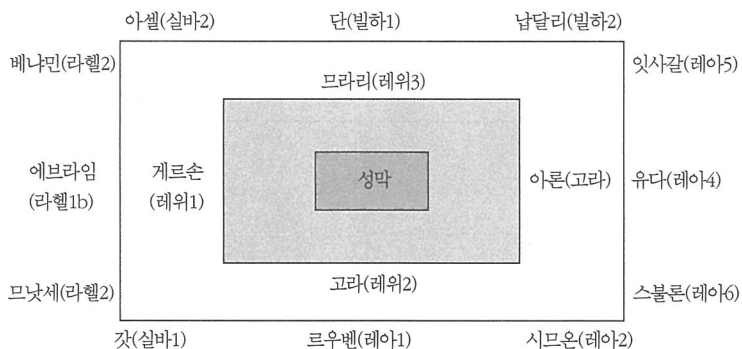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거룩한 공간

경계들	휘장 안		휘장 밖	입구	
등급	I	II		III	IV
영역	지성소	성소		뜰	캠프

	주된 범주	종속 범주
공간	중앙	변두리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
	만질 수 없는 곳	만질 수 있는 곳
시간	축제일	금식일
	명절날	보통일
	안식일	보통일
사람	제사장	비제사장
	지도자	보통 사람
	정한 자	부정한 자
	남자	여자
제사	남자	여자
	크다	적다
	정상	흠 있음
	정한 제물	부정한 제물

5) 위의 책, p. 37, n. 1에서 인용



(2) 거룩한 사람

A.

구분	상태		금지된 영역	들어감의 한정
대제사장	거룩	קֹדֶשׁ	지성소	일 년에 한 번
제사장들	거룩	קֹדֶשׁ	성소	봉사하는 기간
평민	정함	טָהוֹר	거룩한 영역	절대 안 됨
제사장들과 평민	작은 부정함	טָמֵא	성막	깨끗게 될 때까지(1일)
제사장들과 평민	큰 부정			
	시체	טָמֵא לְנֶפֶשׁ	캠프	깨끗게 될 때까지(7일)
	피부병	מצרע	캠프	치료된 후(7일)
	설정(남자)	זָכָר	캠프	7일 동안
	(여자)	זֵכָה	캠프	(7일 동안)
	월경	נדה	(캠프)	7일 동안
	출산	יולדת	(캠프)	7일 동안

B.

그룹	주요 구분
제외의 창시자	모세
제사장들	아론/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 제사장 가족들
레위인들	고라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다른 부족들	부족들과 일족들의 지도자 일족 또는 가족
부정한 자	작은 부정을 가진 자 일시적 큰 부정을 가진 자 영구적 큰 부정을 가진 자
비이스라엘 사람들	여행자와 그의 가족 이방 민족들

(3) 거룩한 때

안식일, 축제일, 정한 성회일

(4) 거룩한 제사

번제, 소제 등 희생제사를 드리는 때가 거룩한 제사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도덕 가치나 선악을 넘어서 상태를 지칭하고, 어떤 성질이나 의식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강력하고, 동적이고 위협적인 힘(energetic, dynamic and threatening power)을 말한다.

(5) 성화(聖化)의 방법에 대하여는 레위기가 성화의 길을 제시한다.

① 우선 몸과 마음과 환경 모두가 정결해야 한다.

②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출 19:5-6).

② 레위기 19장은 성화(聖化)의 장(章)으로 부모 공경으로 거룩해진다.

③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거룩해진다. 수난시대에 생존 방법을 모색한 결과 방법은 오직 성화의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성화의 방법을 역설한 책이 곧 레위기 라바(Leviticus Rabbah)이다. 안식일 준수가 곧 민족의 구원을 가져왔다.

④ 레위기의 초점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해짐에 있다.

⑤ 레위기 16장(히 9:13)에 피 흘림으로 속죄함을 받아 부정을 벗고 거룩해진다. 이의 중요성은 모세오경의 핵심 구조가 이를 입증한다.

⑥ 십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신 5장; 출 20장). 신약에서는 말씀 을 지키므로 거룩해지는 것(엡 5:26)과 같다.

⑦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므로 주일에는 성전에 가야 한다. 성소는 세속과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성일에 성전에서 성직자의 성례에 따라 드리는 예배 모습이 최대의 복이다. 제사장은 제도권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살더라도 성직자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전호진 목사



현대는 국제화 시대 혹은 세계화 시대로 한국도 90년대 경제성장과 88 올림픽과 월드컵 이후 국제위상이 높아졌고, 한국군 해외파병도 증대되고

■ 전호진 목사

-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졸업(D. Miss.)
- 영국 웨일즈대학교 졸업(Ph. D.)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원장 및 고신대학교 학장 역임
-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회장 역임
- 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군선교연합회 교육원 원장

있다. 10년 전 한국 군대는 북한만을 상대하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대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친북, 반미, 반일이 우리의 외교정책처럼 비쳐지기도 하였다. 북한은 동족임에 틀림없다. 새 정부의 대북관계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강조하고 동시에 해외 봉사 프로그램과 개발도상국 원조도 대폭 늘린다고 한다. 이제 한국 군대는 힘차게 해외로 뻗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동란 이후 받은 원조가 무려 530억 달러라고 한다. 그런데 80년도부터 다른 나라에 제공한 원조는 연 2억 달러도 못 된다.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많이 받았으면서도 주는 데는 아직 인색한 나라이다. 작년 아프간 인질 때 교회가 남의 나라에 쓸데없이 많이 준다고 사회적 비난이 많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선교사 철회도 잘못된 것이다. 아프간은 무서운 이슬람 국가로 선교는 불가능하다. 대부분 NGO 멤버로서 활동하였다. 일본이나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아프간에서 봉사와 원조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국제질서는 미국 독주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Pax Americana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미 감정이 휩쓸고 있지만 미국을 대치할 나라는 아직 없다. 토인비는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된다고 하였다. 경제 규모로 중국은 곧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계적 국가로서 위상은 경제 규모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과 국제적 책임수행과 세계가 배우고 공유하고자 하는 세계적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지금 중국은 티베트 문제로 국제적 위신이 실추되고 있다.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중국이 약한 나라를 불법으로 점령한 셈이다. 우리는 이제 세계적 국가로서 책임과 도덕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해외파병에 대한 이론적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국내 대학의 석, 박사 학위 논문으로 파병문제를 다루었으나 아쉬운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 포괄성이 부족한 것 같다. 너무 군사전략에만 치우치고 있다.¹⁾

현재 이라크의 미군 사령관은 군사적 접근에서 문화적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아직도 한국 군대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외 근무는 기후, 언어 등 적응에 어려움이 많지만 국제 경험의 가장 좋은 기회이다. 많은 기독교 신자 장병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희생적 봉사는 한국 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아프간에서 순직한 고 윤 병장이나 고 박상인 대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자들이다.

물론 해외파병에는 부작용도 있다. 생명의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 책임과 봉사에는 희생이 따른다. 2차대전 때 만약 미국이 자기 나라는 바다 건너 있어 안전하다고 태평양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었겠는가?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를 일본의 침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개입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평화주의자들의 완강한 반대를 받았다. 이때 진주만 기습이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기습을 알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였다. 은근히 당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흥분한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 개입하였다. 미군군의 많은 희생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서 해방되었다.

1. 한국 군대의 해외파병 역사

한국 군대의 해외파병 역사는 먼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전의 해외파병은 강대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외국에 군

1) 김석환, 한국과 일본의 대테러 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2006년 석사논문)
양옥상,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정도생, [한국의 해외파병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소말리아, 앙골라, 동키모르 PKO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원 박사학위 논문, 2006년) 외 다수.

대를 보낸 것은 통일신라시대 헌덕왕(재위 809~826년) 때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819년 신라는 당(唐) 헌종의 요청으로 운주(지금의 산둥성)에 갑병(甲兵) 3만 명을 보냈다.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사도(李師道)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파병은 아니지만 나당 연합군은 군대가 외국군대와 연합전선을 한 최초의 역사일 것이다. 반면 우리 역사는 가르치지 않는 역사로, 백제와 일본이 연합하여 나당 연합군에 대항하였다. 일본 역사는 이것을 강조하는데, 한국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들은 적이 없다. 일본은 당시 배 1000척으로 백제를 도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인 관광객들은 부여를 방문하고 흥분하기도 한다.

외세의 강압에 의한 해외파병은 계속됐다. 《한민족 역대 파병사》에 따르면 고려, 조선시대에 각각 세 번의 해외파병이 있었다. 특히 원(元)의 주도로 추진된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은 막대한 국력 낭비를 초래했다. 원나라는 몽골족 왕국이었다. 같은 몽골족이지만 고려를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특히 여자들을 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인종적 동질성으로 몽골 군대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후대하였다고 말한다. 인종 동질론에 호소, 여몽연합군으로 일본을 침공하였으나 실패(神風)으로 거의 익사하고 말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배를 중국인들이 만들었는데, 몽골인 통치를 증요한 중국의 한족 선박 기술자들이 강물용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중요한 사실은 남해 바다의 시체가 된 몽골 군인들 중에는 십자가와 기독교 상징을 한 군복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몽골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증거이다. 당시 몽골에는 로마 가톨릭의 선교로 한 종족이 다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역사적 흔적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몽골 군인에게 전도 받은 고려 병사의 이야기는 없다.

조선시대에는 그나마 ‘안보 외교’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기였다. 광해군 때 명(明)은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국 후금(後金, 청의 전신)을 치는 데 원병을 요구했다. 실용 중립노선을 택한 광해군은 1618년 1만 3000명을

출병시키면서 강홍립 장군에게 ‘형세를 보아 항배를 정하라’고 밀명을 내렸다. 지난 주 KBS는 광해군의 출병에 얽힌 야사를 잘 소개했다.²⁾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에게 항복하고 출병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실토하게 한다. 그리고 강홍립 장군은 모든 상황을 비밀리에 광해군에게 보고한다. 광해군의 외교정책은 양자를 포용하는 균형외교 정책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친명파인 서인들의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난다. 이것이 소위 인조반정이다. 그러나 친명 노선의 인조는 후일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치욕’을 겪는다.

베트남전쟁은 한국군 역사에서 중요한 파병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베트남 특수라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국방부의 한 연구소는 직·간접 경제효과를 총 50억 달러 선으로 추정한다. 1960-70년대 경제 발전은 눈부셨다. 1964년 103달러(북한은 153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3년 396달러로 뿔박질해 북한(348달러)을 추월했다. 지방도시에 흑백TV, 라디오, 재봉틀과 C-레이션(미군 야전 전투 식량)이 나돈 것도 그 무렵이다. 필자도 월남 지원을 시도하였으나 장기가 아니라 엄두도 못 내었다. 그러나 월남 다녀 온 장병들의 집에 있는 냉장고, 전자제품은 당시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선교적으로 많은 불신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희생도 적지 않았다. 한국군은 1964년 9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연인원 32만 명이 참전해 5,059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만 1000명이 부상했다. 고엽제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에 떨고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용병(傭兵)’이란 비난도 받았다. 해외파병은 당시도 민감한 정치 이슈가 되었다. 1965년 3월 통과된 전투부대 파병 동의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지금도 베트남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 피가 흐르는 “파이한”들이 있다. 해외에서 어글리 코리아인이 이때 등장하

2) 이 이야기는 2008년 2월 9일 저녁 KBS가 잘 보도하였음.

기 시작하였다. 한국이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경제력 11-12위, 군사력 8-9위의 나라가 됐다. 반면 해외파병 규모는 13개국에 1,800명에 불과하다. 선진국이 될수록 지구촌 평화를 유지할 책임은 무거워진다. ‘글로벌 코리아’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문명충돌의 시대

사무엘 헌팅턴은 1993년 유명한 문명충돌 이론을 제기하였다. 문명충돌이란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8개 문명권, 즉 남미의 로마 가톨릭 문명권,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회 문명권, 중국의 유교 문명권, 인도의 힌두교 문명권, 중동의 이슬람 문명권, 아프리카의 원시문명권, 서구의 기독교 문명권이 서로 협력하거나 충돌한다는 것이다. 헌팅턴이 제일 중시한 충돌은 이슬람 세계와 서구 문명의 충돌이다. 비서구 학자들은 그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고 냉전적 이론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현 국제 정치는 불행하게도 종교, 인종, 민족, 혹은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 폭력,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종 청소는 히틀러 시대에 끝난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있다. 경찰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에 많은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이라크와 아프간에 제일 많은 군대를 파견하였다. 한국에도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군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세 번째 나라라고 한다. 제일 기피하는 나라는 물론 이라크와 아프간이라는 것이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미국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 전략은 군사 전략에서 문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라크 지휘관 패트리 장군은 이라크에서 문화적 접근법으로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아프간에는 문화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을 파견하였다. 2001년 아프간 전쟁은 군사전략적으로 새로운 전쟁 시대를 열었다. 우수한 군사무기와 전략 외에 문화 이해와 언어 및 종교 이해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아프간 전투에서 알카에다 기지 폭격에는 90 킬로를 넘는 장비에 아프간 문화와 부족 언어를 아는 석사 이상의 두뇌장교들이 알카에다가 위치한 근접 지역에서 지형지물을 비행기로 교신하였다. 물론 부족 안내로, 이제 한국 군대도 해외파병을 위한 문화인류학적 혹은 종교학적 접근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지난 1월 미2사단 모 대대에서 특히 수니파와 시아파를 중심으로 이슬람을 강의하였다.

문명충돌은 다시 말하면 종교, 문화 문제로 긴장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공존한 나라였다. 그러나 1970년대 불교가 군승을 파송하면서 군대에서 종교 간의 선교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단 종파도 군종장교를 파견하려고 정치력을 동원하는데 이로 인하여 기독교와의 관계에 약간의 긴장이 발생하였고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문화충돌 혹은 종교 갈등이다. 미국과 서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 문화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케냐 출신의 이민 2세대이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생한 자라야 한다. 그런데 그의 출신지는 케냐 루오족이다. 그리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이슬람 배경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음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는 오바마의 기독교를 의심한다. 그가 2006년 아프리카 방문 때 오바마가 터번에 아프리카식 복장을 하고 추장과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되었다. 이 사진은 그가 무슬림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표를 깎으려는 의도의 사진이라고 오바마 편은 항의한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듯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지구상 다른 지역의 관습과 문화를 조롱하거나 비난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불화를 조장한다.”³⁾

21세기 국제사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닌 지역 분쟁이 심한 시대이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국제정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국가 대 국가 혹은 이념전쟁 시대에서 소수인종과 국가 내부의 내전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20세기 서구가 일으킨 양차 대전은 “종교적 파쇼적”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와 공산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전쟁이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은 자기 민족이나 인종을 신의 선민으로 자부하며 다른 인종과 나라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자부한다. 일본은 태양신의 나라로 아시아 맹주로 자처하였고, 독일은 신학적으로 독일 민족을 통하여 신의 섭리가 구현된다고 자부한다. 하르낙 같은 독일신학자들이 이것을 뒷바침한다.

50년대에서 80년대 후반까지는 이념에 의한 냉전 시대가 된다. 개인의 자유를 거부하는 이념적 전체주의가 지구를 석권한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의하여 스스로 항복, 소련이 해체되고 만다. 그후 세계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아프간 전쟁 이후 새로운 형태의 전쟁 시대가 도래한다. 문명충돌 혹은 종교와 인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국제 평화군을 요구하게 된다. 21세기는 인종주의, 종교가 갈등과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새뮤얼 헌팅턴은 역사의 종말은 “부족주의와 세계주의라는 갈등으로 인해 민족국가가 약화되고 대신에 소수인종들이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쟁’ 하는 시대”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민족국가는 세계 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역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지만, 지구촌 정치에서 근본적 갈등은 민족국가들과 다양한 문명을 가진 집단들 간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한다.⁴⁾

세계 역사에 대한 그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웨스팔리

3) <http://news media.daum.net/foreign> 2008년 2월 26일자.

4) Sameu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the Worl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p. 1.

아(Wespalia) 평화안으로 현대에 국제체제가 대두된 이후, 서구 세계의 갈등은 주로 황제 대 왕의 대립이었고, 민족국가들이 형성되면서 민족 대 민족 간의 갈등이었으며, 결국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냉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정치는 탈서구화하여 비서구 문명권에 속한 종족의 통치권은 더 이상 서구 식민주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며 그 틀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서구와 결합하게 된다.” 그리고 “후기 냉전 세계가 변화하면서 그동안 협력과 연합의 기본 원리로 작용해 온 정치적 이념과 전통적인 힘의 균형이 문명 공동체의 조화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린웨이(Greenway)는 이것을 “친족국가”(kin-country)라고 불렀다.”⁵⁾

이 말은 이제 국제정치가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인종이나 종교를 축으로 하는 문명에 의하여 서로 협력하고 친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도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의 독립 및 아체의 독립운동, 러시아 체첸 사태, 유고에서의 인종과 종교에 의한 분열, 수단의 내전, 르완다 인종청소 사태, 나이지리아 등 북부 아프리카의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 인종 내전, 최근 차드에서도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티베트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1950년 중국은 티베트를 무력 침공, 중국에 합병시켰다.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하여 중국은 과거 티베트는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강변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과거 역사는 완전한 국가적 개념이나 국경성이 없으면서도 인종이나 한 문화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청나라 이전에 엄연히 티베트는 독립국가였다. 만약 장개석이 중국을 점령하였다면 티베트, 신장 위구르 몽골은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정책을 세웠을 거라고 한다.

5) Huntington, *op. cit.*, pp. 12-13.

위구르 역시 독립을 외치는 테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최근에도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나 터키에 있는 신장 위구르 망명지도자들은 “우리가 중국은 미워도 올림픽에서 결코 테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올림픽에서 테러는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⁶⁾ 신장 위구르 청년들은 그야말로 불쌍하다. 위구르 대학 출신들은 자기 땅에서도 한족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파 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이다. 중동과 서구의 여러 국가를 유랑하는 쿠르드인들은 2천만 혹은 2천5백만이나 되지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가는 곳마다 불법 체류자로 내몰리고, 아직도 자기들의 땅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아프간은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인 탈레반과 나토 및 미군들과 끈질긴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탈레반은 집요하게 아프간 재탈환을 시도한다. 작년도 우리 정부가 탈레반에 제공한 돈은 탈레반의 무기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국제사회가 우려한다. 정부군 및 유엔군과의 전쟁, 이라크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내전은 언제 종식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많은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인종주의의 다양한 양태를 연구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인종주의가 국가와 국내 문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하여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일부 문화인류학자들은 서구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종족 문제를 정치 다음으로 생각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로 사회의 계급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종족 내부의 갈등도 계급 투쟁의 한 형태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 다른 학자들은 종족 의식의 대두를 원시사회로의 회귀로 해석하였다.⁷⁾

이러한 분석은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미국도 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6) 〈五輪テロはあり得ない〉朝日新聞, 2008年 3月 11日.

7) Huntington, *op. cit.*, pp. 59-60.

종교, 특히 이슬람이 국제사회에서 무서운 위협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80년대 미국은 오직 소련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여 아프간에서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데 힘썼다. 미국이 제공한 첨단 무기가 미국으로 향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소수 인종주의의 등장은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특수주의(Particularism), 혹은 세계주의와 지방주의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현 세계적 상황을 국제화 시대라고 말하는데, 코카콜라는 세계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대하여 한국의 막걸리는 일종의 특수주의 혹은 지방주의의 상징으로 비유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성전(jihad) 대 코카콜라전으로 묘사한다.⁸⁾ 이 점에서 소수 인종주의 시대에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은 시대적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인종 갈등을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세계적 종교인 기독교 복음이다. 부족주의 혹은 지방주의의 샤머니즘이나 민족적 종교인 신도나 힌두교나 유대교가 궁극적 해결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기독교 선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선교가 전통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 자결론에서 문화결정론(Cultural Determinism) 이론을 발전시킨다. 즉 국가의 정치 상황은 비록 독재라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강대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라크 전쟁에 적용, 부시가 공연히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였다는 것이다.

소수 인종주의는 국제화 시대에 오히려 원시문화로의 복귀를 의미한

8) 여기에 대하여는 Benjamin R. Barber, *Jihad vs. McWorld* (New York: Random House, 1995)를 참조할 것. McWorld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의미함.

다. 원시문화로의 복귀는 문화인류학자들에게는 학문적 호기심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기독교 선교 관점에서는 샤머니즘적 문화를 되살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선교가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계룡산을 찾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무속화 현상이 심각하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기독교 선교가 샤머니즘(영어로는 Animism) 문화권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에서는 선교적 접근 자체가 어렵다. 또한 원시공동체는 부족 간의 강한 배타주의로 인종 갈등을 심화시킨다. 비서구의 인종 갈등과 충돌 및 인종 청소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이슈이다.

참고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소수 인종주의의 등장을 색안경을 끼고 관찰할 정도라고 한다. 이유는 이슬람도 알라 신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슬람 세계(umma)를 꿈꾸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자들도 이슬람 세계에서 인종주의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세계주의적 주장(the universalists claims of the Islamic fundamentalism)을 해친다고 우려한다. 이유는 인종주의는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패슈툰족, 타지크족, 우즈베크족은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약간의 차이로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파워 게임을 전개한다.⁹⁾

이라크에서도 인종 갈등은 심각한 난제이다.

9) Bassam Tibi, *The Challenge of Fundamentalism: Political Islam and the New World Disor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124.

3. 분쟁지역과 상황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2008년 1월 현재)

구 분		인 원	임 무
이 라 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	530여 명	평화, 재건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미군기지 공군 다이만 부대	130여 명	자이툰 부대의 병력 및 물자수송
유엔평화 유지활동 (PKO)	인도, 파키스탄 접경지역	9명	정전 감시단
	그루지아 스쿠미	7명	정전 감시단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2명	지원단
	아프카니스탄 카불	1명	지원단
	수단	8명	임무단
	레바논 UNFIL	4명	참모장교
	동명부대	353명	평화유지단
	네팔 카트만두	5명	임무단
총 계		총 1,060여 명	

※ 미 중부사령부(플로리다) 5명, CJTF-HOA(지부티) 1명

이상 표를 중심으로 한국군이 파견된 나라와 지역의 상황을 요약하면,

1) 그루지아는 카프카즈의 분쟁으로 아주 복잡하다. 카프카즈 민족의 반러시아 저항운동이며, 둘째는, 기독교(러시아 정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종교적 대결이며, 셋째는 카프카즈 소수종족 간의 갈등(ethnic tension)이다. 북카프카즈의 체첸, 잉기쉬 등 이슬람 민족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200년 전부터 싸워 왔다. 러시아는 잉기쉬 한 마을 주민을 완전히 학살하였고 6만여 명 이상의 잉기쉬인들을 추방하였다.

리베리아(Liberia) 역시 인종과 정치적 갈등이다. 인구 250만 인구의 이 나라는 무장 게릴라가 7개 단체나 되어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노예들이 돌아와서 건국한 나라로 미국 국기를 모방하였지만 미국의 흉내는 못 낸다. 기존 원주민과 귀국한 사람들 간

의 갈등이 부패한 정부를 향한 내전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일개 특무상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였으나 부정부패로 암살당한다. 특히 소년병사 이야기로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내전으로 사망자가 25만 명이나 되었다.

분쟁 지역인 네팔을 제외하고는 다 종교와 인종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다. 인도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역시 힌두교와 이슬람의 분쟁으로 해방 후 인도가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열되었다. 사실상 영원한 분단국가이다. 네팔은 부패한 왕정으로 오래 전부터 공산화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부패한 힌두교 계급사회는 지식인들과 청년들을 사회주의로 돌아서게 하였다. 필자가 1987년 네팔 연합선교회 총무와 인터뷰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스리랑카의 불교 싱할리와 힌두교 타밀 해방군과의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전쟁이 아니라 인종 주도권 싸움이다. 영국에서 독립하자 다수 인종인 싱할리는 싱할리어를 국어로 하여 타밀족을 차별한다. 2008년도 1 월에만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불리한 타밀 반군은 콜롬보를 중심으로 계속 무차별 테러를 자행한다.

최근 동티모르 상황이 심각치 않다. 2월 10일 동티모르 대통령이 암살의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앞으로 정국이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섬 티모르는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나 1975년 포르투갈이 철수하자 바로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침공하여 합병한다. 인도네시아는 잔인한 탄압정치로 무려 2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여기에 대항하여 로마 가톨릭의 이 섬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합병되는 것을 반대, 많은 저항과 투쟁 끝에 마침내 1998년 하비비 대통령이 자치주로서 투표를 허용하였고, 2002년에 수스마오를 초대 대통령으로 독립국가가 된다. 그러나 반대세력은 계속 이 섬나라를 괴롭힌다. 동티모르의 독립은 소수 인종주의의 전형적 예가 될 것이다. 한국 군대가 일찍 여기에 파

전된 적이 있다. 지금은 호주 군대가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항상 자체 소요와 인도네시아의 조종으로 불안하다.

이라크 사태는 단순하지 않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해방의 명목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명분은 이라크가 알카에다를 지원하였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는 없는데 미국이 거짓말하였다고 반미감정이 더 격화되고 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라크 공군부참모장이었고 기독교 신자인 조지 사다 장군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는데, 미군의 침공 전에 다 시리아로 옮겼다고 하면서 시리아 대통령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유엔에 신고하라고 도전한다. 사다 장군은 1991년 걸프전 때 화학 무기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물었고, 사다 장군은 그것은 소경과 눈뜬 사람의 전쟁으로 비유, 말렸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후세인은 아랍 세계의 맹주가 되려는 야심을 가졌다는 것이다.¹⁰⁾

이라크에서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이라크는 “피바다”가 된다는 것이 아랍인들이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라크 사람들은 미군 침공을 해방전쟁으로 인정하고, 혼란 중에도 경제가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침공을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 미군 침공의 최고 수혜자는 쿠르드인들이요 크리스천들이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은 자유로운 지역, 번영의 상징이 되고 있다. 밤에도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이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영원한 전쟁의 역사이다. 대부분 중동 지식인들은, 심지어 아프간인 유엔 병사조차도 미국이 철수하면 이라크는 피바다가 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종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미국 사령관은 문화적 접근 방법으로 추장들을 잘 포섭하여 알카에다와 주민들을

10) George Sada, *The Secret of Saddam Hyssein* (New York: Nelson, 2006). p. 230 이하 참조할 것.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자 수니파 알카에다들이 도리어 미국에 협조하는 추장들을 암살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군은 각성 부대(the Awakening Groups)를 잘 운영한다. 시아파 말리키 수상은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라크의 평정은 곧 민주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계속 테러를 수출한다. 이라크에서 양 종파의 치열한 살육전쟁에 이라크 청년들은 이슬람과 이슬람 지도자들을 불신한다고 외신은 전한다. 두 그룹의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하는 살인은 다 이슬람 지도자들의 책임이며 이슬람 교리는 도리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줄 뿐이라고 불평한다는 것이다.¹¹⁾

레바논 역시 최근 3파전의 암살과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레바논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비교적 잘 공존한 중동의 유일한 국가이다. 레바논은 신학박사 학위까지 주는 권위 있는 신학교가 있다. 그러나 하마스 원리주의 집단과 레바논 정부군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 시아파, 수니파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중동의 파리로 불리운 나라이지만 과격 종교집단들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중동은 국제적으로 화약고라고 생각한다. 이슬람과 유대교 과격주의 사상인 원리주의는 국제정치를 불안하게 한다. 이유는 이들의 사상은 종교를 통한 세계정복이기 때문이다. 두 종교의 종말론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한다. 유대교는 메시아가 구성전에 온다고 믿는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스크를 파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상만 하여도 끔찍하다. 아마켓돈 전쟁은 볼 보듯 뻔하다. 여기에 미국의 과격한 원리주의자들, 과격 전천년설론자들의 신앙이 도리어 전쟁을 부추기는 셈이다. 과격 전천년설론자들은 무조건 유대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슬람 세계를 자극한다. 이

11) John Spann, "Violence Leaves Young Iraqis Doubting Clerics," *The New York Times*, March 4, 2008.

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기독교가 부추기는 셈이다.

이슬람 역시 종말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러면 야웨와 알라가 한바탕 전쟁을 하는데 물론 알라가 야웨를 이겨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필자는 3년 전 이란의 무서운 거룩한 도시(?) 콤의 시아파 신학교를 방문, 노 이맘과 인터뷰를 하였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들의 천국 4층 천에 있는데 종말에 12번째 이맘이 얼굴을 드러내면 종말로, 예수님은 그를 수종들게 되고 크리스천들은 다 자동으로 시아파 신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슬람 종말 역시 지상에 완성되는 이상 사회이다. 그것은 카피르(Kafir, 불경건자: 비무슬림)는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무슬림의 지하드와 자살 테러는 가장 확실한 천국 보장이다. 지하디스트에게는 72명의 미인들이 술과 고기로 대기한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전쟁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는 것은 양자가 공히 상대방을 알라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보복을 정당화하고 도리어 부추긴다. 결국 국제분쟁에서 종교가 심각한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²⁾

아프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부족주의와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과격주의, 그리고 파키스탄은 도리어 탈레반을 지원함으로써 아프간 사태를 장기화한다. 파키스탄이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악명 높은 탈레반을 지원하는 이유는 카슈미르에서 열심히 싸워주는 자들은 탈레반이기 때문이다.¹³⁾

한국군은 다 철수하였지만 일본군은 최근 활발한 대민 지원사업을 전

12) 중동의 정치상황에 대하여는 필자의 저서 《전환점에서 선 중동과 이슬람》(서울: SFC, 2005)를 참조할 것.

13) 아프간과 탈레반에 대한 문제는 역시 필자의 《이슬람 원리주의의 실체》(서울: KUIS, 2007), 제6장 “이슬람원리주의와 주요 그룹”을 참조할 것.

개한다.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지원과 학교 건설과 병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 NGO와 사업을 함께 함으로 탈레반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¹⁴⁾

4. 문화적, 종교적 교훈

한국은 이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비하여 경제, 혹은 봉사활동에서 기여도가 아직 많이 낮다. 국제화는 도리어 소수 인종주의자들이나 종교원리주의자들을 반발하게 한다. 그래서 자기 문화와 종교를 회복하려는 저항운동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문화적으로 세계화에 반대이다. 이들은 먼저 종교는 결코 개인의 자유가 될 수 없다는 집단주의 가치관, 종교적 전체주의를 더 고집한다. 여기서 종교를 개인의 자유로 돌리는 서구 사상과 이것을 거부하는 이슬람이나 비기독교 종교 간에 가치관의 충돌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적 종속도 물론 국제적인 이슈이다. 유엔의 인권헌장 18조 종교의 자유는 도리어 이슬람 인권헌장으로 도전을 받는다.

국제화 시대는 경제가 세계화하는 시대이지만 동시에 종교와 문화도 일방통행의 시대가 가고 쌍방 교류하는 시대이다. 한국교회가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 기독교를 해외에 수출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전혀 생소한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는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이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원 거리는 이것을 잘 증명한다. 이태원 거리가 이미 이슬람 거리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 한국교회는 한국의 이슬람과 종교적 갈등의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다. 모스크가 이미 30개를 넘었으며 많은 이슬람 문화원이 서

14) 〈朝日新聞〉, 2008년 2월 10일자

울과 지방에 세워지고 있다. 이슬람 대학이 곧 설립될 것이다. 한국은 어떤 점에서 “열정적이고도 공격적”인 신앙으로 교회가 급성장한 나라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하여는 배타적이다. 특히 이슬람에 대하여는 아프간 사태로 불안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슬람 자체는 더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와는 평화적 공존을 거부한다. 이것은 결국 종교 충돌을 불가피하게 한다. 한국 역시 “문명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필자의 “투아이즈 네트워크”(The Israel and Islam Network)는 과격 이슬람의 한국 상륙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국제화를 먼저 시작한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심각한 문명충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금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국제회의는 유럽에서 문명충돌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다인종사회가 된 이들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문화 갈등으로 인종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및 아시아 국가에서 이민 온 2세 혹은 3세들은 자기들을 인종차별한다고 불만이 높다. 이로 인해 기독교 국가에서 도리어 자기 종교를 더 강하게 신봉하고 기독교를 비방한다.

장병 신자들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아프간에서 고 윤병장의 순직은 한국 교회의 위상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여기에 희생정신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진주만 사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기습을 알면서도 아시아와 서구에서 미국 개입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항모 4척만 피격되도록 허용하였다. 미국이 당해야 전쟁에 개입하리라는 계산, 즉 희생을 통한 서구와 아시아의 구원을 도모한 셈이다.

파병의 선교적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재작년 이라크 파병 병사 중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병사가 5명이라고 이슬람은 발표하였다. 물론 이태원 모스크에서 파병 병사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이슬람은 자이툰 부대원들을 역으로 한국 이슬람화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국 군대는 이제 국제화 시대에 병사들의 교육도 국제화해야 한다. 문화 이해는 물론 언어가 특수한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걸프 전쟁 때 사우디 주둔 일부 미여군들의 지나친 발랄한 복장과 행동이 사우디인들의 감정을 많이 건드렸다. 그래서 군 지도부는 여군들이 운전석 앞자리에 못 앉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한 신자 장교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남의 나라지만 왜 그 나라 풍속을 따라야 하느냐고.

우리는 남의 문화를 존경해야 한다. 자기 인종중심주의(Ethnocentrism)는 버려야 한다. 동남아 국가에서 왼손으로 물건을 주는 것은 금기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들의 노출은 엄청난 세속적 행동이다. 이슬람의 경건은 복장과 의식이다. 율법 종교이다.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다. 특히 여자들의 노출은 질시의 대상이 되고 만다.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마호메트가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남미에서는 대화할 때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적당한 거리를 원한다. 가장 친한 자를 만날 때는 포옹의 인사를 한다. 물론 얼굴은 적절히 접촉해야 한다. 군중 병과는 국제화 시대에 차원 높은 국제이해를 위한 정신 교육을 해야 한다.

1) 반미 정서가 이데올로기화되고 말았다. 서구와 미국을 식민주의 국가 혹은 제국주의로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반미감정을 더 악화시켰다. 이라크가 살상무기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전 이라크 공군 부참모총장이었던 조지 사다 장군은 《사담 후세인의 비밀》에서 자신이 화학무기를 다루었고, 이것이 시리아로 넘어갔다고 언급한다. 학문적으로는 문화적 결정론이 강대국이 독재국가와 인권 탄압국가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즉 인권탄압이나 독재 역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결정론이다. 그러나 반미정서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과 영어를 좋아하고 중동 국가와 중앙 아시아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인기와 권위를

누린다. 역사적으로 아랍국가 역시 식민주의를 하고 있다. 7세기에 이미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침략하였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내몽골, 회족을 흡수하였다. 장개석은 이들을 다 독립국가로 만들 아이디어를 가졌다. 중국도 제국주의이다.

2) 문명충돌은 서구와 이슬람 간의 충돌이 아니다. 지금 러시아 주변 국가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이슬람의 충돌도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은 이것을 증명한다.

3) 구소련은 공산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강제로 흡수하는 침략전쟁을 자행하였다. 인권 탄압은 말할 필요도 없다.

4) 종교와 정치는 함수 관계임을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한다. 이슬람 국가는 민주화가 어렵다. 이라크의 평화로 바로 중동의 민주화 도미노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물론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기독교 정신으로 보는 네오콘 사상과 친이스라엘 정책의 반영이라고 보기도 한다.

5)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 정책은 성경적으로 중대한 오류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주의는 어거스틴 신학의 오해이며, 잘못된 정당화이다. 십자군 역시 로마 가톨릭이 범한 오류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미나 비서구 역시 강자가 약자를 먹는 역사였다.

6) 소수인종 갈등 시대에 기독교만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종교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제안

첫째로 한국은 해외파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내 테러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도 테러 대상 국가이다. 9·11 이후 자마아티 이슬람당 한국 지부가 다와톨 이슬람 코리아를 조직하여 불법 체류 중인 이슬람권 사람

들의 세력화를 시도, 2000년 8월 인천, 수원, 안산, 파주, 포천 등 11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다가 2004년 핵심조직 5명이 적발 추방당하였다.¹⁵⁾

둘째로 한국이 문화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세계적인 한국이 되기 위하여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선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화에 걸맞는 국제적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개발하고 가르치며 실천해야 한다.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할 때 헬라 철학은 세계시민정신(Cosmopolitanism)을 발전시켰다. 전 세계 인류가 한 동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독교가 세계화의 기본 이념을 제공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을 실행해 보여야 한다. 미군은 한 명의 병사가 적진에 포로가 되거나 낙오될 때 엄청난 병력을 투입, 구원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1996년 코소보 사태 때 미국은 이슬람 국가인 코소보를 지원, 러시아 정교회의 세르비아 정부를 압박하였다.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시 미군 조종사가 불행하게도 세르비아 폭격 중 세르비아 영토에 추락하였다. 미군은 무려 600명의 병력과 중장비를 동원, 그 조종사를 구출하였다. 인간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차 대전 때 일본은 부상자는 자살하도록 중대장이 수류탄을 선물(?)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실감한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였던 칭기즈칸은 곧 퇴각하고 지금은 낙후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력으로 세계는 정복하였으나 영적으로 세계를 정복할 종교나 가치관 혹은 이념이 없었다. 칭기즈칸은 장생신(샤머니즘의 신)으로 이슬람 국가를 정복하였다. 그러나 상당수 정복국가들은 이슬람화되고 말았다. 피정복자의 종교를 채택한 것이다.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를 점령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마음을 녹이는 신앙이나 이념의 부재로 Pax

15) 김석환, *op. cit.*, pp. 29-32

Japanica는 불가능하다. 태양신을 자랑하지만 태양신은 결코 일본의 독점이 아니다. 태양신 숭배는 이란에서부터 중앙아시아,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이다. 기독교가 국제화와 세계화의 이념을 제공하는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자부한다.

군교회와 노년기

우기식 목사



1. 들어가는 말

1.1. 연구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군인집단은 다른 사회의 집단들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¹⁾ 그러므로 군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군인교회 구성원이 젊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 우기식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Th. M.)
- Fuller Theological Seminary(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군 교회는 현역 군인들의 전역과 더불어 교회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평생을 헌신한 군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염원과 미래 군의 특성²⁾을 고려해야 하는 군인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제고될 시점에 봉착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와같은 현상을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주제를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노년기에 해당되는 각 영역별 개념 정의에서부터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까지 주된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교회를 실 사례의 모델로 구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2. 노년기란 무엇인가?

2.1. Life Cycle 관점에서의 노년기

문명의 발달과 의학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학자들이 규명해 온 Life Cycle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해온 Life Cycle은 다음과 같다.³⁾

1) 일반적으로 군인들의 퇴직 연령은 50세 전후로 되어 있다.

2) 통일 이후는 징집제가 아닌 모병제로 군 제도가 바뀔 개연성이 높으며 군이 현대화되면서 간부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3) Richard Dayringer, *Life Cycle - Psychological and Theological Perceptions* (New York : The Haworth Press, 2000), p. 136.

〈표 1〉 기존학자들이 주장하는 Life Cycle

연령	Psychosexual Stage	The Age of	Psychosocial Crisis
탄생 - 18개월	Oral-Sensory	Grace	Basic Trust vs. Mistrust
18개월 - 3살	Anal	Works	Autonomy vs. Shame & Doubt
3 - 6	Genital	Family Romance	Initiative vs. Guilt
6 - 10	Latency	Friendships	Industry vs. Inferiority
10 - 13	Puberty	Discovery	Identity vs. Role Confusion
13 - 20	Adolescence	Struggle	
20 - 40	Young Adulthood	Adjustment	Intimacy vs. Isolation
40 - 60	Middle Adulthood	Achievement	Generativity vs. Stagnation
60 - 70	Older Adulthood	Conversation	Ego Integrity vs. Despair
70 - ff	Maturity	Retirement	

이것은 인간의 발달단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더 세분화 될 수 있다.⁴⁾

〈표 2〉 발달단계 측면에서 정의되는 Life Cycle

연령구분(세)	대분류	소분류
- 17	Childhood and Adolescence	
17 - 22	Early Adult Era	Early Adult Transition
22 - 28		Entering the Adult World
28 - 33		Age 30 Transition
33 - 40		Settling Down
40 - 45	Middle Adult Era	Mid-Life Transition
45 - 50		Entering Middle Adulthood
50 - 55		Age 50 Transition
55 - 60		Culmination of Middle Adulthood
60 - 65	Late Adult Era	Late Adult Transition
65 - 70		
70 -		

4) *Ibid.*, p. 5. 이 부분은 Daniel J. Levison의 저서인 《The Seasons of Man's Life》의 57에서 재인용한 것임.

이 구분은 근자에 들어서 더더욱 세분화되어 특히 노년기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구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분류는 아래와 같다.⁵⁾

〈표 3〉 노년기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Life Cycle

연령	분류
18 - 25	Youth
25 - 40	Young Adulthood
40 - 60	A New Adult Life Stage(Middlescience)
60 - 75	Late Adulthood
75 - 90	Old Age
90 -	Very Old Age

그러나 위의 분류는 노년기의 인생 단계를 너무 세분화하지 못한 경향이 있고 70대와 90세의 연령이 가지는 다방면에서의 급격한 차이를 간과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분류는 레비슨(Daniel J. Levison)이 그의 저서에서 밝힌 분류와 위의 연령대를 적절히 분류한 타우(Richard D. Thau)와 헤플린(Jay S. Heflin)이 공동저서⁶⁾에서 주장한 분류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4〉 타우(Richard D. Thau)와 헤플린(Jay S. Heflin)이 분류한 Life Cycle

연령구분(세)	대분류	소분류
- 17	Childhood and Adolescence	
17 - 22	Early Adult Era	Early Adult Transition
22 - 28		Entering the Adult World
28 - 33		Age 30 Transition
33 - 40		Settling Down
40 - 45	Middle Adult Era	Mid-Life Transition
45 - 50		Entering Middle Adulthood
50 - 55		Age 50 Transition
55 - 60		Culmination of Middle Adulthood
60 - 65	Late Adult Era	Late Adult Transition
65 - 75		Young Old
75 - 85		Old Elderly
85 -		Oldest Old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보고 있다.⁷⁾ 그러나 이 노인의 개념은 무기력한 노인의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노인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이 되면 무기력하여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노년기 연구에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 국립노화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와 해리스 전국 조사에 의하면 65-74세 인구의 51%와 75세 이상 인구의 33%가 스스로를 중년 혹은 그보다 젊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⁸⁾ 또한 65-74세의 75%와 75세 이상의 66%는 자신들의 건강을 양호, 매우 양호 혹은 최상의 상태로 평가를 하고 있다.⁹⁾ 반면에 65-69세 인구 중 6%만이 하나 이상의 일상생활 동작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¹⁰⁾ 이처럼 6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은 분명히 그 전 연령세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며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령들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효' 사상의 배경 하에 이들 연령층을 무기력한 세대로 만들어 왔고 이들 세대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지 못했다. 거기다가 한국사회는 노인 문제가 그다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 통계청에서도 1989년까지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에는 전 인구의 10%, 2020년에는 1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¹¹⁾ 됨에 따라 전 사회가 이 인구에 대한 대

5) Raymond F. Gregory, *Age Discrimination in the American Workplace : Old at a Young Age* (New Brunswick,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p. 15.

6) Richard D. Thau & Jay S. Heflin, *Generations Apart-Xers vs. Boomers vs. The Elderly* (New York : Prometheus Books, 1997), 123-124.

7) 장인협 외, 《노인복지학》(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 47.

8) David Harber, *Health Promotion and Aging*, 지역보건연구회 역, 《고령사회의 노인건강증진》(서울 : 보문각, 2006), p. 8.

9) *Ibid.*, 10.

10) 장인협 외, 《노인복지학》, p. 47.

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극히 일부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들 연령층이 교회에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발굴하고 제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50세만 되어도 노년층이 되어버리는 군인교회에 있어서는 위의 내용은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이들 연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는 토대 위에 이들 연령층들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더 나아가 65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위의 간략한 연구를 통하여 볼 때 ‘young old age’ 인 최소한 75세까지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군에서 만기 제대 후 최소 20여 년 간은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음을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교회도 이와 같이 최소 75세를 상한 기준으로 한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발굴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2.2. 노년기의 특성

인간의 신체적인 기능, 특히 지적 능력을 제외하고는 2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내려가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¹⁾ 이처럼 노년기는 신체 구조상 여러 면에서 그 기능이 달라지게 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생물학적 노화

생물학적 노화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로서 신체적 노화, 신체 기능의 노화, 운동 기능의 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노화에서 가장 대표

11) 통계청 200년 1월 발표자료.

12) 장인협 외, 《노인복지학》, p. 11.

적인 징후는 안면의 변화로서 머리털이 빠지고 머리색은 흰색으로 바뀐다. 얼굴 피부도 윤택이 사라지고 탄력을 잃고 주름이 잡히고 굴곡이 지며, 얼굴 표피에 검은 반점이 생기게 된다. 다음의 사항은 체력의 노화에 관한 항목으로서 그 징후는 다음과 같다.

- 어깨가 구부러지고 키가 줄어든다.
- 2차적 성 특징의 쇠퇴 현상으로 성별로 나타나는 특징이 사라져서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을 상실하게 된다.
- 피부도 늘어지고 처지며 혈관이 외부로 불거져 나오며 손과 발을 비롯한 신체의 표피가 거칠어져 매력을 상실한다.
- 뼈의 화학적 성분이 변하고 느슨해지며 저마 수분이 감퇴되는 골석 화증이 나타나게 된다.
- 관절의 움직임이 뻣뻣해지며 활동이 제한되며, 질병의 발생이 증가된다. 타액의 감소에 의해 치아가 약해지는 것이 더욱 촉진된다.

노년기가 되면 감각기관이 쇠퇴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다.

- 시력은 40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된다.
- 색채 변별 능력도 감소되며, 청각 능력도 감퇴되며, 노화에 따른 청각장애는 음의 고저 변별에서 크게 나타난다.
- 약 25세부터 55세까지 점진적으로 감퇴하다가 그 이후에 급격히 감퇴되며 높은 빈도의 소리를 식별하지 못한다.
- 후각은 개인적 변화가 크다
- 미각은 60세까지는 큰 변화가 없이 항상적으로 유지되다가 60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한다.
- 촉각의 민감성은 50대 중반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며 그 이후에 감퇴되는데 팔보다는 다리의 민감성이 더 많이 감퇴된다.

다음으로 노년기에는 신체기능의 노화가 일어나는데 이 노화는 크게 네 가지의 노화로 나뉜다. 먼저, 수면의 양은 한 시간 정도 줄어들고 질적인 면에도 감소가 온다. 이 시기에는 깊은 잠이 없어지므로 정상적인 인지 기능과 정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으로 소화기능의 노화로서 위나 장의 벽에서 분비되는 분비선의 퇴화로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나 액의 분비가 감소된다. 세 번째는 신진 대사치가 감소하게 되고 근육활동이 힘들어 보다 빨리 피로를 느끼면서도 피로 회복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은 55세 이후에는 늦어지며 불규칙적이다가 노년기에 다시 빨라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운동 기능이 감퇴 되는데 가장 늦게 시작한 것이 퇴화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늦게까지 남게 된다.

2.2.2. 인지적 변화

인지적 변화는 정신기능의 변화로서 이전에는 18세에서 25세가 지나 가면 지적인 능력이 해마다 1%씩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연구 결과는 자연적인 퇴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인지적 변화는 지적 능력과 기억 능력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 능력의 감퇴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로 인한 감퇴, 지적이지 못한 생활로 인한 감퇴, 종말적 저하현상 즉, 임종이 임박할 때 갑작스럽게 발견되는 감퇴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지속과 평균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지, 건강한 배우자의 존재가 중요하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 능력의 변화는 독특한 현상을 수반한다. 감각적인 기억 능력은 약하지만 장기적인 기억 능력은 거의 감퇴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청력이 감퇴되는데 양 귀로 듣고 기억해 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필연적인 결과로 주위의 산만함으로 인해 기억이 어렵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선택적으로 기억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로 인해 기억 능력의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년기의 정신 기능은 두뇌의 기능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뇌는 노화함에 따라 혈액 공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50세 사람의 두뇌 혈액 공급은 10세인 어린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85세가 되면 두뇌 위축 작용의 결과로 두뇌 무게가 10-20%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고위 두뇌기능을 하는 대뇌피질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나 다른 두뇌 능력은 그대로 남게 되며 손실된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 두뇌 조직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상돌기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노년기 두뇌 세포의 손실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으며 특히 신경세포의 쇠퇴는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며 노년기에서도 지능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2.2.2.1. 노화와 지각, 정신운동성 능력

정신운동성 능력이란 여러 가지 반응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은 입력의 감지, 지각으로 입력에 의미 부여, 새로이 지각된 정보의 기존 자료와의 통합,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서 동작의 필요 여부 판단, 적합한 동작이 일어나도록 인체 부위로 신호 전달, 동작으로 입력에 대한 반응이란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감각 기능의 쇠퇴로 인해 정보를 감지하는 능력과 정보를 전달받고 처리, 반응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젊은이보다 여러 가지 자극에 느리게 반응하게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우유부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스피드보다는 정확성에 주의를 집중함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¹³⁾

13) A.T. Welford는 많은 노인들이 “더 조심스럽고 추가적인 시간을 가짐으로써 늦어진 감각운동 반응 시간의 결과로 인해 실수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상한다”고 이야기 한다.

2.2.2.2. 노화와 인지 기능(학습, 기억, 생각 문제 해결, 창조 능력)

일반적으로 기억은 등록, 보존, 회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노화와 인지 기능에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문제 해결 능력이나 다른 지적인 능력이 50세 후반 이전에 감소하면 이는 나이가 아니라 질병에 의한 것이다

- 60대 그리고 70대인 사람들은 일부 인지 능력에 있어 정상적인 감퇴를 겪지만 모든 인지 능력이 감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감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 능력의 일부 감소를 경험한다.

- 50대인 사람은 정신적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거나 또는 반응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 심각한 심장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인지 능력이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가 현재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50대 후반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유용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관점과 더 많이 관련된 문제이다.

- 자신을 재평가함으로써 흔히 극복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의료적 치료가 요구될 수도 있는 생리적 감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2.3. 심리적인 특성

노년기는 은퇴 등의 영향으로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소외감과 고독감이 생기게 되고 소극적 성향이 증가하게 되며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잃어버리고,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시기이다. 특히 제도

나 타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그동안 해온 역할을 잃어버리거나 빈번한 대인접촉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섭섭함, 무력감, 좌절감으로 연결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아에너지 투입이 소극적이고 그 강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어 문제에 따라서는 매우 수동적이고도 방임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경직성도 증가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과거에 사용하였던 물건이나 사고방식, 혹은 태도를 고집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발견되는 중요한 현상은 행동의 조심성으로서 실패할 경우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2.3. 노년기의 발달 과업

노년기는 그 특성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많이 강구하게 되고, 생활을 다스려 나가기보다는 생활에 집착하게 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먼저 개괄적으로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기를 배우기, 은퇴와 수입 감소에 적응하기, 배우자의 사망에 적응하기, 자기의 동년배와 친밀한 관계 형성, 사회인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즉, 조용한 집, 비밀스러운 집, 행동의 자유가 있는 공간, 친척이나 친구가 쉽게 올 수 있는 시설, 교통이 편리하고 싼 집 등의 생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년기 발달 과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신체, 정서, 지적, 직업, 사회, 환경, 영적이라는 일곱 가지 영역을 고루 포함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년기 발달 과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이통합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태도 확립이다. 이것은 선결이 되어야만 건강한 노년기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2.3.1. 지적 영역

- 세대차와 사회 변화를 이해하기
- 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을 배우기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알기
- 건강 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갖기

나이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 정보를 천천히 탐색할 것
 -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기억하는 데 서두르지 말 것
 - 학습해야 할 것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다. 조금 학습하고 난 다음 배운 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학습한다.
 - 학습을 위하여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 아무런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방금 학습했던 것을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배운 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 방금 들은 것을 반복하며, 방금 보여진 단계들을 반복한다.
-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슬로건을 사용한다.
 - 학습했던 것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 들은 것 또는 읽은 것에 대해 간단하게 기록하며 해야 할 것 또는 가야 할 장소에 대해 메모를 한다.

2.3.2. 정의적 영역

-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기
-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 정년퇴직과 수입 감소에 적응하기
-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 배우자 사망 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2.3.3. 사회적 영역

-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를 유지하기
-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
-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 구실하기
- 자녀 또는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2.3.4. 신체적 영역

-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기
- 노년기에 알맞은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 건강 유지에 필요한 알맞은 섭생하기
- 지병이나 쇠약에 대해 바르게 예방하기

2.3.5. 노년기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단계들

- 자신의 강점과 약점의 목록을 작성한다.
- 가족 그리고 친구와의 연결망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 혼자 있는 것을 즐기도록 배운다.

사회적, 직업적, 가정적인 역할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적 존재를 확립해야 한다.

• 정신적으로 침체되지 말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휴식을 즐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흥미 개발, 호기심, 융통성,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며 전신 이완 방법을 습득한다.

인생의 여러 단계 중 노년기에는 독특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정년퇴직이며 그와 더불어 다른 곳으로의 이동, 거주지의 변화, 배우자의 죽음, 친구의 죽음, 줄어든 수입,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가 요구된다.

-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배운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것은 자신의 확대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만족감을 찾는 것이다.

- 언젠가는 일어날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한다.

-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이상이 일어나면 적절한 진단을 통하여 치료한다.

- 교육, 상담, 그리고 의료적 및 심리적 보살핌을 포함하여 요구되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

- 신뢰할 수 있고, 평판이 좋으며,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 의료적 그리고 정신 의학시설을 알아둔다.

- 노인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에 적합한 보살핌이 계속해서 제공 되도록 조치한다.

- 개인 생애의 모든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이루어낸다.

이 노화에 대한 상식도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률이 2-4 배 높게 나타난다.

- 말기 암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보다 소외된 사람들에게서 더 흔히 나타난다.

- 정신병원 입원률은 결혼한 사람들보다 별거했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서 5-10배 더 높다
-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지지적인 유대관계가 없는 임신부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임신부보다 합병증이 3배나 더 높다.
- 가까운 친구를 신뢰할 수 있는 여성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 더구나 배우자를 잃은 홀아비의 사망률은 사별 후 처음 6개월 동안 40-60% 더 높다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재혼을 하면 사망률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2.4. 노화와 건강

2.4.1. 개괄적인 도표

〈표 5〉 노화와 건강의 개괄적인 도표

노화에 따른 변화	요구되는 개인적 결정
심박 예비량	운동, 금연
치아의 부식	양치질과 플로싱, 음식 섭취
혈중 글루코스 농도조절	체중조절, 음식 섭취, 운동
지능검사	트레이닝, 연습
기억력	트레이닝, 연습
골다공증	체중이 실리는 운동, 음식 섭취
신체지구력	운동, 체중조절
신체 근력	운동
폐 능력	운동, 금연
반응시간	트레이닝, 연습
혈청 콜레스테롤	음식섭취, 체중조절, 운동
사회적 능력	연습
피부의 노화	태양의 자극을 피한다
수축기 혈압	소금 섭취 제한, 체중조절, 운동

2.4.2. 노년기와 건강평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위생적인가를 살펴보면 노년기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로 나뉜다.

2.4.2.1. 주관적 평가

-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즐겁게 휴식을 취한다
-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에 가벼운 피로를 느낀다.
- 인생을 즐기고 삶에 자신을 갖는다.
- 일시적인 근심 걱정은 있어도 곧 과거사로 돌려 잊는다.

2.4.2.2. 객관적 평가

- 유쾌한 기분으로 매일 8시간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매일 세 번 맛있게 식사하고 네 컵의 물을 마신다.
- 담배, 술을 절제한다.
- 매일 8-9시간 수면을 취한다.
- 일하는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20-30분 정도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
- 매일 30분-1시간 운동장, 수영장, 또는 야외에서 운동한다. 운동을 할 때에는 깊은 호흡을 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 매일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당한 레저 오락을 가진다.
- 이른 아침 변소에 간다.
- 매일 최소한 두 번 이를 닦는다.
- 매일 목욕 또는 피부 마사지를 한다.
- 매주 하루는 휴식한다.

- 매주 휴일 이외에 하루, 오후 또는 저녁 시간에 자기 직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종사한다.

- 건강인의 표준체중을 갖는다. 표준체중의 10% 이하로 여위거나 또는 15% 이상의 비만증을 갖지 말아야 한다.

- 의복은 깨끗하고 복장은 단정히 한다.

- 정기 신체검사로 병을 조기 발견한다.

2.5. 노인과 여가 활동

2.5.1. 노인의 여가와 여가 활동의 의미

- 여가의 발생 원인

- 퇴직하는 데에서부터 여가는 발생한다.

- 여가는 무력함으로부터 생긴다.

무력함은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뿐 아니라 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일어나 일을 하지 못할 때, 강제로 직장을 퇴직당할 때 등도 포함된다.

- 여가는 일이 없는 데서부터 생긴다.

- 여가는 일부러 만드는 경우에 생긴다.

2.5.2. 노인에게 있어서 여가의 의미

- 여가는 노동과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다.

- 여가는 쉼의 의미를 갖는다.

- 여가는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여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이다.

- 여가는 노동의 다른 한 면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여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2.5.3. 노인의 여가 활동의 의의

- 노인은 여가 활동을 통해 즐거움 속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
- 노인은 여가를 놀이로 바꾸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
- 노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는 개인 개방의 기회를 삼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
- 노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는 자기를 찾고 형성하는 기회로 삼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
- 노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는 노인문화를 형성하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
- 노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는 함께하는 친구를 찾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

3. 노인과 자원봉사

3.1. 왜 자원봉사인가?

‘Young Adult’ 시기가 되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은퇴를 하게 된다. 원래 농경사회에서는 은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으나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은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은퇴라고 하는 개념은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Chancellor Bismarck)에 의해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¹⁴⁾

데이링거(Dayringer)는 은퇴는 사람에게 커다란 적응과 삶의 방식의

14) Richard Dayringer, *Life Cycle - Psychological and Theological Perceptions*, p. 114.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하며 이 은퇴의 부정적인 요소로는 지위를 잃고 수입이 감소하며 동료관계가 상실되고 일터로부터의 분리와 집에서의 오랜 생활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런 생활은 곧 정체성의 혼돈을 야기시키며 지루함이 가장 큰 적이 된다고 한다.¹⁵⁾

그러나 반면에 은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이제는 직장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여행을 더 할 수 있고 자원 봉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⁶⁾ 특히 이 시기는 다른 시기와는 달리 모든 삶에 있어서 ‘안정과 의미 있는 생활’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¹⁷⁾

그러므로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원봉사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통계에 의하면 자신들의 시간을 자선단체와 봉사 그룹에 가장 많이 투자한 연령층은 50세에서 64세 그룹이고 두 번째는 65세와 그 이상의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⁸⁾

특히 1989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자원봉사 인구 480만 중 40%는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봉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⁹⁾

그러면 성경은 노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잠언 20장 29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경은 노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성경은 노인을 지혜로운 존재,²⁰⁾ 영광스러운 존재,²¹⁾ 존경의 대상²²⁾으로 나타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은 하

15) *Ibid.*

16) *Ibid.*, p. 115.

17) Felicity B. Kelcourse, *Human Development and Faith - Life Cycle Stages of Body, Mind, and Soul*(Missouri : Chalice Press, 2004), p. 281.

18) Jean Crichton, *The Age Care Sourcebook - A Resource Guide for the Aging and Their Families*(New York : Simon & Schuster, 1987), p. 100.

19) Richard D. Thau & Jay S. Heflin, *Generations Apart - Xers vs Boomers vs The Elderly*, 123.

20) 신 32:7; 왕상 12:6-8.

21) 잠 16:31.

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²³⁾ 켈코스(Kelcourse)는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노년층과 함께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고,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뿐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며 노년층은 젊은 세대에 대해 신앙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세대임²⁴⁾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맹용길은 그의 저서에서 노인 세대에도 역시 다음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²⁵⁾

첫째, 알맞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일거리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은 잠이 적고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 시간 관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자신의 존재가 지역사회에서 귀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고찰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조화를 이루도록 명하신 네 가지의 기능에서도 확증이 될 수 있다.²⁶⁾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²⁷⁾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코이노니아’이고, 둘째는 ‘예수는 주시다’²⁸⁾로 표현되는 ‘케리그마’, 셋째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²⁹⁾로 나타나는 ‘디아코니아’, 마지막은 ‘나의 증인이 되리라’³⁰⁾로 설명되는 ‘말투리아’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자로서의 노년층에 대한 기대는 성서적인 배경에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2) 레 19:32; 잠 23:25.

23) 창 12:1; 출 3:10.

24) Felicity B. Kelcourse, *Human Development and Faith - Life Cycle Stages of Body, Mind, and Soul*, p. 283.

25) 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서울: 장로교 출판사, 1998), pp. 143-144.

26) Van Engan, E. *Charles,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서울: 두란노, 1999), p. 128.

27) 요 13:34-35; 롬 13:8.

28) 롬 10:9; 고전 12:3.

29) 마 25:30, 45.

30) 사 43:10, 12; 44:8; 행 1:8; 고후 5:20.

군인교회의 은퇴한 노년층은 대부분 기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연금과 충분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다. 그러므로 이 연령층에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도전이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교회 봉사를 포함한 자원봉사의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3.2. 자원봉사 개요

자원봉사는 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이는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개념이지만 그 쓰이는 용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과거의 자원봉사는 ‘noblesse oblige’ 개념으로 정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대상을 위해 봉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자원봉사가 정부에서 장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확대해진 모든 사회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없기에 작은 비용으로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의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를 위한 개인적인 봉사라기보다는 ‘함께 행함(doing with)’으로서의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¹⁾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과 밖의 봉사와 섬김이 모두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자원봉사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할 때 교회에서의 자원봉사는 매우 절실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일까? 렌(Lehn)은 그의 저서에서 자원봉사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³²⁾ 즉, 공동체에 환원하기 위해, 필요를 느낄 때, 기술들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사업상의 만남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계속 바쁘게 지내려고, 경험을 얻어 새로 시작하려고, 경력을 쌓기 위해, 도전하

31) Harriet H. Naylor, *Volunteers today - Finding, Training and Working with them*(New York : Association Press, 1967), p. 75.

32) Carla Campbell Lehn, *Volunteer involvement in California Libraries: Best Practice*(Sacramento : California State Library, 1999), p. 29.

고 싶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배우기 위해, 지위를 얻기 위해, 직장 상사가 원하기 때문에, 일들을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 보려고, 자원 봉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라는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분류로만 교회에서의 자원봉사를 설명해 낼 수는 없다. 성경에서의 봉사는 이런 기준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디아코니아로서의 섬김은 예수님의 주권 하에서 평화, 정의, 자비 등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교회가 참여하고 공헌하라는 부르심³³⁾이다. 교회의 자원봉사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부르심이라는 소명에서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Lehn)이 설명한 동기 역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대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자원봉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는 봉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원봉사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단지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⁴⁾

그러므로 자원봉사 운영자는 자원봉사자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자원봉사 운영시 ‘왜(why)’ 필요하고, ‘무엇(what)’ 을 하게 하며, ‘어떻게(how)’ 하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³⁵⁾

3.3. 자원봉사 운영의 실제

렌(Lehn)은 자원봉사를 운영할 때 단체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잘못된 신화가 있다고 한다.³⁶⁾

33) 성영호, “지역교회에서의 노인복지 사역에 관한 연구 - 호산나 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 논문, 2004), 18. 참조, 마 25:40; 약 1:27; 고후 9:10-15.

34) Sally Gardner Reed, *Library Volunteers - Worth the Effort! - A Program Manager's Guide*(N.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1994), p. 76.

35) Carla Campbell Lehn, *Volunteer involvement in California Libraries: Best Practice*, p. 19.

36) *Ibid.*, pp. 17-18.

첫째는 자원봉사자를 정식 직원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무료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정식 직원과 봉사자의 차이를 인식해야 하고, 봉사자들은 큰 희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자원봉사의 정확한 목표를 가르쳐주어야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는 정식 직원을 돕는 조력자임을 운영 주체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³⁷⁾ 자원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가 가져야 하는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³⁸⁾

첫째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의 일들을 자세히 기술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봉사자에 대한 정확한 희망, 즉 봉사자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봉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봉사자들을 돕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는 봉사자들에 대한 감독과 피드백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봉사자들을 인정, 즉 표창하고 감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기도 뒤따를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정해진 법을 따라야 하고 위기에 대비한 내부적인 정책(규정)들이 있어야 하며 보험을 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³⁹⁾

이러한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⁴⁰⁾

첫째, 책임자와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계획을 잘 진행해 나가기

37) Traci Maxed and Melinda Swezey Tomsic, *Don't just bake Cookies - A Handbook to Creative Volunteering in the Elementary School*(Colorado : Teacher Ideas Press, 1990), pp. 25-37.

38) Carla Campbell Lehn, *Volunteer involvement in California Libraries : Best Practice*, p. 81.

39) *Ibid.*, 155.

40) Traci Maxed and Melinda Swezey Tomsic, *Don't just bake Cookies - A Handbook to Creative Volunteering in the Elementary School*, pp. 99-100.

위해서 동역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처음은 간단명료하고 작게 시작해야 한다. 넷째, 임무는 항상 위임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업무는 변화하기 쉽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사람 발굴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일의 분류’이다.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 명기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만 분명한 역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임 봉사자들의 배치에 있어서 원칙이 되며 봉사자들을 감독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여러 일상적인 문제들을 피하는 것을 돕게 된다.⁴¹⁾

이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⁴²⁾

한 사람이 혼자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분류 후 이것이 과연 실제적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자가 동참하게 되는 외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생각하고 일의 각 부분들이 위임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일의 분류를 기술한 서류 작성 시 들어가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⁴³⁾

1. 제목
2. 직책의 목표
3. 지원자격
4. 책임(responsible to) : 위급한 일 발생 시 알려야 할 대상, 감독자 등
5. 책임 : 자원봉사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얼마나 자주,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설명

41) Carla Campbell Lehn, *Volunteer involvement in California Libraries : Best Practice*, pp. 34-35.

42) *Ibid.*, pp. 38-40.

43) *Ibid.*, pp. 36-38.

- | | |
|----------------|---------------------------|
| 6. 제공되는 훈련 | 7. 자원봉사 시 얻게 되는 유익 |
| 8. 봉사 시간 | 9. 봉사 기간: 죄의식이 들지 않도록 세분화 |
| 10. 해고 시 해고 근거 | 11. 담당자(접촉) |

3.4. 군 교회에서의 노년기의 자원봉사

크릭톤(Crichton)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연령층의 사람들은 일에 중사를 해도 1주에 3-4일 일하고 나머지는 쉴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⁴⁾ 이와 같은 현상은 자원봉사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이다. 군 교회는 상대적으로 중년층 시기에 해당되는 50세 전환기의 연령층부터 노년층으로 일괄 분류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령층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군 교회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3.4.1.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군 교회는 소속되어 있는 군대 특성상 노년층이 거의 존재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군 교회 안에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이 가시화되면서 점점 더 일반화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현재까지의 병력 위주의 대군체제가 2020년까지는 정보, 지식 중심의 첨단 과학군으로 그리고 기술집약형 구조를 가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병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⁴⁵⁾ 그렇게 되면 군 교회의 입장에서도 노년층

44) Jean Crichton, *The Age Care Sourcebook - A Resource Guide for the Aging and Their Families*, p. 99.

45) 허영식, “군개혁 2020에 따른 군선교 2020 전략” (제6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움 발제논문, 2006. 6. 15), p. 2.

을 포용하고 더 나아가 평생 섬기는 교회의 상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부족하여 일부 교회들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 다양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군 특성이 초래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군대는 특성상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⁴⁶⁾ 이 특성은 전역자인 노년층 성도들과 현역들인 청, 중년층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상대적으로 전자의 층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룹에 후자의 층들이 개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적절하고 적시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에 다양한 욕구불만의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각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다.

한국사회는 농업위주의 산업구조가 기술 산업사회로 변천되고 정보화 사회로 변천되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나 단시일적이고 가히 혁명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하여 그 변화에 적합한 사회적인 가치규범을 생생해 내지 못해 전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80년대 이후의 세대와 그 이전 세대와의 가치관의 간격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쉽게 해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90년 이후에는 정치적 이슈가 별로 없는 탈 이데올로기 시대⁴⁷⁾를 맞이했기 때문에 1960년대의 4·19세대, 70년대의 유신세대, 80년대의 광주세대 등과는 다른 가치관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46) 장옥상, “군대문화가 조직물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5), pp. 29-35.

47) 나필성, “신세대를 위한 설교방법 연구” (목회학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p. 21.

〈표 6〉 신세대 출현의 시대적 배경⁴⁸⁾

특 징	시대적 배경
풍요세대	산업화의 추진 및 성공
감각세대	TV 등 방송매체의 등장
개방세대	핵가족화, 정보통신망의 발달
실용세대	실용적 학문의 붐
교육세대	교육적 평준화

그러므로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이후 세대의 특징은 서구 지향,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개성 중시, 이해에 기초한 인간관계, 현세주의, 가치관 상실, 감각지상주의, 권위 부정/전문가 인정, 패션 지향, 감성의 부가 가치, 여가 중시, 도전적/추진력, 결과 중시, 인내성 부족이라는 열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⁴⁹⁾

세대 간 차이의 핵심적인 부분은 가치관의 차이.⁵⁰⁾ 기성세대들은 부모에 대한 효, 어른에 대한 공경, 선배에 대한 존경, 선후질서의 존중, 남녀유별, 인정의 존중, 조상숭배, 정직, 성실, 예의의 숭상, 문중, 족보, 일가친척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 나아가려고 한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부모나 선배와 평등의식, 남녀의 평등의식, 인정보다는 법·제도적 관계의 존중, 조상에 대한 제의 소홀, 정직·성실·예의보다는 능력·능률·사무적 관계의 존중, 문중·족보보다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조직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를 더 세분화⁵¹⁾ 해보면 구세대⁵²⁾는 사회적·이상적 차원에 강조를 하는 반면 신세대는 개인적, 현실적인 차원에 강조를 둔다. 구세대는 책임, 의무, 정직, 성실이란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신세대는 자유, 정의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구세대는 개인의

48) *Ibid.*, pp. 7-8.

49) 이성희, 디지털 목회 리더십 (서울: 규장문화사, 2000), pp. 21-23.

50) 김재은, 우리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6), pp. 146-147.

51) *Ibid.*, pp. 226-227.

52) 현대 청년들을 통칭하여 신세대로 명하기에 이에 반하여 기성세대를 구세대로 부른다.

이해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사회 전반의 질서와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세대는 개인의 희생 위에 이룩되는 안정이나 질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다. 구세대는 사회, 국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나 신세대는 사회의 동일성보다는 변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세대는 대인관계에서 상하질서,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세대는 평등, 민주, 횡적인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세대는 나이, 학교, 선·후배, 회사의 입사연월일, 행동 등을 중요시 여겨 후배에게는 기회를 잘 주지 않는데 신세대는 구세대의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관념과 의식에 반발을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문자세대와 영상세대의 가치관⁵³⁾

문자세대	영상세대
이성적	감성적
옳고 그름으로 판단	좋고 싫음으로 판단
미래의 득실 기준	당장의 좋고 싫음이 기준
동일지향 가치관	이질지향 가치관
남들처럼 살고 싶다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
자기 절제 / 타인의식	자기 표현 / 자기에게 충실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	스스로 가치 창조
억제된 감정 / 소유가치	해방된 감정 / 사용가치 중시
문화의 수동적 향유	문화 생산소비에 참여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무조건적인 통합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상명하복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양자 모두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에서 양 세대가 같이 생활을 하되 각기 세대에 맞는 구조와 사역을 개발하여 조화를 이루도

53) 김경홍 편, 『한국인 트랜드』(서울: 새로운 사람들, 1995), p. 22. 기성세대를 문자세대로, 신세대를 영상세대로 구분하여 정리한 도표임을 밝힌다.

록 해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인류 문명의 발달로 인해 건강에 큰 이상을 호소하지 않고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노년 생활은 최소 75세 기준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연령층에 대한 배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 교회의 경우 더 심각하다. 평생교회로서 군 교회에 전역 후에도 남는 교인들을 위한 배려가 지금처럼 열악한 가운데에서는 미래 군을 지향하는 한국군 내에서의 교회의 위상을 현재처럼 유지해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는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 해소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제시하려는 노력이 한층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¹⁾

최석환 군종목사



제1절 문제 제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황금어장인 군(軍)의 선교를 위하여 1996년 2월 15일 비전 2020 실천운동²⁾ 목표를 정립하고 실천 계획을 발표하였

■ 최석환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졸업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Ph. D.)
- 육군 제15보병사단 승리교회 담임목사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으며, 1998년 11월 13일 비전 2020 실천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³⁾ 1999년 2월 26일 비전 202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⁴⁾ 진중 세례식을 통해 2020년에는 전체 국민의 75% 이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지는 비전 2020 실천운동으로 1997년 4월 19일 육군훈련소에서 집례된 진중세례식에서 단회 최고 수세 기록으로서 7,200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996년 이래 11년간 매년 16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⁵⁾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육군에 복무한 병사들 중 입대하기 전부터 10년

1) 이 논문은 본 연구자의 철학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Ph. D. dissertation, 총신대학교, 2007)

2) 비전 2020 실천운동에 관한 설명은 본 논문의 〈부록 5〉 ‘군대 세례 프로젝트 2020 실천운동 소개’를 참조하라. 비전 2020 실천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는 www.v2020.or.kr이다.

3) 비전 2020 실천운동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21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와 군종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본 교단은 진중세례식을 통해 향후 2020년에는 전체 국민의 75% 이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군은 믿음으로 무장하여 사고 예방과 사기 진작을 통해 정신전력을 극대화하여 필승의 군대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 전파와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이룩하지는 비전 2020 실천운동이 애국애족 운동이요, 신앙전력화 운동이며, 21세기 기독교 운동임을 전폭 지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며 참여할 것을 결의합니다. 1998년 11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통합,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4) 비전 202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 2020 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 기독교 최초의 진중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21사단 66연대에서 장로교 합동측 이상강 군종목사가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포함한 154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다. 천주교 최초의 진중 합동영세식은 1972년 3월 8일 28사단 81연대에서 개최되었으며, 3월 26일 6군단 영세식을 포함하여 김수환 추기경이 1,000여 명에게 영세를 베풀었다. 불교 최초의 진중 합동수계식은 1973년 1월 12일 11사단에서 80명에게 수계를 베푼 것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육군본부 군종실, 『군종 50년사』(대전: 육군본부, 2002). 90. 이 책의 군종목사 집필자는 김기현, 김상식, 최석환, 황동현이다.

이상 신앙생활을 한 184명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설문하여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⁶⁾ 군인 교회에서의 세례자 교육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육군에 복무한 병사들은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집단 세례가 신앙과 관련 없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며, 성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군종목사를 포함한 군선교 사역자와 교회에 의한 체계적인 세례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훈련소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분명한 신앙고백이 확인되었습니까?”라는 설문에는 연구대상 184명 중 162명(88%)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개선 방안을 현역 군종장교 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하여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⁷⁾ 근본적으로 비전 2020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 군종목사들은 32명(50%), 숫자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군종목사들이 17명(27%)으로 나타났다.⁸⁾ 설문에 응한 군종목사들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야전에서 종교 조사를 해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세례자는 양산되는데 기독교인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봉어빵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발 세례만큼이라도 교육 좀 하고 주었으면 한다. 자대에서 군에 와서 세례 받은 병사에게 물어보면 거의 90%이상 교육 없이, 신앙 고백도 전혀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본인이 구원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니 제대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군선교의 위기가 있다고 본다.”

6) 남송현, “Vision 2020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군선교의 선교학적 분석-입대 전 신앙인으로 2000년 이후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을 대상으로.” (Th. D. dissertation, 충신대학교, 2006), pp. 86, 107-115.

7) 윤병국,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개선 방안 -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Th. D. diss., 충신대학교, 2006), pp. 100-102.

8) 비전 2020 실천운동을 수적으로 설명하자면, 군에서 매년 22만 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 장병들을 포함하여 매년 25만 명을 사회로 환원시켜 2020년까지 총 625만 명의 신자를 확보하여 이들의 가정까지 복음화하여 국민의 75%인 3,700만 명의 기독교인을 가진 한국으로 만들겠다는 선교 전략이다.

진중세례운동을 연구한 한 논문에 의하면,⁹⁾ 충분한 세례자 교육이나 신앙고백 확인 없이 진중 세례를 집행할 경우, 다종교 사회에서의 선교 독식은 필연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자극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미 종교간의 갈등 요소를 잉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복음화 중심에서 형식적인 세례화 중심으로의 본질 왜곡이 되며, 부실 신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제는 지난 55년간 군선교의 현장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공군 교육사, 해병대 교육단 등에서는 매 기수별로 세례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앙고백을 확인한 후에 진중 세례식을 소규모로 자주 시행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¹⁰⁾ 이에 본 연구자는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여, ‘뱍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 군인 교회들의 세례자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목적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군인 교회들의 부실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세례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신앙과 관련없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세례식을 지양하고, 확실한 신앙고백 확인 후 진중 세례식을 집행하고, 부실 신자 양산을 막고, 삶 속에서 윤리적 책임감을 다하는 기독교인들을 양육하고, 비전 2020 실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군선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자훈련과 양육에 관한 관점에서 연구하거나 선교학적 분석을 통한 군선

9)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군선교신학1》(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pp. 190-217.

10) Ibid., p. 214.

교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방안도 연구하였지만,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는 없었기에 연구의 차별성과 필요성을 느낀다.

본 연구자는 군인교회 진중 세례식의 문제점으로 세례자의 명확한 신앙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것과 체계적인 세례자 교육이 빈약하다는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 군선교를 위한 세례식 매뉴얼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세례자 교육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본 연구자는 세례의 성경적, 역사적, 개혁신학적 이해를 논함으로 본 연구의 성경적, 역사적, 개혁신학적 근거와 지지를 얻고,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들을 연구할 것이다. 세례를 다룬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을 예로 들면,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 《예수교문답》(1894),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 《위원입교인규도》(1895),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 《목수지법》(1919),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1922),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등이 있다. 상기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으로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을 제안하여 군인 교회들의 세례자 교육을 돕고,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한국 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로교 초기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비교분석법(文獻比較分析法)을 사용하여 세례자 교육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그 결실로서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을 제안하고, 세례식 매뉴얼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장로교 초기 문헌 1차 자료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신앙교육 문서로서, 《예수교문답》의 원판인 《그리스도문답》(1893),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 《예수교문답》(1894),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 《위원입교인규도》(1895), 19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의록인 《대한예수교장로회노회회록》(1908),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이다. 둘째, 목회학 문서로서,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 《목수지법》(1919), 콕안런(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의 《목회학(The Work of the Pastor)》(1925), 《목회학》(1936)이다. 셋째, 예식서 문서로서, 영어로 기록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1919),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1922),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1934)이다.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문헌을 신앙교육 문서, 목회학 문서, 예식서 문서로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앙교육 문서에서는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 문답 교육을 연구할 수 있고, 목회학 문서에서는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 집례 방안을 연구할 수 있고, 예식서 문서에서는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식 순서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 문답 교육과 세례 집례 방안과 세례식 순서를 재구성하고, 연구하여 얻은 통찰력으로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을 세례자 교육이 빈약한 한국 군인 교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제4절 연구 자료와 범위

연구 자료들은 한국 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로교 초기 문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헌 비교 분석법을 사용하여 세례자 교육방안과 세례식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한다. 1차 자료는 《예수교문답》의 원판인 《그리스도문답》(1893),¹¹⁾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 《예수교문답》(1894),¹²⁾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 《위원입교인규도》(1895),¹³⁾ 19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의록인 《대한예수교장로회노회회록》(1908),¹⁴⁾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¹⁵⁾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목수지법》(1919),¹⁶⁾ 영어로 기록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1919),¹⁷⁾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예배모범’ (1922),¹⁸⁾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

11) H.S.C.Nevius, 《그리스도문답》, H.G.Underwood 역(경성:그리스도성서, 1893).

12) H.S.C.Nevius, 《예수교문답》, H.G.Underwood 역(경성: 그리스도성서, 1894).

13) 馬布士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895).

14) 《대한예수교장로회노회회록》(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1908).

15)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간인, 1910). 참고적으로 영문제목은 "CONFESSION OF FAITH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이다.

16)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수지법(牧師之法)》(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19).

17)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18) 《朝鮮 예수敎 長老會 憲法》(京城: 朝鮮耶穌 敎書會, 1922). 헌법이 출판된 역사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독노회(1907)에서 ‘소요리문답’, ‘신조’, ‘규칙’ (1907)을 채택하였으며, 총회 조직(1912) 후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1919)을 채택하였다. 그 후 간단한 정치조례인 ‘규칙’을 폐지하고 완성된 ‘정치조례’ (1922)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信經, 小要理問答, 政治, 禮拜模範, 勸懲條例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朝鮮 예수敎 長老會 憲法》(1922)이 출판되었던 것이다.

(1924),¹⁹⁾ 객안련(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의 《목회학(The Work of the Pastor)》(1925),²⁰⁾ 《목회학》(1936),²¹⁾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1934)²²⁾ 등이다.

연구 범위는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문헌에 국한한다. 협의적 연구 범위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 《예수교문답》(1894)을 기점으로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까지 다룰 것이다. 광의적 연구 범위는 《예수교문답》의 원판인 《그리스도문답》(1893)을 시작으로 객안련의 《목회학》(1936)까지를 연구 범위로 삼는다. 감리교와 성결교 초기 문헌 등을 포함하여 다른 교단에 대한 세례 연구는 연구 범위 밖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제5절 연구의 중요성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의 결과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해군·해병대 교육단, 공군 교육사를 포함한 각종 훈련소와 부대에 있는 약 1,000여 동의 군인 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선행 연구 고찰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개척 분야인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의 시도는 첫 걸음을 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세례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신앙고백을 개인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집례되는 신병교육대대 교회의 세례식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제안한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은 하나

19) 《朝鮮예수敎長老會婚禮式書》(京城: 發行所 未詳, 1924).

20) 객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5)

21) 객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다음의 책도 참조하라. 객안련, 《목회학》(경성: 대한기독교서회, 1955); 객안련, 《목회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2)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4).

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본 논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2장 세례란 무엇인가?

제1절 세례의 성경적 이해

1. 세례자 교육의 중요성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열거되어 있다. 이 본문의 ‘세례들’이란 ‘세례들의 가르침(*βαπτισμῶν διδαχῆς*)’을 의미한다.²³⁾ 히브리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세례들의 가르침’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 세례의 실천과 당시에 알려져 있던 다른 세례적 실천들과 대조한다.²⁴⁾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 세례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비즐리-머레이는 히브리서 6장 1-2절을 연구하여, 세례는 한편으로 회개와 믿음과 나란히 있고, 다른 한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나란히 있다고 주장한다.²⁵⁾ 비즐리-머레이의 견해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독교 세례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본 것을 간파한 것이며, 올바른 세례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히브리서 6장 1-2절은 세례 전에는 회개와 믿음이 선행되며, 세례 후에는 부활과 심판의 기쁨이 있음을 세례 준비자들에게 교육시키는 세례자 교육적 차원도 내재되어 있다.

23) *βαπτισμῶν διδαχῆς*에서 *βαπτισμῶν*은 *βαπτισμός*의 복수이며, *διδαχῆς*는 단수이다.

24) 예를 들면 고대 원시 정화의식(Ancient Primitive Lustrations Rites), 유대 정화의식(Jewish Lustrations Rites), 쿰란 공동체 정화의식(the Lustrations Rites in the Qumran Community), 요한의 세례(John's Baptism), 그 당시 신비종교들의 세례적 실천들이다.

25) G. R. Beasley-Murray, *op. cit.*, pp. 246-247. "At the beginning of this passage baptism is aligned with repentance and faith on the one hand and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nd eternal judgment on the other."

2. 세례문답의 성경적 근거 제시

부스(S. I. Buse)는 베드로전서를 세례적 설교로 본다.²⁶⁾ 비즐리-머레이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 4장 11절은 베드로가 따르는 세례 교육 유형을 반영하며, 베드로가 새로 세례 받은 개종자들에게 하는 설교를 재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⁷⁾

특히 베드로전서 3장 20-21절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시 의인 노아의 구원을 구원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레이몬드 켈시(Raymond C. Kelcy)는 “홍수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죄악된 세상에서 들어내어 깨끗한 땅에 안전하게 데려온 것처럼, 세례는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 사이의 경계선이다”라고 주장한다.²⁸⁾ 비즐리-머레이는 물로 말미암은 노아의 구원은 기독교 세례의 예표였다고 언급한다.²⁹⁾ 플레밍톤도 물로 말미암은 노아의 구원 사건에서 기독교 세례의 예표를 발견한다. 그에 의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같이, 기독교인들은 ‘세례’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³⁰⁾

26) S.I.Buse, “Baptism in the Acts of the Apostles,” *Christian Baptism: A Fresh Attempt to Understand the Rite in Terms of Scripture, History, and Theology*, ed. A. Gilmore(London: Lutterworth, 1959), p. 171. S. I. Buse는 베드로전서가 두 개의 세례적 설교이며, 세례식 전후에 각각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Ibid., 175). Richard Perdelwitz도 베드로전서 1장 3절-4장 11절을 세례적 설교로 본다. 다음을 참조하라. Richard Perdelwitz, *Die Mysterienreligionen und das Problem des I Petrusbriefe* (Geissen: A. Topelmann, 1911).

27) G. R. Beasley-Murray, *op. cit.*, p. 256. “1 Peter 1:3-4:11 reflects the pattern of baptismal instruction followed by the writer of the Letter, and may reproduce an address given by him to newly baptized converts.”

28) Raymond C. Kelcy, *The Letters of Peter and Jude, The Living Word Commentary*, ed. Everett Ferguson(Austin, TX: Sweet Publishing Company, 1972), p. 80. “As the waters of the flood lifted Noah and his family out of the sinful world and brought them safely to a cleansed earth, so baptism is the line of demarcation between the kingdom of darkness and the kingdom of light.”

29) G. R. Beasley-Murray, *op. cit.*, p. 260. “Noah’s deliverance through water was a prefiguring of Christian baptism.”

30) W. F. Flemington, *op. cit.*, p. 99. “But a further reason for referring to baptism is the reference in this context to the story of the Flood and the ‘eight souls’ who ‘were saved through water.’ This naturally suggests the Christian counterpart of this ancient story. Just as Noah and his family were ‘saved through water,’ so Christians are saved by baptism.”

물로 말미암은 노아의 가정의 구원 사건과 세례를 연관지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21절에서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노아의 가정은 ‘물로 부터(from the water)’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δι’ ὕδατος, through the water)’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³¹⁾ 둘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ἀντίτυπον)³²⁾ 즉 세례(βάπτισμα)라는 것이다. 셋째,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명사형 ‘에페로테마’ (ἐπερώτημα)는 성경에서 오직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만 언급되었는데,³³⁾ ‘에페로테마’를 한글판 개역성경전서는 ‘찾아가는 것’으로 번역했다. 이 단어를 달리 번역하자면, ‘대답함’, ‘서약함’이다.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약함’이다. 즉 세례 대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순종에 대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서약하는 것이다.³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세례문답의 성경적 근거를 발견한다.

3. 요약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모습으로 유대교의 할례와 정결의식, 그리고 세례의 예표적 사건인 노아의 홍수와 홍해의 기적을 언급할 수 있으나 이 예표들이 기독교 세례 시행의 유일한 선례라는 뜻은 아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의 연관성에서 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고난의 종으로 연결되며, 그 자신뿐 아니라 모든

31) Beasley-Murray는 ‘물로 말미암아’를 도구적 의미보다는 장소적 의미로 해석하여, ‘물을 경과 하여 안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G. R. Beasley-Murray, *op. cit.*, p. 259.

32) ἀντίτυπον(표)의 원형 ἀντίτυπος는 신약에서 두 번만 사용되었다(벧전 3:21; 히 9:24). 특히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그림자(ἀντίτυπα)’로 번역되었다.

33) Henrich Greven, “ἐπερώτημα,”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Gerhard Kittel and trans.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p. 2:685-689.

34) G. R. Beasley-Murray, *op. cit.*, p. 261.

사람의 의와 연결된다. 기독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명령에서 기원하는 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명령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말씀을 들은 세례 준비자는 ‘믿음’ 안에서 세례받기를 청원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전 사역을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한 필수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윤리적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강조하며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 깨끗한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헌신을 상기시키고 있다. 일반서신인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서는 세례자 교육의 중요성, 세례문답의 성경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도행전에서 세례자 교육의 성경적 근거를 발견했으며, 바울서신에서 세례 이후의 세례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베드로전서에서 세례 문답의 성경적 근거와 세례식 설교를 발견했으며, 히브리서에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세례 교육 내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는 성경적 근거와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제2절 세례의 역사적 이해

본 절에서는 세례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면서, 주로 세례자 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지지가 생길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초대 기독교,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현대로 나누어서 연구할 것이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세례자 교육과 세례 집례 방안, 세례식 순서를 설명한 책인 《디다케》(*ΔΙΔΑΧΗ*),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을 다룰 것이며, 《첫 번째 변증》(*First Apology*),

《세레론》(On Baptism), 《면류관》(Of the Crown), 《세레 이전 교리문답》(Procatechesis), 《비법전수적 교리문답》(Mystagogical Catechesis), 《에게리아의 여행기》(Egeria's Travels), 어거스틴의 《세레론》(On Baptism)을 언급할 것이다. 중세 시대에서는 《바버리니 감사기도》(Barberini Euchologion), 《겔라시안 성례집》(Gelasian Sacramentary)을,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루터의 《세례예식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마지막으로 현대에서는 《장년 입교 예식서》(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BEM》(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문서를 다룰 것이다.

1. 초대 기독교

1)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ΔΙΔΑΧΗ ΤΩΝ ΔΩΔΕΚΑ ΑΠΟΣΤΟΛΩΝ) 곧 《디다케》(Διδαχη)는 ‘열두 사도들을 거쳐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 (Διδαχη κυρίῳ διὰ τῶν δώδεκα ἀποστόλων τοῖς ἔθνεσιν)이다. 100년경 작품으로서 시리아 지방 어느 시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편집한 교회사상 첫 교회 규범서이다.³⁵⁾

35) 《디다케》(Διδαχη), 정양 모역 (경북: 분도, 1993), 7. 1873년 그리스 정교회의 주교 Philotheos Bryennios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묘 수도원, 일명 예루살렘 수도원 도서관에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ΔΙΔΑΧΗ ΤΩΝ ΔΩΔΕΚΑ ΑΠΟΣΤΟΛΩΝ, Didache ton dodeka apostolon)이라는 제호가 적힌 양피지 사본을 발견했다. 1883년 Philotheos Bryennios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사본을 출판했다. 마태가 홀로 택하여 사용한 형용사 ‘완전한’ (teleios: 마 5:48, 19:21)이 《디다케》(1:4, 6:2)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보면 《디다케》편집자가 마태복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디다케》편집자가 마태복음을 사용했다면 상한 편집 연대는 80-90년으로 파악된다. 그 하한 편집 연대는 110년경으로 본다. 왜냐하면 《디다케》편집시에는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있었는데(디다케 11장), 11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처형된 이나시우스 주교가 남긴 일곱 서간문을 보면 당시 안티오키아 교회 및 아시아 교회에는 감독 한 명 아래 여러 원로들과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교제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디다케가 편찬되었다고 판단된다. 더 많은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고하라. R. Glover, “The Didache’s Quotations and the Synoptic Gospels”, NTS 5(1958/59), 12-29; A. Hamack, Die Lehre der zwölf Apostel, TU 2, 1-2, Leipzig (1884, 1893); J. A. Kleist, The Didache. The Epistle of Barnabas. The Epistles and the Martyrdom of St. Polycarp. The Fragments of Papias. The Epistle to Diognetus, ACW 6(London, 1957); J. S. Kloppenborg, “Didache 16, 6-8 and special Matthaean Tradition”,

《디다케》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두 가지 길(1-6장), 교회 전례(7-10장), 교회 규범(11-15장), 예수 재림(16장)이다. 세례는 교회 전례 부분인 제7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제7장의 내용은 세례 준비자 교리 교육, 세례 준비, 세례 의식이다.

첫째, 세례를 베풀기 전 세례 준비자 교리교육이 선행되었다. ‘두 가지 길(*Odoi dio*)’ 즉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르쳐 준 다음에 세례를 시행했다. ‘생명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죽음의 길’은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다. 곧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강탈, 위증, 위선, 표리부동, 교활, 오만, 악행, 거만, 욕심, 음담패설, 질투, 불손, 교만, 자만, 두려워하지 않음 등이 포함된다. 세례 준비자들은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배우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후에 세례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세례 준비는 공동 단식으로 했다. 세례 하루나 이틀 전에 세례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는 미리 공동으로 단식을 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단식 동참을 권유했다.

셋째, 세례 의식에 있어서 성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 있는 찬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살아 있는 물(*ἐν ὕδατι ζῶντι*)’이란 웅덩이에 고여 있는 썩은 물과는 달리 강물처럼 움직이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신선한 물이다. 그 ‘살아 있는 물’로 머리 꼭대기까지 물 속에 푹 잠그는 세례를 베풀었다.

ZNW 70(1979), p. 54-67; R. Knopf, Die Lehre der zwölf, HNT Erg. bd, Die Apostolischen Väter I(Tübingen, 1920); H. Köster, "Synoptische Überlieferung bei den Apostolischen Väter", TU 65, (Berlin, 1957); R. A. Kraft, Barnabas and the Didach, The Apostolic Fathers,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III (Toronto-New York-London 1965); H. Lietzmann, Messe und Herrenmahl, Eine Studie zur Geschichte der Liturgie, AKG 8, Berlin 3. Aufl, (1955); A. Stuißer, "Das ganze Joch des Herrn" (Didache 6, 2-3), St Patr IV, 2, TU 79 (Berlin, 1961), pp. 323-329; K. Wengst, Didache(Apostellehre), Barnabasbrief, Zweiter Klemensbrief, Schrift an Diognet, Eingeleitet, herausgegeben, übertragen und erläutert, SUC II(Darmstadt, 1984).

넷째, 세례 의식에 있어서 침례를 고집하지 않고 있다. ‘살아 있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어야 했다. ‘다른 물’이란 땅속에 저장해 둔 빗물이나 웅덩이에 고인 물 등의 죽은 물을 의미한다. ‘찬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없다면 ‘더운 물’로 세례를 주었다. ‘더운 물’은 겨울철에 뜨는 병약자에게 따뜻한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만약에 둘 다 없다면, 즉 ‘살아 있는 물’도 ‘다른 물’도 없다면, 혹은 ‘찬 물’도 ‘더운 물’도 없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부었다. 이것은 세례 의식의 다양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연구한 결과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디다케》 7장 본문은 수미쌍관구조로 되어 있어 강조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1a)

B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오(1b)

C 살아 있는 물로

만일 살아 있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 주시오(2a)

C' 찬 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2b)

둘 다 없으면 머리에 세 번 부으시오(3a)

B'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3b)

A' 세례 전에 부세자와 수세자는 미리 단식하시오(4)³⁶⁾

36) 헬라어 원문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ταῦτα πάντα προειπόντες,(1a)

B βαπτίσατε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1b)

C ἐν ὕδατι ζῶντι.

Ἐάν δὲ μὴ ἔχῃς ὕδωρ ζῶν, εἰς ἄλλο ὕδωρ βάπτισον(2a)

C' εἰ δ' οὐ δύνασαι ἐν ψυχρῷ, ἐν θερμῷ(2b)

Ἐάν δὲ ἀμφοτέρα μὴ ἔχῃς ἔκχεον εἰς τὴν κεφαλὴν τρίς ὕδωρ(3a)

B' εἰς ὄνομα πατρὸς καὶ υἱοῦ καὶ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3b)

A' Πρὸ δὲ τοῦ βαπτίσματος προνηστευσάτω ὁ βαπτίζων καὶ ὁ βαπτιζόμενος(4)

위의 구조에서 보듯 세례 전 준비(A, A'), 성 삼위 하나님의 이름(B, B'), 물(C, C')이 각각 쌍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세례 전 준비에 있어서는 세례 준비자 교리교육(A), 세례 전 금식(A')을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세례 의식도 중요하지만 세례 전 준비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다케》 7:1에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ταῦτα πάντα προειπόντες)' 라고 기록된 것처럼, 100년경 세례의식 시 세례 준비자 교리교육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첫 번째 변증》

순교자 저스틴이 155년경에³⁷⁾ 저술한 《첫 번째 변증》(First Apology)에 의하면, 세례를 받기 전에 교리와 윤리적 수행을 점검받아야 했다.³⁸⁾

그 후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거듭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듭나야 했다. 세례 대상자들은 세례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속에서 씻겨진다. 물로 씻는 것을 '조명(illumination)' 이라고 부른다. 맨 몸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옷을 입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거룩한 입맞춤을 한 다음, 최초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

37) 2세기의 세례에 대한 다른 저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헤르마스의 목자(The Shepherd of Hermas)》는 로마에서 본 환상을 적은 듯한 책으로서, 세례를 받고 이전의 우리의 범죄들이 용서된 이후에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단지 한 번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언급한다. 《이단을 반박함》(Against the Heresies)은 라용의 이레니우스(Irenaeus of Lyons)가 190년경에 쓴 논문이며, 세례를 밀가루로 하여금 반죽과 빵이 되게 하는 물에 비유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교사(The Tutor)》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가 200년 경에 기록했으며, 세례는 조명(enlightenment), 입양(adoption), 온전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특히 조명으로서 세례는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된다.

38) Edward Rochie Hardy, trans., *Early Christian Fathers*,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p. 282.

3) 《세례론》과 《면류관》

북아프리카의 터툴리안(tertullian)은 약 200년경 세례에 대한 최초의 논문으로 볼 수 있는 《세례론(On Baptism)》을 저술했다.³⁹⁾ 터툴리안은 세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례의 시기와 관련하여 그는 비록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과 성령의 강림 때문에 부활절 절기(eastertide)의 50일 중 아무 날이나 세례에 적당하지만 부활절이 우리와 주님의 고난과 연합시키는 바 세례를 위한 가장 엄숙한 날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기도, 금식, 회개, 철야로 준비해야 한다고 터툴리안은 강조한다. 터툴리안은 또한 약 211년경 북아프리카에서 그의 논문인 《면류관》(Of the Crown)을 저술했다. 그는 마귀 유혹의 거절, 질문, 성삼위 하나님 이름의 세례, 회중의 환영,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젖과 꿀의 접대를 기록하고 있다.

4) 《사도전승》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⁴⁰⁾은 약 217년경 3세기 초의 작품으로 서⁴¹⁾ 동·서방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디다케》와 함께 교회 규범에 관한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이형우에 의하면 《사도전승》은 어느 한 사람의 저서라기보다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 기존 교회 안에서 이미 실시되고

39) Ernest Evans, trans. *Tertullian's Homily on Baptism*(London:S.P.C.K., 1964), p. 35. 터툴리안은 세례를 베푸는 사역자들은 정상적으로 감독, 장로, 또는 부제(deacon)이지만, 심지어 평신도 또한 세례를 베풀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40) 《사도전승》은 원래 회람어로 쓰여졌다. 그러나 원본은 상실되고 번역본들만 남아 있다. 번역본들은 콕트어, 시리아어, 아랍어, 에티오피아어 등 동방언어로 되어 있다. 번역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틴어 역본' (L), '콕트어 역본'으로는 '사히디꼬 방언 역본' (S)과 '보하이리꼬 역본' (B), '아랍어 역본' (A), '에티오피아어 역본' (E)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S(AE) 역본을 인용한다.

41) 3세기 후반의 작품으로는 시리아에서 출쳐된 것으로 보이는 교회 직제(church order)에 관한 《사도들의 교훈(Didascalia Apostolorum)》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맨몸으로 세례 받는 여성에게 세례를 주고 기름을 부으며, 세례 받은 후에 교육시킬 수 있는 여자 부제(deacon)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R. Hugh Connolly, trans. *Didascalia Apostolorum* (Oxford: Clarendon Press, 1969), p. 147.

있던 전례와 교회 규범들이 모여져 회람어로 편집된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사도전승》의 원 편집자가 로마 교회의 히폴리투스(hippolytus)이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편집자 개인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도전승》은 총 43장으로서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교계 제도와 성찬 전례(제2-14장)⁴³⁾, 제2부는 입교 절차와 입문성사(제15-21장), 제3부는 신자생활에 관한 제반 규정(제22-42장)을 다루고 있다. 이중 제2부에는 세례의식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다.

제2부 입교 절차와 입문 성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준비자 등록과 교리교육(제15-19장), 세례 대상자의 선발과 세례 준비(제20장), 거룩한 세례의 전통(제21장)이 그것이다.

첫째, 예비신자 등록을 위한 철저한 심사가 있었다. 준비자들은 교사들 앞에 인도되어 믿으려 오게 된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들을 인도한 자들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virtus ad audiendum verbum)’이 있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예를 들면 매춘부, 호색가, 자해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 마법사, 마술사, 점성가, 점쟁이, 해몽가, 험잡꾼, 화폐위조꾼, 부적의 제작자들은 그 일을 멈추어야 준비자 등록이 되었다.

둘째, 장기간 지속적인 교리교육이 있었다. 준비자들은 3년 동안 말씀을 들어야 했다. 물론 열성적이고 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면 기간에 좌우되지 않았고 오직 생활에 따라 판단하였다. 교리교육을 끝마칠 때 준비자들은 신자들과 분리되어 따로 기도하였다. 기도 후에 교사는 준비자들 위에 안수한 다음 기도하고 그들을 보냈다.

42) Hippolytus,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 이형우역 (경북: 분도, 1992), p. 34-36. 《사도전승》 문헌의 복잡성과 본문에 관한 사료들, 본문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은 pp. 11-34를 참조하라.

43) 《사도전승》은 총 4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머리말(Prologus)이며, 제43장은 맺는 말(Conclusio)이다.

셋째, 생활을 통한 세례대상자 선발이 있었다. 준비자로 있는 3년 동안 그들이 성실하게 살았는지, 과부들을 공경했는지, 병자들을 방문했는지, 온갖 종류의 선행을 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삶을 통한 증거가 있어야 세례 대상자로서 선택이 되었던 것이다.

넷째, 3년 동안 후견인 제도가 있었다. 《사도전승》 제15장과 20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제15장을 보면 준비자를 처음으로 인도한 후견인이 예비신자 등록 심사시 준비자의 신상에 대해 증언하였다. 제20장을 보면 3년 간의 준비자 교육 기간이 끝난 다음 바로 그 후견인은 자기가 인도했던 준비자의 3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 다시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인도한 준비자에 대해 계속적인 책임을 지고 지도해 나아갔던 것으로 인식된다.

다섯째, 정성스런 세례 준비가 있었다. 세례 대상자로 선별된 다음부터 매일 구마식을 하였다.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은 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목욕했으며, 안식일의 준비일인 금요일에 단식을 했으며, 토요일에 한곳에 모여 구마식을 행했다. 세례 대상자들은 밤 내내 깨어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주일 새벽 수탉이 울 시각까지 기다렸다.

여섯째, 체계적인 세례 의식이 있었다. 세례 받는 순서는 유아들, 남자들, 여자들의 순이다. 주일 새벽 수탉이 울 시각에 먼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에 대한 기도를 한다. 그 다음 세례 대상자는 옷을 벗는다. 감독자는 감사의 기름과 구마의 기름으로 그에게 구마식을 행한다. 이후 세례 대상자는 세례를 받게 될 물 옆에 서 있는 감독자나 장로에게 벗은 채로 인도된다. 세례는 세 번의 침수로 진행되는데 매번 신앙고백, 안수, 침수의 순으로 반복된다. 첫 번째 침수에서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침수에서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침수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에 대해 신앙고백을 한다. 세례 받은 자가 물에서 올라오면 장로는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라준다. 몸을 닦고 옷을 입게 한 다음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감독자

는 세례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한다. 그 다음 감독자는 자기 손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그 손으로 안수하고 그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면서 입맞춤을 한다. 그 후 세례 받은 자들은 비로소 회중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평화의 입맞춤을 나눈다.

이러한 3세기 초의 세례 의식은 3년 동안의 세례자 교육과 후견인 제도, 생활을 통한 세례 대상자 선발, 체계적인 세례 준비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군 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에 역사적인 차원의 확고한 지지가 생기게 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5) 《세례 전 교리문답》과 《비법전수적 교리문답》

예루살렘의 감독인 시릴(Cyril of Jerusalem)은 두 가지 유명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남겼다. 첫째는 《세례 이전 교리문답》(*Procatechesis*)이다. 이 가르침은 약 350년 경에 작성되었으며, 열여덟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순절 기간 동안 세례 전 세례자 교육으로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신경의 항목들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는 《비법전수적 교리문답》(*Mystagogical Catechesis*)이다. 이 가르침은 약 350년 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며,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활절 이후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행해진 최초의 세례 후 교리문답이다.⁴⁴⁾ 즉 세례 대상자들이 세례 받는 날 오후에 무엇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쳤다. 시릴은 서쪽을 바라보는 동안 마귀와의 관계 단절, 세례용 물통(baptistry)으로의 이동, 성삼위에 대한 믿음의 검사,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여서 세 번 물속에 담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44) R. W. Church, trans. *St. Cyril of Jerusalem's Lectures on the Christian Sacraments* (London: S.P.C.K., 1919), 98-99. 《비법전수적 교리문답》(*Mystagogical Catechesis*)은 전통적으로 Cyril이 행한 세례를 위한 설교라고 여겨져 온다. 참고적으로 Cyril과 동시대의 인물인 Ambrose는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 에바다(*effata*, 막 7:32-35), 즉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것에 대하여 가르쳤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T. Thompson, trans. *St. Ambrose "on the Mysteries" and the Treatise "on the Sacraments"* (London: S.P.C.K., 1919), pp. 98-99.

기름 부음, 성만찬 성례전에 관한 토론 등을 기록하고 있다.

시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례 전에만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세례 후에도 진지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세례자 교육이 빈약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신병교육대대 교회들을 포함한 군인 교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에게리아의 여행기》

에게리아(Egeria)는 약 38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스페인의 수녀이다. 그녀가 기록한 《에게리아의 여행기》(*Egeria's Travels*)는 예루살렘 감독의 세례자 교육의 실재를 보여준다.⁴⁵⁾

첫째, 5주간의 교리 문답이다. 감독은 40일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며 해석하며, 부활과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루에 세 시간씩 세례자 교육이 있다. 둘째, 신경 교육이다. 5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세례 대상자들은 신경의 내용을 배운다. 신경을 배운 후 남자 세례 대상자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여자 세례 대상자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감독에게 가서 신경을 암송한다. 셋째, 비법전수적 교리 문답이다. 감독은 세례 대상자들이 세례를 받은 후 부활절 팔 일 동안 세례의 비밀을 상세히 해석한다. 《에게리아의 여행기》를 통해서 감독이 세례 전과 세례 후 철저한 세례자 교육을 시킨 것을 알 수 있다.

45) John Wilkinson, trans. *Egeria's Travels* (London: S.P.C.K., 1971), pp. 144-146. 《에게리아의 여행기》(*Egeria's Travels*)는 현재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편집하여 총 4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 23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콘스탄티노플에 이르기까지의 여행기이며,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 예배를 묘사했다. 특히 세례의 단계로서 등록, 조사, 축귀와 교육, 세례, 신비에 대한 가르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약 390년 경 안디옥에서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세례의 수동형식을 강조했다. 서방교회의 “내가 세례를 주노라”는 세례의 형식과 반대로, 수동형식은 “당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크리소스톰의 세례 이해는 여전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세례를 구별하는 것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Paul W. Harkins, trans. *St. John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s* (Westminster: Newman Press, 1963), p. 53.

7) 어거스틴의 《세례론》

어거스틴(Augustine)은 386년 밀라노의 정원에서 하나님께로 회심하였으며,⁴⁶⁾ 《고백록》 제9권에서 사랑하는 아들 아데오다투스(Adeodatus)와 함께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다.⁴⁷⁾ 어거스틴은 387년 4월 24일 밀라노(Milano)의 대주교 암브로스(Ambrose)에게 세례를 받았다.⁴⁸⁾

5세기 북 아프리카 hippo)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은 《세례론》(*On Baptism*)을 저술하였다. 어거스틴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옷입고⁴⁹⁾ 성례를 받는때까지 이를 때도 있으며, 성화의 생활에까지 이르는 때도 있다고 말하면서, 전자는 선인과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후자는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⁵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적으로는 매우 적고, 시행하기에는 매우 쉽고,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탁월한 성례들(*sacramentis numero paucissimis, observatione facillimis, significatione praestantissimis*)을 통해서 한 무리의 새로운 백성들을 강하게 연합시켰다”라는 유

46) 어거스틴(Augustine)은 386년 밀라노의 정원에서 하나님께 회심을 하였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철학에로의 회심, 마니교에로의 회심을 거쳐 기독교에로의 회심하는 점진적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는 어거스틴이 기독교적 회심을 통해 지적, 의지적 전환을 이루며, 사상적, 신앙적, 도덕적 삶의 변화를 동반한 통전적 인간 변화를 통해 증명된다. 다음 책을 참고하라. 이규철,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회심 어둠에서 빛으로》(서울: 쿠파, 2001), pp. 317-451.

47) Augustine, *Confession*, tr. Richard S. Pine-Coffin(London: Penguin Books, 1961), IX, 6, 14.

48) Vernon J. Bourke, *Augustine's Love of Wisdom*(West Lafayette, Indiana: Purdue University Press, 1992), p. 5.

49) 참고적으로 소아시아(Asia Minor)의 모프슈에스티아(Mopsuestia)의 주교였던 테오도르(Theodore)는 390년경 교리문답강의를 통하여 사단과 싸워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축귀자(exorcist)를 강조하고 있다. 옷을 벗고서 세례 대상자들은 온몸에 세례를 통하여 불멸의 외투를 받으리라는 표시와 상징인 성유를 붓는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흰 외투가 새 그리스도인에게 입혀진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Instructions to Candidates for Baptism," A. Mingana, trans., Wood brooke Studi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3), VI, p. 54.

50) Augustine, *On Baptism(De baptismo Libri)*, V, xxiv. 34. 영어로 번역된 책을 참조하라. Phil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Buffalo: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86), IV, 475; Angelo Di Berardino, ed, *Patrology Vol. IV*(Allen: Christian Classics, 1959), pp. 383, 449-451.

명한 진술을 하였다.⁵¹⁾ 어거스틴은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진정한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도나티스트들(donatists)과의 논쟁에서, 성례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은 원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세례의 필요성을 말했다.⁵²⁾

2. 중세 시대⁵³⁾.

1) 《바버리니 감사기도서》

동방교회 세례와 관련하여, 비잔틴 예식(byzantine rite)으로 가장 오래된 본문은 790년 경의 《바버리니 감사기도서》(*Barberini Euchologion*)로 판단된다.⁵⁴⁾ 이는 이탈리아의 대 수도원장의 이름을 붙여 사용했던 감사기도서이다. 이 기도서에는 생후 8일 된 유아의 이름짓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40일이 되는 날에 유아들은 의식을 갖추어 고리문답을 받으며, 축사(逐邪)를 받는다. 물은 기름과 마찬가지로 축성된 것이며, 유아들은 기름의 성유를 바르게 되고, 세례를 받는다.⁵⁵⁾ 그 후에 성령의 은사의

51) Augustine, Ep. 54; Ralph P. Martin, *Worship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p. 87.

52) "Enchiridion," Albert C. Outler, trans. *Augustine: Confessions and Enchirid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5), p. 366.

53) 중세는 대략 600년에서 1500년까지를 말한다. 중세는 두 기간으로 구분된다. 중세 초기는 그레고리 1세가 죽은 604년에서 그레고리 7세가 사망한 1085년까지이며, 중세 후기는 1085년에서부터 Martin Luther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1517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4) 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서울: 쿤란, 2000), 106. 참조하라. James F. White,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55) 화이트(James F. White)의 주장처럼 유아세례는 3세기 훨씬 이전이 아니면 3세기 초에 확실히 시행되고 있었다(*Ibid.*, 64). 이후 동방의 새로운 여러 지역이 기독교화 되자 유아세례는 첫 세대 이후에 정상적인 관습이 되었다. 유아들은 단지 성찬에서 포도주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유아세례의 관행을 종결시킨 최초의 집단이었을 보고밀주의자(Bogomiles)라고 알려진 양성론자들로부터 일시적인 도전이 있었다. 보고밀주의자들은 발칸반도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12세기에 융성하였으나 결국은 사라져버렸으며, 거의 나이와 상관없이 입교가 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동방 정교회의 확고한 유아세례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14세기 이래로 종교회의의 규정은 세례를 생후 8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Ibid.*, 109). 츠빙글리(Zwingli)는 유아세례란 어린이들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상징이며, 세례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수단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유아세례

인침인 기름부음을 받는다. 이후에 성만찬이 시작되며, 새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영성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겔라시안 성례집》

서방교회의 세례와 관련하여, 《겔라시안 성례집》(*Gelasian Sacramentary*)에 의하면 사순절 기간에 다수가 유아들인 세례 대상자들은 세례 받을 준비를 했다.⁵⁶⁾ 그들이 세례 받는 날에는 세례 대상자들의 귀와 입에 대고 외쳤던 에바다(*effeta*), 포기 승인(*renunciatio*), 귀신 축출(*exorcism*), 물을 축성함, 세례, 기름부음, 주교의 안수, 성찬 미사들이 있었다.

3. 종교개혁 시대

1) 루터의 《세례예식서》(1523, 1526)

종교개혁가 루터(Martin Luther)는 세례를 기독교 중심의 성경 이해에 따라 세례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⁵⁷⁾

루터에게 있어서 세례란 옛 사람과 혈과 육의 죄악된 탄생이 완전히

를 변호하였다. 재세례파(Anabaptists)는 성경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근거로 유아세례를 반대했다. 이성(reason)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특히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는 성경에서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단 한마디의 명령도 받지 않았으며, 사도들이 유아세례를 베풀지도 않았기에, 유아세례는 단지 인간의 발명과 개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Foundation of Christian Doctrine," in John Christian Wenger, trans. *The Complete Writings of Menno Simons* (Scottsdale: Herald Press, 1956), 126-127. 칼 바르트(Karl Barth)는 유아세례를 강력하게 공박하였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The Teaching of the Church Regarding Baptism*, Ernest A. Payne, Trans(London: S.C.M. Press, 1948). 한편 트렌트(Trent) 종교회의에서는 심지어 이단에 의한 세례도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으며 유아세례를 옹호하였다.

56) James F. White, op.cit., 107. 참조하라. J.D.C.Fisher, *Christian Initiation Baptism in the Medieval West: A Study in the Disintegration of the Primitive Rite of Initiation* (London: S.P.C.K., 1965), p. 137.

57) 다음 책을 참조하라. G. Scharffenorth, *Taufe und Kirchenmitgliedschaft in der Theologie Luthers und in den Kirchenordnungen der Reformation*, in: Ch. Lienemann-Perrin, Hg., *Taufe und kirchenzugehörigkeit. Studien zur Bedeutung der Taufe für Verkündigung, Gestalt und Ordnung der Kirche*, München 1983, 192-245; A. Jilek, *Die Taufe*, in: H.-Ch. Schmidt-Lauber, K.-H. Bieritz, Hg., *Handbuch der Liturgik*, Leipzig 1995, p. 307-309.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익사하는 것이다.⁵⁸⁾ 루터에게 세례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본래 그대로이며, 흠없이 보존되었던 것이다.⁵⁹⁾

루터는 어린이 세례를 고려한 《세례예식서》(*Taufbüchlein*, 1523)를 출판했으며, 3년 후 개정판 《세례예식서》(1526)를 출판하였으며, 후에 소요리 문답의 부록에 수록하였다.⁶⁰⁾ 《세례예식서》(1523)의 순서에 의하면 악한 영을 몰아내고 거룩한 영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 번 불어땀(exsufflatio), 이마와 가슴에 십자가 표시, 기도, 죄의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로서 소금헌정(sacramentum catechumenorum),⁶¹⁾ 노아홍수기도(sintflutgebet), 축귀, 기도, 성경낭독(막 10:13-16), 주기도문과 함께 안수, 진리의 지각을 위한 예바다 의식(막 7:34), 축복의 말씀과 함께 교회로의 입성, 절교의 선언, 신앙고백, 세례문답(어린이), 세례, 서언과 평화의 기원과 함께 기름 바름, 세례복 수여, 세례초 수여이다. 그러나 《세례예식서》(1526)의 순서에 의하면 악한 영을 몰아내는 세 번 불어땀, 이마와 가슴에 십자가 표시, 기도, 노아 홍수 기도, 축귀, 성경 낭독(막 10:13-16), 주기도문과 함께 안수, 축복의 말씀과 함께 교회로의 입성, 절교의 선언, 신

58) "The Holy and Blessed Sacrament of Baptism," Charles M. Jacobs and E. Theodore Bachmann, trans. *Luther's Works*(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60), XXXV, p. 29. 한편 세례의 양태와 관련하여 Martin Luther의 《세례 예식서》(1523), 《세례 예식서》(1526)에는 유아들이 침수되는(dipped)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국 국교(the Anglican)는 물속에서의 침수 세례(baptism by dipping)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칼빈은 세례의 양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그의 동료들은 보통 관수세례(baptism by pouring)를 베풀었다. 제세례파도 관수세례를 옹호해 하였다. 웨이커 교도들은 물의 외적인 상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례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가시적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Manchester: William Irwin, 1869), 257-278.

59) *Babylonian Captivity*, in A. T. W. Steinhauser, Frederick C. Ahrens, and Abdel Ross Wentz, trans. *Luther's Works*(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59), X X X VI, 57, 69.

60) 《세례예식서》연구를 위해 다음 책을 참조하라. M. Probst, *Die westlichen Riten der Kindertaufe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in: IJ 35(1985), pp. 85-111.

61) R. Berger, *Naturelemente und technische Mittel*, in *Gottesdienst der Kirche. Handbuch der Liturgiewissenschaft* 3, (Regensburg 1987), p. 281f.

양고백, 세례문답(어린이), 세례, 서언, 세례복 수여, 평화의 기원이다.

루터의 《세례예식서》(1523)와 개정판 《세례예식서》(1526)를 비교 분석하면, 개정판 《세례예식서》(1526)의 순서에서는 ‘소금헌정’, 귀신 물리치기 후 ‘기도’, ‘에바다 의식’ 이 삭제되었으며, ‘서언과 평화의 기원과 함께 기름 바름’ 대신 ‘선언’ 으로 대체되었으며, ‘세례초 수여’ 대신 ‘평화의 기원’ 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귀신 물리치기’ 의 축귀문이 간단하게 “나는 너를 내쫓는다” 로 축소되었다. 루터의 《세례예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세례예식서(1523년)

Exsuffatio

이마와 가슴에 십자가 표시

기도

소금 헌정

노아홍수기도

축귀:

“그러므로 너 더러운 사탄아

더러운 사탄아 들으라

나는 너를 내쫓는다”

기도

성경낭독(막 10:13-16)

무릎을 꿇음

주기도문과 함께 안수

에바다 의식

축복의 말씀과 함께

교회로의 입성

세례예식서(1526년)

Exsuffatio

이마와 가슴에 십자가 표시

기도

노아홍수기도

축귀:

“나는 너를 내쫓는다”

성경낭독(막 10:13-16)

무릎을 꿇음

주기도문과 함께 안수

축복의 말씀과 함께

세례로의 입성

절교의 선언	절교의 선언
신앙고백	신앙고백
세례문답(어린이)	세례문답(어린이)
세례	세례
서언과 평화의 기원과 함께 기름바름	서언
세례복 수여	세례복 수여
세례초 수여	평화의 기원

루터의 세례식 순서에 있는 노아홍수기도(Sintflutgebet)는 세례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⁶²⁾ 이 기도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과 노아 가정의 구원, 출애굽 당시 홍해의 기적을 통한 애굽 백성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언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주님을 통한 영원한 삶을 간구하고 있다. 루터의 세례신학은 기도를 통해 기실 된 물에 관한 명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⁶³⁾

62) Christian Grethlein, 《예배학 개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p. 253. 세례식에서 사용하는 ‘노아홍수기도(Sintflutgebet)’는 다음과 같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엄한 심판에 따라 노아 홍수를 통하여, 믿음 없는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믿음 있는 여덟 명의 노아 식구를 당신의 자비하심에 따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의 모든 존재자들과 함께 완악한 애굽 백성을 침몰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그리고 대홍수의 축복과 죄의 씻음을 위해 요단강과 모든 물을 거룩하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성도를 자비롭게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축복하옵소서. 당신께서 아담으로부터 유래되었던 것을 홍수를 통해 침몰시켜 주셨습니다. 불신앙인들로부터 그 수를 지키셨으며, 기독교의 거룩한 땅을 건조시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당신 이름의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영원한 삶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아멘”

63) ‘루터의 세례신학’이란 용어는 크리스티안 그레트라인이 *Grundfragen der Liturgik*에서 사용한 것이다. Christian Grethlein, *Grundfragen der Liturgik*, Chr.Kaiser/Gütersloher Verlagshaus, Gütersloh 2001. 한국어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Christian Grethlein, 《예배학 개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p. 253.

루터는 전신 침수 세례를 추천했으며, 세례 실행의 공개성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했으며, 신학적으로 루터에게 있어서 세례와 믿음에 대한 성경적 관계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⁶⁴⁾

2) 칼빈의 《기독교 강요》

종교개혁가 칼빈(John Calvin)의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⁶⁵⁾는 1539년 초판에 이어 1559년 마지막 판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수정 보완되었으며, 전통적인 교리문답적인 주제인 율법, 사도 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 그리고 거짓 세례와 기독교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⁶⁶⁾

칼빈은 세례를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인정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입교의 상징이라고 말했다.⁶⁷⁾ 칼빈에 의하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

64) C. Grethlein, *Taufpraxis heute*, Gütersloh 1988, 206ff. 루터는 믿음과 세례의 관련성을 세 가지 논점을 통하여 시도하였다. 첫째, 아이들은 대부의 믿음과 고백으로 세례를 받기에 종교개혁자는 대부에게 믿음에 대한 세례 문답을 한다. 둘째, 아이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대부들의 중보 기도와 그들로부터 증명된 믿음에 근거하여 교회에게 믿음을 선물했다. 셋째, 아이들에게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설적으로 전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행하시기 때문에 루터는 세례가 올바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2).

66) 황성철, 《개혁주의목회신학》(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pp. 29-30. 《기독교 강요》는 1536년 3월 바젤(Basel)에서 첫 출판되었으며, 1539년에는 초판에 비해서 약 세 배나 증보된 둘째판이 출판되었으며, 1543, 1545, 1550, 1553, 1554년에 수정 보완하여 1559년에는 마지막 판이 출판되었다. 초판에 비해 다섯 배인 1559년 마지막 판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18장), 제2권은 율법 아래서는 먼저 믿음의 조상에게,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로 형상화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17장),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방법,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25장), 제4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의적 수단 혹은 도움(20장)을 논하고 있다.

67) "Institutes," in Ford Lewis Battles, trans.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I, 1303.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세례에 대한 John Calvin의 주장은, 중세 후기의 개인의 경건주의적인 형태에 대한 반대로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츠빙글리(Zwingli)도 세례의 공동체적 부분을 강조하였다. 물론 츠빙글리는 칼빈이 말한 죄로 인한 정죄와 정계를 없애주는 상징으로서의 세례의 효과성을 뜻하지 않았다.

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⁶⁸⁾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와 증거가 된다. 즉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고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회상되거나 그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인을 친 문서와 같다.⁶⁹⁾

칼빈에 따르면, 세례의 효력은 말씀 없이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⁷⁰⁾ 세례는 일평생 깨끗함을 받는다는 표이며,⁷¹⁾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생명을 얻는다는 표이며,⁷²⁾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이며,⁷³⁾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표이다.⁷⁴⁾ 세례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며,⁷⁵⁾ 세례는 집례하는 사람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며,⁷⁶⁾ 회개가 늦어도 세례는 유효하다.⁷⁷⁾

칼빈은 바울이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았음을 말하며 재세례를 반대하며,⁷⁸⁾ 필요 이상의 의식을 반대하며,⁷⁹⁾ 여성에 의한 세례를 반대하였다.⁸⁰⁾

그러나 칼빈은 유아세례가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제도와 표적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된다고 주장했다.⁸¹⁾ 칼빈은 어린이들도 언약에 참가하며,⁸²⁾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며,⁸³⁾ 어린이들은 자라서 세

68) *INST.* IV, xv. 1.

69) *Ibid.*

70) *Ibid.*, IV, xv. 2.

71) *Ibid.*, IV, xv. 3.

72) *Ibid.*, IV, xv. 5.

73) *Ibid.*, IV, xv. 6.

74) *Ibid.*, IV, xv. 13.

75) *Ibid.*, IV, xv. 15.

76) *Ibid.*, IV, xv. 16.

77) *Ibid.*, IV, xv. 17.

78) *Ibid.*, IV, xv. 18.

79) *Ibid.*, IV, xv. 19. 칼빈은 ‘촛불과 성유’, 세례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숨을 내쉬는 것 (Exsufflatio)’ 등의 ‘이질적인 잡동사니’를 배척했다.

80) *Ibid.*, IV, xv. 21.

81) *Ibid.*, IV, xvi. 1-32.

82) *Ibid.*, IV, xvi. 5.

례 받은 뜻을 깨닫게 되며,⁸⁴⁾ 어린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세례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였다.⁸⁵⁾ 칼빈은 이러한 세례의 신비와 세례 주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잘 청정할 수 있도록 세례반(baptismal font)은 강단 곁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⁸⁶⁾ 어린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⁷⁾ 즉 교회가 어린이들을 증인으로 간주한다면, 어린이들은 하나의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83) *Ibid.*, IV, xvi. 17.

84) *Ibid.*, IV, xvi. 21.

85) *Ibid.*, IV, xvi. 22.

86)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in K.S. Reid, tran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p. 66. 중세 대부분의 교회는 현관 출입구 안쪽 가까이 세례반(baptismal font)이 있었으며, 이는 세례의식의 첫 부분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중세 초기의 세례반 아래에는 마귀가 밟혀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지름이 2피트 정도, 깊이가 1피트 정도의 세례반이 평균 수치로서 도량법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었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J. G. Davies, *The Architectural Setting of Baptism* (London: Barrie and Rockliff, 1962), 69. 그러나 17세기에는 루터파 교회의 많은 세례반은 말씀과 성례를 결합하고자 강단 곁으로, 즉 교회의 정면으로 이동시켰다. 개혁신교와 청교도교회들은 칼빈의 가르침대로 보통 움직일 수 있는 세례반을 사용하면서, 세례반을 강단 곁으로 이동시켰다. 한편 17세기에는 교회의 바닥이나 가까운 시내나 호수에 파서 만든 세례용 웅덩이(baptismal pools)에서 세례를 베푸는 경향이 있었다.

87) "Institutes," II, 1461.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견진(confirmation)이란 교리문답(catechism)과 같은 종류 이상으로, 참되며 합당한 성례이며, 집례하는 성직자는 평범한 사제가 아니라 주교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Canons and Dogmatic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in Phillip schaff, trans. *The Creeds of Christendo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n.d.), II, pp. 125-126. 영국 국교회는 주교가 견진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성직자라며 계속해 온 견진 관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 견진을 받는 어린이들은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먼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교리문답을 익혀야 했다. 견진을 받은 후에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1552년 도유(unction)와 십자가의 상징은 사라진다. 루터(Martin Luther)는 견진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견진을 성례(sacrament)로 간주하지 않았다. 츠빙글리(Zwingli)는 견진을 완전히 폐지시켰다. 칼빈(John Calvin)은 견진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왜 소수 사람들만이 견진을 받는가라고 질문하며 로마 가톨릭을 힐책하였다. 재세례파(Anabaptists)와 웨이커 교도의 경우는 견진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세례파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자들만이 세례를 받는다면, 본원적인 입교의 통일성을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웨이커 교도들은 물세례를 받으면 그 밖의 견진의 외적 상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A Form for Water Baptism," in H. Wayne Pipkin and John H. Yoder trans., *Balthasar Hubmaier, Theologian of Anabaptism* (Scottsdale: Herald Press, 1989), p. 389. 한편, 잉글랜드 교회의 경우, 세례는 대

4. 현 대⁸⁸⁾

1) 《장년 입교 예식서》

《장년 입교 예식서》(*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는 미국 내의 많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예식서이다.⁸⁹⁾ 이 예식서는 3세기의 《사도전승》의 절차를 도입하였다. 최종적인 입교가 세례, 견진, 그리고 최초의 성만찬의 성례들을 시행하게 되기 전까지 회중은 훈련의 단계, 기도의 단계, 그리고 삶의 문답의 단계라는 일련의 긴 과정을 통하여 회심자들을 인도하였다.

2) BEM 문서

1927년 로잔 대회를 통해 조직된 ‘신앙과 직제 위원회(Faith and Order Commission)’는 ‘생활과 봉사(Life and Work)’라는 에큐메니컬 단체와 함께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조직하였다.⁹⁰⁾

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메인, 주일과 그밖의 성일(聖日)이 아니면 배풀지 않았다. 이는 출석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The First and Second Prayer Books of Edward VI* (London: J. M. Dent & Sons, 1949), p. 236.

88) 주로 1700년 이후를 계몽주의 또는 이성의 시대로 본다. 계몽주의는 모든 형태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며, 정치, 종교, 과학 등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계몽주의의 지나친 합리론에 대한 19세기의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이성 에 대한 우월성을 단정했다. 19세기는 특별히 과거를 찬양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감정을 찬양하는 로마 가톨릭 사상의 형태로,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많이 일어났다. 계몽주의가 자율적인 이성에 집중하였다면, 19세기는 개인의 감정을 강조하였다.

89) *The Rites*(New York: Pueblo Publishing Company, 1988), 1A, pp. 48-169.

90) 참조하라. W.A. Visser 't Hooft, *The Genesis and Format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7). 이 책에는 1948년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초대 총무이며, 1966년까지 총무직을 수행한 비서트 후프트가 체험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태동과 그 형성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세계 제1차대전이 끝난 직후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생기는 상황에서 당시 동방정통교회의 대주교가 1920년에 제안한 세계교회연맹(The League of Churches)과 1919년 스웨덴의 루터교 주요인 죄더블름의 에큐메니컬협의회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세계교회협의회를 조직했는지를 담고 있다. 생활과 봉사, 신앙과 직제,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는 세계교회협의회(WCC)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 책들도 참조하라. Marlin VanElderen, *And So Set Up Signs.....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first 40 years* (1988). 말린 베엘테렌의 ‘그리고 그렇게 표지판을 세웠고.....’라고 번역되는 이 책은 세계교회협의회(WCC) 40년사를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표지판들을 다

그 이후 세계교회협의회 산하 기관으로서 세계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Lima)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세례, 성찬, 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이라는 BEM 문서 소위 ‘리마(Lima)’ 문서를 채택했다. 이는 1927년 제1회 신앙과 직제 위원회 대회 이후 50여 년 이상의 연구와 토의에 의한 결과물이며, 1974년 아크라 총회, 1978년 방갈로르 총회, 1982년 리마 총회를 통해 공식적인 문서로 채택된 것이었다. 정장복은 이 문서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분열된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일치를 이루게 하는 중대한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신학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하였다.⁹¹⁾ 특히 리마 예식서(Lima Liturgy)는 1982년 리마 총회를 위해 마련된 예배 예전으로서, 리마 문서를 통해 성취된 성찬에 관한 신학적 공감대를 이루게 하였다. 1983년 세계교회협의회 뱅쿠버 총회는 세계 교회의 대표들이 성찬을 공동으로 베푸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⁹²⁾

리마 예식서는 개회의 예전,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등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작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⁹³⁾ BEM 문서의 첫 번째 주제인 세례는 세례의 제정, 세례의 의미, 세례와 신앙, 세례의 실행, 세례의식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⁹⁴⁾ 그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루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편, 《세계교회협의회 역대 총회 종합보고서(The Section Reports of the WCC)》, 이형기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2). 이 책은 제1차 암스텔담 총회(1948), 제2차 에반스톤 총회(1954), 제3차 뉴델리 총회(1961), 제4차 옴살라 총회(1968), 제5차 나이로비 총회(1975), 제6차 뱅쿠버 총회(1983), 제7차 호주 캔버라 총회(1991)의 종합보고서들이다.

91) 정장복, 《예배학 사전》(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pp. 661-662

92) 1983년 WCC 뱅쿠버 총회 성찬 예전에는 러시아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가 기도를 하고, 독일의 가톨릭 주교가 성경을 봉독했으며, 남인도 교회의 한 감독이 설교를 하고,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찬 예식을 집례했다. 이 성찬 예식을 보조하기 위해 덴마크의 루터 교회, 인도네시아의 개혁 교회, 베닌의 감리교회, 헝가리의 침례교회, 자마이카의 모라비안 교회의 목사들과 캐나다 연합 교회의 여성 목사가 선택되었다. 다음을 참조하라. 정장복, 《예배학 사전》, *op.cit.*, pp. 662-663.

(1) 세례의 제정

기독교 세례는 나사렛 예수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서 시작되며, 오늘의 교회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께 대한 서약의 의식으로서 세례를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

(2) 세례의 의미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마 3:15; 막 10:38-40, 45; 롬 6:3-11; 골 2:13, 3:1; 엡 2:5-6), 회개와 용서와 깨끗하게 함(막 1:4; 고전 6:11; 히 10:22; 벧전 3:21), 성령의 은사(막 1:10-11; 고후 1:12-22; 엡 1:13-14),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결합(엡 4:4-6), 하나님의 표식이며 장차 올 세계의 삶의 표시이다.

(3) 세례와 신앙

세례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 은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써, 세례 가운데서 구체화되고 공표된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세례는 일순간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⁹³⁾ 개인의 성화를 요청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해주는 윤리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93) 리마 예식서의 3부 35개의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입례(Liturgy of entrance): 입례송, 인사, 죄의 고백, 용서의 선언, 자비의 연도(Kyrie Litany), 영광송. 제2부 말씀의 예전(Liturgy of the Word): 오늘의 기도, 구약성경봉독, 명상의 시편, 서신서 봉독, 할렐루야 영광, 복음서 봉독, 설교, 침묵, 신앙고백, 중보 기도 교독. 제3부 성만찬 예전(Liturgy of the Eucharist): 준비기원, 인사의 교환, 처음 기원, 삼성창, 성령 임재의 기원1(Epiclesis 1), 성찬 제정사, 회상과 재현의 말씀(Anamnesis), 성령 임재의 기원2(Epiclesis 2), 추도의 기원, 마지막 기원,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분병례(The Breaking of the Bread), 하나님의 어린 양께, 성찬에의 참여(Communion), 감사 기도, 폐회 찬송, 사명의 말씀, 축도. 리마 예식서는 성찬의 신학적인 의미를 성부께 대한 감사로서의 성찬,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과 재현으로서의 성찬, 성령님 초대로서의 성찬,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찬, 하나님 나라의 식사로서의 성찬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정장복, 《예배학 사전》, *op.cit.*, pp. 664-669.

94)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I. pp. 1-23.

(4) 세례의 실행

유아세례가 사도시대에 행해졌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졌다. 모든 교회들은 다른 종교에서 개종했거나 또는 불신자였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리문답 교육에 참여한 신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다.⁹⁵⁾ 개인적인 신앙고백은 세례식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순서이며, 유아가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응답이 후일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⁹⁷⁾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신앙 안에서의 인격적인 응답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세례는 반복할 수 없는 행위이며, 재세례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어떤 의식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⁹⁸⁾

(5) 세례 의식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집행되며, 세례의 순서 안에서는 세례를 언급하는 성경구절의 선포, 성령초대의 기도, 악을 포기하는 것, 그리스도와 성삼위에 대한 신앙고백, 물의 사용,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였다는 것과 교회의 성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포함되어야 한다.⁹⁹⁾ 세례는 통상 안수받은 교역자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밖의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된다.¹⁰⁰⁾

95) 다음을 참조하라. "One Baptism One Eucharist and A mutually recognized Ministry, Three agreed statements," *Faith and Order Paper No. 73*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5), 16. "Baptism is not solely a matter of individual concern, but is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 corporate life and worship of the Church." 이 문서에서는 세례는 개인적 관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공 생활과 예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례는 개인의 관심을 초월하여 교회 공동체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96)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op. cit.*, I. 11.

97) *Ibid.*, I. 12.

98) *Ibid.*, I. 13.

99) *Ibid.*, I. 20.

100) *Ibid.*, I. 22.

BEM 문서의 세례를 평가하자면, 긍정적 면으로는 세례를 한순간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으로 보았다는 것, 세례를 개인의 성화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해 주는 윤리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세례식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순서이며, 유아가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응답이 후일에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통상 안수 받은 교역자에 의해서 세례가 행해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밖의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는 에큐메니즘의 차원으로 20세기에 고조된 관심사의 하나가 되었다.¹⁰¹⁾ 세례는 아무도 기독교의 관습이라는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하나의 성례전이며, 세례는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가장 분명한 성례전이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보면 세례에 관한 여러 교회의 다양한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일치를 구하는 이상으로 다양성을 고무시키는 데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요약

연구 결과 세례자 교육은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중단 없이 실시되어져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세례자 교육이 빈약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신병교육대대 교회들을 포함한 군인 교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100년경의 세례식을 보여주는 《디다케》에는 세례를 베풀기 전 세례 준비자 교리 교육이 선행되었으며, 세례 대상자와 집례자가 공동 단식을 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순교자 저스틴이 155년 경에 저술한 《첫 번째 변

101) James F. White, *op. cit.*, 213.

증》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교리와 윤리적 수행을 점검받아야 함이 기록되어 있다. 200년 경 터툴리안의 《세례론》에는 세례 대상자들은 기도, 금식, 회개, 철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3세기 초의 세례식을 전하고 있는 《사도전승》은 3년 동안의 세례자 교육과 후견인 제도, 생활을 통한 세례 대상자 선발, 체계적인 세례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시릴은 세례 전에만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세례 후에도 진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에게리아의 여행기》는 감독이 세례 전과 세례 후 철저한 세례자 교육을 시킨 것을 기록하고 있다. BEM 문서는 세례를 한순간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으로 보았으며, 세례를 개인의 성화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해 주는 윤리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세례식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순서로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는 역사적 차원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제3절 세례의 개혁신학적 이해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며,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의 수단이다. 성례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표지, 은혜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다. 세례는 믿음의 성례이며, 믿음의 극화(劇化)이다. 기독교 세례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명령에 있다. 세례의 신학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죄 씻음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가시적 은혜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입교식이다.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본 유아세례는 계약(契約)의 원리에서 추론되

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새 언약(言約)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아 약속의 백성이 된다. 유아세례는 유아들 자신의 신앙에 근거하여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에 근거하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과 양육이 전제된 가운데 행하는 세례이다. 개혁신교회는 루터와 칼빈에 의하여 제시되었던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에 따라 유아세례를 베풀어 온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돌보아야 하는 신앙 교육적인 책임을 교회는 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하여 교리 교육을 실천해 왔고, 이 교육 과정이 끝나게 되면 신앙고백의 확인과 함께 교회가 받아들이는 입교(견신례)라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본 견신례는 유아 세례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시켜 온전한 세례교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이해였다. 특히 견신례 교육은 유아 세례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유·초등부의 시절을 거쳐 청소년기에 이를 때에 교회는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신앙학습서(Katechismus)란 책을 통하여 교육한다. 특히 루터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세례자들의 교육(Katechese)에 관계된 것이었으며, 유아 세례자는 후에 공중 앞에서 신앙고백을 증거해야만 하며, 모든 아이들에게 6개월 정도의 세례 학습을 위해 신앙학습서 공부에 요청되었던 것이다. 유아 세례자들의 신앙의 가르침(Konfirmandenunterricht)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1528년 지방교회를 돌아보고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 교인을 상대로 하는 카테키스무스 교육으로 계획했던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칼빈의 이해에서 나타난 대로 신앙학습서 교육을 거쳐 자신의 신앙의 지적 상태를 교회의 공중 앞에 나타내고 시험을 통과한 후 성만찬의 참여권

을 부여한 것과 교회 성인교인으로 받아들인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례의 개혁신학적 이해를 연구한 결과 루터, 츠빙글리, 부셔,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유아 세례와 견신례에 관하여 신앙학습서(Katechismus)를 통한 신앙 교육방안에 전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제안할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학습서를 통한 신앙 교육방안과 일맥상통함으로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는 개혁신학적 근거와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제3장 한국 장로교 신앙교육 초기 문헌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본 장에서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 《예수교문답》(1894),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 《위원입교인규도》(1895),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을 중심으로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여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제안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1. 《예수교문답》(1894)

1) 《예수교문답》(1894)¹⁰²⁾은 《그리스도문답》(1893)¹⁰³⁾의 재판으로서 제목을 《예수교문답》이라고 수정하였으며,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로서 평가받는다. 원저자는 네비

102) H.S.C.Nevius, 《예수교문답》, H.G.Underwood 역(경성:그리스도성서, 1894). 참고적으로 한국 교회 감리교 최초의 공식 세례문답서는 W. B. Scranton이 번역한 《세례문답》(1895)이다. 《세례문답》(1895)은 총 43문답, 열 가지은혜로온교훈은경, 아름예혼자하느기도문, 저녁예혼자하느기도문 등으로 되어 있다. 미감리교회, 《세례문답》, W. B. Scranton 역(경성:삼문출판사, 1895), 1-21.

103) H.S.C.Nevius, 《그리스도문답》, H.G.Underwood 역(경성:그리스도성서, 1893).

우스(Mrs. H. S. C. Nevius)이며 번역자는 언더우드(H. G. Underwood)이다. 연구한 결과 두 책의 내용은 똑같으며, 단지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수정되었다. 첫째 십계명을 문답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스도문답》(1893)의 ‘여호와’란 단어가 《예수교문답》(1894)에서는 ‘하느님’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었으며, 둘째 《그리스도문답》(1893) 제145문, 제147문의 성찬을 설명하는 ‘술’이라는 단어가 《예수교문답》(1894)에서는 ‘포도즙’으로 바뀐 것이다.

2) 《예수교문답》(1894)은 《위원입교인규도》(1895) ‘성서공부(聖書工夫)’ 설명 부분에서 두 번이나 제시된 바 있다. 《예수교문답》(1894)은 원입교인(願入敎人)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별된 책들 가운데 중첩되어 언급된 중요한 책이다. 원입교인들을 위한 책들 즉, 《턴로지귀》, 《량우상론(兩友相論)》¹⁰⁴⁾, 《예수교문답(耶蘇敎問答)》, 《묘죽문답》, 《구세론》, 《인가귀도(引家歸道)》, 《복음요소》, 《구세진전(救世眞銓)》, 《신약로가복음》, 《신약요한복음》과 신자들의 자식들을 위한 책들 즉, 《眞理便讀三字經(진리편독삼자경)》, 《論孝撮要(논효촬요)》, 《新約路加福音》, 《예수교문답》, 《훈오진언》, 《턴로력정》 등에서 각각 언급되었다. 또한 《위원입교인규도》(1895) ‘수주일론(守主日論)’에서는 《예수교문답》(1894) 제141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함을 강조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착한 행실을 행할 것을 권했다. 결론적으로 《예수

104) W. Milne, 《량우상론(兩友相論)》, 馬布三悅 역. 원 제목은 《장원량우상론(張袁兩友相論)》이며, 1893년 간행된 기독교 전도 문서로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간행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기독교 선교 초기에 가장 널리 읽혀진 전도 책자였다. 책의 구성은 기독교인 장씨와 유교인 원씨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보유론(補儒論)’으로서 ‘기독교가 유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성한다’는 논리로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와 연결 가능성을 서술한 비교 종교학적 문헌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김진경, 《김선주》(서울: 두란노, 2007), p. 68.

교문답》(1894)은 원입교인들과 신자 자녀들을 위한 세례문답서의 역할을 했음과 매우 중요한 세례준비자 교육 교재이다.

3) 《예수교문답》(1894)의 내용은 하나님(1-8문), 성경(9-46문), 인간(47-70문), 예수 그리스도(71-118문), 성령(119-120문), 기도(121-139문), 안식일(140-141문), 성례(142-147문), 제사 금지(148-154문), 부활(155-159문), 심판(160-166문), 교외생활(167-170문), 열 가지 경계(171-181문), 사도신경, 인죄문, 천백문, 주기도문 등으로, 17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원입교인들과 신자 자녀들에게 중요한 세례문답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예수교문답》(1894) 제142문답에 의하면 예수교에 오직 두 가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제143문답에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여 물로써 예수교에 들어오는 예식을 행하는 것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즉 《예수교문답》(1894)의 세례에 대한 강조점 중 하나는 세례는 입교예식이라는 것이다.

5) 《예수교문답》(1894) 제144문답에는 세례의 뜻이 마음을 밝게 하여 성령의 씻음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예수교문답》(1894) ‘천막문’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 준비자들의 마음이 밝게 되며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다.

6) 《예수교문답》(1894)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는 통시적(通時的) 문답이다. 《예수교문답》(1894)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범죄한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례에 참여하며, 제사를 하지 않으며, 부활의 기쁨 속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과 생활한다는 것을 알

려주신다는 것이다. 《예수교문답》(1894)의 전체 질문은 ‘표 1-5 《예수교 문답》(1894) 1-181문 소개(1)-(5)’에 나타나 있다.

7) 《예수교문답》(1894) 총 181문답을 연구하여 본 결과, 한국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하고 반영한 문답이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향축과 쇼지’를 쓰는가에 대하여 반드시 아니 씀을 권고했으며(제127문), 독경하는 대와 불공하는 대와 굿하는 대는 어찌 향을 태우고 쇼지를 살으는가에 대하여 옳은 도리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언급했으며(제128문), 예수교에 제사드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드러 한 영원한 제사 곧 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 제사를 드리면 예수를 적게 보는 것이 된다고 역설하였으며(제148문), 택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날은 길하고 불길한 분간이 없기에 택일하는 것이 참도리에 합당치 아니함을 강조하였다(제151문).

특히 《예수교문답》(1894)에서는 한국인들이 겪는 조상제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한국인의 ‘삶의 자리’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했다. 예를 들면 예수교 사람이 조상 제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옳지 아니하기에 일체 못함을 강조했으며(제152문), 조상제사가 어찌하여 옳지 않은가에 대하여 조상이 이미 세상을 버리고 갔기에 음식을 능히 먹을 수 없으므로 제사는 헛된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으며(제153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조상공경하는 마음을 표하는가에 대하여 조상을 사모하며 그 교훈을 생각하며 그 분부한 것을 따라 행하며 평생에 잊지 않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제154문).

8) 《예수교문답》(1894)에는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알도록 배려했다. 예를 들면 성경을 공자와 맹자의 글과 비교하면 어떠한가에 대하여 성경은 세상에 있는 글과 비교하면 더 귀중하고 요긴하다고 강조하였으며(제15문), 예수는 외국성인이시니 중국의 공부자와 한 모양인가에 대하여 아니라고 언급한 후 예

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참신이시고 천지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다고 기술하였다(제84문). 또한 《예수교문답》(1894)에는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에게 구두진술을 요구하여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함으로 체험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제86문은 예수께서 사람을 참도리로 가르치신 구절들을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이 직접 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9) 《예수교문답》(1894)은 성경의 핵심을 하나로 이어주는 끝말잇기식 연결형(連結形) 문답이라고 생각한다. 교수하는 목사, ‘조수’(助事)¹⁰⁵⁾와 배우는 원입교인들, 신자의 자녀들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같은 문답이다. 이러한 끝말잇기식 연결형 문답 유형을 통해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은 쉽고 즐겁고 깊이 있게 성경의 진리를 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제117-121문답).

10) 《예수교문답》(1894)은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에게 단순한 성경지식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연계된 실천적 생활적 문답이다. 지식과 삶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질문들이 강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169, 170문답을 보면, 날마다 삶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에 대하여 매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준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본받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보는 사람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권면하였다.

105) 한국 교회 초기 직제로는 ‘목수(혹칭 감독)’와 ‘선도사’, ‘장로’, ‘집사’가 있었으며, 임시직으로 ‘조수(助事)’와 ‘령수(領袖)’가 있었다. 이 중 ‘조수(助事)’는 목사를 도와 일을 의논하고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일이 어찌되어 가는지를 살펴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며, 전도를 부지런히 하며, 각처 교회로 다니다가 목사가 없다면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영수와 교우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895). pp. 26-27.

11) 《예수교문답》(1894)에는 ‘열 가지 경계’, ‘수도신경’, ‘인죄문’, ‘천백문’, ‘쥬기도문’ 등 세례준비자 교육교재 5가지를 소개했다. 이는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필수적 세례준비자 교육교재이다. 특히 ‘인죄문(認罪文)’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이 죄인임을 시인하며 죄를 고백하고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이다. 주요 내용은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의 성품이 실로 악함을 고백한 후,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사 항상 하나님을 높이 받들게 하시며, 셋째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사 모든 잘못된 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또한 ‘천백문(千百文)’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하고 구하는’ 기도문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 기도함을 응답하소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내리사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여 우리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소서, 셋째, 우리 미혹한 것을 밝혀 주사 그릇된 길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만 하게 하시고, 천당에 올라 무궁무진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것이다. ‘천백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즉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고 우리 마음의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12) 《예수교문답》(1894)은 성령에 대한 문답이 부족하다. 오직 네 개의 문답에서만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교문답》(1894)의 문답을 보면, 하나님 8문(1-8문), 성경 38문(9-46문), 인간 24문(47-70문), 예수 그리스도 38문(71-118문), 기도 19문(121-139문), 안식일 2문(140-141문), 성례 6문(142-147문), 제사 금지 7문(148-154문), 부활 5문(155-159문), 심판 7문(160-166문), 교외생활 4문(167-170문), 열 가지 경

계 11문(171-181문)이지만, 성령에 관한 문답은 4문(106, 119-120, 134문) 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넓게 보면, 하나님(성경) 46문, 인간 24문, 예수 그리스도 38문, 성령 4문으로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예수교문답》(1894)에 부족한 성령에 관한 문답을 증가시켜야 할 과제를 갖게 된다.

2. 《위원입교인규도》(1895)

1) 《위원입교인규도》(1895)는¹⁰⁶⁾ 평양신학교 설립자이자 한국 장로교회 창건자 중에 한 사람인 마펏 선교사(Samuel Austin Moffet, 馬布三悅, 1864-1939)에 의해, 중국 산둥 반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네비우스(John Livingstone Nevius, 1829-1893)의 책 《Manual for Enquirer》를 주로 참고하고 한국인 교사의 도움을 받아 편저한 것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각종 기도문, 성서공부, 수주일론(守主日論), 성례론, 교회 규도, 교회치리법, 연보전조략, 찬송시 등을 다루고 있다.

2)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로서 장로교회의 원입교인이 배워야 할 아주 성경적인 신앙안내서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원입교인’(願入敎人)이란 ‘입교를 원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결국 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을 자를 뜻한다. 이는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원입교인’ 중에서 ‘입교인’을 작성하여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다.¹⁰⁷⁾ 결론적으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19세기 말 한국 교회 세례자 교육서로서 기념비적인 공헌을 했다. 《위원입교인규도》는 1895년 초판에 이어 재판, 1897년 제3판, 1898년 제4판, 1913년 제11판이 나올 정도로 세례자 교육서로서 활용도가 높았다.

106)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895).

107) Ibid., p. 25.

3)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임을 강조한다. 성례의 목적은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더욱 든든히 믿게 하고, 세상 풍속을 끊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덕을 더욱 중히 여기게 하는 것이다. 성례의 집례자는 목사이며, 성례의 의의는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인 친 표적이다.

4) 《위원입교인규도》(1895)의 세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세례는 목사가 집례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거하여 베풀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 세례는 물로 씻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언약한 은혜 입는 것을 밝게 나타내어 인 친 증거하는 것이다. 세례는 또한 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교회로 들어오기를 기쁘게 여기는 맹세이다. 세례, 곧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안으로 성령이 죄를 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표적이다.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식이다.

5)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물세례와 성례세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쓸데 없다고 논함으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물로 세례 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6)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믿는 사람의 자손까지 은혜를 베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어린아이들도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7) 《위원입교인규도》(1895)가 제시한 세례의 성경적 근거 구절은 총 16구절로서, 신약 15구절과 구약 1구절이다(마 28:19; 막 16:15-16; 마 3:11; 요 1:33, 3:5; 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1-33; 롬 6:3-5; 갈 3:27; 딤후 3:5; 행 2:38-41; 창 17:17). 연구한 결과 이와 같이 선별된 총

16개의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의 세례(마 28:19; 막 16:15-16) ②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중요성(마 3:11; 요 1:33, 3:5) ③ 전도와 입교로서의 세례(행 8:12, 8:36-38, 9:17-18, 10:47, 16:14-15, 16:33) ④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세례(롬 6:3-5; 갈 3:27) ⑤ 회개와 죄사함으로서의 세례(딤후 3:5; 행 2:38-41) ⑥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창 17:17)이다.

8) 세례 준비자를 위한 초보적 기독교 교리서(Manual for Catechumens)로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세례 준비자 교육 교안을 서론, 각종 기도문, 성서공부, 수주일론(守主日論), 성례론, 교회 규모, 교회 치리법, 연보전조략, 찬송시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위원입교인규도》(1895) '서(序)' 에 의하면, 예수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람의 죄를 사하고 형벌을 면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화친케 하는 교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전하여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0) 《위원입교인규도》(1895) '서(序)' 에 의하면, 입교자 행동지침으로 입교를 원하는 자들은 우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거짓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11) 《위원입교인규도》(1895) '각식 도고문(各式禱告文)' 에 의하면, 도고란 하나님과 사귀어 화친하고 하나님께 빌고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격하게 알고, 죄 사하심을 구하며, 권속을 데리고 기도하며, 회당에서 교우로 더불어 기도하며, 정성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제시한 기도문은 (1) 죄를 알아 회개

한 사람의 첫째 기도인 ‘인죄회개인도고문(認罪悔改人禱告文)’, (2)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신도묵도고문(信徒默禱告文)’, (3) 권속을 데리고 기도하는 ‘솔권속도고문(率眷屬禱告文)’, (4) 여러 교우가 예배시 기도하는 ‘중교우예배시도고문(衆敎友禮拜時禱告文)’, (5)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반시도고문(飯時禱告文)’, (6)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유아도고문(乳兒禱告文)’, (7) 주기도문인 ‘주도고문(主禱告文)’ 등이다. 이 모든 기도문들은 입교를 원하는 세례준비자들에게 기도의 나침반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12) 《위원입교인규도》(1895) ‘성서공부(聖書工夫)’ 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에 성경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날마다 때를 작정하여 권속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글만 읽지 말고 뜻을 알아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3) 《위원입교인규도》(1895) ‘수주일론(守主日論)’ 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함을 강조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착한 행실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14) 《위원입교인규도》(1895) ‘근수예배규모(謹守禮拜規模)’ 에 의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며, 문안하지 말며, 공손히 예배를 다음의 순서대로 드리도록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찬양, 기도, 성경 봉독, 대표기도, 찬양, 설교, 기도, 연보, 찬양의 순이다. 만일 예배당이 멀거나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 갈 수 없다면 권속이나 이웃 사람이 데리고 한 달 동안에 1주 혹은 2주 정도 예배드릴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 년 동안 주일공부는 성경을 차례로 볼 수 있도록 53주 계획을 작성하였다.

15) 《위원입교인규도》(1895) ‘성례론(聖禮論)’ 에 나타난 세례의 이해

는 언급하였으므로, 성찬만 요약하기로 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상하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성례로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양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샘플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성찬의 뜻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6) 《위원입교인규도》(1895) ‘예수교회규모(耶蘇教會規模)’에 의하면, 마태복음 5-10장, 십계명(十誡命)과 교회규모(教會規模)를 보고 입교한 사람이 순종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 주기도문은 세례준비자에게 중요한 세례자 교육 자료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주기도문은 《위원입교인규도》(1895) ‘각식 도고문(各式禱告文)’에서 강조하고 있다. ‘교회규모(教會規模)’는 교회 밖의 사람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교회로 들어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준행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 밖의 사람이 입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강조한다. ‘교회규모(教會規模)’는 일곱 가지로 되어 있다. 즉 조상제사도 지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공경할 것, 주일을 정성으로 지킬 것, 부모 생전에 정성으로 공경할 것, 한 남편에게 한 아내일 것, 자기 집사람을 권하여 한마음으로 주를 믿고 섬길 것, 일하고 먹을 것이며 바른 사업을 힘쓸 것, 술과 아편연과 잡기를 금할 것 등이다. 그러나 ‘십계명(十誡命)’과 ‘교회규모(教會規模)’는 자기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지킬 수 있음을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세례 준비자들, 즉 원입교인(願入敎人)들이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17) 《위원입교인규도》(1895) ‘교회치리법(教會治理法)’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즉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 목사와 선교사를 세우고 장로와 집사를 세우심, 목사와 장로가 당회가 되어 원입교인 중에서 입교인을 작정하고 책별도 함, 각처 교회들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 노회가 되어 목사와 당회를 다스림 등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상기한 범대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목사가 사람을 선별하여 ‘조수(助事)’, ‘령슈(領袖)’, ‘집사(執事)’를 세워 직분을 맡길 것을 피력하고 있다.

18) 《위원입교인규도》(1895) ‘연보전조락’(捐補錢條)에서는 ‘목사(牧師)’와 ‘령슈(領袖)’와 ‘집사(執事)’가 연보전을 예배당 비용, ‘조수(助事)’ 월급, 병든 자와 어려운 자 심방비, 교회 밖 이웃 구제비 등으로 사용하며, 예전에는 귀신을 두려워하여 재물을 썼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움과 미리 예비함으로 연보전을 드리라고 제안하고 있다.

19) 《위원입교인규도》(1895) ‘찬송시(讚頌詩)’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노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위원입교인규도》(1895) ‘찬송시(讚頌詩)’에서 제시된 다섯 개의 찬양은 ‘찬미상 데복의근원’, ‘예수나를 사랑호오’, ‘내죄롭셋는거슨’, ‘사랑호세 예수’, ‘예수인도호쇼셔’ 등이다.

20) 《위원입교인규도》(1895) ‘교회치리법(教會治理法)’에 의하면 ‘조수(助事)’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 교회로 다니면서 ‘령슈(領袖)’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령슈(領袖)’는 목사와 조사를 도와 원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별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수(助事)’가 《위원입교인규도》(1895)를 교재로 삼아 세례 준비자인 ‘원입교인’에게 성경을 상세히 가르쳤으며, ‘령슈(領袖)’의

보고로 '원입교인' 중 책벌할 사항에 대하여는 당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철저하게 세례 준비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⁸⁾

3.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1)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¹⁰⁹⁾은《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1908)¹¹⁰⁾에 기록된 신경과 규칙을 별도로 출판한 것으로서, 한국

108) 한국 교회 초기 직제로는 '목수(혹칭 감독)'와 '선도사', '장로', '집사'가 있었으며, 임시직으로 '조사(助事)'와 '령수(領袖)'가 있었다. '조사(助事)'는 목사를 도와 일을 의논하고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일이 어찌되어 가는지를 살펴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며, 전도를 부지런히 하며, 각처 교회로 다니다가 목사가 없다면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영수와 교우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령수(領袖)'목사와 조사를 돕고 일을 다 의논하여 원입교인이 있거든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힘써 일을 보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벌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을 하며, 목사나 조사가 없을 때에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별하여 인도하게 하며, 교우 중에 병이 있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보고 기도하며 위로하였다. '집사(執事)'는 연보전을 모아서 받은 후에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치부하였다가 일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회계하여 교우에게 제시하며, 목사와 영수와 한 가지로 교회 재정을 경영하여 연보전을 교회에 유익하게 하며, 교우 중 어려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환과 고독을 보호하여 도와주고 또 일 있는 사람을 권하여 부지런히 일하게 하고 일을 경영하여 맡기는 자였다.

109)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간인, 1910). 영문 제목은 *CONFES-SION OF FAITH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이다.

110)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은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부터 9월 19일 오후 4시 30분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 회의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은 미국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의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 이 네 곳 교회의 총회로 선교사를 택정하여 한국에 보내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교사들이 갑신년에 한국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한 지 23년 동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10여만 명이 되었으나 한국 목사를 장립지 못함으로 '로회'를 이루지 못하고 '장로공의회'라 칭하고 제15차례 모임을 가질 뿐이었다. 그런데 상기한 네 곳 교회의 총회에서 대한민국 장로회 '로회'를 세우기로 허락하였기에 '장로공의회' 회장 마포삼열 목사가 네 곳 총회의 권을 얻어 한국 교회에 '로회' 되는 취지를 설명한 후,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선거를 통하여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1907년 9월 17일 오후 7시 30분에 한국의 신학교 졸업학사 일곱 사람 즉, 서경조, 방기창, 리기풍, 길선주, 송린서, 광면벽, 한석진 칠인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로회'라 하였으니 이것은 '대한국 독립 로회'인 것이다. '대한국 독립 로회' 참석 목사는 33명, 장로는 36명으로서 총 69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서국 회원은 총 38명, 한국 회원은 40명으로서 총 78명이었다. 다음을 참조하라.《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1908), pp. 2-11.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신경’과 한국 장로교 최초의 약식 정치조례인 ‘규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1908)은 19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의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의 주요내용은 신경서문, 신경 12조, 인가식(認可式), 규칙 4조, 세칙 7조 등이다. 12조로 구성된 신경을 요약하면 (1)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경배 받으실 하나님, (3)삼위일체 하나님, (4)창조주 하나님, (5)창조된 인간, (6)범죄한 인간, (7)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8)성령, (9)믿음, (10)성례, (11)믿는 자의 본분, (12)부활과 심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가식(認可式)은 이 교회의 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운 줄로 믿으며 나의 신경으로 삼고 공포하는 식이다. 4조로 구성된 규칙은 (1)교회 (2)예배 절차 (3)직원 (4)교회의 치리를 다루고 있다. 제1조 교회에서는 유형과 무형 교회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두 가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다루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목사와 장로, 지교회 목사와 전도목사, 장로, 집사, 강도인과 조사 등을 차례로 쉽게 설명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당회, 노회, 총회 등을 언급하며 규칙 개정 방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칙에서는 미조직 지교회, 강도인과 조사 인허함, 목사를 택함, 목사의 옮겨감, 장로와 집사를 택하고 안수위임함, 장정과 절차를 정함, 세칙 개정 방법 등을 논하고 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9조에 의하면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세 가지 방도는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로 성례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각인해야 할 것이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1조를 보면 주의 법에 복종함, 항상 기도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례 지키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를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음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성례 집례자로 말미암아 성례의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님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제정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례의 이익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를 보면 세례의 이해가 요약되어 정립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의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에서 언급된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로서의 세례를 강조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세례란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표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종하였을 때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였다(행 22:16; 롬 6:3-6; 고전 12:13; 갈 3:26-27; 롬 6:4; 고전 6:11; 고후 5:17).

6)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신경' 과 한국 장로교 최초의 약식 정치 조례인 '규칙' 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기에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7)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10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믿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로서 세례를 언급한 후 세례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다.

8)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규칙' 제2조 예배절차에 의

하면 세례와 성찬은 목사만 베푸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규칙’ 제3조 직원을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강도인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중 오직 목사만이 성례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9)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규칙’ 제4조 제2항을 보면 교회 당회 회원인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를 총찰하여 입교인과 원입교인을 시취하였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세칙’ 제2항을 보면 ‘조식’와 강도인도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당회 없는 지회에서 원입교인을 시취하여 세울 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초기 한국 장로교회에 세례 준비자 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 결과 활용 사항

다음은 본 연구자가 본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활용할 내용들이다.

첫째, 《예수교문답》(1894)에 나타난 ‘열가지경계’, ‘수도신경’, ‘인죄문’, ‘천복문’, ‘유기도문’ 등 세례자 교육교재 5가지를 반영할 것이다. 이는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에 나타난 세례 준비자인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필수적 세례 준비자 교육교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세례 준비자를 위한 초보적 기독교 교리서(Manual for Catechumens)로서 《위원입교인규도》(1895)가 제시한 세례 준비자 교육 교안인 각종 기도문, 성서공부, 수주일론(守主日論), 성례론, 교회규모, 교회치리법, 연보전조약을 세례자 교육 교안을 작성하는 데 반영할 것이다.

셋째,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의 주요내용 중 12조로 구성된 신경인 (1)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경배 받으실 하나님, (3)삼위일체 하나님, (4)창조주 하나님, (5)창조된 인간, (6)범죄한 인간, (7)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8)성령, (9)믿음, (10)성례, (11)믿는 자의 본분, (12)부활과 심판을 본 연구자가 제안할 세례자 교육방안 안에 포함된 세례자 교육

교안 작성시에 반영할 것이다.

넷째, 《예수교문답》(1894)에 부족한 성령에 관한 문답을 증가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본 연구자는 세례자 교육 교안을 작성할 때 성령에 관한 교안을 배가시킬 것이다.

제4장 한국 장로교 목회학 초기 문헌에 나타난 세례 집례 방안

본 장에서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 《목수지법》(1919)을 중심으로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 집례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가 제안할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의 내용 중 ‘세례식 매뉴얼’의 ‘세례 집례 방안’을 작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예배당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점을 배려하여 고정된 ‘세례반(洗禮盤, Baptismal Font)’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물 그릇’ 즉 ‘세례기(洗禮器, Baptismal Vessel)’로 대체하여, 세례 대상자는 자리에 앉아 있고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장로와 함께 움직이며 세례를 주는 궤안련의 세례 집례 방안, 세례 대상자에게 성명지편(姓名紙片) 나눠주는 방안, ‘삼번식’(三番式)과 ‘일번식’(一番式)의 문제 해결 방안,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친족(親族) 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外家)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하는 방안 등이 소개될 것이다.

1. 《목수지법(牧師之法)》(*Pastoral Theology*, 1919)¹¹¹⁾은 궤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 1878-1961)¹¹²⁾이 맥코믹(McCormick) 신학교 교수 헤릭 존슨(Herick Johnson)의 목회신학 강의(Lectures on Pastoral Theology)를 참고하여 단순한 번역이 아닌 자신의 내용으로 재편한 것이

111)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수지법(牧師之法)》(京城: 朝鮮耶敎書會, 1919).

며,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로서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 모범’ (1922), 《혼상예식서》(1924), 《목회학》(1925), 《목사필휴》(1933) 출판에 영향을 끼친 책이며, 당시 한국의 문화와 상황을 상당히 반영한 실천적, 상황적, 사례 중심적, 구체적 예배 지침을 제시한 책이다.

2. 《목수지법》(1919)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 도리의 심장(心腸)임을 강조한다. 광안련은 세례는 예수 피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표이며, 성찬은 변화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세례와 성찬은 목사의 생활에 가장 높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서서 집행하는 것은 목사의 특권과 영광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3. 성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눈에 보이는 은혜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강조한다.

4. 세례의 5대 의의를 역설하고 있다. 즉, 세례는 예수께서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게 된 표이며, 하나님의 식구로 입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는 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이며, 우리들이 복을 받을 능력이 생기는 대로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표이며, 세례 대상자가 맹세하여 몸을 들여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 살지 않고 예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표임을 강조한다.

5. 오직 목사만 세례를 집행하는 자임을 진술하고 있다.

6. 세례와 성찬 집행자인 목사마다 장로교회 신경 제10조, 예배모범

112) 광안련(Charles Allen Clark)은 Mackalest College,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수학(1899-1902) 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1902년에 내한하여 송동교회 목회활동(1902-1924), 평양신학교 교수활동(1908-1939) 등 한국 장로교회에 신학적인 공헌을 한 선교사이다. 총 51권의 책을 번역, 저술하였다. 다음 책들을 참고하라. 이호우, 《광안련의 신학과 사상》(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pp. 66, 106, 129, 183; 홍치모,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기독교사상》, 제26권 제2호(1982. 2), 46; Kim Kyeong Jin,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1879-1934” (T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9), p. 141.

제9, 10, 11장, 장로교회 정치문답 조례 139문에서부터 150문까지 자세히 알고, 특별히 장로교회 신경과 예배모범에 있는 예배의 뜻과 묻는 말을 외우도록 공부하고, 책이 없어도 그 예식을 잘 행하도록 공부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는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목사의 철저한 실천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7. 장로교회가 평신도의 세례는 세례로 인정하지 않음과 독립교회에서 세례 받은 자로서 장로교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면 당회가 결의대로 받든지 다시 세례 받고 들어오라고 하든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로마 가톨릭에서 온 자의 경우에는 당회가 시험하여서 이치를 알고 진실히 믿는 자로 알면 그냥 세례인으로 받을 수가 있고, 긴요한 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한 줄로 알면 얼마 동안 학습으로 있다가 세례를 다시 주든지 어린 때에 세례 받은 자처럼 물세례 없이 맹세로만 받을 수 있었다.

8. 《목수지법》에서는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제9장 6조를 언급하며 세례 형태를 논하고 있다. 즉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로 그 사람의 얼굴에 붓든지 물방울을 떨어뜨림으로 세례를 주고 다른 예식을 더하지 않는다.¹¹³⁾ 보통 기독교는 물을 떨어뜨리는 방침대로 한다. 그러나 목사가 교육하여 세례의 의의를 가르친 후라도 침례를 원하면, 감리회나 장로회가 침례를 허락하고 목사가 그대로 베폴 지라도 책망이 없으리라고 언급하고 있다.¹¹⁴⁾ 또한 ‘삼번식(三番式)’과

113) 정장복 교수는 ‘한국 교회 최초의 실천신학 교수 궤안련의 《목사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이라는 글에서 작은 오류를 범했다. 그것은 세례의 형태 문제를 논하면서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제9장 6조에 나온 인용구를 마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있는 인용구로 착각한 것이다. 다음 책을 참고하여 확인하라. 예배모범에 정장복 외 4인, 《2006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p. 53.

114) 《목수지법(牧師之法)》, p. 313.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영문판(1919)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p. 75. “I baptise thee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s he pronounces these words, he is to baptise the child with water, by pouring it or sprinkling it upon the face of the child without adding any other ceremony and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일번식(一番式)’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을
을 말한다. 세례를 베풀 시 손을 세 번 물에 넣어서 세 번 물을 떨어뜨리
기도 하지만, 보통 일번식으로 해도 별 관계가 없으며, 목사가 자기의 결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에게 세례 줄 때에는 ‘삼번식’으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여 좋고, 유아에게는 ‘일번식’으로
하여 어린아이를 너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목수지법》에서 권
하고 있다.

9. 껍안련은 《목수지법》에서 서구 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세례반을 언
급하지 않고, 물 그릇과 소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세례식에 사용될 물
은 아무 그릇이든지 담을 수 있지만, 좋은 기명(器皿) 한 벌을 사서 성찬기
와 함께 두고, 다른 일로 사용하지 않으며,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물 그릇
상하에 눈같이 백수건(白手巾)이 있게 하고, 물 그릇을 체용(體容)이 맞게
적은 소반(小盤)에 두어 거행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고 추천하고 있다. 이
는 껍안련이 한국 교회 예배당의 구조와 사정을 깊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
된다. 즉 예배당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이
를 위해 고정된 ‘세례반(洗禮槃, Baptismal Font)’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물 그릇’ 즉 ‘세례기(洗禮器, Baptismal Vessel)’로 대체한 것이다. 세례
대상자는 자리에 앉아 있고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장로와 함께 움직
이며 세례를 주는 껍안련 방식의 세례식을 제안한 것이다.

10. 세례 대상자 좌석 배치를 위해 성도들이 기립하여 찬양하면서 세
례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오게 하고 다른 성도들은 뒤에 앉게 한다. 이
때 부인반(婦人班)에서 권사들과 남자반(男子班)에서 장로들이 목사를 도
와 세례 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안내한다.

11. 껍안련은 유아세례 전 부모 문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유아세례
전 당회가 그 부모들을 불러서 유아세례의 뜻에 대하여 문답을 한다는 것
이다. 이는 부모 문답을 통해 유아세례의 뜻과 부모들의 담당할 것을 깨닫

게 하며, 예배 시작 후 부모들이 당회와 의논 없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풍속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친족 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하도록 권한다. 세례식에서 서약하게 아니하면 유아세례 후에 모친을 반대 하든지 일가나 외가 중에 누가 그 아이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껍안련은 세례식을 베푸는 시점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이후의 미래 양육까지 관심을 가지고 권하고 있다. 껍안련은 유아세례 나이를 6세 혹은 7세로, 어른 세례를 14세로 제안하였다. 껍안련의 유아세례식 순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세례 받을 유아의 모든 부모가 강대상 앞에 나아와 앉는다. 2)그 후에 목사가 간단하게 그 부모들과 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유아세례의 뜻과 그 부모의 직업과 본분과 맹세의 뜻을 설명한다. 3)기도한다. 4)기도 후 기립하여 목사의 묻는 대로 대답한다. 5)그 후에 목사가 세례를 베푼다. 6)간단한 기도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12. 유아세례식이나 성인세례식 시작 전에 목사가 종이조각, 즉 지편(紙片)을 많이 예비한다. 각 조각에 세례 받을 자의 성명을 하나씩 쓰고, 시작할 때에 먼저 성명지편(姓名紙片)을 각 세례 대상자에게 나눠준다. 주머니나 혹은 책 안에 넣지 말고 손에 들고 있게 한다. 목사가 세례를 주기 위하여 돌아다닐 때에 각 사람이 차례로 목사에게 자기의 성명지편을 드리면, 목사는 많은 성명 중에 그의 성명을 잊었어도 그 성명지편을 보고 세례를 줄 때에 바로 성명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같이 하면 목사가 자기의 명부록책(名簿錄冊)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며 세례식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만약 세례 대상자가 자신의 성명지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녀된 자여’ 라고 부르도록 권한다.

13. 민적(民籍)에 이름이 없는 ‘여자(女子)’의 이름은 그 남편의 이름

의 항렬자(行列字)와 그 남 형제의 이름의 항렬자를 합하여 목사나 당회가 작명하고 세례를 베풀었다.¹¹⁵⁾ 교인 중에서도 여자에 대하여 ‘누구의 어머니라 누구의 아내라’ 부르지 말고 각기 저의 이름을 부름이 좋다고 말하며, 세례 시 받은 이름을 생전에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14. 강도 즉 설교를 미리 준비 잘하고 조금 짧게 하여 세례식과 강도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궤안련은 강도보다 세례식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세례식과 강도를 같은 시간에 행하지 못하겠다면 그 날 강도는 정지(停止)함이 가하다고 권면하고 있다.

15. 궤안련은 ‘유아세례(乳兒洗禮)’, ‘장자세례(長者洗禮, 어른세례)’와 ‘유아의 세례 받았던 자를 영접하는 예식(乳兒의 洗禮 받았던 者를 迎接하는 禮式)’ 순으로 제안한다. 즉 유아세례, 어른세례와 입교예식 순이다. 궤안련은 유아세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세례식 사이에 찬양의 시간을 두어 교우들이 ‘분간(分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분간’이란 ‘나누어 구별함’이란 뜻으로, 유아세례와 어른세례 중간에 짧은 시간을 두어 구별되게 하고,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이 된 자와 어른세례 대상자 사이도 구별되게 한다. 궤안련이 추천한 예배모범 ‘제10장 입교예식’에 의하면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회중 앞에 기립, 2)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3)어른세례 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4)문답, 5)유아세례를 받아 성년 된 자들을 위한 권면, 6)어른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세례 집례, 7)기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16. 어른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날부터 교회원이며, 유아세

115) 정장복 교수는 ‘한국 교회 최초의 실천신학 교수 궤안련의 《목사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이라는 글에서 다시금 오류를 범했다. 《목사지법》에서는 ‘여자’(女子)의 작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장복 교수는 ‘유아’(乳兒)의 작명법으로 착각한 것이다. 다음 책을 참고하여 확인하라. 예배모범에 정장복 외 4인, 《2006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서울: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p. 54.

례를 받았던 자는 출생 시부터 교회원이 되지만 입교예식을 한 날에 자기의 맹세를 자기가 담임하게 된다.

17. 유아세례,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행한 다음 바로 이명증서(移名證書)로 이래(移來)한 교인을 영접한다. 우선 목사가 호명(呼名)하여 기림하게 하고 온 교인으로 영접하게 한다.

18. 학습인(學習人) 영접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득실로 따지면 공식으로 영접하여도 해는 없고 이가 많을 것이라고 껍안련은 말한다. 그러므로 각 교회 목사와 당회가 의논하여 학습인을 공식으로 교회원으로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당회 앞에서 받을 것인지 결정할 것을 말하고 있다.

19. 세례와 성찬은 공예배 시 집례되며 보통 '교당(教堂)'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두 예식을 당회의 결의대로 집안에서도 행할 수 있다고 껍안련은 권하였다. '교당'으로 가지 못하는 어른이나 약하고 병든 아이가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본가(本家)에서 행할 수 있었다. 세례는 흔히 '주일 대예배회' 말에 행하지만, 특별시간(特別時間)을 내어 주일 오후 5시나 해가 떨어지는 일락시(一落時)에 행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껍안련은 생각하였다.

20. 껍안련은 세례의 횟수와 관련하여 전임목사가 있는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으며, 혹 6개월에 한 번씩 행할 것이며, 전임목사가 없는 순행구역(巡行區域)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껍안련은 세례를 너무 자주 베풀면 미숙한 자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만 행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으며, 세례를 베푼 후에 그 성명을 즉시 명부록(名簿錄)에 올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다.

21.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날에 목사가 그 형편을 인하여 기회를 얻어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강도(講道)할 수가 있으며, 그때에 엄숙한 중에 교우들이 다른 예배 때보다 더욱 들을 사상이 생기고 교수함을 더 잘 받는다고

했다. 이는 《목수지법》에서 세례 시에도 세례대상자 교육에 대한 강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 “긴요한 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할 때에는 학습(學習)의 기간을 거쳐 세례자 교육 후 세례를 줄 것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세례의 형태를 논하면서 침례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세례의 속뜻을 잘 교육하면 결과적으로 ‘물을 떨어뜨리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인 세례 대상자 교육을 통해 세례의 의의를 밝히 알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22. 결론적으로 세례 집례 방안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인 《목수지법》은 세례의 집례자로서의 목사, 세례를 위한 집례자의 준비로서 장로교회 ‘신경(信經)’과 ‘예배모범’ 암송, 타 교단의 세례 인정 문제, 세례의 형태 문제, 물그릇과 소반 사용 제안, 세례 대상자 좌석 배치, 유아세례 시행 방법, 성명지편(姓名紙片)의 사용, 여자의 작명법(作名法), 강도(講道)와 세례(洗禮)의 관계, 세례식 순서와 분간(分�) 제안, 교회원(教會員)이 되는 시기, 이명증서(移名證書)로 이래한 교인과 학습인(學習人) 영접 문제, 세례의 시간 장소 횡수 등을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활용 사항으로서 본 연구자가 본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얻은 자료는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중 ‘세례식 매뉴얼’의 세례 집례 방안을 작성할 때 활용할 것이다.

제5장 한국 장로교 예식서 초기문헌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

본 장에서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¹¹⁶⁾를 중심으로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식 순서를 연구할 것이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 《조선예수교장로

회헌법》‘예배모범’(1922),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예배모범’(1934), 영어로 기록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을 문헌 비교 분석법으로 세례식 순서를 소개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세례자 교육방안 중 ‘세례식 매뉴얼’의 세례식 순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1.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 집필된 예식서’로서, 《목수지법》(1919),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예배모범’(1922)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였다.¹¹⁷⁾ 물론 주일예배 순서가 나타나지 않으며, 세례와 성찬예식이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본문이 아니라 부록에 나타난다는 점으로 보아 특별하며 임시적인 예식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는 김선두, 박문찬, 김필수, 박승봉 등 한국인 목사들로 구성된 예식위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들은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를 제12차 총회(1923)에 제출하였으며 제13차 총회(1924)에서 통과되어 출판되었다. 특히 예식위원 대표로 박승봉(朴勝鳳) 목사는 서문을 통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예식위원으로서 혼상예식의 통례를 만들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

116) 《혼상예식서》(1924)는 감리교 최초의 예식서 《미이미교회향례》(1890)를 포함하여, 《예수교 감리회향례》(1899), 《대강령과 규측》(1910), 《남감리회도리와 장정》(1919)보다 늦게 출판되었다. 그러나 감리교 문헌들은 거의 미국 예전서를 번역한 것이지만, 장로교 《혼상예식서》는 한국인에 의해서 집필된 한국 교회 최초의 예식서이다. 한국 장로교 분열(1959) 이후 나온 최초의 장로교 예식서는 통합 교단의 《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61)이며, 그 뒤를 이어 기장 교단의 《예식서》(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1964), 합동 교단의 최초의 예식서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78)가 발행되었다.

117) Kim Kyeong Jin,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1879-1934” (T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9), p. 125. 예를 들면 상례식(喪禮式)에서 ‘하관식’은 미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의식을 보여준다. 다음의 논문도 참조하라. 김태규, “한국 교회 초기문헌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성찬신학과 실제” (Ph. D. diss., 백석대학교, 2006), pp. 108-109, 374.

서》(1924)의 마지막 부분에는 양전백, 차상진 목사가 《조선예수교장로회 혼상례식서》의 교열위원(校閱委員)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부록 ‘성례와 장립식’ 제1절 세례의 조례와 식 제9항에는 세례에 대한 성경 요절이 나와 있다. 이는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영문판(1919)과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9장과 제10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아주 독특한 부분으로서 세례의 이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비교하자면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 나타난 세례에 대한 성경 요절은 총 30개로서 구약 5개, 신약 25개이며,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나타난 세례의 성경적 근거 구절은 총 16개로서 구약 1개와 신약 15개이다.¹¹⁸⁾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는 《위원입교인규도》(1895)보다 약 2배 증가된 세례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구약은 5배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한 결과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서는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매우 강조된 ‘전도와 입교로서의 세례’ (행 8:12, 8:36-38, 9:17-18, 10:47, 16:14-15, 16:33)가 매우 약하게 언급되었다. 그것도 전도나 입교 측면이 아닌 유아세례 측면에서 사도행전 16장 33절이 한 번 언급되었다.

4.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부록 ‘성례와 장립식’ 제1절 세례의 조례와 식 제9항에 나타난 세례에 대한 성경 요절을 연구하면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세례의 이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 성경의 명령으로서의 세례, 2) 삼위일체 이름의 세례, 3) 죄 씻는 표로서의 세례, 4) 예수의 사활(死活)을 함하여 받는 세례, 5) 주와 연합위일(聯

118) 마 28:19; 막 16:15-16; 마 3:11; 요 1:33, 3:5; 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1-33; 롬 6:3-5; 갈 3:27; 딤후 3:5; 행 2:38-41; 창 17:17.

合爲一)하는 표로서의 세례, 6) 유아세례, 7) 물과 성령의 세례 등이다.

5.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는 목사의 세례 집례를 재천명한 이후 유아세례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1)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부모님 일인이나 양인이 다 세례를 받을 유아를 데리고 온다. 2) 세례 주기 전에 목사는 성례에 관한 성질과 세례식의 목적을 설명하여 훈계한다. 3) 목사는 또한 부모를 권면하여 조심하여 부모의 직을 다하라 한다. 4) 목사가 유아의 부모에게 묻는 서약을 한다. 5) 목사가 세례식을 행할 때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준다.

연구 결과 박안련의 《목수지법》(1919),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영문판(1919)과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9장,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유아세례 순서를 비교해 볼 때 목사의 기도의 횟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목수지법》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문답(서약), 세례, 기도의 순이지만,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문답(서약), 기도, 세례, 기도의 순이다. 즉 예배모범 제9장 5조 4항에는 문답(서약) 후 ‘기도’가 한 번 더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는 예고, 세례식의 목적 설명과 권면, 문답(서약), 기도, 세례의 순서로서 서약 전 기도와 세례 후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 《목회학》(1936)에 의하면 서약 전 기도는 신전 의식(神前意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Coram Deo) 기립하여 있음을 각오케 하는 것이며, 세례 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인 것이다.¹¹⁹⁾ 결론적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

119) 박안련의 《목회학》(1936)에서는 서약 전 기도와 세례 후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誓約의 뜻을 解釋한 後에 牧師前 뿐 아니라 하나님의 眼前임을 覺悟케 하는 祈禱가 있고 施洗하고 다시 하나님께 付託하는 祈禱가 있을 것이다.” 박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p. 138.

(1924)의 유아세례 순서는 《목수지법》보다 1회,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보다 2회 기도의 순서가 감소되었다.

6.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에 나타난 한국 초기 장로교의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敎育) 교과 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리문답(要理問答), 사도신경(使徒信經), 주기도문(主祈禱文) 독송(讀誦)으로서 위 세 가지를 읽고 암송시키는 것이다. 둘째, 기도방법(祈禱方法)이다. 셋째, 죄증오방법(罪憎惡方法)이다. 넷째, 신애경순종방법(神愛敬順從方法)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론(教會論)으로서 성년이 된 후에 출생하면서 얻은 특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우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입교식(入敎式)과 성찬식(聖餐式)으로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증거하고, 성찬에 참여할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세아(乳洗兒)는 성장하여 당회 허락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때는 반드시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공식선언한 후에 입교케 하고 출생 시부터 교회에 특수한 관계가 있던 것을 표하여 깨닫도록 설명한다. 이러한 유세자교육 후 유세아는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선언한 후 입교를 한다. 즉 유세자교육 후 입교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7. 특이사항은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가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제10장과 달리 유세자 입교식과 어른 입교식을 분리하여 설명한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는 유세자 입교 순서를 부록 1절 7항에서 언급하지만, 어른 입교 순서는 8항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은 제10장 1조부터 5조까지 유세자 입교와 어른 입교를 혼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1922) 예배모범 '제10장 입교예식'에 의하면 혼합된 순서는 회중 앞에 기립,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문답,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 된 자들을 위한 권면, 어른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세례 집례, 기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 (유아세례, 입교)는 유세아 입교를 별도로 설명한 후, 어른 입교 순서를 회중 앞에 기립,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문답, 어른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세례 집례, 기도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른 입교 대상자는 학습인이나 교우 중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지원한 자이다. 이때 당회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를 순종하며 충성된 신앙의 형편의 유무를 문답하여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목사가 교회 앞에 공식으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세례를 준다. 어른 입교 순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례 받을 자가 회중에 기립한 후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해 목사가 설명한다. 2) 어른세례 대상자에게 목사가 문답한다. 3) 문답을 통해 어른세례 대상자가 다 승낙한 후에 목사가 물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름을 불러 세례를 베풀고, 기도하고 마친다.

지금까지 논한 요약을 간단하게 <표1> 3대 초기문헌 비교분석에 따른 세례식 순서로 제시할 수 있다. <표1>는 《목수지법》(1919)과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의 ‘예배모범’과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세례식 순서를 문헌비교분석법에 의해 연구한 것이다.

8. 연구 결과 활용 사항으로서 본 연구자가 본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얻은 자료는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중 ‘세례식 매뉴얼’의 세례식 순서를 작성할 때 활용할 것이다.

〈표 1〉 3대 초기 문헌 비교 분석에 따른 세례식 순서

문헌명	《목사지법(牧師之法)》 (1919)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1919)(1922)예배모범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 (朝鮮예수敎長老會婚禮式書)》 (1924)
유아 세례 순서	1. 당회의 세례 전 부모 문답 2. 착석 3. 목사의 설명 (세례식 의의, 부모의 직임과 본분 맹세의 뜻) 4. 기도 5. 기립 후 문답(서약) 6. 세례 7. 기도	1. 착석, 2. 목사의 설명 (세례식 의의) 3. 기도 4. 기립 후 문답(서약), 5. 기도 6. 세례 7. 기도	1. 부모의 예고(豫告) 2. 목사의 설명(說明) 3. 목사의 권면(勸勉) 4. 세례 서약(誓約) 5. 축복하는 기도(祈禱) 6. 세례(洗禮)
어른 세례 순서	1. 예배모범 규측대로 어른세례와 입교예 식을 시행함	1. 유세자교육(乳洗者敎育) 교과과목 이수 《조선예수교장로회 혼상례식서(朝鮮예수敎 長老會婚禮式書)》 (1924)와 동일함 2. 기립 3.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4.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 한 목사의 설명 5. 문답 6.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 된 자들을 위한 권면 7.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 한 세례 집례 8. 기도	1. 기립(起立) 2. 목사의 설명(說明) 3. 문답(問答) 4. 세례(洗禮) 5. 기도(祈禱)
유세자 입교식 순서			1. 유세자교육(乳洗者敎育) 교과과목 이수 1) 요리문답(要理問答), 사도신경(使徒信經), 주기도문(主祈禱文) 독송(讀誦) 2) 기도방법(祈禱方法) 3) 죄증오방법(罪憎惡 方法) 4) 신애경순종방법 (神愛敬順從方法) 5) 교회론(教會論) 6) 입교식(入敎式)과 성찬식(聖餐式) 2. 당회의 문답 3. 자신의 신앙을 선언 4. 목사의 입교설명 5. 목사의 입교선언

제6장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1.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은 ‘뱃티즘’의 영어 철자를 따라서 성경(bible), 인간(a man), 기도(prayer), 믿음(trust), 입교(initiation), 성례(sacrament), 세례식 매뉴얼(manual of baptism)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례식 매뉴얼에서는 세례자 교육교안, 세례 집례 방안, 세례식 순서를 소개했다.

2.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성경이다. 먼저 세례 준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문헌에서는 세례 준비자들에게 성경을 교육시키는 것이 자주 언급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이다.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한 인간’인 아담을 일차적으로 뜻하며, 이차적으로 모든 인간을 뜻한다. 세례 준비자들에게 한 인간 아담의 범죄 사실과 우리에게 끼치는 죄의 영향력을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는 기도이다. 세례 준비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화시켜 가르쳐야 한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an den Vater),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durch den Sohn), 성령 안에서(im Heiligen Geist)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루어짐의 약속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한다. 기도는 세례 준비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학습 과정이다. 네 번째는 믿음이다. 세례 준비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문헌 중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서는 경배 받으실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의 보내신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입교이다. 세례 준비자들에게 성경, 인간, 기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등을 교육시키고, 신앙고백을 확인 후 입교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성례이

다. 세례 대상자들이 입교를 했다면 성례에 대한 신비스러운 비밀을 깊이 깨닫도록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세례식 매뉴얼로서 세례자 교육교안, 세례 집례 방안, 세례식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3. 세례식 매뉴얼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례자 교육 교안은 ‘뱃티즘’ 영어 철자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성경, 인간, 기도, 믿음, 입교, 성례를 다루고 있다. 둘째, 세례 집례 방안은 15가지로 요약했으며, 셋째, 세례식 순서는 유아세례식, 어른입교식, 유세자입교식과 어른입교식(혼합모델) 순으로 제시했다.

제7장 결 론

제1절 전체 요약

최근에 연구된 몇 편의 논문들은 군인 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먼저 2000년 이후에 육군에 복무한 병사들 중 입대하기 전부터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184명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설문하여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집단 세례가 신앙과 관련 없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며, 성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군종목사를 포함한 군선교 사역자와 교회에 의한 체계적인 세례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진중세례운동을 연구한 한 논문에 의하면, 충분한 세례자 교육이나 신앙고백 확인 없이 진중 세례를 집례할 경우 복음화 중심에서 형식적인 세례화 중심으로의 본질 왜곡이 되며, 부실 신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군인 교회들의 체계적이지 못한 세례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신앙과 관련 없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세례식을 지양하고, 확실한 신앙고백 확인 후 진중 세례식을 집례하고, 부실 신자 양산을 막고, 삶

속에서 윤리적 책임감을 다하는 기독교인들을 양육하고, 비전2020실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제안하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였다. 군선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제자훈련과 양육의 관점에서 연구했으며, 선교학적 분석을 통한 군선교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방안도 연구하였지만,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는 없었기에 연구의 차별성과 필요성이 표출되었다.

세례자 교육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세례의 성경적, 역사적, 개혁신학적 이해를 논함으로 본 연구의 성경적, 역사적, 개혁신학적 근거와 지지를 얻었다. 군인 교회들의 세례식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찾는 시도로서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을 연구한 결과, 세례 준비자인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 문답서인 《예수교문답》(1894)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는 통시적 문답,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한 문답, 비교와 구두진술을 통한 문답, 끝말잇기식 연결형 문답, 삶과 연계된 실천적 문답, 세례 준비자 교육교재 다섯 가지를 소개한 문답으로서 한국 장로교 초기 세례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통일된 세례자 문답교육 교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로서 장로교회의 원입교인(願入敎人)이 배워야 할 신앙안내서이며, 세례 준비자를 위한 초보적 기독교 교리서(Manual for Catechumens)인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예수교와 예수교회의 정의, 입교자 행동지침, 각식도고문(各式禱告文), 성서공부(聖書工夫), 수주일론(守主日論), 근수예배규모(謹守禮拜規模), 성례론(聖禮論), 예수교회규모(耶蘇敎會規模), 교회치리법(敎會治理法), 연보전조략(捐補錢條畧), 찬송시(讚頌詩) 등 세례자 교육 교과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세례 집례 방안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인 《목수지법》(*Pastoral Theology*, 1919)은 세례의 집례자로서의 목사, 세례를 위한 집례자의 준비로서 장로교회 ‘신경(信經)’과 ‘예배모범’ 암송, 타 교단의 세례 인정 문제, 세례의 형태 문제, 물그릇과 소반 사용 제안, 세례 대상자 좌석 배치, 유아세례 시행 방법, 성명지편(姓名紙片)의 사용, 여자의 작명법(作名法), 강도(講道)와 세례(洗禮)의 관계, 세례식 순서와 분간(分�) 제안, 교회원(教會員)이 되는 시기, 이명증서(移名證書)로 이래한 교인과 학습인(學習人) 영접 문제, 세례의 시간 장소 횡수 등을 실 천신학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례식 순서를 부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 집필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朝鮮 예수敎長老會婚禮喪禮式書)》(1924)는 《목수지법》(1919),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22)을 참고로 하여, 유아세례 순서와 성인 입교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장로교 초기 교회는 세례자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세례자 문답 교재, 세례자 교육 교재, 세례 집례 방안과 세례식 순서를 소개하는 교재를 출판하여 각 교회에서 세례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 군인 교회는 세례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가? 문제 제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례가 신앙과 관련 없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며, 성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군종목사를 포함한 군선교 사역자와 교회에 의한 체계적인 세례자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이루어진다 하여도 고작 1-2시간 정도의 피상적인 세례자 교육이 진행되며, 타 종교에 대한 자극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종교 간의 갈등 요소를 잉태하며, 복음화 중심에서 형식적인 세례화 중심으로 본질 왜곡이 되며,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실 신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젠 현대의 한국 군인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을 겸허히 시인하며

회개하며 철저한 세례자 교육을 시행할 것을 결단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을 연구한 결과 한국 장로교 초기 교회들은 세례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한국 장로교 초기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군인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고 있는 한국 교회가 세례자 교육을 등한시 하고 있음을 역사적 문헌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뱍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을 소개하였다. ‘뱍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은 장로교 초기 문헌을 중심으로 한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를 요약한 독창적 시도이다.¹²⁰⁾ 이 방안은 ‘뱍티즘’의 영어 철자 순서를 따라 성경(bible), 인간(a man), 기도(prayer), 믿음(trust), 입교(initiation), 성례(sacrament), 세례식 매뉴얼(manual of baptism)로 소개되었다. 세례식 매뉴얼에서는 세례 교육교안, 세례 집례방안, 세례식 순서를 소개하였다.¹²¹⁾

첫째, 세례 교육교안은 ‘뱍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의 순서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세례 교육교안은 제1과 성경, 제2과 인간, 제3과 기도, 제4과 믿음, 제5과 입교, 제6과 성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4과 믿음의 4-2 ‘성령’에 대한 교안은 30문항으로 되어 있다. 둘째, 세례 집례방안은 15가지로 요약했다. 셋째, 세례식 순서는 유아세례식, 어른입교식, 유세자입교식과 어른입교식(혼합모델) 순으로 제시했다.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세례

120) 신현광, “교육목회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21세기 실천신학 개론》(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243-272. 신현광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적 활동을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통합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Ibid., 255). 그는 교육목회를 교육, 예전, 돌봄과 행정으로 나누었다. 또한 교육을 성경교육, 신앙문답교육, 주일학교, 평신도교육으로, 예전을 설교, 세례, 유아세례와 교육, 성찬으로, 그리고 돌봄과 행정을 상담, 가정, 선교, 교육행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뱍티즘’ 세례자 교육방안으로 교육목회의 한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121) 다음을 참조하라.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Ph. D. dissertation, 총신대학교, 2007), 〈부록 9〉 ‘뱍티즘’ 세례자 교육교안.

자 교육방안, 세례 집례방안, 세례식 순서를 요약한 <표2> <표3> <표4>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 연구자의 미약한 논문이지만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의 결과물인 ‘뱃티즘’ 세례자 교육 방법이 육군 사단 신병 교육대, 해군·해병대 교육단, 공군 교육사를 포함한 각종 훈련소와 부대에 있는 약 1,000여 동의 군인 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를 겸손히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표 2>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분류	문헌명	의 의	세례의 이해	세례자 교육방안
신앙 교육 문서	《예수교문답》 (1894) H,S,C Nevius	1.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 문답 서 2. 《위원입교인규도》 (1895) “성서공부” 설명 부분에서 두 번 제시됨	1. 입교로서의 세례 2. ‘성령의 씻음을 받 음’ 으로서의 세례	1. 성경을 전체적으 로 꿰뚫는 통시적 문답 2.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한 문답 3. 비교와 구두진술 을 통한 문답 4. 끝말잇기식 연결 형 문답 5. 삶과 연계된 실천 적 문답 6. 세례 준비자 교육 교재 7. 성령에 대한 문답 의 부족함
	《위원입교인규도》 (1895) 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	1. 한국 장로교 최초 의 세례자 교육서 로서 장로교회의 원입교인(願入教 人)이 배워야 할 신앙안내서	1.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거 배품 2.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언 약한 은혜 입는 것 을 인 처 증거함	1. 예수교와 예수교 회의 정의 2. 입교자 행동지침 3. 각식도고문(各式 禱告文) 4. 성서공부 (聖書工夫)

분류	문헌명	의 의	세례의 이해	세례자 교육방안
		2. 세례준비자를 위한 초보적 기독교 교리서 (Manual for Catechumens)	3. 거룩한 교회로 들어오기를 기쁘게 여기는 맹세 4. 성령이 죄를 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표적 5.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식 6.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불가분의 관계 7. 세례의 성경적 근거 제시	5. 수주일론 (守主日論) 6. 근수예배규모 (謹守禮拜規模) 7. 성례론(聖禮論) 8. 예수교회규모 (耶蘇教會規模) 9. 교회치리법 (教會治理法) 10. 연보전조락 (捐補錢條畧) 11. 찬송시(讚頌詩) 12. '원입교인'의 교사로서의 '조서'

〈표 3〉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에 나타난 세례 집행방안

분류	문헌명	의 의	세례의 이해	세례자 집행방안
신앙 교육 문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경과 규약》(1910) 馬布三稅 외 6인	1.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신경' 과 한국 장로교 최초의 약식 정치조례인 '규약' 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임 2. 《대한예수교장로회회회회록》(1908)에 기록된 설명을 별도로 출판한 것임	1. 성령의 은혜의 방도로서의 성례 2. 신자의 본분으로서의 성례 3.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성례 4. 주의 종됨을 증거하는 표로서의 세례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집행 2. 유아세례 실시 3. 성례의 집행자로서의 목사 4. 입교인과 원입교인 시취

분류	문헌명	의 의	세례의 이해	세례자 교육방안
목회학 저서	《목수지법 (牧師之法)》 (Pastoral Theology, 1919) 곽안런郭安連 (Charles Allen Clark)	1.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 2.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22), 《혼상예식서》(1924), 《목회학》(1925), 《목사필휴》(1933) 출판에 영향을 끼친 책 3. 당시 한국의 문화와 상황을 반영한 예배지침을 제시한 책	1. 기독교의 도리(道理)의 심장(心腸)으로서의 성례 2. Visual Grace로서의 성례 3. 세례의 5대 의의: 1) 죄를 다 씻게 된 표 2)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는 표 3)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 4)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표 5)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표	1. 세례의 집례자로서의 목사 2. 세례를 위한 집례자의 준비: 장로교회 신정과 예배모범 암송 3. 타 교단의 세례 인정문제 4. 세례의 형태문제 5. 물그릇과 소반 사용제한 6. 세례대상자 좌석 배치 7. 유아세례 시행 방법 8. 성명지편(姓名紙片)의 사용 9. 여자의 작명법(作名法) 10. 강도(講道)와 세례(洗禮)의 관계 11. 세례식 순서와 분간(分欸) 제안 12. 교회원(教會員)이 되는 시기 13. 이명증서(移名證書)로 이래한 교인 영접 14. 학습인(學習人) 영접문제 15. 세례의 시간 장소 횡수 16. 세례대상자 교육 강조

〈표 4〉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

분류	문헌명	의 의	세례의 이해	세례식 순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 (朝鮮예수敎長老會婚喪禮式書) (1924) 박승봉 의 3명	1.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 집필된 예식서 2. 《목수지법(牧師之法)》(1919),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22)을 참고함	1. 성경의 명령으로서의 세례 2. 삼위일체 이름의 세례 3. 죄 씻는 표로서의 세례 4. 예수 사활(死活)을 합하여 받는 세례 5. 주와 연합위일(聯合爲一)하는 표로서의 세례 6. 유아세례 7. 불과 성령의 세례	1. 유아세례 순서 1) 부모의 예고(豫告) 2) 목사의 설명(說明) 3) 목사의 권면(勸勉) 4) 세례 서약(誓約) 5) 축복하는 기도(祈禱) 6) 세례(洗禮) 2. 유세자교육(乳洗者敎育) 후 입교(入敎) 시스탬구축 3. 어른 입교 순서 1) 기립(起立) 2) 목사의 설명(說明) 3) 문답(問答) 4) 세례(洗禮) 5) 기도(祈禱)

제2절 연구 및 발전 과제

1.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의 확대된 연구를 위하여 교단을 초월한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각 교단의 문헌을 연구한 후, 연합적인 연구활동으로 세례자 교육방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에서 광범위한 설문 조사와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의 신학사상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한국 초기 문헌들을 다룬다면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¹²²⁾

제3절 제 언

1. 군인 교회는 유아세례자 입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즉 군인 교회는 견신례와 견신례학습을 강조하여야 한다. 유아세례자로서 군대에 온 병사들을 위한 견신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유아세례, 입교)는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영문판(1919),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10장을 참조하여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敎育) 교과 과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²³⁾ 한국 초기 장로교의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 교과과목을 정리하자면 첫째, 요리문답(要理問答), 사도신경(使徒信經), 주기도문(主祈禱文) 독송(讀誦)이다. 상기한 세 가지를 모두 읽고 암송시키는 것이다. 둘째, 기도방법(祈禱方法)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삶 속에서 기도를 실천케 하기 위함이다. 셋째, 죄증오방법(罪憎惡方法)이다.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성결을 유

122) 심창섭 교수의 결론처럼 “미국인 선교사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선언한 중립성의 위치를 따랐다. 즉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의 중립성의 위치라는 용어로 그 침략을 이해하였다.” Chang Sup SHIM, “Role of American Missionaries and U.S. Policy during the Onset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28, No.2, 1996. “The attitude of the American missionaries basically followed the position of neutrality proclaimed by the U.S. government over Japan’s invasion of Korea. That is, the missionaries understood the invasion in terms of America’s position of neutrality.” (*Ibid.*, p. 329). 다음을 참조하라. 심창섭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서울:하교, 2007), pp. 307-332.

123) 《朝鮮예수교長老會婚禮式書》, *op.cit.*, pp. 11-12.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p. 75;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경성:조선야소교서회, 1922), 제10장 1조, pp. 209-210.

지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신애경순종방법(神愛敬順從方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론(教會論)이다. 성년이 된 후에 출생하면서 얻은 특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우가 되는 것을 기억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입교식(入敎式)과 성찬식(聖餐式)이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증거하고, 성찬 참여할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세아(乳洗兒)는 성장하여 당회 허락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때는 반드시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공식선언한 후에 입교케 하고 출생 시부터 교회에 특수한 관계가 있던 것을 표하여 깨닫도록 설명한다. 이러한 유세자교육 후 유세아는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선언한 후 입교(入敎)를 한다. 즉 유세자교육 후 입교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신으로 군인 교회는 유세자교육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군인 교회는 세례 전 세례자 교육과 세례 후 세례자 교육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세례자 교육을 통해 확실한 신앙고백을 확인한 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¹²⁴⁾ 세례 대상자는 세례자 교육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대상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해야 한다. 이러한 신앙고백이 없는 세례 대상자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격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3. 군인 교회는 성령에 대한 문답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수교문답》

124) 김창훈 교수는 마가복음의 바른 이해와 설교를 다룬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에서 마가복음 2장 13-17절을 중심으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세례식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즈음 교회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세례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일 없이 세례 받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김창훈,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서울: 솔로몬, 2005), p. 99.

(1894)은 성령에 대한 문답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싶다. 오직 네 개의 문답에서만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교문답》(1894)의 문답을 보면, 하나님 8문(1-8문), 성경 38문(9-46문), 인간 24문(47-70문), 예수 그리스도 38문(71-118문), 기도 19문(121-139문), 안식일 2문(140-141문), 성례 6문(142-147문), 제사 금지 7문(148-154문), 부활 5문(155-159문), 심판 7문(160-166문), 교외생활 4문(167-170문), 열 가지 계령 11문(171-181문)이지만, 성령에 관한 문답은 4문(106, 119-120, 134문)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넓게 보면, 하나님(성경) 46문, 인간 24문, 예수 그리스도 38문, 성령 4문으로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수교문답》(1894)이 성령의 사역을 원입교인들에게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4. 군인 교회는 세례를 개인의 입교식으로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입교식으로 보아야 한다. 강조점은 교회 공동체의 입교식이라는 것이다. 세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군인 교회는 세례를 삶 전체의 통전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¹²⁵⁾

125) 통전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 중 한 명으로서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1592-1670)를 들 수 있다. 그의 범지학적 대작품인 '인간 사물의 개선에 대한 일반적 제언'(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tio catholica)의 네 번째 책인 범교육론(Pampaedia)은 'Consultatio Cathdlica'의 중심이다. 제1권 Panegersia와 제 7권 Pannuthesia가 전체 작품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2권에서 계획된 인간과 세계의 쇄신과 개혁의 기초로서의 Panaugia, 제6권에서 개선(emendatio)의 실천에 관한 Panorthosia를 다룬다. 손(manus), 정신(mens), 언어(lingua)는 모든 존재들의 세 가지 근본 존재양식이요, 지혜의 기관(Organ)들이다. 제3, 4, 5권은 행위적 존재(manus)와 정신적 존재(mens) 그리고 언어적 존재(lingua)에 따라서 Pansophia(Pantaxia), Pampaedia, 그리고 Panglottia로 부른다. 이것들은 Panorthosia의 실천 가능한 기초로서 인간과 세계를 그 개체에 있어서 개선하는 영역들을 교시하고 있다. 정신적 존재는 그의 거주지를 정신(mens) 안에 두고 있다. 정신의 소유자는 인간이다. '범교육학'(Pampaedia)의 발전으로 코메니우스는 단순한 교육 학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기초한 신학자로서 인간 교육의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교육신학자임이 밝혀졌다. '범교육학'(Pampaedia)은 하나님의 계시 사상과 성경에 근거하여 범지혜(Pansophie, 세상의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가르치는 교육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범교육의 성경적 근거는 골로새서 1장 28절이다. "각 사람을 권하고

세례는 한 개인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다. 세례 받는 한순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군인 교회는 세례자 교육 시 입교자의 삶을 강조하여야 한다. 입교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를 볼 것이며, 십계명(十誡命)과 교회규모(教會規模)를 보고 입교한 사람이 순종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 주기도문은 세례 준비자에게 중요한 세례자 교육 자료이다. 특히 주기도문은 《위원입교인규도》(1895) '각식도고문(各式禱告文)'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교회규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규모'는 교회 밖의 사람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교회로 들어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준행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 밖의 사람이 입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강조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범교육학'(Pampaedia)은 코메니우스가 기독교의 창조신학과 그리스도의 구원신학 그리고 종말신학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준비로서의 인간교육을 제시한 것이다. '범교육학'(Pampaedia)은 기독교 관점에서 제시된 전인 교육론이며, 동시에 평생교육론이다. 즉,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전세대의 교육과정(모태에서 무덤까지)을 제시한 최초의 기독교 교육학이며, 동시에 기독교 교육과정론인 것이다. '범교육학'(Pampaedia)은 기독교 학교들의 교육선교에 새로운 비전과 그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교육과 교회교육이 자본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인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도구주의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전인교육에 실패하며,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이때에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은 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끌어냄(educatio)으로서의 교육과 위치 안에 둠(institutio)으로서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중요 요소이며, Pampaedia의 주제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정일웅,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 사상 연구", 《신학지남》(서울: 총신대출판부, 1995 여름호); Jan Marinus van der Linde, *Die Welt hat Zukunft*, bersetzt und bearbeitet von Dr. Peter Meier(Bassel: Kassel, 1992); Klaus Schaller, *Die Pädagogik des J.A. Comenius und die Anfänge des Pädagogischen Realismus Im 17. Jahrhundert* (Heidelberg: Quelle & Meyer, 1962); Jan Amos Komensky, *Wirkung eines Werkes nach drei Jahrhunderten* (Herdelberg: Quelle & Meyer, 1970); Biehl, Peter, "Johann Amos Comenius," Henning Schröer/Dietrich Zilleß(Hg.) in: *Klassiker der Religionspädagogik* (Frankfurt am Main: Diesterweg, 1989).

다. ‘교회규모’는 일곱 가지로 되어 있다. 즉 조상제사도 지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공경할 것, 주일을 정성으로 지킬 것, 부모생전에 정성으로 공경할 것, 한 남편에게 한 아내일 것, 자기 집사람을 권하여 한 마음으로 주를 믿고 섬길 것, 일하고 먹을 것이며 바른 사업을 힘쓸 것, 술과 아편연과 잡기를 금할 것 등이다. 그러므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세례 준비자들, 즉 원입교인(願入敎人)들이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세례자 교육을 통해 모든 군인 교회가 성경대로 세례를 시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기를 기대한다.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행진곡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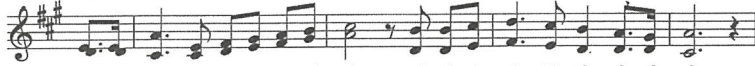
1. 빛 으 로 갑 옷 입 은 순 결 한 젊 은 이 들 을 보 소 서
2. 힘 차 게 행 진 하 며 노 래 하 는 청 년 들 을 보 소 서
3. 믿 음 의 백 성 들 아 주 님 이 추 수 곧 을 부르 신 다



오 주 여 저 들 의 심 령 에 임 하 시 읊 소 서
당 신 의 것 이 니 양 처 럼 기 르 시 읊 소 서
내 게 말 겨 주 신 생 명 과 물 질 을 다 바 쳐



당 신 의 강 한 팔 이 저 들 을 불 드 시 면 -
승 리 의 대 장 예 수 저 들 을 통 치 하 사 -
복 음 의 햇 불 되 어 아 깃 없 이 타 리 라 -



민 족 이 경 성 하 리 이 다 세 계 가 진 동 하 리 이 다
교 회 를 뜨 겁 게 하 소 서 사 회 를 깨 끗 케 하 소 서
주 님 다 시 오 시 기 전 에 인 류 구 원 밀 알 되 리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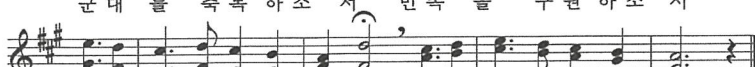
이 땅 위 에 태 어 나 서 할 일 도 많 다 만



예 수 의 - 이 름 으 로 십 자 가 군 병 만 드 시 어



어 들 을 물 아 내 소 서 세 상 을 정 복 하 소 서
문 화 를 정 케 하 소 서 세 계 를 품 게 하 소 서
군 대 를 축 복 하 소 서 민 족 을 구 원 하 소 서



새 천 년 참 된 평 화 의 방 패 삼 아 주 소 서
통 일 된 가 하 나 되 는 날 소 금 광 개 하 소 서
인 류 가 나 되 는 날 소 금 광 개 하 소 서

비전 2020을 이루라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이민족 - 을 향하신 -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
수백만 - 의 생명을 - 우리 통해 살리신 주님 -

청년을 - 살리라는 - 소중한 부르심이 있어 - 선
불타는 - 가슴속에 - 억만명의 민족을 품고서 - 죽

교의 큰 물결이 - 군대를 뒤덮었도다 - 그 -
도록 충성하라 - 심령을 인도하시네 - 성도

역사를 위하여 - 기도가 하늘을 - 찢 - 뚫도다
여 교회들이여 - 영적인 전쟁에 - 너를 부른다

이 귀한 영혼들을 깨워 내 음성 을 듣게하라 -

저 젊은 영혼들을 살려 내 백성이 되게하라 - 오

(남성) 라 너 하나님의 사람 아 - 가

(여성) 비전 20 - 20 을 이루라 -

라 너 하나님의 사람 아 - 비전 20 - 20 을 향하여 -

아, 비전 2020이여!

빠르고 힘차게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안고 바른
사랑과 섬김으로 미래성도를 잉태하면서 빛나

신앙으로 - 필승의 군대를 - 만들어왔네 군과 민
은 청년들 - 수없는 세례로 - 구원하였네 온백성

죽인 인류복음화를 향한 - 비전 2020
이 흰웃입고 두손드는 - 이천이십년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우리는 달린다
가슴 벅찬 그날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는 일한다

믿음의 - 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담대하
믿음의 - 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전진하

라 -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신다
라 -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다

비전 2020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걸
비전 2020 위하여 충성하라 생명을 걸

고 아 - 아 비전 2020이여

판 권
소 유

군선교신학 6

2008년 5월 1일 인쇄

2008년 5월 8일 발행

발행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 : //www.v2020.or.kr](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쿼란출판사

서울 종로구 이화동184-3

TEL/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 : //www.qumran.co.kr](http://www.qumran.co.kr)

E-mail ; qumran@hitel.net

qumran@paran.com

등록/제1-670호(1988. 2. 27)

값 10,000원

